#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1996–2022 보고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996–2022 보고서』

초판 1쇄 발행
2022년 6월 10일

| | |
|---|---|
| 발행처 | 서울시립미술관 |
| 발행인 | 백지숙 |
| 글, 책임 편집 | 권진 |
| 자료 정리, 편집 | 이문석 |
| 자료 정리 | 이슬비 |
| 인터뷰 | 김경호, 김홍희, 양아치, 원광연, 홍철기 |
| 한영 번역 | 바른 |
| 영문 교열 | 앤디 세인트 루이스 |
| 디자인 |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도움: 신재호) |
| 인쇄·제책 | (주)금강인쇄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이 출판물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미술관과 작가에게,
출판권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전자책 979-11-88619-68-9(95600)
종이책 979-11-88619-63-4(93600)

비매품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1996–2022 보고서

**일러두기**

행사, 작품, 프로그램, 작가와 참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도록과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내용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기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전시장소는 괄호 안에 정보를 명시하였고 개관 이후로는 별도 표기를 생략했습니다.

작품 정보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높이×너비×깊이 단위), 길이(분, 초), 협업자, 제작 및 제공자, 소장처 순서입니다. 작품의 소장처는 도록과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2022년 3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로 표기하였습니다. 작품명이 영어 외 외국어일 때는 [대괄호] 안에 국영문 번역을 넣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기본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목록화했습니다.

작품 수는 출품작의 총합이며 세부 구성 작품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작품은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관객 수와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해당 에디션의 기준과 기록에 따랐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이미지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별도의 표기를 제외하고 모든 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제공했습니다. 미술관은 확인되지 않는 저작물의 정보를 찾거나 명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저작권자를 찾고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신 분은 contact@mediacityseoul.kr로 연락 바랍니다.

# 목차


| | | |
|---|---|---|
| 보고서 안내 | | 6 |
| 정체성 형성기 1996–1999 | | |
| | 제1회 도시와 영상《1988–2002》 | 10 |
| | 제2회 도시와 영상《의식주》 | 24 |
| | 제3회 도시와 영상《세기의 빛》 | 38 |
| | 이섭과의 대화「미디어아트 = 공공성」 | 44 |
| | 보도자료 | 50 |
| 형식의 구축 2000–2006 | | |
| |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0《도시: 0과 1사이》 | 54 |
| | 제2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2《달빛 흐름》 | 76 |
| |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4《디지털 호모 루덴스》 | 92 |
| | 제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6《두 개의 현실》 | 102 |
| | 원광연과의 대화「문화기술」 | 110 |
| | 보도자료 | 114 |
| 과도기 2008–2012 | | |
| | 제5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8《전환과 확장》 | 118 |
| |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10《트러스트》 | 124 |
| |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12《너에게 주문을 건다》 | 136 |
| | 양아치와의 대화「미디어아트」 | 148 |
| 미술관과 비엔날레 2013–2018 | | |
|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귀신 간첩 할머니》 | 158 |
|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 190 |
| |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좋은 삶》 | 224 |
| | 김홍희와의 대화「미술관과 아시아」 | 240 |
| 미디어아트 2019–2022 | | |
|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하루하루 탈출한다》 | 250 |
|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정거장》 | 270 |
| | 김경호, 홍철기와의 대화「협력자들」 | 276 |
| 데이터 | | |
| | 작가 | 290 |
| | 참여자 – 전시와 프로그램 | 296 |
| | 출판 | 303 |
| | 위원 | 308 |
| | 후원 및 협력 | 312 |
| | 1988–2023 연대기 | 314 |

이 책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25년간 지속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해온 전후의 맥락과 과정을 정리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 출판된 결과보고서와 도록에서 기록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모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진화와 퇴보의 역사를 명료하게 읽고 기록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만들었던 선택과 결과들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추적하여 그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위치를 드러내고, 적절한 평가 기준을 찾는 것에 있다.

이처럼 그 역사를 거꾸로 추적하는 과정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연속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기초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여기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연대기적이고 미술사적인 사건의 선택 기준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의 관련성에 우선을 두었고, 도시, 미디어 그리고 지역 미술의 맥락에서 동시대와 연동되는 지점을 부가적으로 염두에 두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 역사를 크게 다섯 흐름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적 구분이기 전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해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미술의 제작과 향유의 형태, 태도, 관심사와 참여 방식에 근거한 구분이다.

첫 번째 「정체성 형성기」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와 영상》 전시가 세 번 개최되면서 새로운 매체가 재현하는 이미지, 이미지 보기와 보여주기를 탐색했던 실험을 다루고 있다. 동시대 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인식하며 예술과 새로운 매체의 실험이 교차했던 일련의 시도들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체성의 원형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형식의 구축」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국제 미술 행사로 처음 조직되었던 1회부터 3회까지 《미디어_시티 서울》을 살펴본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를 아우르는 이 시기 동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형식과 서울의 미래 브랜딩에 충실한 간헐적이면서 지속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세 번째 「과도기」는 미디어에 관한 확장된 해석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변화를 시도했던 시기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된 4회부터 6회까지 에디션은 미디어아트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과의 관계성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였고, 조직 운영 방식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체성의 과도기로 다루어진다.

네 번째 「미술관과 비엔날레」는 미술관과 전략적인 관계 속에서 진화해가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구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세 번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그 성패를 가늠하는 여러 복합적인 조건에 관한 질문과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미디어 아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두된 일상 미디어의 영향과 문화적 현상, 그리고 변화하는 미술 제도의 패러다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술과 예술 간의 대칭적 구도를 벗어나 동시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준다. 2019년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이 시기 동안 축적된 데이터는 기존의 공간, 시간, 경계와 범주를 가로질러 여러 전형을 해체하고 더욱 세분된 연대 방식을 모색하게 한다.

분기별로 해당 시기의 개요, 주요 도판, 작품, 그리고 프로그램 목록과 함께 수록된 인터뷰와 관련 자료는 이 보고서가 주목한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로서 제시된다. 나아가, 지난 25년간 서울에서 계속되었던 미술 행사에서 끊임없이 탐구했던 미디어아트의 정체, 혹은 예술의 동시대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준다.

함께 수록된 도판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는 VHS, 베타캠, 6 mm 테이프, 필름 카메라, DVD 등 남겨진 시청각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한 리소스와 도록을 스캔 및 촬영해서 추출하였고, 작가를 포함한 외부 제공 자료도 포함한다. 2010년대 이후의 도판들은 디지털 자료에서 선별하였다. 도판의 선별은 서울, 미디어, 예술, 그리고 미술관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주요 작품, 미디어아트에 대한 새로운 시도,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작품, 2회 이상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등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리고 오래된 미디어이건 새로운 미디어이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미를 갱신하고 확장하는 작품들을 포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25년간 개최된 세 번의 《도시와 영상》과 열한 번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소개한 작품 1,128점, 프로그램 245종 1,753회, 작가 722명/팀(개인 576명, 콜렉티브 146팀, 2회 이상 참여작가 43명/팀), 전시와 프로그램 참여자 528명, 출판 참여자 281명, 위원 184명과 후원 및 협력사 148곳을 기록한다. 여기 정리된 데이터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소장 자원으로서 지난 역사를 객관적으로 발언하고 기억한다.

이 기록이 지금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있기까지 거쳐간 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여, 과거에 있었던 시도와 실험들을 미래의 가치로 전환할 수 있게되길 기대해본다.

# 정체성 형성기 1996–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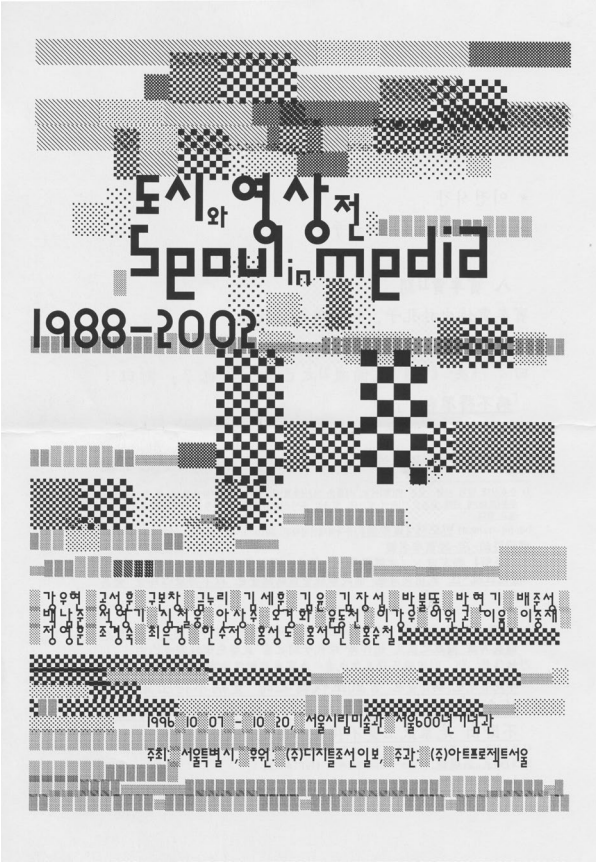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외관 모습

##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

| | |
|---|---|
| 기간 | 1996.10.7–1996.10.20 |
| 공동 큐레이터 | 김진하, 이섭, 이주헌, 박삼철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600년기념관),<br>5개 도시 14개 도심전광판, 8개 은행 정보TV |
| 작가 | 27명 |
| 작품 | 40점 |
| 예산 | 8천만 원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촉발된 배경이나 맥락은 1990년대에 연이어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과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고 PC가 일상 생활권에 보급되었고 미술계에서도 주요한 일들이 벌어진다. 1993년 국립현대미술관은 《1993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미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1995년에는 《광주비엔날레》가 출범했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설립되었으며, 두 주요한 소식은 비엔날레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려주었다.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은 '영상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같은 해 서울에서는 새로운 연례 전시로 《도시와 영상》이 기획되었다. 당시 서울시립미술관은 별도의 건물이나 영구 조직 없이 옛 서울고등학교 건물에 임시 사무실만 두고 운영되다가, 1994년 서울 탄생 600년을 기념하는 전시 《서울, 새로운 탄생》을 위해 가설했던 임시 전시장 서울600년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처음으로 전시공간을 마련하였고, '미술관운영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를 공포하는 등 본격적인 미술관 구색을 갖추어나간다. 이 시기에 생긴 《도시와 영상》(1996-1999) 전시는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한 선구적 시도이자 실험이었고,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자라나는 씨앗이 된다.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은 1996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4개 도시의 도심전광판 14군데, 그리고 다수의 은행 정보TV에서 열렸다. 지명 공모로 채택된 아트프로젝트서울은 일상과 예술의 상호성을 연구하는 김진하와 이섭이 시작했던 공공예술 기획팀으로 여기에 이주헌과 박삼철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 예산은 약 8천만 원이었고, 후원사 1곳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제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표방되는 도시의 과거와 미래라는 시공간을 암시한다. 전시 도록에서 기획자 김진하는 "전근대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기능성이 혼재하는 영상시대로의 전환기에 도시문화와 삶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보는"[1] 시도를 감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획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특정 작품이나




《1988–2002》 포스터, 1996
디자인: 안상수

작가 제공

전시 서사보다도, 도심전광판을 비롯한 도시 환경 속으로 침투하는 '이미지' 자체를 전시 프레임으로 전환한 발상과 시도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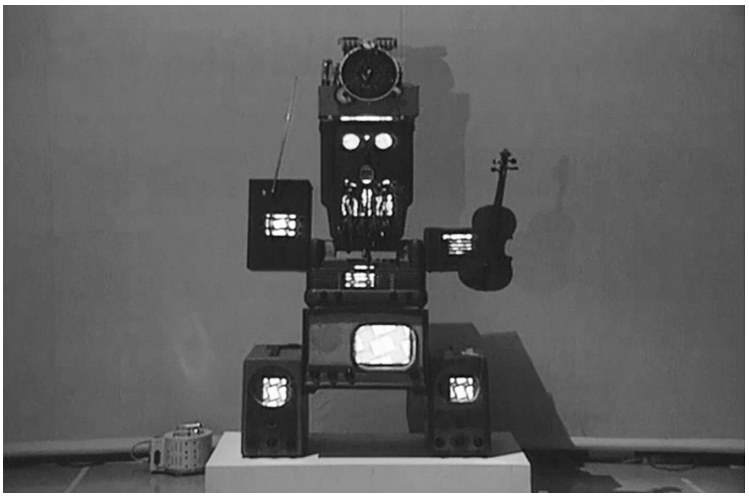
〈아트비전 시티비전〉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도심전광판과 은행 정보TV에서 나오는 광고 사이에 작품 10여 점에서 발췌한 영상과 스틸 이미지를 약 80초 길이로 붙여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광판에서 틀어진 영상과 이미지들은 전시장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며 전시장 겉과 속의 연결성을 구성했다. 《1988–2002》에 참여한 전체 작가 27명에는 한국의 1세대 미디어 작가 박현기, 그리고 1990년대 중반 한국 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았던 백남준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작가들은 애니메이션, 사진 슬라이드, 그래픽, 컴퓨터 아트, 영화, 비디오 설치 등 당대의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는 법'을 실험한 작품 40점을 소개했다. 출품작 중에서 홍순철 작가의 〈도시폭포〉는 전광판과 전시장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된다. 이 작품은 도심 속 공공 장소나 일상의 공간을 상징하는 기성 변기 4개가 전시장에 있고, 작은 모니터가 변기를 마주 보는 관객의 시선이 닿는 벽에 각 1대씩 연결되어 있다.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영상에서는 수직으로 하강하는 거대한 폭포 풍경을 담고 있는데, 다른 길이로 편집한 같은 작품이 전시장 다른 위치에 수십 대 쌓인 모니터에서 틀어지며 인공 자연을 그리고 도심전광판 전시로도 연결된다.

전시 공간 디자인은 위가건축이 맡았고, 이후 이어지는 《도시와 영상》에서 계속 참여하게 된다. 후원사였던 조선일보가 10월 10일 보도한 기사는 "첨단 미디어는 서울에 대한 미술의 사회적 비전이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찾아 나선다는 것을 상징"[2]한다고 기록한다. 운영위원으로 기획, 순수미술, 디자이너, 연극, 교육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인 김홍희, 박현기, 안상수, 강준혁, 조덕현이 참여했고, 그중 대다수가 이후 진행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여러 역할과 책임으로 관여하게 된다.

1 김진하, "도시와 영상전을 기획하며",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 도록, 서울시립미술관, 1996.
2 "[조선일보 시티비전] 5개시 14곳서 비디오아트 펼쳐", 〈조선일보〉, 1996년 10월 10일.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외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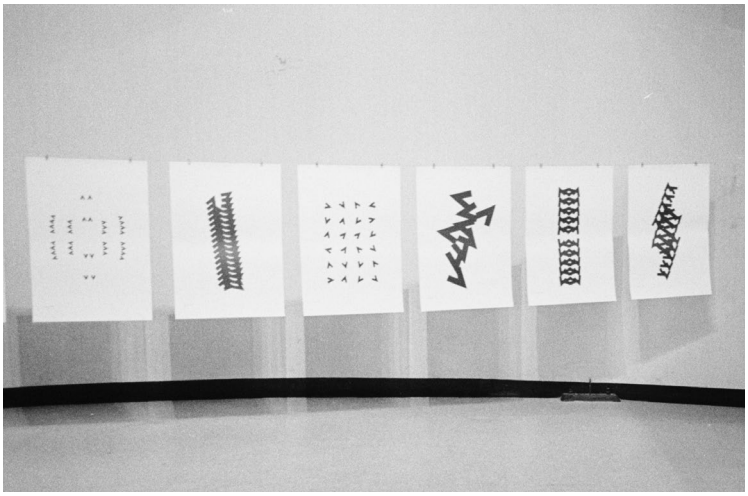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그런가요』 1호: 삼인조 가이드를 위한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구 서울600년기념관) 방문 2016.2.19
사진: 정주영



백남준
〈MUSSOGORSKY〉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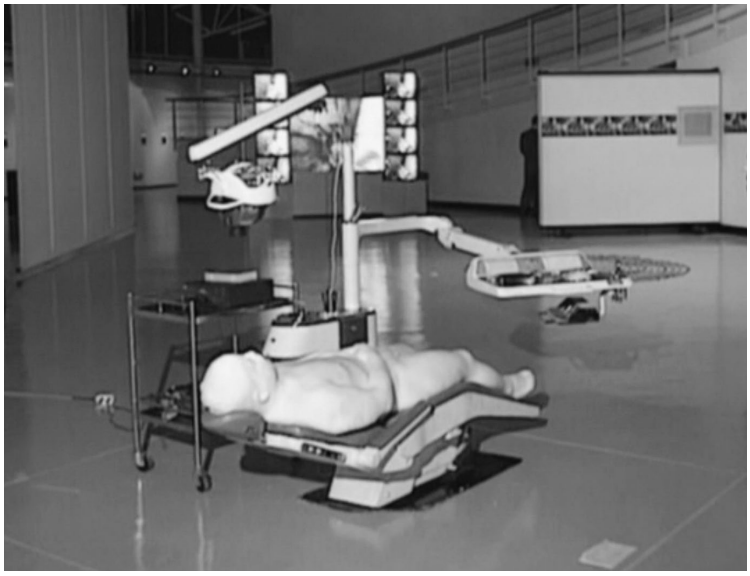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MBC 뉴스』 보도 영상(1996.10.11) 발췌



안상수
〈문자도〉

1996,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작가 제공



홍성도
〈전화와 해부학적 구조〉

1995, 사진, 의료기구,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MBC 뉴스』 보도 영상(1996.10.11) 발췌

금누리
제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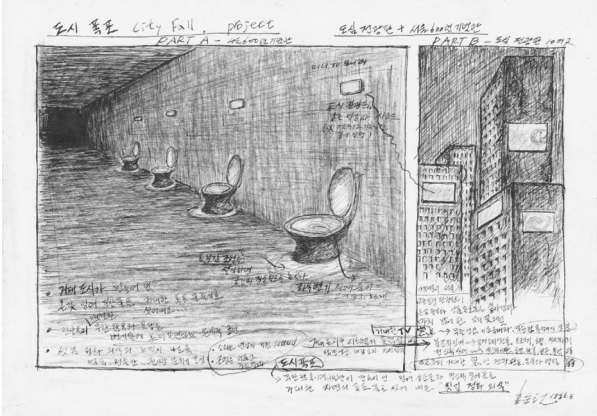
1996,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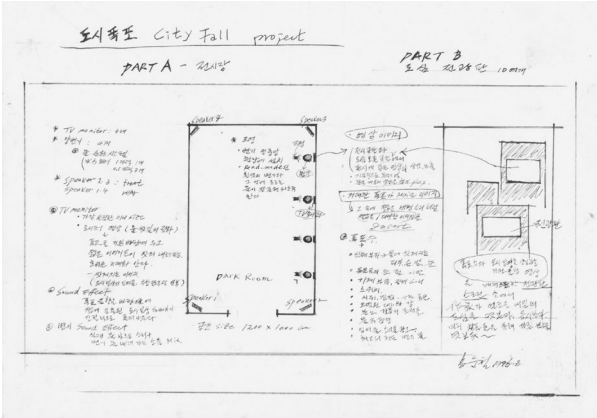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전경, 1996
사진: 조성혜
작가 제공

이강우
〈길-속도-운명〉

1996, 젤라틴 실버 프린트, 철, 컬러
스프레이, 텍스트, 504×244 cm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MBC 뉴스』 보도 영상(1996.10.11) 발췌




홍순철
〈도시폭포〉 프로젝트를 위한 드로잉

종이에 펜, 1996

작가 제공

홍순철
〈도시폭포〉

1996, 모니터와 스피커 4조,
변기 4개, 물, 8분 55초(비디오),
500×200×300 cm(설치)

홍순철
〈도시폭포〉

1996, 비디오, 8분 55초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작가 제공

제1회 도시와 영상
〈아트비전 도시비전〉, 조선일보
도심 전광판, 서울 광화문, 1996

작품제공 및 편집: 홍순철

작가 제공

제1회 도시와 영상
〈아트비전 도시비전〉

1996, 비디오, 90초

(위에서부터)

홍순철
〈도시폭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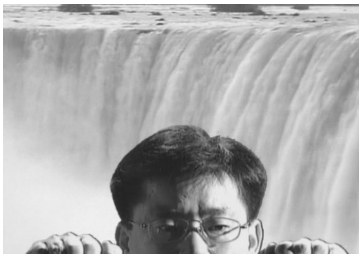
최은경
미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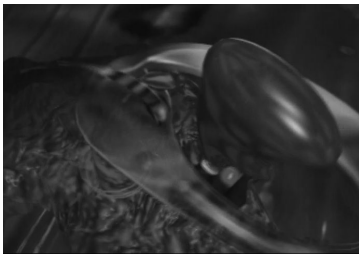
석영기
〈달의 몰락-비광2〉

이원곤
〈Silkroad Memorial-under the linden〉, 1987·1989

안상수
〈문자도〉

박현기
〈THE BLUE DINING TABLE〉





제1회 도시와 영상《1988–2002》
컨셉 이미지, 김진하, 이섭, 1996

『제1회 도시와 영상《1988–2002》』
(서울시립미술관, 1996) 발췌

# 《1988–2002》 작품 목록

## 도시와 영상: SEOUL in MEDIA, 1988–2002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600년기념관)

**강우현**

**미확인**

**공성훈**

**제목 없음**

**구본창**

**긴 오후의 미행 II**
슬라이드, 비디오

**금누리**

**제목 없음**
1996

**김세훈**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종이 위에 색연필로 채색, 가변 크기

**김윤**

**미확인**
컴퓨터 애니매이션, 2분 30초,
Digital Gallery 1996에서 송출

**김장섭**

**신도시풍경- I**
120×180 cm

**신도시풍경- II**
120×180 cm

**박불똥**

**서울께 대하여 경례**
하드보드에 포토몽타주, 가변 크기

**서울(Seoul, Seoul)이 뭐 어쨌게**
하드보드에 포토몽타주, 가변 크기

**박현기**

**The BLUE DINING TABLE**
비디오 설치, 20×120×50 cm

**배준성**

**10개의 제목**
칼라시트, 캔버스 위에 목탄, 가변 크기

**백남준**

**MUSSOGORSKY**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석영기**

**달의 몰락-비광2**
컴퓨터 합성, 40×26 cm

**비광2**
컴퓨터 합성, 40×26 cm

**심철웅**

**도시 속의 유희**
**Polygon Head**

**안상수**

**문자도**

**오경화**

**여자, 여자, 여자 I - 경아이야기**

**미확인**

**윤동천**

**'예정된 진로' 중 부분**
1996,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이강우**

**길-속도-운명**
1996, 젤라틴 실버 프린트, 철, 컬러 스프레이, 텍스트, 244×504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원곤**

**A Study for a Fluctuation**
1987, 비디오 테이프, 9분

**Silkroad Memorial-under the linden**
1989,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이음**

**캡슐 피플**
1996, 비디오, 빔 프로젝터,
컴퓨터 영상

**이중재**

**화장**
LCD 프로젝터

**토킹 픽춰(말하는 그림)**
LCD 프로젝터

**정영훈**

**아브락삭스의 시대-1000**
1995

**아브락삭스의 시대-1001-이성의 계절**
1995

**성숙한 공격적 암컷에 대한 교차영향 매트리스 분석**
1996

**조경숙**

**결핍과 망각의 염색체**
1994, 컴퓨터 합성, 이대입구 패션 스토아 설치

**설치(부분)**
1996

**최은경**

**미확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2분 30초,
Digital Gallery 1996에서 송출

**한수정**

**미확인**
트레이싱지 위에 복사 인쇄, 가변 크기

**홍성도**

**전화와 해부학적 구조**
1995, 사진, 의료기구, 가변 크기

**홍성민**

**MAN AND QUEEN**

**BYE!-KING**

**홍순철**

**도시 폭포**
1996, 모니터와 스피커 4조, 변기 4개, 물, 200×500×300 cm

**도시 폭포**
1996, 비디오, 1분 10초

## ART VISION.CITY VISION

**5개 도시 14개 도심전광판** 서울(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엘칸토, 종각 서원, 신촌 그랜드백화점, 신촌예식장, 서대문 박영, 미아리 대경, 상계동 삼양, 영등포 당산, 삼성동 유화), 수원(새수원예식장), 부천(서원), 부평(도시플라자), 부산(삼성)
**8개 은행 정보TV** 농협, 기업, 상업, 외환, 조흥, 제일, 하나, 한일

**박현기**

**The BLUE DINING TABLE**

**석영기**

**달의 몰락-비광2**

**심철웅**

**도시 속의 유희**

**Polygon Head**

**안상수**

**문자도**

**이원곤**

**Silkroad Memorial-under the linden**
1987/1989

**이음**

**캡슐 피플**
1996

**최은경**

**미확인**

**홍순철**

**도시 폭포**
1996

##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 | |
|---|---|
| 기간 | 1998.10.16–1998.11.4 |
| 큐레이터 | 이영철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도심전광판 1곳 |
| 작가 | 3개국 55명/팀(국내 52, 해외 3) |
| 작품 | 101점 |
| 예산 | 8천만 원 |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요청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던 해에 《도시와 영상》 전시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 시기 도시 일상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되고, 온라인 증권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일본 대중문화 교류가 허용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했었다. 같은 해 50주년을 맞이한 《도큐멘타 10》은 역대 최초로 비독일인이자 여성 예술감독 카트린 다비드를 선임하여 토론과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시 기획으로 주목을 받았고, 제2회 《타이베이비엔날레》는 아시아 작가들로만 초대하는 기획을 감행했다. 이처럼 국내외 미술에서 여성과 아시아로 상징되는 비주류 주체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한국미술의 국제 진출 역시 가시화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은 국내 미술 생태계의 층위가 세분하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1990), 아트선재센터(1995), 일민미술관(1996), 부산시립미술관(1998), 대전시립미술관(1998)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전국 단위로 미술 제도가 확장하였다. 《부산비엔날레》 전신인 《국제아트페스티벌》의 출범(1998)과 쌈지아트스페이스 개관(1998)에 이어 출현한 1세대 대안공간들, 그리고 한국의 비평적 미술 언어를 이끈 작가, 이론가, 평론가, 큐레이터가 공동 편집인으로 발족한 『포럼 A』 창간(1999) 등의 기록은 여러 단위와 형태로 조직되었던 당대적 미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이자 이후 벌어지는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현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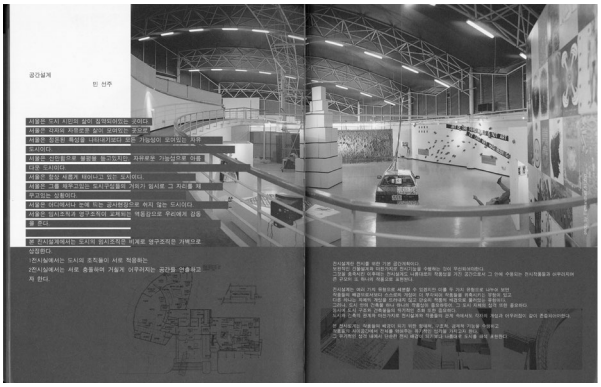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는 이와 같은 한국 미술의 지속적인 팽창과 더불어 1998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전시는 미술관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초청 기획자에게 기획의 전권을 일임하며 전시 운영을 위한 대행사가 합류한 지금의 비엔날레 조직 구성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민중미술의 연장에서 1990년대를 가늠하는 주요 화두로 공공미술을 주목했던 기획자 성완경, 제1회 《도시와 영상》부터 미술의 제도 실천에 후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작가 박현기를 비롯한 7명의 추진위원회 합의로 이영철 큐레이터가 초대된다. 8,000만 원의 예산과 외부 후원사 2곳의 도움으로 열린 이 전시에서는 20–30대 중심의 청년 작가 55명/팀을 초대하여 서울600년기념관 안팎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약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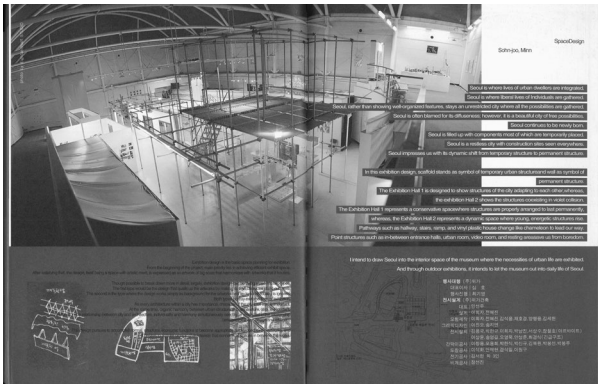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표지, 1998
디자인: 박활민, 가슴시각개발연구소

전시는 도시환경과 영상문화에 대해 '디지털적 사고'로 접근하고, 회화, 오브제, 설치, 사진, 비디오, 컴퓨터,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요리, 건축, 도심전광판 등 다원화된 매체를 아우른다.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구성된 작품들은 기존의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순수미술의 형식에 반하는 "비규격과 복수성의 미학"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 돔 형태의 전시장 공간을 압도하는 비계 구조속에서 유기적이고 임시적인 도시환경을 미디어 자체로 읽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참여했던 작가들의 예술적 태도가 실험 정신이 가득했던 1990년대의 시대정신을 투영했다고 회고한다. 《의식주》는 1996년 전국의 도심전광판에 작품을 보여주었던 〈시티 비전〉을 단일한 작품으로 압축하여 전시 광고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시와 작품'이라는 단순하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만들었다. 추진위원장 성완경은 도록에서 "한정적인 예산과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3] 등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영철은 기획의 글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로 적은 예산을 보완하는 기획의 초점으로 '상호대화성', '네트워킹', '비선형성'을 주목했다고 밝힌다.[4] 이와 같은 선택은 결과적으로 미디어아트의 핵심인 '디지털적 개념과 감각이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3 성완경, "비규격의 현실을 항해하는 작은 배",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4 이영철, "복잡성의 공간, 불연속성의 시간: 《'98도시와 영상-의식주》展의 기획과 연출에 관하여",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의식주》 전시 전경과
공간설계의 개념, 민선주, 1998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안규철
〈의자〉를 위한 목업

1998,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안규철
〈빈센트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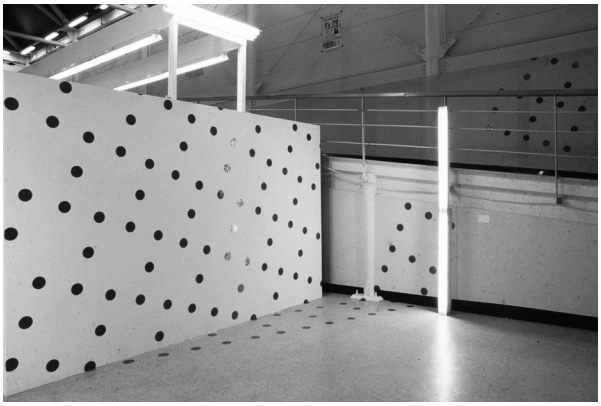
1994, 화분에 석고, 13.3×13.3×11.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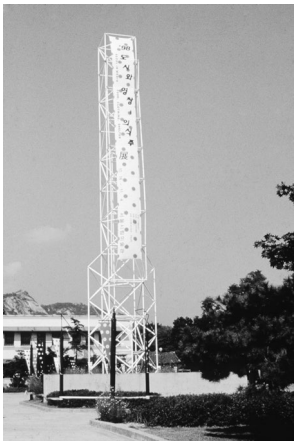
작가 제공

박이소
〈미확인 발광물체〉

1998,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김용익
〈접속〉

1998, 현수막, 우편엽서, 배너,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작가 및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제공

성남프로젝트(김태헌, 김홍빈, 박용석,
박찬경, 박혜연, 조지은, 임흥순)
〈성남모더니즘/성남과 환경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성남시청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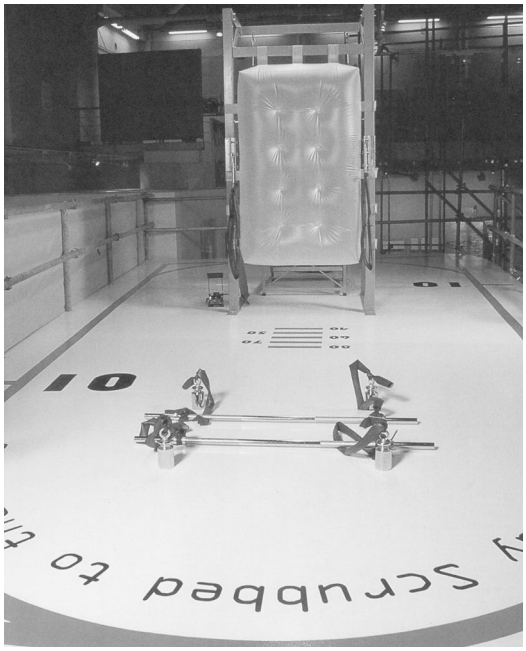
1998,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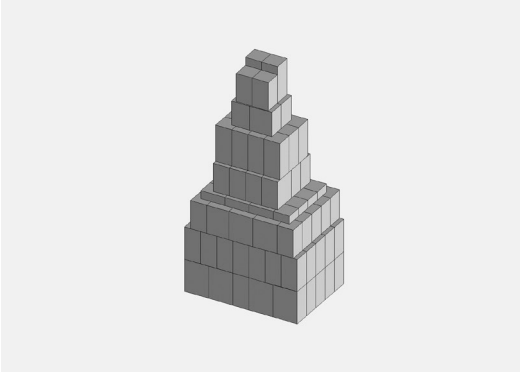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김소라
〈훌륭한 청소부를 위한 매일매일
체력단련실〉

1998,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양혜규
〈서울 시립미술관을 위한 기념비〉

1998, 목재 좌대 약 300개,
높이 약 650 cm

작가 제공

오돌또기
〈아구찜과 빠가사리〉

1998, 애니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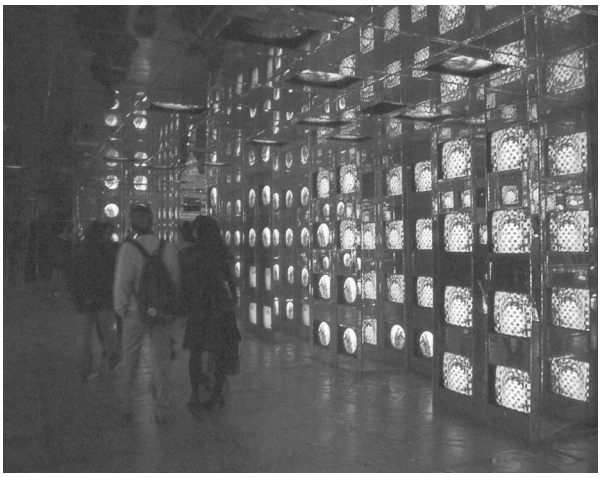
협력: 박재동(대표), 유경렬, 오성윤,
김환영, 유승배, 이종혁, 강인경, 이성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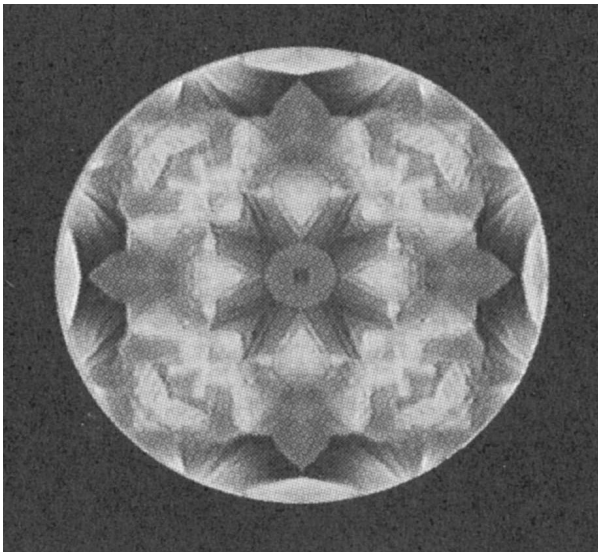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최은경, 김윤
〈정.보.감.흥〉

도심전광판 송출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노경애
〈Fast Slow〉

1998, 비디오, 15분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1996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1998) 발췌

# 《의식주》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강경아**

**Untitled Animation**
1994

**틀림없는 꿈**
1997, 비디오, 카메라, 옵티컬 프린팅, 3분 16초

**타이거 릴리와 베이비 블루**
1997

**강민권**

**옷갈아 입히기 Ⅰ**
1998, 컬러 잉크젯 프린트

**옷갈아 입히기 Ⅱ**
1998, 컬러 잉크젯 프린트

**옷갈아 입히기 Ⅲ**
1998, 컬러 잉크젯 프린트

**옷갈아 입히기 Ⅳ**
1998, 컬러 잉크젯 프린트

**옷갈아 입히기 Ⅴ**
1998, 컬러 잉크젯 프린트

**고낙범**

**3M**
1998, 캔버스에 유채

**그룹올빼미(김기덕, 이병옥, 정세진)**

**미확인**
45개의 비디오 편집

**김두섭**

**공무원이 학생에 끼친 영향**
1994–1998

**김범**

**고향**
1998, 서적 신청서, 가변 크기

**김병수**

**Illust-노트낙서모음**
1996–1998

**김병수**

**인터뷰(김판근 할아버지의 북해도 강제 징용에 대한 증언)**
1997, 비디오, 4분 30초

**쌍동이 사진**
1996

**김상길**

**각본**
1997–1998, 시바크롬

**김소라**

**How to Clean Yellow Things**
1997

**훌륭한 청소부를 위한 매일매일 체력단련실**
1998

**김오안**

**Paris**
1996, 흑백 프린트

**Paris**
1997, 컬러 프린트

**Gvilin, China**
1997, 흑백 프린트

**New Mexico**
1996, 흑백 프린트

**김용익**

**접속**
1998, 현수막, 우편엽서, 배너, 가변 크기

**김용철**

**제목 없음**
1997, 나무 조각, 38×7.6×20 cm

**제목 없음**
1997, 흰 종이에 바늘로 그림, 가변 크기

**제목 없음**
1998, 바셀린, 가변 크기

**김우일**

**곰탕과 족발**
1998, 흑백 사진

**김홍석**

**위조란(하얀 부엌)**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위조란(빨간 식당)**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위조란(진열장)**
1998, 위조란, 유리, 할로겐램프, 가변 크기

**김희경**

**전기코드**
1998, 라텍스, 가변 크기

**레이몬드 한**

**굴절**
1998, 슬라이드 프로젝션, 사진, 가변 크기

**목나정**

**나의 방**
1998, 사진 콜라주, 컴퓨터 합성, 가변 크기

**민인기**

**드라이빙 아메리카**
1998, 비디오 프로젝션

**박영국**

**사막비행 중**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박이소**

**금속 조각**

**미확인 발광물체**

**제목 없음**

**박한진**

**장승이 된 자동차(達側燮, 明側化)**
1998, 자동차, 혼합 매체, 가변 크기

**박혜준**

**채집/ 솔잎, 멸치, 돌멩이, 매미**
1997–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박활민, 노경애, 김동섭**

**sleepy**
1998, 사진, 가변 크기
사진: 박활민

**Fast Slow**
1998, 비디오, 15분
영상 스틸: 노경애

**Try me**
1998
사진: 박활민

**서정국**

**색깔있는 방**
1998, 비디오 모니터 21대, 화분, 책상 등

**미확인**
1998, 벽 위에 형광안료채색, 블랙라이트, MDF

**성남프로젝트(김태헌, 김홍빈, 박용석, 박찬경, 박혜연, 조지은, 임홍순)**

**성남모더니즘/성남과 환경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성남시청로비)**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손봉채**

**다음은 누구**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옐로우 하우스**
1998, 풍선, 색형광등, 가변 크기

**안규철**

**빈센트를 위하여**
1994, 화분에 석고, 13.3×13.3×11.2 cm

**제목 없음(숟가락)**
1994, 소설책, 은수저, 가변 크기

**의자**
1998, 나무에 채색, 가변 크기

**안승업**

**지우기, 일루전**
1998, 흙, 가변 크기

**양혜규**

**서울 시립미술관을 위한 기념비**
1998, 목재 좌대 약 300개, 높이 약 650 cm

**각종 기념물 사진**
1998

**오돌또기**

**아구찜과 빠가사리**
1998, 애니매이션, 8분
협력: 박재동(대표), 유경렬, 오성윤, 김환영, 유승배, 이종혁, 강인경, 이성윤

**박재동의 시사만평**
1998, 애니매이션, 25분
협력: 박재동(대표), 유경렬, 오성윤, 김환영, 유승배, 이종혁, 강인경, 이성윤

**오정미**

**EEEAT**
1998, 설치, 가변 크기

**우나임, 프레드 레미**

**버스정류장 「광화문역」 3곳 사진설치**
각 118×172 cm

**유진상**

**벽이 없으면 거리는 빛이다**
1998

**유현정**

**가면극**
1995/1998, 인터렉티브 컴퓨터 설치, 가변 크기
프로그래밍: 손명기

**제3의 성**
1995/1998, 2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이성강**

**우산**
1998, 애니메이션, 13분 24초

**덤불속의 재**
1998, 16분

**이수경**

**7미터 공중에 매달린 플라스틱 바가지**

**녹색 신발족**
1998, 슬라이드 프로젝션, 사진, 녹음기, 가변 크기

**이승택**

**이끼를 심는 예술가**
1976

**녹의 수난**
1996

**결국 예술은 쓰레기가 되었다**
1997, 스티로폼에 석고 채색, 캔버스에 유채, 브론즈, 가변 크기

**임정규**

**일상으로의 순환**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장정연**

**삶의 기쁨**
1998, 캔버스에 유채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1998, 캔버스에 유채

**당신이 그 누구일지라도**
1998, 캔버스에 유채

**무언가**
1998, 캔버스에 유채

**전린**

**미확인**
1998, 전시장 입구 유리벽에 먹으로 글씨, 가변 크기

**전승일**

**내일 인간**
1998, 애니메이션, 3분 30초

**정수진**

**제목 없음**
1998, 나무에 유화

**제목 없음**
1994, 종이에 잉크

**제목 없음**
1994, 종이에 잉크

**제목 없음**
1998, 종이에 잉크

**정혜승**

**제목 없음**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조범진**

**업앤다운스토리**

**주명덕**

**시립아동병원**
1968

**미확인**
1997

**주재환**

**쇼핑맨**
1998, 종이 콜라주

**칼막스**
1998, 교복, 플라스틱 옷걸이, 솔방울, 가변 크기

**미확인**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진달래팀(김두섭, 안병학, 이관용, 이세영, 이우일, 최준석, 현태준)**

**한국**
199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최민화**

**미확인**
아크릴

**최은경, 김윤**

**정,보,감,흥**
1998

**한글 프로젝트**
1998

**킴벌리 사리 톰즈**

**웬디를 찾아서**
1997, 비디오 프로젝션

**토마스 한**

**畵內畵**
1998, 나무, 은박지,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함경아**

**Typewriter**
12분 20초

**Eating**
1998, 비디오 스틸, 20분

**Fish**
10분 98초

**함양아**

**콩나물 기르기**
1998, 콩나물, 콩, 봉투, 가변 크기

**감각의 공간**
1998

**땅에서는(1분30초)**
1996, 비디오

**치즈**
1996, 비디오

**홍순명**

**한일관계 Ⅰ Ⅱ Ⅲ**
1998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1998, 카드보드에 세리그라피, 폴리우레탄 코팅, 나무에 폴리우레탄,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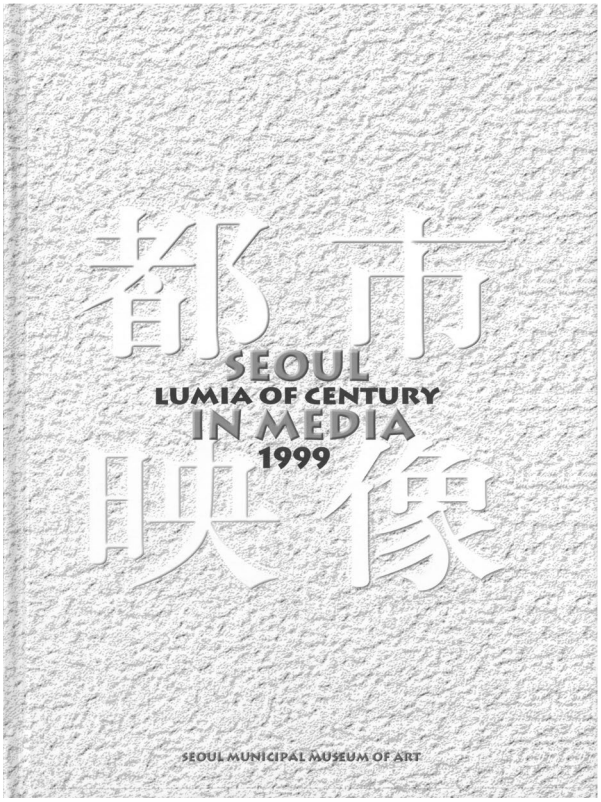
##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

| | |
|---|---|
| 기간 | 1999.10.15–1999.11.3 |
| 큐레이터 | 황성옥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 |
| 작가 | 2개국 33명/팀(국내 32, 해외 1) |
| 작품 | 39점 |
| 예산 | 8천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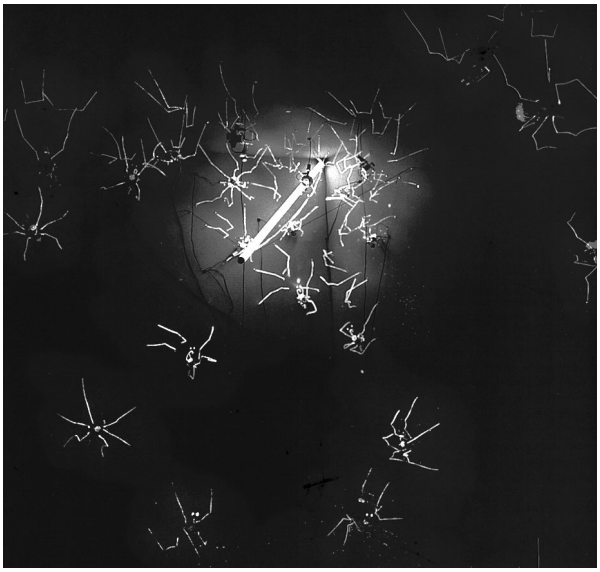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렸다. 전시는 유준상 초대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취임한 해에 치러진다. 《의식주》에서 서울시 전문직으로 전시 진행을 담당했던 황성옥이 미술관 학예사가 되면서 프로젝트 기획을 맡고, 위가 건축 역시 예년에 이어 전시 디자인을 맡았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5곳의 외부 후원과 협찬을 유치한 전시는 '빛을 이용해서 변화하는 형태, 색, 무늬를 표현하는 루미아'를 모티브로 비디오, 슬라이드, 설치, 키네틱 아트,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탐구하는 작가 33명/팀의 작품 39점을 소개했고, 2종의 도록을 남겼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외에도 첫 《도시와 영상》에서 시도했던 도심전광판과 은행 정보TV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열린 미술'을 표방한다. 전시 도록에서 유준상 관장은 "도시의 환경과 조건을 이해하는 목적을 가진 현대미술"[5]을 강조했고, 고건 서울시장은 "2000년부터 국제적인 영상미술 축제인 《미디어_시티 서울》을 열 것"[6]이라고 밝힌다.

5 유준상, "도시의 표정이 되는 '영상'",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1999

6 고건, "도심전광판이 영상 미술관으로 변신: 시민곁으로 바싹 다가서는 영상예술",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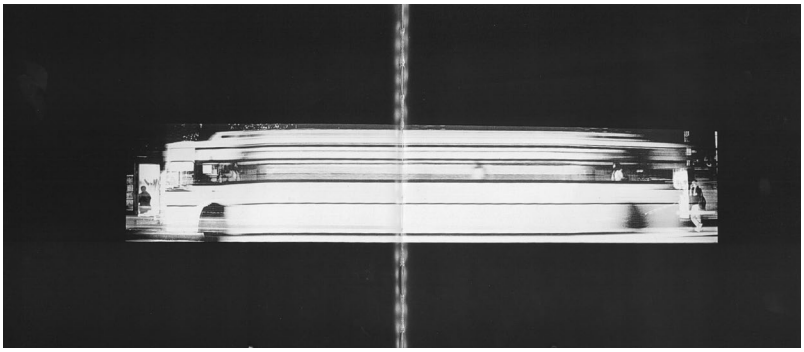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
표지, 1998
디자인: 주식회사 위가 기획팀



최우람
〈서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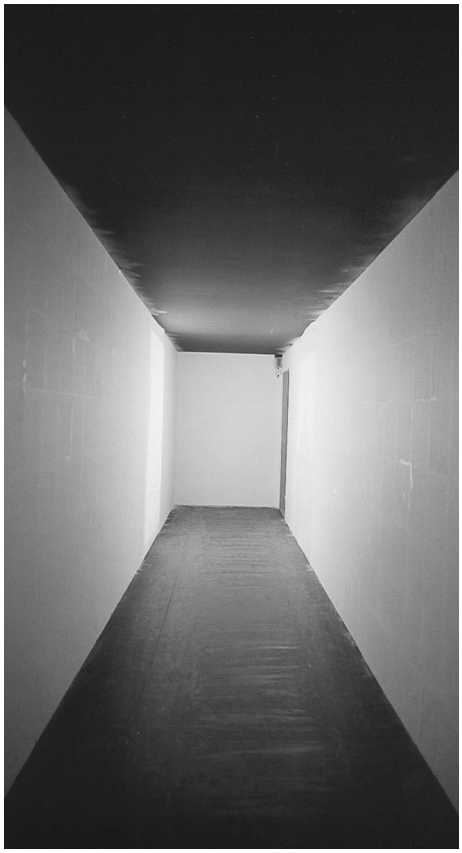
1999, 블랙 라이트, 모터, 센서,
500×600×240 cm

서울시립미술관 설치 전경, 1999
작가 제공



김현희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1999) 발췌



김승영
〈모든 것이 그러하다〉

『제3회 도시와 영상《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1999) 발췌

# 《세기의 빛》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600년기념관)

**권순환**

**인공사육**
화분, 흙, 렌즈, 모니터, VCR,
프로젝터, 300×600×250 cm

**김대수**

**저녁에**
1999, 흑백 사진 인화

**김승영**

**모든것이 그러하다**

**김영진**

**존재의 시, 청각의 환기를 위한 보행**
4대의 비디오 프로젝터, 4대의 LDor
VHS 플레이어, 그네, 벽지, 가변 크기

**그네 - 유전되지 못하는 꿈**
2006, 4채널 HD 비디오,
700×700×300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김재권**

**TA9910**

**김진수**

**제목 없음 #0003**

**제목 없음 #0004**

**제목 없음 #0005**

**김해민**

**不條理한 알리바이**

**김현희**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김희선**

**Going '99**

**A Visitor-Hee**

**문주**

**세 개의 시간**

**서양범**

**비디오 퍼포먼스**
비디오 퍼포먼스

**신현중**

**환생을 위한 물고기, 방생을 위한 인간**
1999

**염은경**

**미확인**

**오상길**

**Highway star**

**올리버 그림**

**Hello/Goodbye**
4대의 프로젝터, 리어 스크린

**우순옥**

**빛드로잉**
1996, 1999, 2대의 슬라이드
프로젝터, 162장의 슬라이드, 레코더,
자동조절장치, 500×500×280 cm

**육태진**

**지평선(地平線)**
1998, 비디오 프로젝터, 슈퍼
VHS·VCR 앰프 스피커, 반구형
알루미늄 용기, 스크류 프로펠러,
모래, 저속 모터, 가변 크기

**윤영석**

**신재의 손**

**이기일**

**잠정/暫停**
프로젝터, VCR, 설치, 가변 크기

**이용백**

**촉각적 다큐멘터리**

**검은숲**

**건조한 대화**

**이주용**

**꿈꾸는 역사**

**이준목**

**보여지는 손과 보는 손**
1996, 패널 4개에 각종 손 모양의
합성수지 오브제, 모니터 6대,
VCR, 아크릴박스,
각 122×243.6×24.5 cm(패널),
각 46×36.5 ×47 cm(모니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임영선**

**THE Room of Host**

**임충섭**

**공깃돌**

**임희중**

**개기일식, 해바라기**
1999

**조덕현**

**세기의 빛**

**조태병**

**일상을 넘어 '99-9**
벽걸이형 모니터 12대, PC 2대,
각 40×41×6 cm(모니터),
300×300 cm(설치)

**채미현**

**The Earth's Gesture - Wom hole**

**최우람**

**서식지**
1999, 블랙 라이트, 모터, 센서,
500×600×240 cm

**한계륜**

**멈추기 위한 달리기**
비디오 프로젝터, 반투명 스크린

**허구영**

**백운호수에서 포말을 보다**
모니터 7-8대, 선반, 240×350 cm

**허은경**

**Enlightment**
조명, 슬라이드 프로젝터, 아크릴
박스, 물, 1800×2400×40 cm

**황규태**

**외로운 하나의 섬**

# 이섭과의 대화, 「미디어아트 = 공공성」

이섭(기획자)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 큐레이터

**권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11회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로 시작하기 전 1996년부터 세 번 개최된 《도시와 영상》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전신으로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적습니다. 제1회 《도시와 영상》에 어떻게 참여하셨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려요.

**이섭** 저 역시 보관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 현재 기억하는 데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희 선생님을 통해 서울시에서 《도시와 영상》이라는 전시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일종의 지명 공모로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현대의 도시와 영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틀을 어느 정도 생각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김진하, 이섭)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을 제안해 드렸고, 저희 의견이 상당 부분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진** 그러한 틀을 사전에 정한 주체가 미술관일까요, 아니면 운영위원회(김홍희, 박현기, 안상수, 강준혁, 조덕현)일까요?

**이섭** 네. 저는 위원회로 기억하고 있어요. '도시'와 '영상'이라는 두 개념을 묶은 것은 위원회 쪽 생각이고, 저희는 두 개념을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를 정리한 셈이죠.

**권진** 말씀하시는 실천의 주체가 아트프로젝트서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나요?

**이섭** 초창기에는 회사명을 아트프로젝트서울이라고 부르다가 아트컨설팅서울로 바꿨습니다. 준비는 1996년 즈음부터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1997년 여름부터 시작했어요.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이 저희의 첫 수주사업이었고요. 2010년 12월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권진**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으로 회사를 만드셨나요?

**이섭** 공공미술. 저희는 이것을 공공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퍼블릭 아트'에서 '아트'를 미술로 한정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생각이었어요. 저는 당시 김진하 씨와 함께 나무화랑/나무기획을 운영했었어요. 《1988-2002》의 공동기획자 이주헌 씨는 한겨레 미술기자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잠시 문필가로 지내다가 학고재에 막 합류했었고. 또 다른 공동기획자 박삼철 씨가 『스포츠 조선』에서 열심히 미술기자로 일할 때입니다.

당시에 저는 김진하 씨와 함께 관련한 연구를 하며 '퍼블릭 아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아트 인 아메리카』 같은 외국 서적과 잡지를 통해서 글로벌 미술계 흐름을 어떻게 우리하고 맞춰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었죠. 박삼철, 이주헌 씨가 연구에 동참하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술이 나아갈 방향이 공공예술이라는 생각에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미술인이 '포스트모던' 흐름을 타면서 미술관이나 화랑을 '화이트 큐브'로만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지나치게 전문지식만을 추구하는 미술의 한계는 뻔하다. 작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잠재적 향유 주체나 관객을 장벽에 가두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고상한 취미활동 정도로 여기는 컬렉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공공예술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와 영상》 제안이 왔을 때 전혀 부담 없었고요.

**권진** 네, 그렇다면 도심전광판에서 작품을 보여준다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었겠네요.

**이섭**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현실화하는데 중심이 있던 반면, 위원회 쪽에서는 여전히 화이트 큐브 형태의 전시를 강력하게 필요로 했고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을 저희 책임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죠. 지명 공모라는 방식이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거니 저희 내부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갔고요.

**권진** 작가 선정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었나요?

**이섭** 당시는 영상을 다룰 수 있는 작가들이 공공성을 염두에 둔 작품을 만들지 않을 때예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영상이 미술의 장르처럼만 정립되다 보니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전혀 문제로 염두에 두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저희는 그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고, 그래서 보여주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희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 거죠.

**권진** 아트컨설팅서울이 지향하던 공공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섭** 그 주제는 이 인터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겠지만, 간략히 말해 당시 저희는 예술 행위가 일상 행위와 괴리되지 않는 어떤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약 10년 넘게 아트컨설팅서울의 활동과 작업은 계속 그 방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권진** 1996년은 영상을 포함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실험이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바로 전으로 가늠됩니다. 작가 선정과 작품 구성에 관련한 또 다른 기억이 있다면요?

**이섭** 저희가 생각했던 미디어아트의 공공성을 실현한 사례로 생각나는 분은 홍순철 작가예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상원 교수로 계셨고, 그전에는 방송국 PD로도 활동하셨죠. 홍순철 작가와의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변기에 물 내려가는 장면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600년기념관)에서 보여줬고, 도심전광판에 들어가는 작품은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권진** 도심전광판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아트비전 시티비전〉 진행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이섭** 당시 전광판이 운영되는 형식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든 90초가 조금 안 되는 길이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분량으로 편집한 작품을 두 시간에 한 번씩 보여주는 계약을 했죠. 뭐, 계약이라기보다는 전광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방식에 맞게끔 편집했었습니다.

**권진** 프로젝트 참여작가가 1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작가 10명의 작품을 모아 90초 이내로 편집해서 같은 파일을 여러 장소에서 송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섭** 그 당시는 송출이 아니었어요. 전광판마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준비한 테이프로 틀어주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디스크자키가 플레이어에 핀을 올려놓고 음을 들려주듯이.

**권진** 24시간 운영이었나요?

**이섭** 아니요. 24시간까지는 아니고, 새벽 한두 시까지는 했을 거예요. 처음 2–3일

동안은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서 틀어주는지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죠.

**권진** 도록 기록으로는 작품을 보여준 전광판이 서울만이 아니라, 수원, 부천, 인천,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이섭** 당시는 서울에 전광판이 14개 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권진** 그럼 서울에 있는 모든 전광판을 쓰신 거네요?

**이섭** 아마 강남에 한군데서만 못했을걸요. 그리고 수원이나 부천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전광판은 사실 한 번밖에 확인을 못 해서 약속대로 계속 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권진** 은행 정보TV에서 작품은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이섭** 은행에 홍보용 TV가 있었어요. 가령 '무슨 통장을 만드세요'라는 광고나 은행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에 대한 문자가 나오는 곳이죠. 기존 콘텐츠 사이에 저희가 요청한 영상을 시간당 한 번씩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하루에 예닐곱 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요.

**권진** 〈아트비전 시티비전〉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이섭** 지금도 『한겨레』에서 활동하시는 노형석 기자가 막 미술기자로 일을 시작할 때인데, 그분이 이 프로젝트에 큰 흥미를 보였어요. 함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옥 전광판을 보려고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서, 노형석 씨가 행인들에게 무작위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더군요. 전광판에서 노상 보여주는 광고와 다르지 않게 여겼어요. 아니, 그저 색다른 광고처럼 여겼지, 이게 '작품이구나' 하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권진** 기술 인력 섭외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았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섭** 당시 우리가 쓰던 카메라나 작가들이 쓸 수 있었던 카메라로 찍은 파일들은 큰 전광판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기술 차이가 있었죠. 기존 파일 그대로를 전광판에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색을 분해하고 다시 병렬하는 기술적 전환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하시는 엔지니어를 찾아다니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전광판에 트는 영상 소스를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전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작품을 틀기로 한 조선일보 전광판에

들어가는 소스를 작업하는 기술자분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연결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해결했어요.

**권진** 홍순철 작가님의 〈도시폭포〉를 비롯해서 전시에서 소개했던 작품과 작가들에 대해 조금 더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설** 그 작품에서 폭포 위에 있던 사람-작가 본인이 화면에서 바깥을 넘어 보는 것처럼 연출된 장면 하나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참여작가 중 박현기 선생님은 우리나라 비디오아트 1세대 작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미디어아트를 선구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고, 미디어아트가 우리의 장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소개하기 위해 이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안상수 선생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나누었어요. 미디어로서 타이포에 관한 얘기를 했고, 작품도 출품해주셨죠. 백남준 선생님 역시 역사적으로 기억될만한 꼭짓점들을 하나씩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출품해주셨죠.

**권진** 전시장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작품이 전시장과 도심전광판에서 보여졌으니까요. 〈아트비전 시티비전〉에서 소개된 영상들은 아까 말씀 주신 '색다른 광고' 이상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설** 전문가들보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분들이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주었던 것은 기억해요. 뭐, 작품보다 드라마가 나왔으면 더 즐거워하셨겠죠. (웃음) 그런데 거리 행인들의 동선이나 움직임을 보면 특정 전광판에 관심을 두기에는 90초 가까운 시간이 굉장히 길 텐데,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볼만한 내용인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술작품이라고 만들어진 영상들이 상업용 이미지의 임팩트 만큼 전달력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작품들의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억 못 하는 건 당연했고, 저희끼리만 재미있는 시도에서 멈췄어요.

**권진** 전시장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설** 이 전시가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개최된 첫 번째 전시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나 방향성이 없었어요. 작가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요구도 다 달랐죠. 유일한 방법이라면 작가들이 알고 있는 방향을 좇아 거기에 맞춰주는 정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1988-2002》 전시에 대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탄탄한 주제 의식을 가지지 못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적 흐름은 이해했지만, 그 흐름에 담아야 할 내용을 관철하지 못했었고, 그만한 작가들을 모으지도 못했어요. 한편으로 돈 버는 방법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있었어요. 막상 전시 만드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성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남들은 무시해도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트프로젝트서울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일주아트하우스에서 작품 제작을 위한 공동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일이었어요.

**권진** 초창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시청각 기록 자료에서 일주아트하우스에서 생산한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작가들이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절의 실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작품들이 《도시와 영상》부터 출발해서 아트컨설팅서울이 시도했던 미디어 교육과 프로덕션 프로그램을 통해 파생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도시와 영상》 전시를 위해 할당된 예산은 기억나시나요?

**이섭** 7–8천만 원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이들이 시대와 전환에 관해 얘기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도 미디어아트와 관련한 여러 방식의 해석과 접근을 만들어왔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니 요즘 보여지는 여러 시도들이 부분적으로 과거에 이미 선행된 것들로의 회귀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향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더욱 유의미해질 수 있을까요?

**이섭** 의미가 생기려면 전환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지 말고, 전환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작가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 번도 예술가라고 불려보지 않은 어떤 사람의 영상을 예술작품으로 초대하는 거죠. 예술에서 전환점은 작품으로부터 증명되니까.

**권진**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섭** 보내주신 질문지 받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름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잖아요. 우리가 이 말에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서울'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분석할 수 있을까? 대도시, 코스모폴리탄 등등 연상어들이 있겠죠. 또 서울이 그런 의미라면, 어떤 연관성으로 서울을 '미디어시티'라 부를 수 있는가? 혹은 서울은 '미디어시티'일까? 이런 반문도 따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미디어시티'가 되어야 할까? 는 자기반성도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비엔날레라는 방식으로 미디어시티를 지향하는, 또는 미디어시티라고 자임하는 것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화하고, 퇴보하고, 정체하는 것들을 속살 드러내듯이 다 보여줄 수 있을까? 말(이름) 속에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 빌딩의 전자캔버스

## 조선일보「시티비전」

# 비디오아트 펼친다

### 서울-부산등 5개市 14곳… 작가12명 참가

／金翰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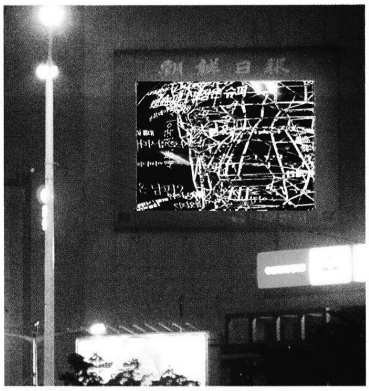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10곳과 부산 수원 부평 부천 등 모두 14곳의 초대형뉴스전광판 조선일보시티비전이 화려한 비디오아트작품 상영공간으로 바뀐다. 삭막한 도심을 문화의 향기로 채울 이같은 기획은 서울시가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기획전 「도시와 영상」전의 하나로 이뤄지는 것. 조선일보시티비전을 전자캔버스 삼아 펼쳐질 이 비디오아트쇼에는 김윤 박현기 심철웅 안상수 오경화 육근병 윤동천 이융 이원곤 최은경 홍성빈 홍순철씨등 12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간판등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이미지를 영상언어로 옮긴 작품을 1분짜리 2편으로 편집, 매일 30~50회 시티비전을 통해 상영해 도심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같은 기간동안 서울시립미술관 정도600주년기념관에서는 백남준 구본창 금누리 석영기 이강우씨등 사진-비디오-설치 등의 방법으로 영상매체를 다뤄온 국내작가 28명이 서울을 뮤뮤과 월드컵을 상징하는 「1988-2002」를 주제로 다양한 영상언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장르의 작가들로 구성된 이 전시는 컴퓨터그래픽, 컴퓨터아트, 복사미술, 소형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을 통해 영상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다룬다.

전시를 주관한 ㈜아트프로젝트 서울의 김진하씨는 『다양한 첨단 미디어를 활용해 서울에 대한 미술사회학적 비전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찾아나선다는 의미에서 첨단미디어의 상징인 조선일보시티비전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와 영상」전과 함께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시와 미술」전도 개최하고 있다. 하제전시문화가 주관하는 「도시와 미술」전은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화가들의 눈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로 서정태 석철주 오용길 이왈종 이종상 이철주씨(한국화)와 구자승 김정헌 송용신제남 이석조 황주리씨(서양화) 등 1백1명의 회화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도시와 영상」전과 「도시와 미술」전은 서울시가 전문미술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자치 1주년기념

## 서울시립미술관서도 「도시와 영상-미술」展



◇광화문 네거리 등 전국 14곳의 조선일보 초대형 전광판 시티비전을 통해 선보일 심철웅씨의 비디오아트작품 「변이에 대한 연구」.

**김한수, 「빌딩의 전자캔버스 비디오아트 펼친다」**
**『조선일보』, 1996. 10. 4**

보도된 기사는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기획전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아트비전 시티비전〉 프로젝트가 동시대 이미지를 영상 언어로 옮긴 1분 길이의 작품 2편을 매일 30-50회 도심에서 전시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같은 시기에 1백 1명의 회화작품을 전시하는 《도시와 미술》전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문 미술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공모 형태로 선정한 두 전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인식이 진일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인다.

# 미술 경계 허물고 '대중곁으로'

## 서울시립미술관 '도시와 영상…' 展

대중문화의 위력에 대한 콤플렉스, 그리고 순수한 미적 표현이 벽에 부닥쳐버린 미술의 한계. 이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가 영상매체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다. 미디어 아트 틀 안에서,또는 다른 방식 안에서 미술은 잃어버린 대중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미술과 일상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600년기념관에서 11월 4일까지 계속되는 '도시와 영상전—의식주'는 미술이 안고있는 이런 고민들과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흔돈스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02-736-2024.

서울시가 지난 96년에 이어 두번째 마련한 전시로 지난번 전시가 일종의 위탁이었다면 이번은 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큐레이터가 전권을 갖고 전시를 준비했다.

지난 97년 광주비엔날레를 이끌었던 미술평론가 이영철(계원대 교수)씨가 그 권한을 받았다. 분간도 밝히듯이 이번 전시는 광주의 노하우를 최대로 활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당시 본전시 '공간'전 참여작가이기도 한 건축가 민선주(위가건축사무소)씨가 공간연출을 맡아 기존 전시장 틀을 과감히 깬 색다른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58명이라는 많은 작가의 작품을 1, 2층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 속에 적절히 배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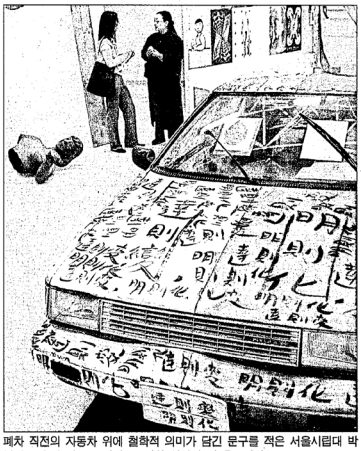
이승택(설치)·안규철(입체)·홍승혜(평면)씨 등 일부 알려진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미술이 아니었던 것이 중심에 놓여 있다. 순수회화나 조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미로찾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동선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설치작업들도 어렵다기보다 유희적인 것들이 많다.

### 신인작가들 대거 참여 비엔날레 노하우 살려 '유희적' 공간 만들어

마치 방향조종을 하는 배의 키같은 모양으로 미술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유인하는 설치물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는 기존의 여러 장르들이 서로 접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장르의 돌출 가능성, 즉 변화와 이동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시장 밖 승징진 앞 홍순명의 작업과,미술관 앞 버스정거장의 임민욱의 사진작업,최은경·김윤의 서울시내 전광판 작업은 과거와 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폐차 직전의 자동차 위에 철학적 의미가 담긴 문구를 적은 서울시립대 박한진 교수의 작품도 이번 '도시와 영상전'에 출품됐다. 김진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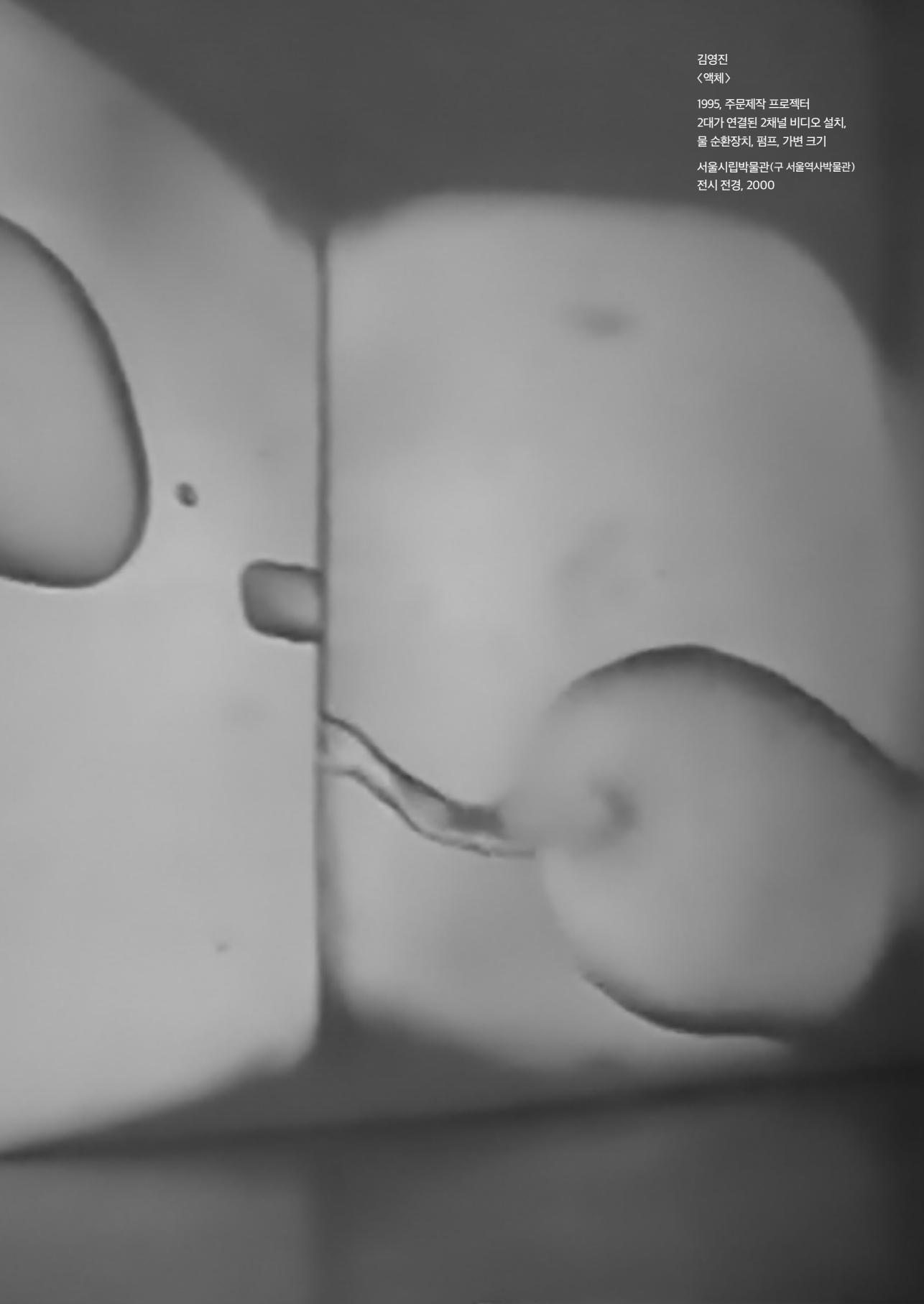
전시장 외관 벽면에 쓰여진 유진상의 작업 '벽이 없다면 거리는 빛이다'는 삭막한 도시환경이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획자의 의도가 녹아있는 글귀다.

안혜리 기자
<hyerec@joongang.co.kr>

**안혜리, 「서울시립미술관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
**『중앙일보』, 1998. 10. 26**

기사는 순수미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미디어아트를 주목한다. 58명의 참여작가가 1, 2층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로 이어지는 독특한 전시공간 구조 안에서 기존 전시장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실험을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시에는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이 대거 초대되었고 "미술이 아니었던 것을 미술의 중심으로 옮겨놓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다.

# 형식의 구축 2000–2006



김영진
〈액체〉

1995, 주문제작 프로젝터
2대가 연결된 2채널 비디오 설치,
물 순환장치, 펌프,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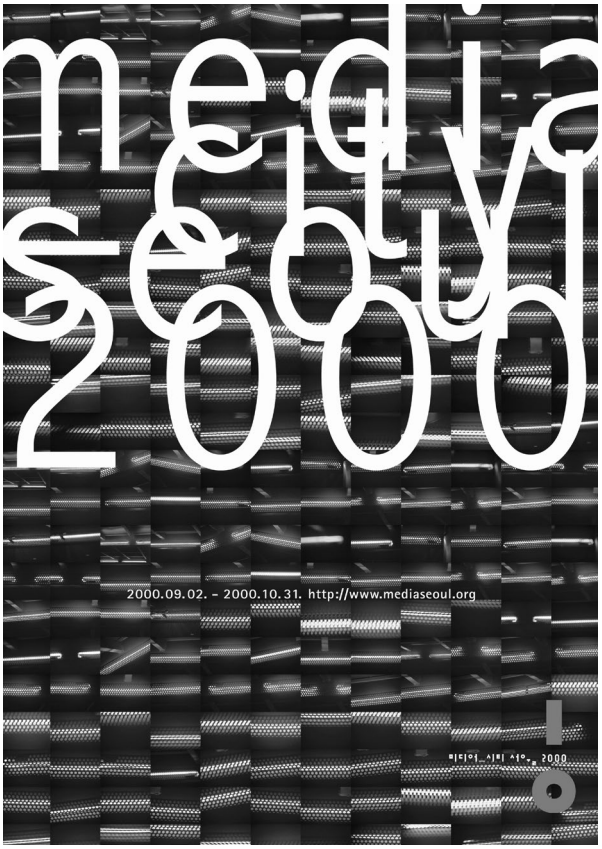
서울시립박물관(구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전경, 2000

##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0《도시: 0과 1사이》

| | |
|---|---|
| 기간 | 2000.9.2–2000.11.15 |
| 총감독 | 송미숙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박물관(구 서울역사박물관), 도심전광판 42곳, 서울13개 지하철 역사,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고등학교), 서울600년기념관 |
| 작가 | 21개국 93명/팀 참여(국내 28, 해외 65) |
| 작품 | 96점 |
| 관객 | 221,096명 |
| 프로그램 | 21종 265회 |
| 참여자 | 11,247명 |
| 예산 | 64억 원 |

1999년 전국적으로 영화, 인형극, 과학, 공예, 자연미술 등을 주제로 한 문화축제가 생겨나면서[7] 서울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사업 구상에 돌입했다. 미래 서울을 위한 밀레니엄 사업은 첨단 도시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서 브랜딩을 지향하였고, 기술, 예술, 산업이라는 세 축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가 먼저 조직된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미디어아트'의 시의성을 확인한 서울시는 예술성, 생산성, 그리고 대중성을 아우르는 (가칭)《서울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발》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축제의 규모에 따른 일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기존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미디어 사업을 수행하던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시행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행사의 전문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는 협의체로 기획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약 6회에 걸친 기획자문회의에서 《미디어_시티 서울》이 공식 행사명으로 결정되었고, 송미숙 조직위원을 총감독으로 위촉한다. 시비 보조금 65억 원, 협찬 8개사, 후원 21곳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첫 행사는 그 취지에 걸맞게 실무 조직으로 파견공무원과 전문계약직 52인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무국이 편성되었고, "개발 시대를 지나 성숙한 미디어 문화의 전개를 이루기 위한 가치를 조망하고 미래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서울"[8]을 주제로 사업의 구성이 본격화된다.

2000년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린 미디어_시티 서울 2000《도시: 0과 1사이》는 5명의 큐레이터와 함께 19개국에서 초대된 작가 93명/팀의 작품 96점을 소개했고, 221,096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제레미 밀러와 바바라 런던 기획의 〈이스케이프〉는 서울시립박물관에서 당대의 현대미술과 미디어 환경이 '자연으로의 도피'[9]로 역설되는 작품 47점을 아우른다. 당대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가 열거된 작가 명단에는 김영진, 박현기, 박찬경, 백남준, 이불 다섯 명의 한국 작가가 포함되어 있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기획의 〈시티비전/클립시티〉는 1996년 제1회 《도시와 영상》에서 시도했던 도심전광판 프로젝트의 확장 버전으로, 서울의 주요 도심전광판 42군데서 전광판 환경에 맞춰 선정 및 제작된 작품 25점을 송출했다. 광고, 텔레비전, 도시




《도시: 0과 1사이》 포스터, 2000
시각 아이덴티티: 안상수

환경, 카메라의 감시 등 현대의 이미지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초대 작가 중에는 한국 작가 김소라, 백남준과 영화감독 송일곤이 포함되어 있다. 유병학 기획의 〈지하철 프로젝트〉는 서울시 13개 지하철 역사를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 시스템' 개념으로 전이하여 작가 24명/팀의 사운드, 오브제, 이미지 설치 작품 24점을 소개하였다.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작가 모두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서울이라는 특정 풍경 속에서 작품이 관객과 바로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며 벌어지는 현상을 주목한 프로젝트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그 외에도 박신의 기획의 〈디지털 앨리스〉는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으로 28명/팀의 인터랙티브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고등학교)에서 소개했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서울600년기념관에서 21개의 최신 미디어 산업 기술을 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동시에 작가와의 대화, 학술대회, 강연, 국제 큐레이터 워크숍, 공연과 공모전은 물론 상시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거대 미디어 축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게시판 의견'은 대체로 생소한 '미디어아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는 시도가 흥미롭지만, 행사장 시설의 불편함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의 미숙함을 언급했다. 서울시정 모니터 요원들이 참여한 평가에서는 5개 주요 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서울시가 이와 같은 행사를 추진한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이스케이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조직위원회는 장기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자체 평가를 남긴다. 보도는 TV 방송, 일간지, 집지, 전문지 등 총 304회의 실적을 남겼는데, 그중에서 국내 언론은 처음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전시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와 호기심을 보였다.[10] 해외 언론은 한국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산업 기술과 예술을 함께 접목한 독특한 기획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지하철과 도심전광판 프로젝트가 보인 공공성과 기능성에 대해 "도시 속에서 상쾌한 공기"[11]와 같다며 주목했다. "서울시가 《미디어_시티 서울》을 2년마다 정례적으로 열어 서울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정착시킬 것"[12]이라고 보도한 기사도 있다.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 본관[13]으로 둥지를 옮기고, 3급 독립사무소로 기구를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미술관의 행보를 시작한다. 유준상 관장은 2001년 의뢰했던 백남준의 〈서울랩소디〉를 2002년 5월 미술관에 영구 설치하고, 1998년 기증된 천경자 컬렉션, 그리고 2001년 기증된 가나아트 컬렉션을 상설 전시실에서 소개하는 등 취임 후 첫 3년간 높은 수준의 소장품을 중심에 둔 미술관 브랜딩에 박차를 가했다.[14] 이렇게 미술관이 학예 정체성 설정에 집중하던 시기, 미술관 밖에서는 199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문화예산[15]의 영향으로 창작지원금의 다양화, 미술상, 온라인 포스팅, 레지던시 교류 등 미술 생태계의 저변이 확장된다. 1999년에는 온라인 전시 데이터베이스인 『이미지 속닥속닥』이 개설되었고, 2000년에는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일주아트하우스의 미디어아트 전용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예술의 다학제적 교류에 중점을 둔 아트센터나비가 재개관하였다. 그리고 신진 미술, 레지던시, 다원 예술에 대한 제작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2000년대 신진 미술인의 활동과 국제 미술 교류에 중점을 두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도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도시: 0과 1사이》 개막식 장면과
가로등 배너 설치 모습, 2000

7 춘천인형극제(1989), 광주비엔날레(1995), 부산국제영화제(199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1997), 경주세계문화엑스포(1998),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199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2001),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2004),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2004)가 차례로 생겨난다.

8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단,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결과보고서』,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2001.

9 제레미 밀러, "이스케이프", 『media_city seoul 2000』, 2000,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pp.29–41.

10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단,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결과보고서』,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2001, pp.282–288.

11 "Art or Advertising? Either Way, Seoul Is Mesmerize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4th, 2000.

12 "《미디어_시티 서울》 2년마다 정례화 서울상징 문화제로", 〈국민일보〉, 2000년 7월 1일

13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은 대한제국 시기 독일공사관이 있다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이 있던 자리로, 1928년 일제가 경성재판소 건물로 신축하였다. 광복 후 1995년까지 대법원 건물로 사용되다가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건물 전면은 그대로 살리고 뒷면은 헐고 보수하여 현재 미술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006년에는 원형으로 남은 전면 현관부만 서울시 소재 국가 등록문화재 제237호로 지정되었다.

14 김아영, 「복합적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미술관과 소장품」, 『SeMA Coral』, 2020. http://semacoral.org/features/young (접속일: 2021년 12월 2일)

15 박보나,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난 대중문화의 경향 연구: 1997년부터 2003년을 중심으로" (미술경영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p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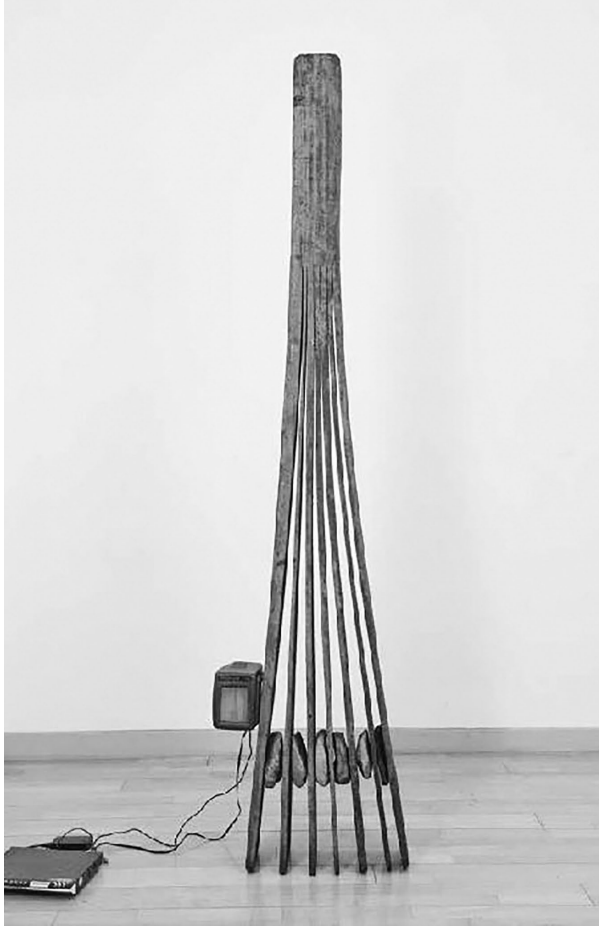
《도시: 0과 1사이》의 〈이스케이프〉
전시 관람 모습, 2000

백남준
〈시장〉

2000, 모니터 25대에 2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그리고 혼합 재료, 가변 크기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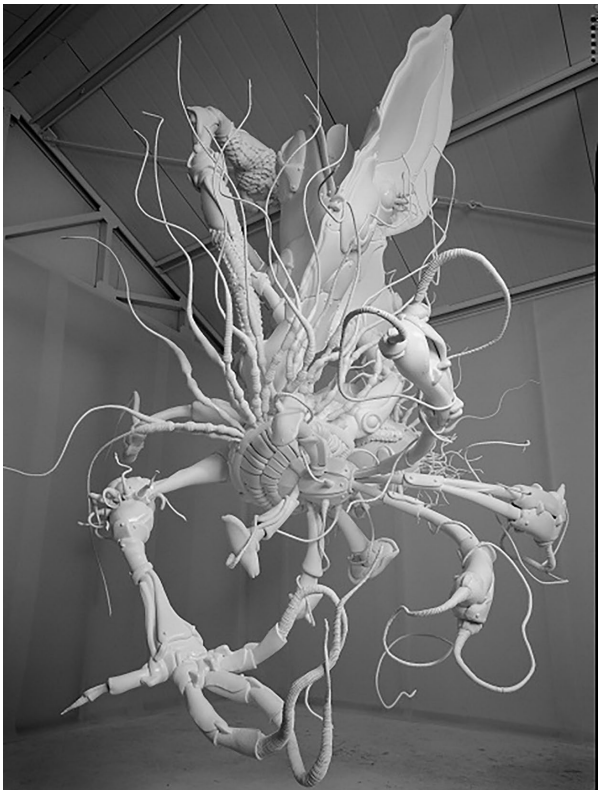
서울시립박물관(구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전경, 2000



박현기
제목 없음

1993, 돌 6개, 나무, 모니터
1대, 디비디 플레이어 1대,
245×63×23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이불
〈아말릴리스〉

1999, 알루미늄 골조에 EVA 패널,
에나멜 코팅, 210×120×180 cm

아라리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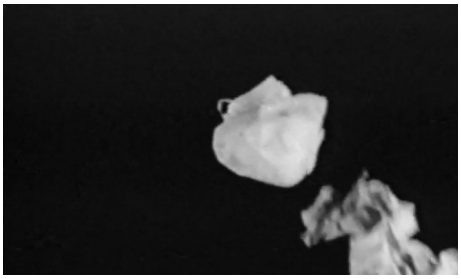
사진: 이재용
© 이불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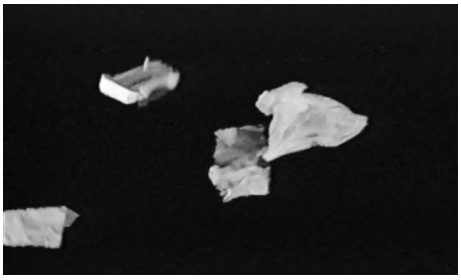
박찬경
〈세트〉를 위한 모형

2000,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에
2채널 슬라이드 설치, 싱크로나이저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제작 지원

작가 제공





김소라
〈날아다니는 쓰레기
- 시시한 에너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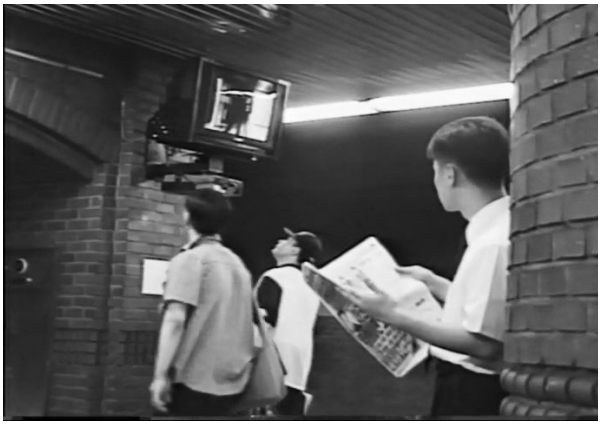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도시: 0과 1사이》 기록영상 발췌

이건용
〈일하는 남자와 여성〉

2000, 캔버스에 아크릴,
3000×260 cm

2호선 시청역 전시 전경, 2000
〈지하철 프로젝트〉 기록영상 발췌



이수경
〈지하철 2호선〉

2000, 비디오 설치, 120×90 cm

2호선 시청역, 신도림역, 잠실역,
동대문운동장역 전시 전경, 2000
〈지하철 프로젝트〉 기록영상 발췌

함진
〈설치〉

2000, 혼합 매체, CC 카메라,
모니터와 유리, 가변 크기

2호선 시청역 전시 전경, 2000
〈지하철 프로젝트〉 기록영상 발췌

김해민
〈24번의 호흡〉

2000, DVD 플레이어, 모니터와
철 프레임, 200×200 cm

5호선 광화문역 전시 전경, 2000
〈지하철 프로젝트〉 기록영상 발췌

《도시: 0과 1사이》 연계 프로그램
〈디지털 청소년 문화제〉,
서울시립박물관 앞 광장,
2000.9.3–29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서울600년기념관 전시 전경, 2000
《도시: 0과 1사이》 기록영상 발췌

# 《도시: 0과 1사이》 작품 목록

## 이스케이프

| | |
|---|---|
| 큐레이터 | 바바라 런던, 제레미 밀러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박물관(구 서울역사박물관) |
| 작가 | 12개국 45명/팀 참여(국내 4, 해외 41) |
| 작품 | 47점 |

**게리 힐**

**의식의 방**
1996, 컴퓨터 컨트롤러, 프로젝터, 테이블, 단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작가 및 시카고 도널드영갤러리 제공

**그레이엄 거신**

**추락(7200-1)**
1998–2000,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 컴퓨터 컨트롤러,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를 통한 랜덤 재생, 가변 크기
작가 제공

**김영진**

**액체**
1995, 주문제작 프로젝터 2대가 연결된 2채널 비디오 설치, 물 순환장치, 펌프,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댄 그레이엄**

**태극**
2000, 양면 거울, 스테인리스, 백색 자갈, 유리, 풀 그리고 물로 이루어진 야외 설치, 가변 크기

**로드니 그레이엄**

**할시온 수면**
1994, 프로젝터가 연결된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 26분
런던 개인 소장

**로리 앤더슨**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중**
1975, 비디오 프로젝션과 점토 모형, 가변 크기
뉴욕 솔로몬R.구겐하임미술관 제공

**로즈마리 트로켈**

**트위들**
1997, 프로젝터가 연결된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뉴욕 바바라글래드스톤갤러리 제공

**리암 길릭**

**발전**
2000, 은색 문자 시트지,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코비-모라갤러리 제공

**4면의 빌딩을 위한 발로베너**
2000, 은색과 검은색 현수막,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코비-모라갤러리 제공

**린 허쉬만 리슨**

**사이브로버타, 텔레로보틱 인형**
1970–1998, 원격 로봇, 라이브 카메라 2대, 컴퓨터, 인터넷 연결,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코비-모라갤러리 제공

**마르코 브람빌라**

**접근**
1999, 행잉 모니터 4대에 4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9분(반복 재생)
뉴욕 헨리우르바흐갤러리 제공

**마르코 펠리한**

**트러스트-시스템 21**
2000, 컴퓨터, 라이트박스, 미사일 모형, 방음재,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마이클 주**

**이주**
1997,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와 프로젝터, 가변 크기
작가 및 뉴욕 안톤컨갤러리 제공

**매튜 바니**

**크리매스터 4**
1994, 35 mm 필름으로 전환한 비디오, 42분 40초
비디오그래피: 피터 스트리에트만
뉴욕 바바라글래드스톤갤러리 제공

**매튜 크롤리**

**비디오카메라를 켜고, 열기, 그리고 고장날 때까지 찌르기**
1999, 모니터에 단채널 비디오, 10×15 cm(설치), 7분(비디오)
작가 제공

**바바라 스타인먼**

**92 비트**
2000, 프로젝터 2대에 2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20분(반복 재생)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제공

**박찬경**

**세트**
2000,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에 2채널 슬라이드 설치, 싱크로나이저, 가변 크기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제작지원

**박현기**

**제목 없음**
1993, 돌 6개, 나무, 모니터 1대, 디비디 플레이어 1대, 245×63×23 cm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발리 엑스포트**

**끝없고 독특한 현들의 멜로디**
1998, 좌대 위 모니터 25대에 25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백남준**

**시장**
2000, 모니터 25대에 2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그리고 혼합 재료, 가변 크기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브루스 나우만**

**생방송 테입 되는 칸막이 복도**
1969–1970, 10분, 복도에 라이브 카메라와 재생기가 연결된 모니터 2대에 2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뉴욕 솔로몬R.구겐하임미술관 제공, 판자 콜렉션, 1992

**비토 아콘치**

**퍼포먼스를 명하라**
1974, 모니터 2대에 라이브 카메라와 재생 기기가 연결된 2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혼합 재료, 30분(반복 재생)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제공

**빌 비올라**

**인사**
1995, 프로젝터가 연결된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뉴욕 휘트니미술관 제공

**샘 테일러 우드**

**시간 때우기**
1994, 프로젝터 4개가 연결된 4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화이트큐브갤러리 제공

**스탠 더글러스**

**누·트카·**
1998, 프로젝터가 연결된 단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컬러, 6분 50초(반복 재생)
작가 및 뉴욕 데이비드즈위너갤러리 제공

**스티브 맥퀸**

**잡기**
1999, 프로젝터가 연결된 단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런던 안소니레이놀즈갤러리 및 뉴욕과 파리의 매리안굿맨갤러리 제공

**스티븐 피핀**

**새로운 별자리**
1999, 유리 구체, 160(지름)×100(높이) cm
뉴욕 개빈브라운엔터프라이즈 제공

**씰 플로이어**

**카루셀**
1996, 25 cm 레코드판, 턴테이블, 앰프, 그리고 스피커,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리손갤러리 제공

**안젤라 블록**

**음향픽셀장**
2000, DMX 컨트롤러 4대와
블랙박스 1개, 자작나무 목판,
인쇄한 알루미늄 시트, 백색
유리, 확산시트, 유리, 전선, RGB
조명 시스템, 마이크, 프리앰프,
50×50×250 cm
런던 매그나니갤러리 제공

**알렉산더와 수잔 마리스**

**설악산 기행**
2000, 동기화된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가 프로젝션하는 스크린 2장,
그리고 지도,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이불**

**아말릴리스**
1999, 알루미늄 골조에 EVA 패널,
에나멜 코팅, 120×210×180 cm
작가 제공, 아라리오 소장

**자넷 카디프와 조지 뷔레스 밀러**

**뮤리엘 호수 사건**
1999, 극장 미니어처에 비디오 프로젝션
작가 제공

**장페이리**

**먹기**
1997, 모니터 3대에 3채널 비디오/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저우티에하이**

**공항**
1997, 단채널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상하이 상아트갤러리 제공

**제인과 루이스 윌슨**

**스타시 시티**
1997, 프로젝터 4대가 연결된 4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리손갤러리 제공

**조안 조너스**

**패턴이 없이 움직이며**
1998, 프로젝터 2대와 모니터가
연결된 3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뉴욕 팻갤러리 제공

**차이궈치앙**

**대 폭발, 소 폭발**
1999, 프로젝터 4개가 연결된 4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찰스 롱과 스테레오 랩**

**타버린 암갈색의 집회**
1998, 혼합 매체, 사이잘(식물),
스펀지, 그리고 사운드 장비를
둘러싼 설치, 272×145×338 cm
스톡홀름 마가신3 제공

**캐리 영**

**베이스 매터**
2000, 점토 조형물, 진열장,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크리스타 조머러와 로랑 미뇨노**

**라이프 스페이시스 II**
1999, 컴퓨터로 제어하는 프로젝터가
연결된 단채널 비디오/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키스 타이슨**

**연결된 캡슐언어**
1999, 전화선, 마이크로프로세서
101개, 구리, LED, 전기장치,
가변 크기
런던 안소니레이놀즈갤러리 제공,
취리히 링기에르 소장

**타시타 딘**

**사운드 미러**
1999, 16 mm 비디오 프로젝션,
사운드, 7분(반복 재생)
작가 및 런던 프리스스트리트갤러리
제공

**토니 아워슬러**

**악마/천사**
1999, 비디오 프로젝션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푸른 불꽃**
1998, 유리 섬유 구조물, 비디오
프로젝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페리 호버만**

**통쾌한 인터페이스**
1995–2000, 컴퓨터 제어장치,
프로젝터 2대가 연결된 2채널
비디오/사운드 인터렉티브 설치,
벽과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작가 및 뉴욕 포스트마스터즈갤러리
제공

**폴 라미레즈-조나스**

**정지했다가 연주하기**
2000, 악기들과 알람
시계로 이루어진 설치,
700×100×200 cm
작가 제공

**피에르 비스무스**

**작동불가에 대한 예방으로서 -
연결되지 않은 고든의 비디오 작업**
2000, 전원선을 뺀 모니터에 단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리손갤러리 제공

## 지하철 프로젝트 퍼블릭 퍼니쳐

| | |
|---|---|
| 큐레이터 | 유병학 |
| 전시 장소 | 서울 13개 지하철 역사-2호선 시청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동대문운동장역, 왕십리역, 건대입구역, 잠실역, 교대역, 사당역, 신도림역, 영등포구청역, 충정로역, 5호선 광화문역 |
| 작가 | 2개국 24명/팀 참여(국내 23, 해외 1) |
| 작품 | 24점 |

**김기철**

**부드러운 물**
2000, 스피커, 증폭기, CD
플레이어와 알루미늄, 50×400 cm
2호선 영등포구청역

**김상길**

**하진 전화기를 말리다**
2000, 긴 박스와 시바크롬 인쇄,
265×300 cm
2호선 을지로3가역

**김유선**

**플랭크 벽**
2000, 목판에 자개와 옷칠,
160×360 cm
5호선 광화문역

**김해민**

**24번의 호흡**
2000, DVD 플레이어, 모니터와
철 프레임, 200×200 cm
5호선 광화문역

**김형기**

**시네메트로**
2000, 인쇄된 이미지와 적외선
센서, 300×120 cm
2호선 시청역 - 충정로역

**박무림**

**목적(지)의 기억과 진행**
2000, 스테인리스 프레임, 모니터,
CC 카메라, 사진과 혼합 매체,
200×150×80 cm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現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박지아**

**비단길**
2000, 모니터, VCR, 스피커, 증폭기, CD 플레이어와 철골 구조물, 가변 크기
2호선 잠실역

**박찬국**

**유쾌한 지하철**
2000, 폴리에스터 필름에 실크스크린 그리고 투명 아크릴 패널 설치, 240×3000 cm
2호선 을지로4가역

**베른트 할프헤어**

**Transplantation**
2000, 사진과 아크릴, 270×140 cm
2호선 시청역, 신도림역, 사당역,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

**서정국**

**별들의 고향**
2000, PB 합판에 형광도장 그리고 블랙라이트, 950×420 cm
2호선 잠실역

**수파티스트**

**스포츠 들러리**
2000, 배포용 인쇄물, 가변 크기
13개 역사 내

**유현미**

**퍼즐거울**
2000, 플렉시 글라스와 유리, 170×180 cm
2호선 교대역

**이건용**

**일하는 남자와 여성**
2000, 캔버스에 아크릴, 260×3000 cm
2호선 시청역

**이경희**

**역사(歷史)와 역사(驛舍)**
2000, 사진, 아크릴 그리고 혼합 매체, 150×1200 cm
5호선 광화문역

**이동기와 강영민**

**서브웨이 코믹 스트립**
2000, 혼합 매체, 275×7750 cm
2호선 을지로3가역

**이수경**

**지하철 2호선**
2000, 비디오 설치, 90×120 cm
2호선 시청역, 신도림역, 잠실역, 동대문운동장역

**이정란**

**변기 모형도 의자**
2000, 섬유 강화 플라스틱 오브제 7개 설치, 100×100×40 cm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이준목**

**3인의 만찬**
2000, 섬유 강화 플라스틱 기둥과 혼합 매체, 270×140 cm
2호선 건대입구역

**임동식**

**성춘향과 이몽룡전**
2000, 패널 4개, 컬러 케이블, 스피커와 CD 플레이어, 210×285 cm
2호선 충정로역

**청소 프로젝트**

**지하철 청소 프로젝트**
2000, 지하철 2호선 차량 내 배포용 인쇄물, 가변 크기
2호선 지하철 차량 내부

**최인호**

**왕십리, 2000년 가을**
2000, 적재한 벽돌 위에 우레탄 페인트 그리고 흙, 750×750 cm
2호선 왕십리역

**한수정**

**그림자로 보기**
2000, 컬러 시트와 오브제, 가변 크기
2호선 잠실역, 충정로역, 사당역

**함진**

**설치**
2000, 혼합 매체, CC 카메라, 모니터와 유리, 가변 크기
2호선 시청역

**홍명섭**

**쉼턱**
2000, 종이와 유리, 45×45×15 cm
5호선 광화문역과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보도구간

## 시티 비전/클립 시티

| | |
|---|---|
| 큐레이터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
| 전시 장소 | 서울 42개 도심전광판 |
| 작가 | 16개국 25명/팀 참여(국내 2, 해외 23) |
| 작품 | 25점 |
| 도움주신 분들 | 디지틀 조선일보 이진광, 진용하, 박영미, 이성복, 김태호, 익산 성윤철, 서울시립미술관 황성옥, 미로 비전 정혜련, 애드 코리아 정완영, 샤프 박대중, 인디 스토리 김은아, 대한화재해상보험 전재연, 한국일보 김현진, 키키 커뮤니케이션 이혁규, 서울시 홍보과 박장열,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전대현, 사진작가 최영준, 대한매일신보사 이종웅, 미술세계 손경여, TBS 전소연, 인터기획 김연섭, 광주시립미술관 김선희, 부산시립미술관 조선령, 탑항공 한지운 |

**그룹 A12와 그룹 스탁커와 그룹 클리오스트라트와 스테파노 보에리**

**20.30**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김소라**

**날아다니는 쓰레기 - 시시한 에너지들**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나빈 라완차이쿨과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툭툭**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나카니시 요시히사**

**교차로**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다라 번바움**

**태극기**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더글라스 고든**

**순간의 침묵**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와 올레 스히렌**

**102**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렘 쿨하스와 애드가 클라이네**

**Works**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백남준**

**아날로그 어셈블라쥬**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샹탈 아커만**

**앉아있는 여자**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송일곤**

**플러쉬**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아서 자파**

**말(馬)**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안리 사라**

**우오모 두오모**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알렉산더 클루게**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힘든 배움의 과정**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요나스 오케르룬드**

**눈**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자하 하디드**

**캠퍼스 센터**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제프 프레이스**

**152 10 프레임 초상화들**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코가네자와 타케히토**

**제목 없음**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크리스 커닝햄**

**오! 내사랑**
1997,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인간**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토마스 데만트**

**회전계단**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폴 파이퍼**

**순수한 산물이 미쳐가다**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피터 기달**

**승천**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피필로티 리스트**

**납작하게 하기**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하룬 파로키**

**뮤직 비디오**
2000,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테이프, 20초/50초

# 《도시: 0과 1사이》 프로그램 목록

**media_city seoul 2000 국제심포지움 〈21세기 도시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일시** 1999.11.27 9:3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진행·참여** 로이 애스콧, 제프리 쇼, 나카무라 케이지, 난조 후미오
질의: 심철웅, 박신의, 이원곤, 임옥상

**내용·참여**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를 초청하여 이들의 작업 과정을 소개하고, 실무현장의 전문가들을 통해 미디어 센터의 운영철학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

---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화 메트로폴리스〉**

**일시** 2000.9.1–3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진행·참여** 감독: 프리츠 랑
음악: 고트프리드 후페르쯔
연주: 서울시 교향악단
지휘: 베른트 헬러

**내용·참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와 무성영화 메트로폴리스의 기획을 연계하여 선보이는 행사

---

**〈디지털 앨리스〉**

**일시** 2000.9.2–15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참여** 기획: 박신의

**내용·참여** (주)삼성 엔지니어링 〈좋은 환경 만들어요〉(2000), (주)와이즈 북 〈전자책 체험e-book〉(2000), (주)조이북 〈동화 인터넷〉(2000), 강보경, 양지영 〈우리말, 글 생각〉(2000), 구선영 외 4인 〈이모션〉(2000), 대니 로진 〈핑거 페인트〉(2000), 류재수, 이호백 〈노란 우산〉(2000), 마사키 후지하타 〈작은 물고기〉(2000), 미셸 자프르누 〈깃털 채우기〉(1989), 〈비디오 마법사〉(1986–1990), 박성훈 〈TV개집〉(2000), 〈TV새〉(2000), 〈창문〉(2000), 〈한자 여행〉(2000), 〈캐릭터〉(2000), 〈홈페이지〉(2000), 〈기념엽서 만들기〉(2000), 〈피아노 댄스〉(2000), 〈아기의 정원〉(1992), 손성희 〈그림 그리기〉(2000), 안은선 외 2인 〈애니메이션의 원리〉(2000), 안필연 〈날으는 신발〉(2000), 여동헌 〈벽화작업(앨리스 나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2000), 영상애니메이션센터 & 올리버 그림 〈동물 농장〉(2000), 유현정 〈시계〉(2000), 이용덕 〈그림자 벗기〉(2000), 이용백 〈소리로 서울이 보여요〉(2000), 이인청 〈벽화작업(안녕 앨리스)〉(2000), 이주현 외 4인 〈한자 쓰기〉(2000), 임수연 외 3인 〈인체탐험〉(2000), 정소연 〈부드러운 놀이터〉(2000),카미유 우터백 & 로미 애키터브 〈텍스트 레인〉(2000), 타마스 발리츠키 〈숲〉(1993), 홍익대학교 디자인정보문화센터, 양영완 〈컴퓨터 가구〉(2000), 홍지연 〈벽화작업(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00)

---

**〈영상실습 프로그램〉**

**일시** 2000.9.2–10.31 1일 4회

**장소** 시립미술관 제5전시실(나의 작업실 코너)

**내용·참여**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교육과 영상실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일시** 2000.9.2–11.15

**장소** 서울600년기념관

**진행·참여** 장창익

**내용·참여** 제1전시관 e_Sense: 공간 돌출 영상(HDVD), 디지털 마임, 사이버 캐릭터 퍼포먼스, 3D 레이저 스캔, 디지털 특수영상, 애니 체험, 2D/3D 영상산업 전시, 가상스튜디오, 가상현실 영상관(VR)
제2전시관 e_Passion: 게임산업 전시, 대형 스크린 영상, 러브러브 테트리스, 게임매니아대전 2000, 셀프 스튜디오, 아이 캐릭터, 인터랙티브 댄스, 코스프레쇼, 타타 오케스트라
연결통로: 디지털산업 캐릭터 공모전, VRST 및 인터넷 사이트 전시

---

**VRST 국제회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일시** 2000.10.22–25

**장소** 서울시립박물관 강당, 시청각실

**진행·참여** 학술발표: 총 111명(국내 86명, 국외 25명)
전시참여: 포항공대, KAIST, KIST,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

**내용·참여** 기술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제를 바탕으로 가상현실과 예술/문화의 접목과 실현
Art와 Technology로 나뉘서 학술 발표 및 서울600년기념관에서 VR 전시연계

---

**〈청소년 디지털 문화제〉**

**일시** 2000.9.3–29

**장소** 서울시립박물관 앞 광장

**내용·참여** 게임, 영상, 음악, 방송을 아우르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축제

---

**작가와의 대화**

**일시** 2000.9.4, 9.5 14: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내용·참여** 발표1: 다라 번바움 '비디오 이미지의 구조들'
발표2: 조안 조너스 '퍼포먼스와 비디오'

---

**미디어_시티 서울 포럼 〈미디어 산업의 전략과 전망〉**

**일시** 2000.9.8 14: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진행·참여** 이용태, 장 자끄 아일라공, 오구스탱 베르크, 하랄트 제만

**내용·참여** 국내 디자인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의 강연

---

**〈째즈 페스티벌〉**

**일시** 2000.9.10–11 16:00–18:30,
9.12–13 17:00–19:20

**장소** 시립박물관 앞 광장

**진행·참여** School Bell, Paper Clock, Nite, freeZM

**국제 큐레이터 워크숍**

**일시** 2000.9.2–22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진행·참여** 아만다 크롤리, 창팡웨이, 세르주 로랑, 우도 키텔만, 송미숙, 김홍희, 이원일, 최효준

**내용·참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외 큐레이터들을 초청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학술 교류를 위해 자유토론, 투어 등을 진행하는 비공개 워크숍

---

**국제 큐레이터 워크숍**

**일시** 2000.10.4–6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진행·참여** 안토니 본드, 찰스 에쉬, 피오나 브레들리, 제롬 상스, 프랑크 고트로, 송미숙, 박경미, 이화익, 노재령, 정준모, 이영준

**내용·참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외 큐레이터들을 초청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학술 교류를 위해 자유토론, 투어 등을 진행하는 비공개 워크숍

---

**미디어 산업 심포지엄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물결: 3차원 입체영상〉**

**일시** 2000.9.23

**장소** 서울시립박물관 강당

**내용·참여**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
강연1: 김은수 '3차원 입체 기술현황 및 전망'
강연2: 허인 '테마파크에서의 가상현실 테크놀로지 활용'
강연3: 성필문 '3차원 입체 케이블 시험 방송'

---

**미디어 산업 심포지엄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물결: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의 새로운 경향〉**

**일시** 2000.10.21

**장소** 서울시립박물관 강당

**내용·참여**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
강연1: 김동현 '온라인 게임 산업의 현황과 미래'
강연2: 황선길 '방송 애니메이션의 미래적 위상과 제작 특성'
강연3: 조영호 '세계최초 인터랙티브 영화의 개념'

---

**시민 열린문화마당 축제**

**일시** 2000.9.23–10.15 토, 일 14:00–16:00

**장소** 시립박물관 앞 광장

**진행·참여** 한빛무예단, 축제기가히츠, 가랍터, 알핀로제, 뭉게구름, 블루드래곤, 킨젝스, 쌍투스, 파랑새, 서있는 사람들, 징검다리

**내용·참여** 대학 공연 동아리가 출연하여 락 밴드 및 합창 등을 선사하는 축제

---

**Seoul Metropolitan Fora 2000 〈도시의 강, 시민의 강〉**

**일시** 2000.10.26–27

**장소** 서울시립박물관 강당

**진행·참여** 총 150여 명(국내 100여 명, 국외 50여 명)
발표 논문 수: 총 13편

**내용·참여** 대도시 강들의 문화와 역사, 강 주변환경과 물관리,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교훈 및 전망 1,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교훈 및 전망 2, 대도시 강과 한광의 관리계획 제안

---

**미디어_시티 서울 포럼 〈현대도시의 비판과 대안의 모색〉**

**일시** 2000.10.27 13:00–14: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당

**진행·참여** 오귀스텡 베르끄

---

**교통방송국 공개방송**

**일시** 2000.10.13 18:00–19:30

**장소** 시립박물관 앞 광장

**진행·참여** 사회: 고영수
출연: 김수희, 태진아, 박명수, 서문탁, 골뱅이

---

**〈드럼 페스티벌〉**

**일시** 2000.10.26–28

**장소** 시립박물관 앞 광장

**진행·참여** 찬송클로드 드럼트룹, 하트비트 퍼커션, 스반디에라토리 디 아레쪼, 뜨엉 오페라하우스, 하와이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공연단, 한스케 드 크루거, 로스 코러스

---

**디지털 산업 캐릭터 공모전**

**내용·참여** '디지털 휴머니즘'을 주제로 미디어 엔터네인먼트 산업분야인 캐릭터 산업의 2D/3D 스틸 부문과 영상 부문의 공모전시

---

**media_city seoul 2000 축제 현상 공모**

**내용·참여** 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미디어_시티 서울》의 예술적, 과학적 소감에 대한 현상 공모

## 제2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2《달빛 흐름》

| | |
|---|---|
| 기간 | 2002.9.26–2002.11.24 |
| 전시총감독 | 이원일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온라인, 미술관 주변(덕수궁 돌담길, 정동길 등) |
| 작가 | 24개국 79명/팀(국내 36, 해외 43) |
| 작품 | 118점 |
| 관객 | 117,748명 |
| 프로그램 | 12종 146회 |
| 참여자 | 3,432명 |
| 예산 | 6.3억 원 |

2002년 5월에 한일월드컵과 함께 개최하려던 계획[16]과 달리, 미디어_시티 서울 2002《달빛 흐름》은 9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새로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두 번째 행사는 미술관 주요 기획전의 하나로 별도의 조직위원회 없이 관장 산하에 조직을 구축하여 미술관이 직접 운영하는 전시로 조직되었다. 미술관이 직접 구성한 기획팀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와 기획자로 구성된 기획자문위원회, 이원일 전시총감독,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는 사무국까지를 포괄하였다. 행사는 동시대 미디어 문화를 탐구하고 예술적 경험을 확장했던 원년의 취지를 이어가면서 미디어아트 미학을 쉽게 전달하고 관객과 상호 작용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지만, 예산이 예년의 1/1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그 위상이나 자원이 미약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했다.[17] 하지만 기획예산, 전시, 국제협력, 홍보, 운영, 학술행사, 부대행사, 기술, 프로그래머, 디자인 등 세분화한 분야별 담당자로 이루어진 사무국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청 등 국가 주요 부처, 주한 대사관과 문화원 18곳, 해외 문화 재단 1곳, 기업협찬 8개를 유치하며 무사히 행사를 개최한다.

전시는 7개 대륙에서 활동하는 마리 드 브루게롤, 마이클 코헨, 황두, 그레고리 얀슨, 킴 마찬, 구나라 나다라잔, 아즈마야 타카시 협력 큐레이터가 디지털 숭고미라는 에디션의 주요 개념을 탐색하는 알찬 구성을 보여주었다. 미술관 공간을 중심으로 덕수궁 돌담길을 포함한 주변 장소들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전시장소는 각각이 눈, 피부, 두뇌, 심장, 골격 등 신체의 부분과 기능을 은유하며 작품에 진입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였다. 본 전시에 해당하는 '디지털 서브라임'은 미술관 전면의 유리창을 눈으로 전시장 공간을 피부로 설정하여 79명/팀 작가의 작품 118점을 소개했고 그중에서 '루나 로바'를 이루는 아파트 실내 구조의 공간은 골격의 의미했다. 두뇌가 되는 온라인 프로젝트 '사이버 마인드'는 웹아트 4점을 소개했고, '아웃도어 프로젝트'는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아우르는 미술관 주변에서 이루어진 전시형 프로그램이었다.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 심포지움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전자음악 공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아트 교육 프로그램, 전시장 바깥에서 사운드와 빛 설치로 운영된 나이트 갤러리, 워크숍, 정기 강연회,

《달빛 흐름》 포스터, 2002
디자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특별이벤트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동안 알차게 운영되었다. 12종 146회에 달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3,432명, 전시 관객은 117,748명으로 기록된다.

2002년 미술계 안팎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성완경 예술감독이 맡은 제4회 광주비엔날레 《멈춤》이 93명/팀의 작가들과 함께 지난 세기 동안 바쁘게 달려온 역사의 속도를 되돌아보고 미술의 제도, 조직,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다이내믹을 보여주었다. 《도큐멘타 11》은 역대 최초로 비유럽인 예술감독인 오쿠이 엔위저를 초대하여 117명 작가/팀과 650,924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다. 이듬해 김홍희 커미셔너가 맡은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한국미술의 다변화된 풍경과 사유의 관계를 주목하며 힘 있는 전시를 보여주었다. 그에 반하여 《미디어_시티 서울》은 새로운 기술로 변화하는 매체로서 미디어아트에 집중하며 세 번째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16 송미숙, "서문", 『media_city seoul 2000』,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조직위원회, pp.10.

17 『제2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결과보고서』, 서울시립미술관, 2001, p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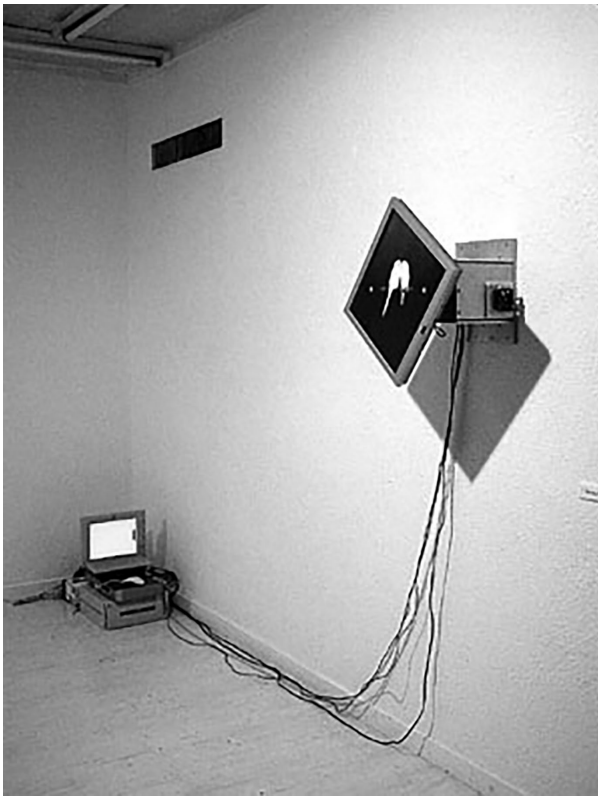
《달빛 흐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2

김범수
〈숨겨진 감성〉

2002, 필름 설치, 유리 구조물에 영화
필름 부착, 영화 필름, 아크릴 그리고 조명,
1200×980×720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2



문주
〈움직이는 새장〉

2002,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DVD
플레이어, TFT 모니터, 50×60×50 cm

위안광밍
〈The Reason for Insomnia〉

1998, 비디오 설치, 프로젝션 설치,
LCD, 프로젝터, VCD 플레이어,
인광분말을 바른 스크린, 주문제작
장비, 컴퓨터, 거울 그리고 싱글침대,
500×500×500 cm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2

강애란
〈Reality & Virtual Reality〉

2002, 디지털 프린트, 디지털
비디오 설치, 벽면에 실버 마일라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디지털
프린트와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EL 블랙라이트, 책, 목조 구조물,
600×40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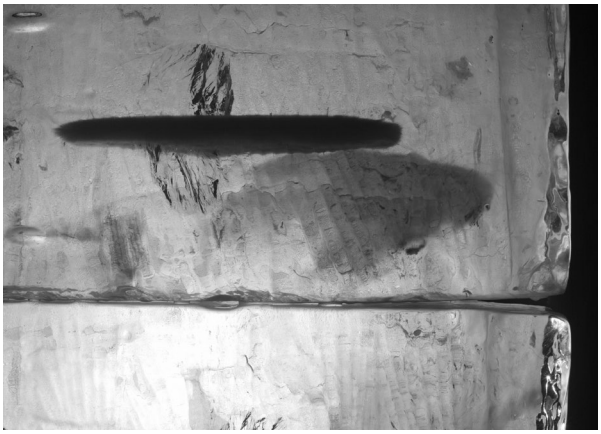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2

코디 최
〈두 개의 장례식 #2〉

2002, 디지털 프린트, 캔버스에
고정된 망사 위에 UltraVu 3 잉크,
630×450 cm

강은수
〈번데기〉

2002, 디지털 비디오 설치, 욕조에 비디오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앰프,
스피커 그리고 욕조, 200×1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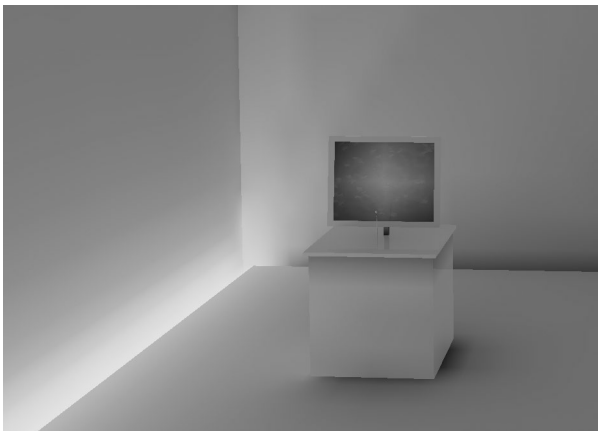


전준호
〈꿈꾸는 물〉

2002, 비디오 설치, 얼음 위에
프로젝션, 프로젝터, 냉장장치 그리고
얼음, 150×180 cm(영사면)

스즈키 야스히로
〈Globe jungle project〉

2002, 정글짐 모형,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와 PDP 스크린, 가변 크기



양민하
〈정원〉

2001, 웹 키네틱, 벽면에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와 마이크, 가변 크기

안수진
〈4개의 방〉

2002,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돌담벽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가변 크기

덕수궁돌담길 전시 전경, 2002

강홍구
〈해수욕장 시리즈〉

2002,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2×201 cm, 102×222 cm,
102×202 cm, 102×270 cm

작가 제공

# 《달빛 흐름》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강애란**

**Reality & Virtual Reality**
2002, 디지털 프린트, 디지털 비디오 설치, 벽면에 실버 마일라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디지털 프린트와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EL 블랙라이트, 책, 목조 구조물, 400×600 cm

**강은수**

**번데기**
2002, 디지털 비디오 설치, 욕조에 비디오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앰프, 스피커 그리고 욕조, 130×200 cm

**강주원**

**Point Animation**
2001, 웹 키네틱, 컴퓨터와 프로젝터

**강흥구**

**해수욕장 시리즈 1**
2002,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2×201 cm

**해수욕장 시리즈 2**
2002,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2×222 cm

**해수욕장 시리즈 3**
2002,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2×202 cm

**해수욕장 시리즈 4**
2002,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2×270 cm

**고경호**

**반영-명멸하는 희미한 빛**
2002, 비디오 설치, 벽면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가변 크기

**고정아**

**연못**
2000, 디지털 비디오 설치, PDP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 가변 크기

**기서비(임상빈/강은영)**

**디지스케이프**
2002, 디지털 프린트, 120×360 cm

**김규완**

**출현 - 부서짐**
2001, 디지털 프린트, 아트지에 아이리스 프린트, 76×109 cm

**출현 - 흔들림**
2001, 디지털 프린트, 아트지에 아이리스 프린트, 76×109 cm

**출현 - 번뜩임**
2001, 디지털 프린트, 아트지에 아이리스 프린트, 76×109 cm

**김범수**

**숨겨진 감성**
2002, 필름 설치, 유리 구조물에 영화 필름 부착, 영화 필름, 아크릴 그리고 조명, 980×1200×720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김수정**

**Two Eye-Lands, Sky**
2002, 웹 키네틱, 천정의 스크린에 비디오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웹캠과 스피커, 150×400 cm(영사면)

**김시만**

**Between Black & White**
2001, 인터랙티브 설치, 오브제 3개와 바닥에 비디오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앰프, 스피커와 다중음향효과, 가변 크기

**김안식**

**빛의 오케스트라**
2002, 가변 크기

**넬슨 헨릭스**

**PLanetarium**
2001, 비디오 사운드 설치, 벽면에 비디오 프로젝션,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앰프, 스피커 그리고 의자, 가변 크기

**노보틱 리서치**

**Minds of Concern**
2002, 컴퓨터, 스트로보스코프, 스피커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 가변 크기

**델핀 코엥데**

**T_20hour**
1999, 인터랙티브 설치, 오브제 3개와 바닥에 비디오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앰프, 스피커와 다중음향효과, 가변 크기

**Rain**
1999, 인터랙티브 설치, 오브제 3개와 바닥에 비디오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앰프, 스피커와 다중음향효과, 가변 크기

**Garden**
1999, 인터랙티브 설치, 오브제 3개와 바닥에 비디오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앰프, 스피커와 다중음향효과, 가변 크기

**Objective**
1998, 디지털 프린트, 91×162 cm
파리 갈레리에미셸레인 제공

**Plant**
1998, 디지털 프린트

**로버트 라차리니**

**Skulls**
2000, 송진, 뼈, 안료, 75×31.5×18 cm

**림 알 페이잘**

**Diwan Al Noor**
2002, 흑백 사진, 40×30 cm

**Diwan Al Noor**
2002, 흑백 사진, 30×40 cm

**마르티나 로페즈**

**Bearing in Mind2**
1998

**Questioning Nature's Way1**
1998, 디지털 사진, 시바크롬, 89×127 cm

**문주**

**움직이는 새장**
2002,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DVD 플레이어, TFT 모니터, 60×50×50 cm

**문형민**

**제목 없음**
2002, 디지털 사진, 250×250 cm

**제목 없음**
2002, 디지털 사진, 250×450 cm

**미아오샤오춘**

**Therapy**
2002

**Ferry**
2002, 컬러 사진, 321×127 cm

**Spring Festival**
2002

**미하일 쿤제**

**8.mittag [여덟번째 정오]**
2001, 캔버스에 유화, 200×300 cm
베를린 카피노스갤러리 제공

**Projection links/rechts Teil A**
2002

**밀토스 마네타스**

**After Luna Croft**
1998

**Abstract Super Mario**
1998, 퍼포먼스,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PDP 스크린, 스피커 그리고 소파, 가변 크기

**백남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1938 동요)**
2002, 비디오 설치, 메가트론, 280×1000×50 cm

**볼프강 헤어볼트**

**Superman 148.1**
2000

**Untitled (NR 23.6)**
2002, 잉크젯 프린트, 29.7×42 cm

**Untitled (D.E12.2)**
2000, 잉크젯 프린트

**Untitled (NR 21.14)**
2002, 잉크젯 프린트

**Untitled (NR 33.17)**
2002, 잉크젯 프린트

**비요크 & 인서트사일런스**

**Pagan Poetry**
2001, 스크린 프로젝션, 컴퓨터,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프로젝터와 앰프, 가변 크기

**사비노 달제니오**

**Points of view**
2002, 디지털 애니메이션, 벽면에 비디오 프로젝션,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스피커

**숀 커**

**The Conversation**
2002, 인터렉티브 웹 아트, 사운드, Mac 그리고 TFT 모니터, 가변 크기

**스즈키 야스히로**

**Globe jungle project**
2002, 정글짐 모형,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와 PDP 스크린, 가변 크기

**신경철**

**하얀풍경**
2001, 창문 구조물에 디지털 프린트, 컬러 필름, 창호지, 아크릴 접시, 투명 유리판 그리고 형광전구, 30×50×100 cm

**신청우**

**디지털 시계**
2002, 웹 키네틱, 벽면에 프로젝션, 컴퓨터와 프로젝터

**심현주**

**문 앤 리버**
2002, 디지털 비디오 설치, 프로젝터, 모니터, CC 카메라, 무선 카메라, 모터, 물 그리고 철제 구조물, 가변 크기

**쓰나미.넷**

**Alpha 3.51**
2002, 인터넷 설치, 벽면에 비디오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그리고 컴퓨터, 가변 크기

**아츠코 우다**

**Life in Norway 'Life LAb'**
2001, 웹 아트, iMac(G4) 그리고 책상, 가변 크기

**안수진**

**4개의 방**
2002,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돌담벽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가변 크기

**앤드류 올슨**

**Untitled**
2002, 디지털 비디오 설치, DVD 플레이어와 프로젝터, 가변 크기

**양만기**

**대화프로젝트**
2002, 3D 홀로그램 설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700×700×700 cm

**대화프로젝트**
2002, 비디오 설치, DVD 플레이어, 가변 크기

**양민하**

**정원**
2001, 웹 키네틱, 벽면에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와 마이크, 가변 크기

**에두아르도 칵**

**Time Capsule**
1997, 사진 7장, DVD 플레이어 그리고 LCD 패널, 가변 크기 시카고 줄리아프리드먼갤러리 소장

**에두아르도 플라**

**Archim boldo**
1987, 디지털 프린트, 캔버스 위에 프린트, 90×90 cm

**Alma**
1987, 디지털 프린트, 캔버스 위에 프린트

**에바 스탠람**

**Eu plaaces: Koninklijk Paleis, Amsterdam**
2001, 디지털 사진, 프레임과 MDF에 아카이브 디지털 람다 프린트, 40×60 cm

**엠브이알디브이**

**Pig city**
2001, 디지털 애니메이션, 벽면에 비디오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그리고 프로젝터

**왕궈펑**

**Chinese Utopia**
2002, 디지털 비디오 설치, 스크린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가변 크기

**위안광밍**

**The Reason for Insomnia**
1998, 비디오 설치, 프로젝션 설치, LCD 프로젝터, VCD 플레이어, 인광분말을 바른 스크린, 주문제작 장비, 컴퓨터, 거울 그리고 싱글침대, 500×500×500 cm

**유관호/고쿠보 다카시**

**디지털 숲**
2002, 디지털 프린트, 사운드 설치, 스테인레스와 아크릴 판에 디지털 프린트, 램프, 앰프, 스피커, 700×1000×500 cm

**유민호**

**Light-Through**
2002,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와 스피커

**유혜진**

**에덴의 꽃**
2002, 디지털 프린트, 120×200 cm

**이경호**

**전자 달**
1993–2002, 인터렉티브 비디오 프로젝션, 벽면에 프로젝션,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앰프와 스피커, 200×200 cm

**이소미**

**사랑해요**
2001,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모니터 설치, 컴퓨터와 센서, 가변 크기

**이용백**

**예수와 부다사이**
2002, 디지털 비디오 설치, DVD 플레이어와 프로젝터, 가변 크기

**이태일**

**스텔라v2**
2002, 인터렉티브 설치, 벽면에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카메라 그리고 스틸 프레임, 가변 크기

**이토 아츠히로**

**OSS-0249**
2002, 사운드 라이트 설치, 형광등 그리고 Op-tron 사운드 시스템, 가변 크기

**임영균**

**우리 시대의 얼굴**
2000, 디지털 사진, 103×100 cm

**시대의 얼굴**
2000, 비디오 프로젝션, 350×230×360 cm

**전준호**

**꿈꾸는 물**
2002, 비디오 설치, 얼음 위에 프로젝션, 프로젝터, 냉장장치 그리고 얼음, 180×150 cm(영사면)

**정상현**

**이방인**
2002, 스크린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233×175 cm

**정영훈**

**꽃들**
2002, 웹 인터렉티브 설치, 컴퓨터 그리고 터치스크린, 가변 크기

**제니퍼 스타인캠프**

**The Fall**
2002, 디지털 애니메이션, 서울시립미술관 전면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조셉 네크바탈**

**Lunar v0luptuary (North wall)**
2002, 컴퓨터 바이러스 설치, 캔버스 위에 컴퓨터 조작 아크릴,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그리고 벤치, 148×270 cm(아크릴)

**Lunar v0luptuary (West wall)**
2002, 컴퓨터 바이러스 설치, 캔버스 위에 컴퓨터 조작 아크릴, 프로젝션, 컴퓨터, 프로젝터 그리고 벤치, 270×148 cm(아크릴)

**조이수**

**긴 여행-안개**
2002,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벽면에 프로젝션

**존 에프 사이먼 주니어**

**Color Panel Ver 1.5**
2001, PDP 스크린 설치, 소프트웨어, 애플 파워북 G3 그리고 파이오니어 가스 플라즈마 스크린, 가변 크기 뉴욕 샌드라기어링갤러리 소장

**C.P.U. 1.5**
2001, PDP 스크린 설치, 소프트웨어, 애플 파워북 G3 그리고 파이오니어 가스 플라즈마 스크린, 가변 크기
뉴욕 샌드라기어링갤러리 소장

**존 톤킨**

**Personal Eugenics**
1998, 인터렉티브 웹 아트, 컴퓨터, 책상 그리고 의자, 가변 크기

**Elastic Masculinities**
1998, 인터렉티브 웹 아트, 프린트, 컴퓨터, 웹캠, 레이저 프린트, 키오스크, 책상 그리고 의자, 가변 크기

**질라 로이테네거**

**Quicksilver**
2002, DVD 플레이어, PDP 스크린

**Miniature**
2000

**차오페이**

**The View on the move**
2002,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스크린 프로젝션,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그리고 스크린

**카타르지나 코지라**

**'Boys 2002'**
2002, DVD 플레이어, PDP 스크린

**카트린 이캄/루이 플레리**

**Yoona 1**
1999, 디지털 사진, 후지크롬 종이에 인쇄, 알류미늄판에 부착, 115×95 cm

**Yurek**
1999

**David**
1999, 디지털 사진, 사이버웨어 캡쳐, 50×45 cm

**켄 파인골드**

**House of cards**
2002, 알고리드믹 시네마

**코디 최**

**두 개의 장례식 #2**
2002, 디지털 프린트, 캔버스에 고정된 망사 위에 UltraVu 3 잉크, 450×630 cm

**클로드 웸플러**

**Planting, the movie**
2001, 퍼포먼스
뉴욕 포스트마스터즈갤러리 제공

**ACT i painting1 (ear)**
2000

**ACT ii painting2 (ankle)**
2000

**토마스 스트리커**

**www.mission-terrafoaming.de**
2001, 웹 아트 설치, PC, Mac, 프로젝터와 호일 문자들, 가변 크기

**페드로 메이어**

**The Case of the Missing Painting from the Altarpiece**
1991–1993, 디지털 사진, 74×112 cm

**페트라 므르직 & 장 프랑수아 모리소**

**Don't be light**
2002, Air 그룹의 비디오 클립, 디지털 애니메이션, 벽면에 비디오 프로덕션, DVD 플레이어 그리고 프로젝터
에어드파리 제공

**폴 존슨**

**Red, Green & Blue v 2,0**
2002, 개조한 컴퓨터 콘솔와 평면 스크린, 가변 크기

**프랑수아 퀴를레**

**Ann Lee - Witness Screen**
2002, 스크린에 프로젝션, 프로젝터, 스크린, 앰프 그리고 스피커
에어드파리 제공

**프레임(박윤나/박지나/이은택/최종범/최영준/최두수)**

**큐브 스페이스**
2002, 디지털 비디오 사운드 인터랙티브 설치, 파노라마 비디오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인터랙티브 센서 그리고 이펙트 라이트, 430×1010×1040 cm

**피터 로빈슨**

**Bad Faith : the Presence & Absence of God**
2001, 람다 프린트, 168×120 cm

**Satres Worm**
2001, 람다 프린트, 120×160 cm

**Into the Void**
2001, 람다 프린트, 120×175 cm

**Superstring**
2001, 플렉시글라스, 10×500×30 cm

**Zero Shift**
2001, 플렉시글라스, 가변 크기

**Memory Flower**
2001, 플렉시글라스, 28×28×8 cm

**Null & Void**
2001, 조각, 15×40×15 cm

**하준수**

**색즉시공 공즉시색**
2001,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벽면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앰프 그리고 스피커, 6분

**Just**
2002,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벽면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앰프 그리고 스피커, 7분

**Fetish**
2001,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벽면에 프로젝션, DVD 플레이어, 프로젝터, 앰프 그리고 스피커, 20분

**할룩 아칵스**

**혈압**
2001, 디지털 애니메이션, 벽면에 비디오 프로젝션,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앰프 그리고 스피커
작가 및 뉴욕 데이치프로젝츠 제공

**홍성철**

**Please call me!**
2002, 인터렉티브 비디오 설치, 벽면에 프로젝션, 프로젝터, 컴퓨터, 센서와 앰프, 가변 크기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The Sentimental'**
2002, 디지털 애니메이션, 벽면에 프로젝션, 컴퓨터 그리고 프로젝터

# 《달빛 흐름》 프로그램 목록

**〈사이버 마인드〉**

**일시** 2002.9.26–11.24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웹 www.mediahexa.org

**진행·참여** 기술 프로그래머: 김홍일

**내용·참여** 국제 미디어아트 커뮤니티를 방문하고 참여유도형 관람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

손 커 〈The Conversation〉(2002), 아츠코 우다 〈Life in Norway 'Life LAb'〉(2001), 양민하 〈정원〉(2001), 존 톤킨〈Personal Eugenics〉(1998), 〈Elastic Masculinities〉(1998)

---

**〈루나스 칠드런〉**

**일시** 2002.9.26–11.24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미디어 작가를 지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과 교류활동

강무경 〈1년〉, 강해원, 최은미, 김세희 〈무시〉, 김규하 〈제목 없음〉, 김영미 〈Blind Time〉, 변지훈 〈판타비전〉, 성창경 〈인공생명〉, 전우진 〈카케오치〉, 정민영 〈Club in the Circle〉, 정재은 〈休〉, 주희진 〈Enter-Count〉, CG LAND 〈단무지 가족wonderful days스쿠비두〉, KBS 도전 나도 VJ 〈cosmic beauty홍도야 우지마라안녕히 주무셨습니까?〉

---

**개막 공연 〈Flow of the Moon〉**

**일시** 2002.9.26 18:30–19: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정원 및 전시동

**진행·참여** 김안식

---

**미디어 플레이 그라운드**

**일시** 2002.9.27–11.24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체험학습실

**내용·참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 학습

---

**나이트 갤러리**

**일시** 2002.9.27–10.19 19:30–20: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정원 및 전시장 전면

**내용·참여** 야외 전시 및 특별행사

---

**키즈 클래스**

**일시** 2002.9.28–10.13 1일 9회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3층

**내용·참여**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예술 교육에서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

**〈Luna's Flow〉**

**일시** 2002.9.28 9:30–16:2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대강당

**진행·참여** 강연: 장 보드리야르, 로렌즈 리클스, 존 웰쉬만
질의: 사라 다이아몬드, 김정택
참여작가: 코디 최, 켄 파인골드
심포지엄 디렉터: 김성희
공동 디렉터: 낸시 바튼

---

**미디어 아트_스쿨 특별강좌**

**일시** 2002.10.2–11.23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3층

**진행·참여** 김수정, 이성식, 장동훈, 이종호, 이준희, 오명훈, 김영도, 백명진, 김형수, 김정배, 추권수, 이준, 정영훈, 하동원

**내용·참여** 창작과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선보여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 프로그램

---

**미디어 시티 강연회**

**일시** 2002.10.8–11.11 14: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제2강의실

**진행·참여** 박신의, 유진상, 이원곤, 문주, 김수정

**내용·참여** 미디어_시티 서울에 대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

**나이트 갤러리 특별행사 〈카주 비쥬 테라스〉**

**일시** 2002.10.12 19:00–21: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정원

**진행·참여** 카주(박윤나), 최종범, 옐로우 키친, 에스트로 노이즈, 퓨처아이트로니카

**내용·참여** 전자음악 연주와 비주얼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이는 프로그램

---

**시민의 날 축제행사 〈서울 미디어 스퀘어〉**

**일시** 2002.10.21–27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및 덕수궁 돌담길 주변

**내용·참여** 서울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청 청사의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축제

---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캐릭터 〈달따라와 달무리〉**

**진행·참여** 조용진

##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4 《디지털 호모 루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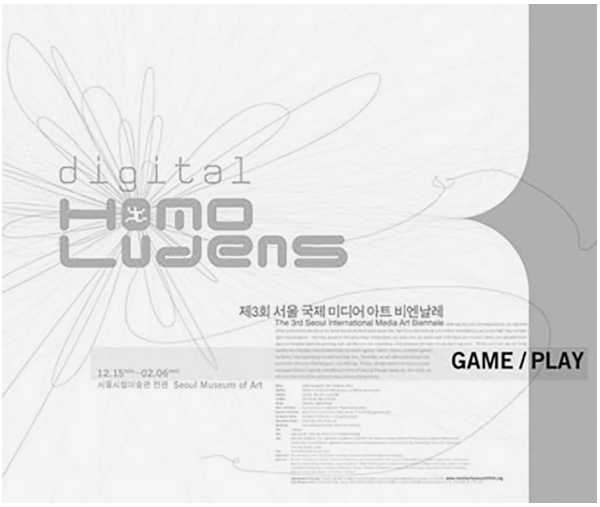
| | |
|---|---|
| 기간 | 2004.12.15–2005.2.20 |
| 전시총감독 | 윤진섭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
| 작가 | 23개국 41명/팀 (국내 7, 해외 34) |
| 작품 | 42점 |
| 관객 | 145,772명 |
| 프로그램 | 21종 34회 |
| 참여자 | 424명 |
| 예산 | 10.1억 원 |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5년 2월 6일까지 두 해에 걸쳐 열린 미디어_시티 서울 2004 《디지털 호모 루덴스》는 하종현 제2대 관장이 취임하고 치뤄진 첫 에디션이었다. 당시 비엔날레에서는 2002년에 없어졌던 조직위원회가 다시 생기면서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구성한다. 여기에 예년과 유사한 9인의 기획자문위원회를 두고, 윤진섭 전시총감독을 필두로 사무국이 구축되었다. 사무국 내 전시운영팀은 미술관 직원과 운영대행사 직원의 합동 체제로 구성되었다. 시예산은 2002년 대비 약 두 배가 조금 못되게 증액되었으며, 국내외 정부부처, 문화원, 학교와 기관 총 18곳에서 후원과 협찬을 유치한다. 전시는 협력 큐레이터 요한 파인애플, 한스 D. 크리스트/틸만 바움개르텔, 리즈 휴즈를 초대하여 미디어 기술이 가져온 현대생활 전반의 변화를 '게임'이라는 가상 환경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국내외 작가 41명/팀의 작품 42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다.

《디지털 호모 루덴스》라는 제목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에 디지털이 접두어로 붙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술'의 긍정성에 집중하는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외 미디어아트 활동과 작가들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카이브가 있었고, 2021년 시작한 〈유통망〉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매트릭스 A〉[18]가 이 해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전역의 미술관과 갤러리 위치와 개최하는 전시를 지도에 담아 네트워킹하는 협력체였다. 당시 참여했던 50여 곳의 공간 가운데 일주아트하우스는 미디어 아카이브, 스튜디오 대여와 장비 교육, 전시, 학술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아우르며 당대의 시청각 문화를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는 미디어아트 제작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활발히 생산되었던 싱글채널 비디오, 실험영화와 다큐멘터리 영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19]

18 2008년까지 지속되는 서울시 미술공간 네트워킹 협력체는 이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17)와 예술경영지원센터(2018–21)가 주관하여 전국 단위의 국립, 공립, 사립미술관, 3대 비엔날레, 갤러리, 비영리 전시공간 등이 참여하는 〈미술주간〉으로 확장되었다.

19 문혜진, "MTV 세대의 감각과 김세진의 초기 비디오 작업", 월간미술 407호, 2008년 12월




《디지털 호모 루덴스》 포스터, 2004
디자인: FRUM(한창호, 김수현, 이성일, 박윤희, 이혜연)

《디지털 호모 루덴스》 개막식,
서울시립미술관, 2004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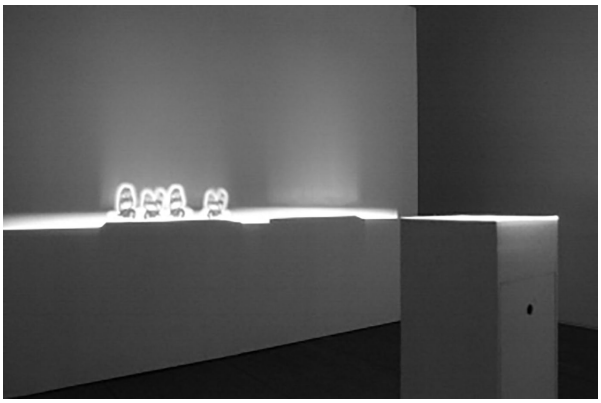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 울라이
〈빛/어둠〉

1977, 퍼포먼스

아키오 카미사토, 사토시 시바타,
타케하사 마시모
〈무니〉

2004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4



반 소워와인,
이소벨 놀레즈 & 리암 페네시
〈기대하기〉

2003,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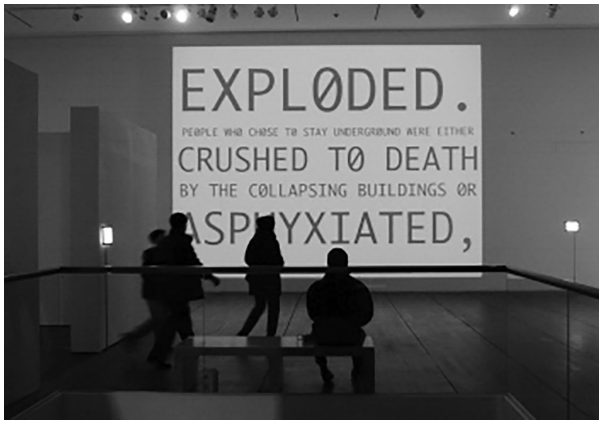
제3회 미디어_시티 서울 및 하일브론
엑스페리멘타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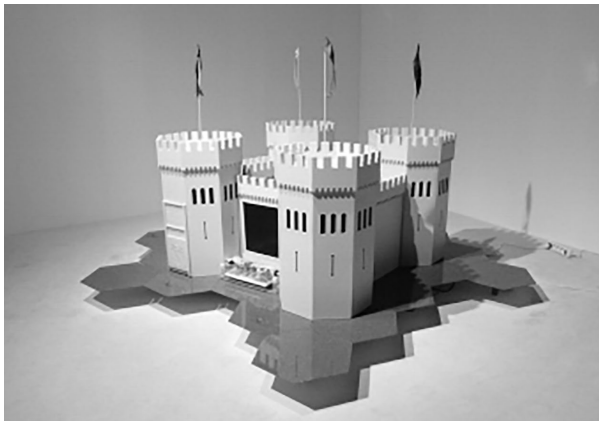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4

장영혜중공업
〈오퍼레이션_누 코리아〉

2003, 웹아트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4



에드도 스턴
〈팔라딘 요새: 미군〉

2003,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4

날리니 말라니
〈게임 조각들〉

2003,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4

작가 올라프 발의 어린이 워크숍
〈게임 공작소〉, 서울시립미술관,
2005.1.12–16

# 《디지털 호모 루덴스》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김기라**

**0.000km-제로 섬 게임**
2003,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날리니 말라니**

**게임 조각들**
2003,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다니엘 가르시아 안두하르**

**e-서울**
2004, 웹 아트, 워크숍

**댄 퍼잡스키**

**제목 없음**
2004, 드로잉

**랭랜즈 & 벨**

**오사마 빈 라덴의 집**
2003, 인터렉티브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로버트 아놀드**

**욕망의 형태학**
1999,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울라이**

**빛/어둠**
1977, 퍼포먼스 비디오

**마커스 리올**

**슬로우 서비스**
2003, 단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문경원**

**나 좀 봐봐**
2004,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밀토스 마네타스**

**사물에 반항하는 사람들**
2001,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박준범**

**25고소공포증**
2003, 단채널 비디오 설치, 1분

**반 소워와인, 이소벨 놀레즈, 리암 페네시**

**기대하기**
2003,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제3회 미디어_시티 서울 2004 및 하일브론 엑스페리멘타 제작지원

**베아테 가이슬러, 올리버 잔**

**저격수**
2000–2001, 단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베아트 브로글, 필립 짐머만**

**한 단어 영화**
2004, 웹 아트

**볼프 헬츨레**

**…그리고 나는 일부이다**
2004, 미디어 퍼포먼스

**쉴파 굽타**

**제목 없음**
2004, 인터렉티브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스테판 베라스, 린다 데비, 로버트 데비, 케리 리첸스**

**사랑스런 카우치 지지**
2003, 인터렉티브 미디어 가구, 가변 크기

**스테판 어네거, 안소니 헌트**

**컨테이너**
2004, 인터렉티브 아트

**안젤라 데타니코, 라파엘 라인, 지리 스칼라**

**서울 : 킬링타임**
2002,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앤-마리 슐레이너, 브로디 콘돈, 호앙 레안드레**

**벨벳-스트라이크**
2001, 게임 아트

**야노베 켄지**

**숲 속의 영화관**
2003,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얀-페터 존탁**

**OMO**
1996, 미디어 가구, 가변 크기

**에드도 스턴**

**팔라딘 요새: 미군**
2003,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엘리자베스 밴더 자그**

**우리처럼 말 해봐요**
1999–2000,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왕지안웨이**

**기념식**
2002,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이세정**

**얼굴**
2001, 비디오 퍼포먼스, 2분 2초

**장영혜중공업**

**오퍼레이션_누코리아**
2003, 웹 아트

**정동암/정문열**

**앤디의 꿈**
2004, 게임 아트

**카미사토 아키오, 시바타 사토시, 마시모 타케히사**

**무니**
2004,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컬렉티브_팩트**

**서커스 2003**
2003,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코고 타쿠지 * 캔디 팩토리 프로젝트**

**관객**
2004,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키스팔 자볼릭**

**테두리**
2003,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탄 텍 웽**

**원형감옥**
2002, 인터렉티브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톰 베츠**

**CCTEX**
2004, 미디어 설치, 게임 아트, 가변 크기

**펑멍보**

**Q3D**
2004, 미디어 설치, 게임 아트, 가변 크기

**프레데릭 모서, 필립 슈빙어**

**액팅 팩츠**
2003,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플레익스**

**격자무늬 : 이츄**
2002, 단채널 비디오 설치, 3분 40초

**미용공구세트**
2001, 단채널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호세 카를로스 카사도**

**새로운 신체. V01**
2004,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뉴욕대학교 후앙 칼로스 1세 스페인 센터 제작지원

**홍성담**

**1999 - 탈옥**
1999, 비디오 설치, 3분 35초

**ENESS**

**버주얼-디지털 흔들목마**
2003, 인터렉티브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OVNI 아카이브(아부-알리, 레트로유)**

**바빌론 아카이브**
2003, 미디어 고고학 프로젝트, 가변 크기

# 《디지털 호모 루덴스》 프로그램 목록

**국제워크숍 〈다음 세대의 예술〉**

**일시** 2004.1.30 13:00–18: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진행·참여** 발표: 김인환, 요한 파인애플, 한스 D. 크리스트, 히로시 요시오카, 노소영
질의: 정용도, 심혜련, 김진엽, 유민호

---

**〈media_art.org〉**

**일시** 2004.12.1–2005.2.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천경자실

**내용·참여** 세계 미디어아트 기관의 발간 도서, 도록, DVD 및 CD-ROM, 각종 포스터와 리플렛을 선보이는 아카이브

독일 ZKM 미디어아트센터, 일본 NTTICC, 오스트레일리아 실험미술재단, 호주 MAAP, 독일 HMKV, 아트센터나비, 일주아트하우스, 일본 야마구치예술정보센터 등

---

**〈미디어 아트 전시의 모든 것〉**

**일시** 2004.12.3 17:00

**장소** 홍익대학교 E동 103호

**진행·참여** 리즈 휴즈

---

**〈미디어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일시** 2004.12.10 14: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대 A동 524호

**진행·참여** 요한 파인애플

---

**아티스트 카페 - 일본작가와의 대화**

**일시** 2004.12.13 16:00–18:00

**장소** 재팬파운데이션 이연홀

**진행·참여** 코고 타쿠지, 카미사토 아키오, 시바타 사토시, 마시모 타케히사, 야노베 켄지

---

**개막 퍼포먼스**

**일시** 2004.12.15 17:30–17:4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

**〈Game by artist〉**

**일시** 2004.12.15–2005.2.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휴게실

**내용·참여** 인터넷을 통하여 관객의 참여를 제고하는 게임아트 프로젝트

반 소워와인, 이소벨 놀레즈 〈나랑 놀아줘〉(2002), 조세핀 스타와 레온 크미엘루스키 〈바이오-테크 키친〉, 퓨쳐 파머스 〈반전게임〉(2004), 〈SOD〉(1999)

**〈매트릭스 A〉**

**일시** 2004.12.15–2005.2.6

**장소** 서울시 내 미술관, 갤러리, 미술문화공간

**내용·참여** 서울 시내 전시공간 매핑 프로젝트

가나아트센터, 갤러리 정미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국제갤러리, 금산갤러리, 김종영미술관, 다빈치 갤러리, 대림미술관,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덕원갤러리, 마로니에 미술관, 문화일보갤러리, 박여숙 화랑, 브레인팩토리, 선화랑 · 선아트센터, 스페이스 C, 쌈지스페이스, 쌤쌤회관, 아트센터 나비, 아트스페이스 휴, 올림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인사아트센터, 일민미술관, 일주아트하우스, 정동 경향 갤러리, 조흥갤러리, 키미아트, 포스코 미술관, 표화랑, 피케이엠갤러리, 학고재, 환기미술관,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

**〈m_c s archive〉**

**일시** 2004.12.15–2005.2.6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천경자실

**내용·참여** 1, 2회 비엔날레에 참여한 국내외 미디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시청각 기본 정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

**〈퍼니 퍼니처〉**

**일시** 2004.12.15–2005.2.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외

**내용·참여** 이혁진, 최유진 〈HOL3〉 (2004, MDF, 고발포 스폰지, 알루미늄, 락카도장), 김도훈, 박희원 〈혁신〉 (2004, 합판벤딩, 고발포 스폰지, 천, 스테인레스 파이프), 신성희 〈MEI〉 (2004, 플라이우드, 베니어, 섬유), 박상현, 황영혜 〈TROL(Take a Rest On Light)〉 (2004, 철, 조명), 현은주 〈순환〉 (2004, 아크릴), 신현영, 이슬아 〈퍼니 레몬〉 (2004, 레진, 락카도장), 이연주 〈Flying Triplet〉 (2004, 철, 섬유), 최우석, 최태희 〈DOL〉 (2004, 종이, 에폭시), 김유리, 양재영 〈Symbiosis〉 (2004, 철, 와이어, 볼), 신용준 〈Molecule〉 (2004, 레진, 조명, 우레탄폼, 우레탄도장), 이민웅, 이선영 〈오메가 Ω〉 (2004, 자작합판, 스테인레스 파이프), 박서영, 윤성희 〈Hollang〉 (2004, MDF, 스틸, 우레탄도장), 최미현 〈Intimacy〉 (2004, 플라이우드 벤딩, 베니어), 이운정 〈Color Bugs〉 (2004, 철, 비닐튜브, EVA, 크롬도금), 권재민, 이민호 〈기억〉 (2004, 폴리, 나무), 김준형, 김지은 〈달빛 아래 기다림〉 (2004, 철, FRP), 김준형, 이주영 〈Where Is My〉 (2004, 스테인레스 스틸), 곽철안, 김찬섭 〈페이지〉 (2004, 합판 벤딩, 우레탄도장, 락카도장), 김현선, 이시훈 〈흔적〉 (2004, 스테인레스 스틸), 최강석 〈영혼〉 (2004, 폴리코트), 김수진 〈Z 컵〉 (2004, 철, 섬유, 스폰지), 천민규 〈하드코어 의자〉 (2004, 철), 전창명 〈정글〉 (2004, 철, 나무)

---

**아티스트 카페 - 영국작가와의 대화**

**일시** 2004.12.16 12:00–14:00

**장소** 주한영국문화원

**진행·참여** 마커스 리올, 랭랜즈 & 벨

**아티스트 카페 - 호주작가와의 대화**

**일시** 2004.12.16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의동 1강의실

**진행·참여** 반 소워와인, 이소벨 놀레즈, 리암 페네시, 안소니 헌트, ENESS, 조세핀 스타와 레온 크미엘루스키, 스테판 베라스, 린다 데비

---

**〈예술과 게임〉**

**일시** 2004.12.17 11: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강의실

**진행·참여** 틸만 바움개르텔

---

**아티스트 카페**

**일시** 2004.12.17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3층 카페

**진행·참여** 안젤라 데타니코, 라파엘 라인, 컬렉티브_팩트, OVNI 아카이브, 호앙 레안드레

---

**아티스트 카페**

**일시** 2004.12.18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3층 카페

**진행·참여** 날리니 말라니, 쉴파 굽타, 장영혜중공업

---

**아티스트 카페 - 작가와의 대화(1)**

**일시** 2004.12.22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동 2층 유리관

**진행·참여** 박준범, 정동암, 김기라

**아티스트 카페 - 작가와의 대화(2)**

**일시** 2004.12.29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동 2층 유리관

**진행·참여** 이세정, 문경원, 홍성담

---

**〈클럽 미디어_시티〉**

**일시** 2005.1.7, 2.4

**장소** 롤링 스톤즈2, 롤링 홀, 퀸, 재머스, 빵, 긱, 스루거, 사운드홀릭, DGBD

**내용·참여**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 작품을 홍대 앞 라이브 클럽에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게임 공작소〉**

**일시** 2005.1.12–16 10:00–13:00, 14: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외

**진행·참여** 올라프 발

---

**〈스몰 피시 워크숍〉**

**일시** 2005.1.12, 13, 15, 16, 19, 20, 22, 23 10: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외

**진행·참여** 후루카와 키요시

---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국제 심포지엄 〈게임 아트〉**

**일시** 2005.2.4 13:00–18: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

**진행·참여** 발제: 필립 코도네, 마수야마 히로시, 료타 쿠와쿠보
패널: 김원방, 정용도

## 제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6《두 개의 현실》

| | |
|---|---|
| 기간 | 2006.10.18–2006.12.10 |
| 전시총감독 | 이원일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
| 작가 | 19개국 58명/팀 (국내 44, 해외14) |
| 작품 | 86점 |
| 관객 | 141,978명 |
| 프로그램 | 4종 8회 |
| 예산 | 11.5억 원 |

2006년 10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린 제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서_시티 서울 2006《두 개의 현실》은 지난 조직 구성이나 전시 형태와 유사한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2002년 전시총감독이었던 이원일이 다시 감독직을 맡고, 2004년 전시총감독이었던 윤진섭이 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예산은 2004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외 정부 부처, 문화원, 학교와 기관 총 16곳에서 후원을 유치한다. 전시는 협력 큐레이터로 유코 하세가와, 레브 마노비치, 이리스 마이어, 피 리를 초대하여 가상의 정체성이 만들어가는 기술 현실을 주목하는 작가 58명/팀의 작품 86점을 서소문 본관에서 전시했다. 전시는 2004년에 주목했던 '가상성'을 더욱 확장하여, 감각과 현실의 연장이면서 상호참조하는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현실의 윤택함과 복잡함을 다루고 있다.[20] 다양한 정보와 충실한 성찰을 내재한 작품들이 소개되었지만, 정작 예술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아쉬움을 남긴다. 그 외에 서울시에 있는 미술관과 갤러리 네트워킹 협력체인 〈매트릭스 A〉를 발전시켜, 29개 기관의 37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매트릭스 S〉가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그리고 25명의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디어 씬 인 서울_메르츠의 방〉가 2004년 舊 벨기에 영사관을 개보수하여 개관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20 유코 하세가와, "두 개의 현실 - 하나의 대답" 『제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6《두 개의 현실》』, 서울시립미술관, 2006

《두 개의 현실》 포스터, 2006
디자인: 씨디자인(조혁준, 김미성, 강영)
배경 이미지: 와타나베 고,
〈얼굴(초상)〉, 2005

《두 개의 현실》 개막식과 기자간담회
서울시립미술관, 2006.10.19

최원정
〈Why Not Here : 무릉도원〉

2006, 컴퓨터 애니메이션, 거울 설치,
가변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6

아사노 코헤이, 마츠우라 코스케
〈뜰〉

2005,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6

스캇 스니브
〈힘껏 불어봐〉

2005, 알루미늄, 스틸, 송풍기 부속,
모터, 날개바퀴, 특수제작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06

미아오샤오춘
〈사이버 공간에서의 최후의 심판 -
수직 전경〉

2006, 디지털 프린트, 120×354 cm

# 《두 개의 현실》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김창겸**

**물 그림자 2**
2004, 비디오 설치,
100×100×20.4 cm

**김태은**

**어느 날**
2006,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노먼 클라인 + 로즈마리 카멜라 + 안드레아스 크라트키**

**피를 흘리며: 로스앤젤레스의 지나간 모습들, 1920–1986**
2003, 컴퓨터 기반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니시오 요시나리**

**포지션**
2005, 퍼포먼스

**니콜라 클라우스 + 장 자크 비르게**

**몽유병**
2003,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디에트마 오펜후버 + 샘 아우잉거 + 한스 스트로블**

**마우어 공원**
2005, DVD 비디오, 14분 47초

**G의 길**
2005, DVD 비디오, 15분

**레안드로 엘리히**

**'이클렉티카' 유리상점**
2005, 설치, 가변 크기

**루나 이슬람**

**스케일1/16인치 = 1피트**
2003, DVD에 슈퍼 16 mm(이중 비디오 설치), 16분 51초

**루시아 코치**

**보라색 비**
2006, 설치, 가변 크기

**루시아 코치 + 가브리엘 아세베도 베랄데**

**올린다 하늘빛**
2005, 애니메이션 비디오 설치, 5분 26초

**류호열**

**기차역 1**
2005, 디지털 사진, 150×100 cm

**기차역 2**
2005, 디지털 사진, 150×100 cm

**비행장**
2005, 디지털 사진, 150×100 cm

**리우딩**

**바람을 쫓아, 그림자를 쫓아**
2005, 실시간 퍼포먼스와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리우웨이**

**작은 모자 카메라**
2006,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린 허쉬만 리슨**

**신시아 중권 시세 표시기**
2000, 2006, 인터렉티브 네트워크 설치, 30×30×30 cm

**마츠무라 에리코**

**후-포이**
2006, 인터렉티브 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마티유 브리앙**

**SYS*018.DoE*01/MoE-FIT\SAINor*TaC-Lar*4**
2003, 설치, 가변 크기

**마틸드 테르 헤이네**

**선택된 이들**
2002, 실제 크기 인물상, CD와 CD 플레이어, 엠프, 가변 크기

**보이지 않는 영웅**
2005, 단채널 비디오(16:9), 5분 12초

**미아오샤오춘**

**사이버 공간에서의 최후의 심판 - 나는 어디로 가는가?**
2006,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7분 15초

**사이버 공간에서의 최후의 심판 - 수직 전경**
2006, 디지털 프린트, 354×120 cm

**미첼 테란 + 제프 만**

**살아있는 형상: 원격키네틱스**
2004, 특수 제작된 전자장치, 로봇장치,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일반 재료들과 음식물들을 이용한 라이브 아트 이벤트, 가변 크기

**박성훈**

**저 끝의 시작 안에…**
2006, 페이퍼 애니메이션, 1분 30초

**박지수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연구소**

**돌아다니는 마음 - 지금 이곳에/언제나 어디서나**
2006, 모바일 미디어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변지훈**

**바람**
2006,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빅빅보스**

**다섯 개의 문**
2006, 인터랙티브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사와 히라키**

**집**
2002, 비디오, 9분 20초

**흔적**
2005, 비디오, 14분

**소프트패드**

**지오그램**
2006, 설치, 가변 크기

**쉬용**

**오직 멀리서만 볼 수 있는**
2006, 혼합 매체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스콧 스니브**

**힘껏 불어봐**
2005, 알루미늄, 스틸, 송풍기 부속, 모터, 날개바퀴, 특수제작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가변 크기

**아니 라띠**

**물의 공허**
1994, 멀티미디어 설치, 가변 크기

**아다드 하나**

**쿠바 스틸(리메이크)**
2005,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아사노 코헤이 + 마츠우라 코스케**

**뜰**
2005,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악셀 로흐**

**모호한 시그널스케이프**
2005, 2006,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tometaxy.net**
2006, 원격 인터넷 프로젝트

**얀쥔**

**중국에서 가져온 3000개의 불법 복제 DVD**
2006, 혼합 매체 사운드 설치와 가구, 가변 크기

**오용석**

**드라마**
2006,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4분

**와타나베 고**

**얼굴(초상)-1**
2005, 디지털 프린트, 반투명 필름, 라이트박스, 25×149.1×82.3 cm

**얼굴(초상)-2**
2005, 디지털 프린트, 반투명 필름, 라이트박스, 25×149.1×82.3 cm

**얼굴(초상)-3**
2005, 디지털 프린트, 반투명 필름, 라이트박스, 25×149.1×82.3 cm

**얼굴(초상)-4**
2005, 디지털 프린트, 반투명 필름, 라이트박스, 25×149.1×82.3 cm

**얼굴(초상)-5**
2005, 디지털 프린트, 반투명 필름, 라이트박스, 25×149.1×82.3 cm

**루프 사이클-1**
2005, 애니메이션, 25×149.1×82.3 cm

**우시 다이고**

**DON**
2006, 퍼포먼스, 15분

**이이남**

**신 세한도 - 1**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신 세한도 - 2**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신 세한도 - 3**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신 세한도 - 4**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신 세한도 - 5**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신 세한도 - 6**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신 세한도 - 7**
2006, 비디오 설치,
600×400 cm(설치),
2분 30초(비디오)

**이인미 + 릴루에 데아 자할라**

**시간이 껍질을 벗을 때**
2006, 장소특정적 혼합 매체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이한수**

**이중 몽환**
2006, 인터렉티브 설치, 5분

**임상빈**

**타임스퀘어**
2005, C 프린트, 477×250 cm

**설악산**
2005, C 프린트, 290.5×110 cm

**장가계**
2005, C 프린트, 290.5×110 cm

**재커리 리버만**

**제스처 장치**
2006,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존 제라드**

**천 년 동안의 새벽(마르셀)**
2005, 실시간 3D, 60×117×53 cm

**일 년에 한 번 미소 짓는 초상화(메리)**
2006, 실시간 3D, 60×117×53 cm

**주지아**

**제목 없음**
2006, 디지털 비디오, 10분

**진시영**

**인간 미로**
2006, 비디오 설치, 4분

**천샤오시웅**

**잉크 도시**
2005, 비디오 설치, 3분

**최병일**

**시각장치 01_버전 1.5**
2006, 혼합 매체 설치,
124×200 cm

**최원정**

**Why Not Here : 무릉도원**
2006, 컴퓨터 애니메이션, 거울 설치, 가변 설치, 가변 크기

**카타리나 뢰프스트롬**

**행 텐 선셋**
2000, DVD, 8분 23초

**화이트아웃**
2001, DVD, 3분 41초

**섬**
2004, DVD, 4분 30초

**스코어**
2004, DVD, 4분

**칸쉬안**

**오브제**
2003, 비디오 설치, 4분

**케서린 야스**

**협곡**
2006, 비디오, 44초
작가 및 런던 앨리슨자크갤러리 제공

**크랙 윌쉬**

**상호 참조**
2004, 단채널 비디오 설치, 40분

**티모시 재거 + 알렉스 드라굴레스쿠**

**리스팸 - 인박스**
2005, 시청각 퍼포먼스, 25분

**스팸 식물 시리즈**
2005, 디지털 프린트, 61×61 cm

**스팸 건축**
2005

**프리드리히 키르쉬너**

**2184년의 사람**
2005, 리얼타임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3분

**피필로티 리스트**

**심장을 적시고, 심장을 헹구어라**
2004, 혼합 매체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헤르난 디아즈 알론소**

**PS1 MoMA 2005, Sur**
2005, 건축 시뮬레이션 비디오, 5분

**핸드폰 유전자 코드**
2003, 건축 시뮬레이션 비디오, 4분

**부산 콘서트 홈 + 유투 타워**
2003, 건축 시뮬레이션 비디오, 7분

**후루이케 다이스케**

**공동의 풍경**
2006, 비디오, 텍스트, 2분 30초

**후세인 샬라얀**

**공감 피로**
2005, 디지털 비디오, 5분 26초

**FM3(장지엔 + 크리스티안 바이런트)**

**뮤직 콘서트**
2006, 인터렉티브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S-E-R-V-O**

**이중_아이디**
2006, 건축 시뮬레이션 비디오과 도안, 가변 크기

# 《두 개의 현실》 프로그램 목록

**〈새로운 물리적 현실과 가상성〉**

**일시** 2006.10.18 10:00–18: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문화관

**진행·참여** 발표: 크리스티아네 리델, 레브 마노비치, 게르프리트 쉬토커, 심혜련
질의: 서승택, 여명숙, 박영욱

**내용·참여** 가상성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이베리아, 넷 현실, 물리적 현실과 넷 리얼리티 등을 아우르는 토론

**〈매트릭스 S〉**

**일시** 2006.10.18–12.10

**장소** 서울시 내 미술관, 갤러리, 미술문화공간, 미디어아트 연구소, 교육기관 등

**내용·참여** 서울 시내 전시공간 매핑 프로젝트

갤러리 세줄, 갤러리 RM, 김진혜 갤러리, 대안공간 루프, 대안공간 풀, 문화일보 갤러리, 빗트폼 갤러리, 숭실대학교 미디어학부·대학원 미디어학과, 신한갤러리, 쌈지 스페이스, 아라리오 서울,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아트센터 나비, 아트파크, 언더그라운드 채널, 엘리스온,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미디어랩, 인사미술공간, 제로원 디자인센터,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팩토리, 토탈미술관, 트리아드 뉴미디어 갤러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연구소, 한독산학협동재단 미디어랩, 갤러리 매스

**〈미디어 씬 인 서울_메르츠의 방〉**

**일시** 2006.10.18–12.17

**장소**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야외마당

**진행·참여** 기획: 박천남, 윤진섭
진행: 박파랑

**내용·참여** 금중기 〈느슨한 충돌〉(2005), 김범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2006), 김병호 〈흔들리는 꽃〉(2006), 김상균 〈풍경 2006 - 신도시〉(2006), 김주연 〈일상의 성소〉(2005), 김지윤 〈붉은 갈채〉(2001), 노진아 〈나는 오블렛입니다!!〉(2005), 데비 한 〈일상의 비너스〉(2006), 문경원 〈통로: 도시 풍경〉(2005), 박원주 〈시지화가의 집 불 밝히다〉(2006), 안수진 〈무정부주의자의 날개〉(2004), 안진우 〈작가의 옷〉(2006), 애희 〈핀업걸 프로젝트〉(2004), 이민호 〈휴대용 풍경〉(2006), 이배경 〈비디오 채플〉(2006), 이장원 〈mosquito #1〉(2004), 이중근 〈아이 러브 유〉(2006), 이희명 〈변형식물 시리즈〉(2006), 장지아 〈스티키 플레이〉(2006), 정정주 〈거실〉(1999), 정, 진아 〈큰 것〉, 조은경 〈EMPTINESS〉(2005), 최수앙 〈실험 쥐〉(2006), 한효석 〈인간은 생각해야 한다는 저주를 받았다〉(2005), 허정수 〈사람-여자 1, 2〉(2006)

**〈생활 속의 미디어〉**

**일시** 2006.10.28–11.25 매주 토 14:00

**진행·참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연구소

**내용·참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매개로 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워크숍

## 원광연과의 대화, 「문화기술」

원광연(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설립 및 초대원장)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기획자문위원
《미디어_시티 서울》 2004 조직위원과 자문위원
《미디어_시티 서울》 2006 기획자문위원

**권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023년 12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요. 비엔날레가 있기 전이었던 1996년부터 도시에서 변화하는 미디어에 주목했던 《도시와 영상》이 세 번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비엔날레의 원형으로 파악한다면, 사실상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역사는 약 25년이나 됩니다. 올해는 관성적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행사를 개최하기 보다는, 지난 기록을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자는 계획으로 이런 인터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00년 기획자문위원, 2004년 조직위원과 자문위원, 그리고 2006년 기획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기술, 산업, 그리고 예술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며 미래 풍경을 그리고자 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원년의 취지를 상기해보면, 교수님과 같은 과학자의 참여와 기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원광연** 사실 20년도 넘은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바로 나지는 않더라고요. 인터뷰 요청 연락을 받고 보관 중인 자료들을 꺼내 봤습니다. 의외로 보관하는 문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공식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계실 테지만. 이것이 최초의 《미디어_시티 서울》 사업계획서입니다. 최종본은 아니고 드래프트 형태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해요. 이 사업계획서가 나온 시점이 1999년이죠. 밀레니엄을 바로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였고,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서울시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당시 강홍빈 부시장(1999-2002 서울시 행정1부시장, 2009-2016 서울역사박물관장)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분이 원래 건축하는 분이셔서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건립에도 굉장한 열정을 기울이셨습니다. 단순히 신도시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예술, 문화, 산업을 한자리에 모으자는 비전이 있었죠.

두 번째는 당시 '10대 도시'라고 부르던 서울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와 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기획자문위원단)는 문화예술과 첨단 기술 산업이 융복합된 전례 없는 형태면서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행사의 본질을 잡는 것에 고심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에게도 답은 없었죠. 다만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이 행사는 산업 엑스포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 세계적인 도시에 있는 아트 비엔날레도 아니다.' 그럼 산업전시도 아니고 아트 비엔날레도 아닌 뭔가를 추구해보자고 했던 것이 전반적인 합의점이었습니다.

**권진** 산업 엑스포도 아니고 아트 비엔날레도 아닌 것을 논의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시점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혹시 참조하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원광연** 그때 우리 기획자문위원회에서 몇 사람 열정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상상했던 새 밀레니엄에 걸맞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웃음)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은 안상수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축제는 예술, 매스컴, 미디어, 산업 등 그 어느 분야에만 종속되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제목이 함의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행사의 구조와 성격을 디자인해나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와 성격은 그 이름 덕이 큰 것 같습니다. 당시 기획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김홍희 선생님도 '트라이앵글 워크숍'을 인상 깊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결과보고서에도 산업, 기술, 예술 세 꼭짓점을 잇는 워크숍에 대하여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원광연** 제가 마침 그 발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트라이앵글 워크숍'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본 행사, 그러니까 《미디어_아트 서울》은 미디어아트에 집중해서 그 행보를 지속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행사의 원래 개념과 철학을 살리는 구조가 바로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봤고, 그만큼 큰 흥미를 느끼고 많은 열정을 쏟았었습니다. 이것이 워크숍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일 겁니다. 2000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전시의 주제어이자 제목을 《도시: 0과 1사이》로 정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전 미래에 관한 상상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문화행사명에 걸맞게 '0과 1 사이'라는 상징으로 이야기 한 거죠. 0과 1은 디지털을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0과 1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 디지털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비즈니스, 경제, 산업 등 다른 분야에 끼칠 영향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런

생각들을 전시로 보여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예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들여다보자는데 생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술계, 과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동기와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크숍과 전시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요.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는 예술, 과학, 산업이 있어서 이것을 묶는 의미에서 '트라이앵글'이 중요했습니다. 워크숍은 25개의 공동 작업팀이 참여해서 약 10회 정도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는데, 결국 4회까지만 개최하고 멈췄습니다. 불행히도 하나의 좋은 꿈으로만 남게 되었죠.

《미디어_시티 서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미디어아트와 달리 미디어아트의 기능성과 산업화를 고려했습니다. 예술성만 있기보다는 우리 미래의 삶과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다뤘지요. 미디어아트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상호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라이앵글'은 더 넓은 차원의 상호성, 즉 참여를 추구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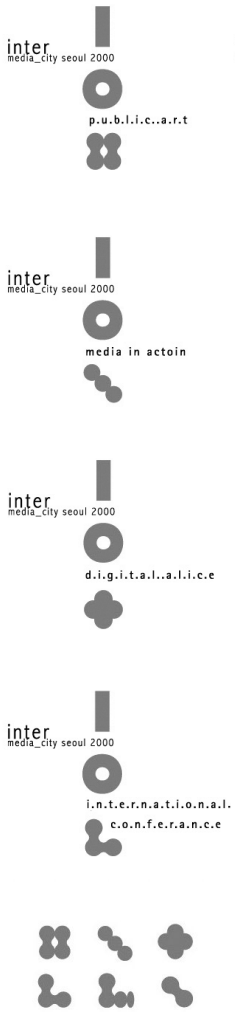
**권진** 네. 그러면 원래 계획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모아진 생각과 논의가 최종적으로 전시가 된다는 단계별 구상을 하셨던 거네요?

**원광연** 네. 워크숍 단계별로 소주제를 정해서 한번은 미래의 주거 생활, 다른 한 번은 도시 생활, 또 다른 한 번은 의식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권진** 참여자들도 예술가, 과학자, 산업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구성되었고, 각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던거죠?

**원광연** 그렇죠. 그런데 당시 문서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워크숍이 끝나면 서로 관심이 생기는 작가, 연구자, 디자이너를 알게 되고, 그 사람과 협업에 관한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넥슨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었네요.

**권진** 시대적 배경을 떠올려보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인 분들의 열정이나 상상력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알리기 시작한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처럼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모호하면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문화기술'에 대하여 2000년대 초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생겨나고 그런 변화가 도시의 일상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시대적 배경과 연결지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 0과 1사이》 시각 아이덴티티, 2000. 선, 동그라미, 그리고 점으로 표현된 디지털 요소들이 다른 형태로 모이고 흩어지며 다섯 개의 주요 전시와 프로그램 로고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1과 0 형태의 로고만 사용되었다. 디자인: 안상수. 작가 제공

**원광연** 아마도 어느 시대에서건 우리는 바로 지금이 가장 큰 변혁의 시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밀레니엄 당시에 우리는 '지금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해'라고 생각했었지만, 2022년 현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무엇이 변하는지보다는 무엇이 변화하지 않고 고유한 가치로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삼아, 거기에 변화를 실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기술'이라는 개념도 바로 그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가치는 예술과 인문학이라고 보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동력은 결국 과학기술이니까요. 과학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들이고, 그 본질에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예술 혹은 과학만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술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이분법적인 정의에만 묶어 놓고 생각합니다.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원광연**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운이 좋아서 《미디어_시티 서울》에 참여하는 영광을 가졌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학자였던 제가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자 전환점이 되었고요. 저로서는 정말 좋은 추억이자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해주고, 미래에 대한 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차별성 있는 비엔날레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경,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KBS 뉴스』, 2000년 9월 3일**

보도된 기사는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의 개막 소식과 더불어 5개 프로젝트의 주요 장면을 골고루 전한다. 송미숙 총감독은 인터뷰에서 "삶이 예술로 들어오고, 또 삶이 예술을 찾아가는 쌍방향성, 즉 인터렉션이 중요한 개념이다. 미디어아트에 관한 '교과서'같은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한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바바라 런던,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유병학 큐레이터의 모습도 함께 보도되었다.

# 도심의 가을 채울 예술의 향기

## '미디어-시티 서울 2002'…9월 26일부터 60일간 열려

서울시가 2000년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하는 '미디어-시티 서울2002'가 오는 9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60일 간 서울시립미술관과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 시청앞 광장 등에서 열린다.

'미디어-시티 서울 2002'는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로 세계 유일의 미디어 아트 축제다. 참여 작가는 한국 35명, 외국 42명 등 총 77명이며 모두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달빛 흐름(Luna's Flow)'이다. 미디어를 달에 비유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경복'의 수단이 아닌 인류가 잊고 있던 낭만을 회복하려는 '도구'로 설정했다.

마리 드 브뷔주를 퐁피두센터 전 큐레이터 등 7명을 협력 큐레이터로 영입하고, 로버트 콘진브럼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큐레이터 등 5명을 전시기획 고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나이트갤러리

미디어-시티 서울 2002는 본전시와 야외전시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갖게 될 본전시는 '디지털 서블라임(Digital Sublime)' '사이버 마인드(Cyber Mind)' '루나즈 칠드런(Luna's Children)' '루나 노바(Luna Nova)' 등이다.

미술관 건물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설정한 기획이 돋보인다. 이를테면 각각의 전시공간이 눈과 피부, 두뇌, 심장, 골격 등이 된다.

특히 핵심 전시인 '디지털 서블라임'의 경우 미술관 전면의 외부 유리창을 눈으로 설정하고, 내부 공간을 피부로 간주해 생명성을 담은 작품들로 꾸밀 계획이다.

두뇌에 해당하는 '사이버 마인드'에는 외국의 웹작가들이 실시간으로 작품을 내놓게 되며, '루나즈 칠드런'에서는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공간이다.

'루나 노바'는 아파트 구조의 모델하우스에 미디어 작품을 전시해 인체 중 골격에 해당한다.

야외전시는 덕수궁 돌담길에 작품을 내거는 '덕수궁 돌담 프로젝트', 정동길 등 시립미술관 주변을 이용한 야간 전시인 '나이트 갤러리 프로젝트', 휴대폰 사용자와 미디어 시티 행사장을 직접 연결하는 이벤트인 '휴대폰 동영상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다.

이원일 예술총감독은 "첫해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지만 기획 등 내용면에서는 한층 알찬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중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엔날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호학의 대가로 알려진 프랑스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열린다. 그는 광고, 영화, TV 등 미디어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대 세계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며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사이버마인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지난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은 서울시청 앞대가 미디어 예술작품으로 뒤덮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범시민적 축제의 장이 다시 한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미기자 jimee@mk.co.kr

**김지미, 「도심의 가을 채울 예술의 향기,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 9월 26일부터 60일간 열려」 『매일경제』, 2000년 8월 14일**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미디어_시티 서울》의 전반적인 구성을 소개하는 기사는 "대중성과 전문성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엔날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이원일 전시총감독을 인용한다.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기호학 분야의 석학인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소식도 함께 알리고 있다.

# 과도기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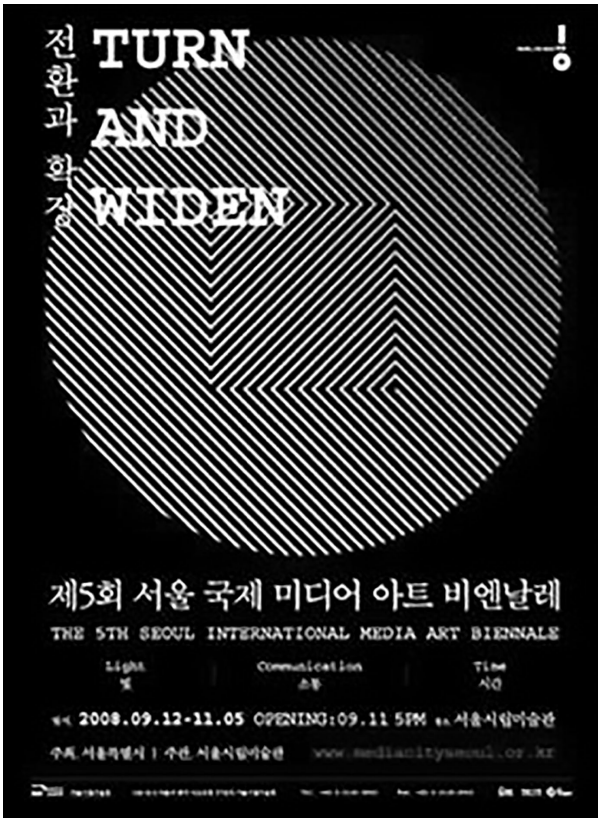
미디어 시티 서울 2010《트러스트》
전시 설치장면, 서울시립미술관, 2010

## 제5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8《전환과 확장》

| | |
|---|---|
| 기간 | 2008.9.12–2008.11.5 |
| 총감독 | 박일호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
| 작가 | 26개국 70명/팀(국내 12, 해외 58) |
| 작품 | 78점 |
| 관객 | 147,160명 |
| 프로그램 | 5종 5회 |
| 참여자 | 250명 |
| 예산 | 12.7억 원 |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의 대표 플랫폼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애플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대규모 금융위기는 한 커뮤니티의 파산만이 아닌 자본주의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한국에서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냉소와 좌절을 겪는 20–30대 청년세대를 주목하며 세대론이 급부상했다. 같은 해 미술계에서는 대안공간의 대표 격이던 쌈지아트스페이스와 정부 주도형 대안 프로그램인 인사미술공간의 주요 사업이 해체 및 이전하면서 '공간' 중심의 미술 활동은 쇠퇴를 보였다. 한편으론 미술 출판,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젝트 등 세분하게 전문화된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2010년이 지나면서《후쿠오카아시아미술트리엔날레》,《싱가포르비엔날레》,《상하이비엔날레》,《샤르자비엔날레》, 그리고《자카르타비엔날레》등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비엔날레에 국내 작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이 미디어아트라는 식의 매체 중심적 해석에 한계를 자각하며 정체성의 과도기를 지나간다.

유희영 제3대 관장이 취임하고 치뤄진 첫 에디션은 별도의 조직위원회 없이 미술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구성으로 돌아간다. 2008년 9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미디어_시티 서울 2008《전환과 확장》은 미술관장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미술관 내부 직원들이 중심이 된 사무국 실무진을 구성하고 행사를 꾸렸다. 예산은 2006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외부 후원과 협찬 12곳을 유치하였으며, 역대 처음으로 무료관람 형태로 전환되었다. 박일호 총감독과 협력 큐레이터 마르텐 베르데, 토루 마츠모토, 라울 자무디오, 안드레아즈 브뢰크만는 그동안 기술 중심으로 살펴본 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미적 체험'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져가 빛, 소통, 시간이라는 세 개의 소주제별로 작가 70명/팀의 작품 78점을 소개했다. 전시 외 프로그램으로 퍼포먼스와 심포지움이 있었고, 서울시 미술 공간들을 소개하는 〈매트릭스 S〉는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같은 해 12월 서울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환과 확장》 포스터, 2008
디자인: (주)바이널(조홍래, 조영호)

바니 아비디
〈예정된〉

2채널 비디오, 9분 30초

# 《전환과 확장》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게랄드 반 데어 카프**

**마태 수난곡 - 뉴 제너레이션 리믹스(서막)**
2006, 비디오와 혼합 매체 설치, 13분 42초

**궈이첸**

**서울시립미술관 침입**
2008, 장소특정적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6회 타이신 예술상 후원

**김신일**

**활活역易마비痲痺-반향反響**
2008, 비디오와 설치, 33분

**김윤철**

**헬로, 월드!**
2004–2005,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다니엘 플룸**

**파리**
2004, 비디오, 30분

**다미엔 온티베로스 라미레즈**

**백만장자가 되는 백만 가지 방법**
2007–, 애니메이션과 드로잉, 가변 크기

**라파엘 로자노-헤머**

**폭발-그림자 상자 4번**
2007,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국경의 리포터들-그림자 상자 6번**
2007,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리 후이**

**윤회**
2007, 레이저 설치, 가변 크기

**마농 드 보어**

**프레스토 - 완벽한 사운드**
2006, 비디오, 6분

**마르쿠스 한센**

**타인의 감정을 느끼다 No.3**
2006, 2채널 비디오, 5분
작가 및 뉴욕 버질드블드르갤러리 제공

**마르크 리**

**브레이킹 더 뉴스 - 뉴스자키 되기**
2007, 인터넷 기반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스위스연방문화성 Sitemapping.ch, 이케아재단 및 미그로스문화재단 후원

**마리 세스터**

**노출**
2001, 2008, 디지털 C 프린트, 205×85.72 cm
사진 합성: 데이비드 로렌스

**마리나 주르코우**

**혁명의 영웅들**
2007, 애니메이션, 3분 31초

**포스터 칠드런**
2007, 애니메이션, 9분

**마이클 모리스 · 사토 요시코**

**라이크 샤워 II**
2008,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비디오: 폴 라이언, 사운드: 마이클 스니어리

**마이클 벨 스미스**

**백악관 위의 새들**
2006,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뉴욕 폭시프로덕션 제공, 워싱턴 DC 마크 로스만 소장

**그리드 위에서**
2007, 디지털 비디오, 3분 2초
작가 및 시드니 로슬린옥스레이9 제공

**마츠오 타카히로**

**환상**
2007,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모니카 브라보**

**시간의 파편: 현재_여기에_있다**
2008, 설치, 가변 크기
사운드: 마이크 헬렌백

**모리 유코 · 미하라 소이치로**

**성가심**
2008, 인터렉티브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야마구치예술정보센터 인터랩 후원

**뮌**

**인산인해**
2005, 비디오 조각 설치, 5분

**미구엘 엔젤 리오스**

**위험한 경계**
2005, 2채널 비디오, 4분 23초

**미네트 바리**

**진동**
2007, 디지털 비디오, 34분
작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굿맨갤러리 제공

**바니 아비디**

**예정된**
2006, 2채널 비디오, 9분 30초

**서효정**

**테이블 위의 백설공주**
2008,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수잔 빅터**

**부끄럽게 버려진 곳에서 정신을 소비한다**
2002, 키네틱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신기운**

**알람시계**
2006, 비디오, 4분 12초

**잃어버린 시간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아나이사 프랑코**

**연결된 기억**
2008, 인터랙티브 빛 조각, 가변 크기
Max Msp 프로그래밍: 조르디 푸이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에드워드 알론, 음악: 테오 피르모, 목소리: 테오 피르모, 줄리아나 문딤

**아니쉬 카푸어**

**상흔과 부재하는 것들**
2003, 비디오, 7분 13초

**양투안 슈미트**

**살아있는 파사드**
2007, 장소특정적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앤 베로니카 얀센스**

**이클립스**
2006, 비디오, 2분 50초
비디오: 기욤 블레

**야신 셉티**

**점프!**
2005, 인터렉티브 비디오, 가변 크기

**양푸동**

**지얼의 가축**
2002–2008, 10채널 비디오와 혼합 매체 설치, 14분

**에리카 하쉬**

**에로스와 타나로스**
2006, 비디오와 혼합 매체 설치, 12분

**올라퍼 엘리아슨**

**그림자 투영 램프**
2004, 라이트 설치, 가변 크기

**원성원**

**자매의 전쟁**
2008, 라이트젯 프린트, 200×120 cm

**강아지 마을**
2008, 라이트젯 프린트, 200×120 cm

**윌리엄 켄트리지**

**다가올 것들**
2007, 목탄과 색연필 애니메이션, 8분 40초

**유현정**

**존재 - Be + ing**
2008,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이자와 코타**

**레논 · 손탁 · 보이스**
2004, 3채널 비디오, 각 1분
헤인즈갤러리 및 21세기를 위한 아티스트 펀드 제공

**이준**

**한 병의 일기**
2008,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이토 아츠히로**

**무한 방출**
2008, 빛-사운드 퍼포먼스, 가변 크기

**일렉트로부티그(아리스타크 체르니셰프 · 알렉세이 슐긴)**

**수퍼- I**
2003–2008, 고글, 가변 크기

**정연두**

**다큐멘타리 노스탤지어**
2007, 비디오, 85분

**정영훈**

**꽃들**
2005–2007,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프로그램: (주)미디어플로우, (주)CDI Holdings 후원

**조이스 힌터딩 · 데이빗 헤인즈**

**빌헬름 라이히를 위한 두 작품**
2006, 비디오와 혼합 매체 설치, 60분

**준 응우옌-하츠시바**

**베트남 기념 프로젝트**
2001, 디지털 비디오, 13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01 커미션 작가, 도쿄 미즈마갤러리 및 뉴욕 리만머핀갤러리 제공

**줄리앙 매르**

**폭탄 카메라**
2007,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진기종**

**CNN**
2007, 혼합 매체와 실시간 4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알자지라**
2007, 혼합 매체와 실시간 4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감독의 의자**
2007, 키네틱 조각, 가변 크기

**채미현 · Dr.정**

**우주**
2006–2008, 레이저 설치, 3분

**치우안시옹**

**남쪽으로의 비행**
2006, 애니메이션, 9분 12초

**카를로스 아모랄레스**

**헛된 의문**
2006, 애니메이션, 8분
작가 및 멕시코시티 쿠리만주토 제공

**카를로스 코로나스**

**어디에도 없는**
2007, 장소특정적 네온설치, 가변 크기

**크리스타 조머러와 로랑 미뇨노**

**생명을 쓰는 타자기**
2006,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상파울로 ITAU문화협회 소장

**크리스토퍼 토마스 알렌(라이트 서전)**

**대화**
2008,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크리스티나 마테우스**

**나에게 말해봐**
2007, 14분 32초
사운드트랙: 투시아 베르제(2005)

**클레버슨**

**마크-부르클린**
2008, 랜티큘러 디지털 C 프린트, 가변 크기

**타니아 루이즈 구띠에레즈**

**철창**
2002–2007, 비디오

**타카하시 쿄타**

**사라짐**
2006,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협력: 이치가와 야스시

**테레사 세라노**

**보카 드 타블라**
2008, 비디오, 13분

**토마스 쾨너**

**영혼의 산화물(1부)**
2007, 비디오, 11분

**튜라 힐덴 · 피오 디아즈**

**극한의 열기**
2008, 장소특정적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파블로 발부에나**

**증강된 조각 시리즈**
2007–2008,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마드리드 미디어랩프라도 후원

**폴 챈**

**제6의 빛**
2007, 비디오
몬드리안 재단 후원

**피터 스트류컨**

**스크리아빈의 프로메테우스**
1997, 3채널 비디오

**헤르빅 바이저**

**디스코 이전의 죽음**
2005–2006, 빛-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헤르빅 투르크**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하기**
1998–2008,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협력: 파울루 페레이라 박사

**헬가 그리피스**

**미시 기후**
2008, 멀티미디어 인터렉티브 설치, 가변 크기
프로그램: 알레한드로 네링, 필립스 및 지오스페이스인터네셔널 후원

**홍동루**

**정신적인 것**
2007,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회전**
2007, 애니메이션, 10분

**후지 시로**

**20010218-20060218**
2007, 비디오, 3분 30초

**AES + F**

**최후의 반란**
2007, 3채널 HD 디지털 애니메이션 설치, 19분 25초

**C. E. B. 리아스**

**T1**
2004,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ITRI 크리에이티비티 랩**

**기의 흐름**
2007,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컨셉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슈민, 아트 디렉터: 야우 첸, 프로듀서: 호루스 슈, 기술 디렉터: 린창강, UWB 기술 디렉터: 타오테호, 인터렉티브 사운드 디자이너: 리탕춘, 크리에이션 프로듀서: 타이완 경제부, 크리에이터: 산업기술연구소(ITRI), 책임 프로듀서: ITRI Creativity Lab

# 《전환과 확장》 프로그램 목록

## 개막 행사

**〈무한 방출〉**

**일시** 2008.9.1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3층 카페테리아

**진행·참여** 이토 아츠히로

**〈Light, light, lighting.....〉**

**일시** 2008.9.1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3층 카페테리아

**진행·참여** 조기숙 외 30인

## 연계 프로그램

**〈매체의 전환, 미적 경험의 확장〉**

**일시** 2008.9.11 13:30–16:00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

**진행·참여** 하선규

**내용·참여** 더글러스 켈너 '예술의 디지털화와 그 변용'
올리버 그라우 '미디어 아트 역사와 아카이브 필요성'
질의: 김진엽, 심혜련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자료전〉**

**일시** 2008.9.12–11.5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매트릭스 S〉**

**일시** 2008.9–11

**장소** 서울시 내 미술관, 갤러리 등

**내용·참여** 서울 시내 전시공간 매핑 프로젝트

갤러리 라이트박스, 갤러리 루프, 갤러리 상상마당,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 갤러리 잔다리, 갤러리 팩토리, 갤러리 LVS, 대림 미술관,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일보 갤러리, SAMUSO: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주), 송은갤러리, 아트선재센터, 아트센터 나비, 피 케이 엠 갤러리, 피 케이 엠 트리니티 갤러리, 토탈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008 동아미술제 전시기획 공모〉 당선작 전시회, 앨리스온, 언더그라운드아트채널, 오프도시OFF ℃ : 언더그라운드아트채널 + 미디어 + 카페 OFF ℃

##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10《트러스트》

| | |
|---|---|
| 기간 | 2010.9.7–2010.11.12 |
| 총감독 | 김선정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야외 중정,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서울스퀘어, 한국경제신문 지면 |
| 작가 | 17개국 42명/팀(국내 10, 해외 32) |
| 작품 | 69점 |
| 관객 | 152,706명 |
| 프로그램 | 11종 23회 |
| 참여자 | 750명 |
| 예산 | 14억 원 |

10주년을 맞이하며《미디어_시티 서울》은 미술관이 주관하는 기존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우선 그동안 사용하던 행사의 공식 명칭에서 '_'를 지우고, 새로운 엠블럼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해석을 서울이라는 도시와 연결지어 미술관 주변의 여러 공간을 주목하게 된다.

2010년 9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린 미디어 시티 서울 2010《트러스트》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김선정 총감독을 선임했다. 사무국은 미술관 전시과 학예사 2인만이 지원 근무하는 형태로 참여했고, 4인의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프로젝트별 인력이 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예산은 예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외부 후원과 협찬 14곳과 협력 7곳을 유치하였다. 2009년 역대 처음으로 개최한 프리비엔날레에서 김선정 감독은 미디어에 대한 고정 관념을 지우고 동시대 서울이라는 장소와 역사를《미디어 시티 서울》의 환경이자 레퍼런스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협력 큐레이터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후미히코 수미토모, 클라라 킴은 준비 단계에서 워크숍을 통한 공동 리서치, 원격 미팅, 작가의 사전방문, 신작 제작 지원 등 동시대 미술의 전문적인 제작 관행을 시도했다.

전시는 동시대에 활발한 활동을 만들어가는 현대미술 작가 42명/팀의 작품 69점을 초대하여 필름, 단채널과 다채널 비디오, 사진, 사운드, 퍼포먼스, 슬라이드, 상황극, 참여형 프로그램 등 여러 형태와 매체를 아우르며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풍경을 조명하였다. 여러 작품 중에서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에서 제작하고 소개된 조덕현의 〈허스토리 뮤지엄〉은 19–91세 여성 100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여성 삶을 중심으로 기술된 한국사를 다루었다.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의 〈발견된 조각품〉은 한국경제 신문 지면에 연재 기사의 형태로 '신문과 미술의 크로스 미디어' 전시를 시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스퀘어 외벽에 작품을 상영하고, 사운드 작품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소개되거나, 전시장을 배경으로 연출한 상황에 관객이 참여하는 형태의 작품 등은 최신의 동시대 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아트비엔날레'로서 본격화 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다수의 커미션 작품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트러스트》 시각 아이덴티티:
스튜디오 람블/홈부르거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작품을 지원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도록은 그동안 기획의 글과 작품의 최소 정보만을 담은 단순한 형식에서 벗어나, 출판물 기획에 맞춘 필자와 구성을 갖추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 출판물로 완성되었다. 관객은 152,706명으로 2000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하였다.

《트러스트》 기자간담회

한국프레스센터 2010.8.11

김순기
〈우물의 침묵〉

2010,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서울역사박물관 야외 중정 전시 전경,
2010

박찬경
〈신도안_시천주〉

2008, 단채널 비디오, HD, 7분 35초

양아치
〈밝은 비둘기 현숙씨, 경성〉

2010,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3분 2초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노순택
〈얄읏한 공〉 연작

2004–2007, 디지털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60×90 cm(12점),
각 84×113.5 cm(12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조덕현
〈허스토리 뮤지엄 프로젝트〉

2010, 여성 100명의 목소리 설치,
가변 크기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결과보고서』(서울시립미술관, 2010) 발췌

서도호
〈나/우리는 누구인가?:유니-페이스〉

1996–2010, 서울스퀘어 상영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결과보고서』(서울시립미술관, 2010) 발췌

**사진 작품 지상展 여는 작가 크루스비예가스**
**한경, 국내 언론 첫 연재...르몽드紙도 시도**

화려한 마천루에 찔려 하늘이 줄줄 새는 멕시코시티와 서울.그 아래에는 보통사람들이 사는 음침한 지하철 터널과 폐쇄된 공원,주택 재개발 지역 등 거대 도시의 그늘이 존재한다. 도시의 후미진 곳에 들어가 하찮은 사물의 변용을 카메라 렌즈로 잡아내는 작가가 있다.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2010 서울미디어시티 · 7일 ~11월17일)에 참여한 멕시코 미술가 아브라암 크루스비예가스(42 · 사진).그는 "멕시코시티의 하찮은 사물을 내보이는 것은 단순한 미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 초대된 그는 알렉산더 칼더재단과 스미스소니언미술관,베를린DAAD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잇달아 참여하며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LA,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그는 회화와 사진,미디어 아트,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동 건축'이란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자동 건축'은 화석,철근,비닐봉지 등 도시 주변의 사물들이 버려지거나 재탄생되는 특정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뉴미디어아트다.

그의 작품은 단지 사진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매체를 통해 이를 알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미술가 장 뤽 뮬렌이 2005년 유명 일간지 르몽드와 손잡고 '크로스 미디어 아트'를 시도해 화제를 모은 것에 착안했다.

비엔날레 행사 기간 한국경제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될 이번 지상전의 프로젝트 제목은 '발견된 조각들'.멕시코시티 아후스코 지역에서 발견된 철재빔,화산재,비탈길,부서진 주택 등 다양한 사물을 찍은 신작 10점을 1주일 간격으로 한국경제신문 지면을 통해 보여준다.

"사람들이 사용했거나 버려진 사물을 카메라 렌즈로 담아내지만 그것은 작업의 일부에 불과해요. 사진이 미디어 (신문)를 통해 전달된 뒤 독자들의 반응까지 담아내는 것을 작품의 완성으로 보거든요. "

그는 "세상에서 소외된 것이 응집된 곳이라서 쇠락한 도심 풍경만 찍는다"며 그동안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가나 인기 배우,성공한 사람 등 유명인보다 평범하고 하찮은 물건에서 잠재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내가 아후스코 지역에서 태어날 당시만 해도 그곳은 황무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널려있는 화산재,나무,돌 등을 활용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집, 가구,학교,생필품을 만들더군요. "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자연에서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작품을 공산품처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물에 담긴 잠재성을 일깨운다는 생각에서다.

"저는 1950~196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화풍인 '아르테 포브르'(arte pauvre · 물감이나 붓을 사용하지 않고 돌,풀,나무 등 자연을 활용한 미술.일명 '가난한 예술')에서 미술적 영감을 받았어요. 물감이나 붓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을 그대로 잡아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저는 1950~196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화풍인 '아르테 포브르'(arte pauvre · 물감이나 붓을 사용하지 않고 돌,풀,나무 등 자연을 활용한 미술.일명 '가난한 예술')에서 미술적 영감을 받았어요. 물감이나 붓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을 그대로 잡아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원시미술이지만 신문이나 방송을 활용하기 때문에 21세기 미술인 셈이죠."

작가는 멕시코시티에서 발견된 조각들이 서울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멕시코시티나 서울이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해부하고 싶었고 , 보이지 않는 내면을 벗겨내고 싶었죠."

그의 데카당스한 배경 속에는 늘 한국의 재개발 지역 같은 이미지가 녹아 있다. 그는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21세기 문명의 도시 그늘에서 서성거리는 '아담'인 셈이다. 도심에 버려진 사물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다보니 무언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미디어를 활용하기로 작정했다"며 "익숙한 물건들이 화면에 들어가자 험악하고 하찮은 공간들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인이 신문에 글을 게재하는 것처럼 미술가가 작품을 실어 지상 관람객들의 오감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민주적인 소통의 의미까지 일깨워줄 겁니다. "

크루스비예가스 사진 작업은 서울역 앞 서울 스퀘어빌딩의 미디어 캔버스에서 비엔날레 행사 기간 매주 월 · 수 · 금요일 상영된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발견된 조각품〉

2010

주 1회/총 11회, 한국경제신문 지면 소개
기자: 김경갑
「신문과 미술의 유쾌한 소통... 이게 미디어 아트」, 『한국경제』, 2010.9.6

# 《트러스트》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중정,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서울스퀘어, 한국경제신문 지면

**고이즈미 메이로**

**비디오 I: 제목 없음**
2000, 단채널 비디오, 2분

**비디오 II: 어린 사무라이의 초상**
2009, 2채널 비디오 설치, 9분 40초

**비디오 III: 남자를 위한 멜로 드라마**
2008, 3채널 비디오 설치,
16분 45초

**비디오 VI: 죽은 영웅의 목소리(가제)**
2010, 단채널 비디오 설치

**김범**

**제목 없음(뉴스)**
2002, 단채널 비디오, 1분 42초

**김성환**

**강냉이 그리고 뇌 씻기**
2010,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22초
출연: 윤진, 음악: 공동작업 dogr

**나스린 타바타바이 & 바박 아프라시아비**

**위성, 그것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만 하면**
2010, 비디오, 비디오 스틸,
28분 50초

**노순택**

**얄읏한 공 연작**
2004–2007, 디지털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90×60 cm(12점),
각 113.5×84 cm(12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데이만타스 나르케비시우스**

**두상**
2007, 비디오로 전환된 발견된
비디오 푸티지, 컬러, 사운드,
12분 14초
브뤼셀 얀 모트 제공

**라이너 가날**

**나는 칼 맑스를 증오한다**
2010, 단채널 비디오, 5분 43초
브뤼셀 일레인리바이 프로젝트,
뉴욕 알렉스자차리 및 스톡홀름
플룻앤플라워델리

**마농 드 보어**

**아티카**
2008, 16 mm 필름, 흑백, 모노
사운드 재생, 10분
브뤼셀 얀 모트 제공

**마크 브래드포드**

**킹덤 데이 2010**
2010, 캔버스에 혼합 매체 콜라주,
1043.9×365.8 cm
포트워스현대미술관 소장

**미키 크라츠만**

**표적 살인**
2010, 디지털 프린트,
각 170×116 cm(10점)

**박찬경**

**신도안_삼신당**
2008, 단채널 비디오, HD, 7분 55초
작가 제공

**신도안_영가무도**
2008, 단채널 비디오, HD, 5분 20초
작가 제공

**신도안_기념촬영**
2008, 단채널 비디오, HD, 8분 24초
작가 제공

**신도안_시천주**
2008, 단채널 비디오, HD, 7분 35초
작가 제공

**신도안_쿠베라**
2008, 단채널 비디오, HD
작가 제공

**신도안_계룡산 영천봉**
2008, 단채널 비디오, HD
작가 제공

**빌럼 데 로이**

**오렌지**
2004, 컬러 슬라이드 81개 시퀀스,
방음 상자, 가변 크기
베를린/쾰른 다니엘부흐홀츠갤러리
제공

**부케 VII**
2010
화훼: 김다라

**사라 모리스**

**베이징**
2008, 35 mm 필름 비디오, HD,
84분 47초

**서도호**

**나/우리는 누구인가?:유니-페이스**
1996–2010, HD 비디오, 애니메이션

**쉴파 굽타**

**노래하는 구름**
2008–2009, 여러 대의 오디오와
수천 개의 마이크 장착된 오브제,
61×457×152 cm(오브제),
9분 30초(사운드)

**제목 없음**
2008–2009, 모션 플랩보드,
21.8×180×25 cm

**시징맨(첸 샤오시옹, 김홍석, 오자와 츠요시)**

**제1장: 시징을 아세요?**
2007

**제2장: 이것이 시징입니다-서쪽으로의 여행**
2008

**제3장: 웰컴 투 시징-시징올림픽**
2008

**제4장: 시징을 사랑해요-시징대통령의 일상**
2009, 컬러 프린트, 비디오,
사진(9점), 가구, 종이 가방, 거울,
종이 조각 등, 가변 크기
후쿠오카 아시아아트뮤지엄 소장

**아네테 켈름**

**이스라엘 하이파의 조립식 주택, 1933–1935**
2009, 컬러 프린트,
각 74.6×60.1 cm(9점)
베를린 요한쾨닉 제공

**아드리아 줄리아**

**잃어버린 '오'에 대한 짧은 노트**
2009–2010, 3채널 비디오와 필름,
설치와 사진, 비디오로 전환한 16 mm
필름, 흑백, 사운드, 가변 크기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자동건축: 앙헬레스 푸엔테스와 로헬리오크루스비예가스의 대화**
2009, 2채널 HDV 비디오, 컬러,
사운드(스페인어), 자막(영어),
34분 21초
작가 및 멕시코시티 쿠리만주토 제공

**안토니오 카바예로**

**노르마 라자레노와 다비드 실바, 녹뚜르노 매거진을 위한 포토노벨라**
1968년경, 알루미늄에 부착된
나무와 유리 프레임의 실버 프린트,
106×105.5 cm
파리 폴라리스갤러리 제공

**베로니카 카스트로와 잭 길베르트, 카프리쵸 매거진을 위한 포토노벨라**
1970년경, 알루미늄에 부착된
나무와 유리 프레임의 실버 프린트,
106×105.5 cm
파리 폴라리스갤러리 제공

**사비에르 로야와 블리카 산체스, 녹뚜르노 매거진을 위한 포토노벨라**
1960년경, 알루미늄에 부착된
나무와 유리 프레임의 실버 프린트,
106×105.5 cm
파리 폴라리스갤러리 제공

**알마 무리엘과 마노로 제페다, 노벨라스 데 아모르 매거진을 위한 포토노벨라**
1970년경, 알루미늄에 부착된
나무와 유리 프레임의 실버 프린트,
106×105.5 cm
파리 폴라리스갤러리 제공

**미확인**

**미확인**

**앨런 세큘라**

**플로니아와 다른 우화들**
2007–2009, 컬러 프린트, 가변 크기
시카고 대학교 르네상스 소사이어티
및 폴란드 국립 미술관 제작지원
작가 및 산타모니카 크리스토퍼
그라임스 갤러리 제공

**야엘 바타나**

**메리 코슈메리(악몽)**
2007, 비디오로 전환한 슈퍼 16 mm
필름 단채널 비디오, 10분 50초
작가, 암스테르담
아네트겔링크갤러리 및 바르샤바
폭발갤러리재단 제공

**야엘 바타나**

**벽과 탑**
2009, RED 디지털 카메라 촬영, HD 비디오 프로젝션, 15분
작가 및 암스테르담 아네트겔링크갤러리 제공

**양아치**

**밝은 비둘기 현숙씨 경성**
2010,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3분 2초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왈리드 라드**

**인질: 바카르의 기록(영어버전)**
2000/2002,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6분 20초
뉴욕 파울라구퍼갤러리 제공

**눈물을 흘릴수만 있다면**
2001/2002, 단채널 비디오, 무음, 7분 40초
뉴욕 파울라구퍼갤러리 제공

**율리카 루델리우스**

**영원히**
2006, 2채널 비디오 설치, 16분 50초
작가 제공

**이주요**

**한강에 누워**
2003–2006, 단채널 비디오
음악: 데이빗 디그레고리오

**이즈미 타로**

**슬랭으로서 물고기 뼈**
2010,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함선미, 김대호, 김병찬, 김환중, 유광근

**영원히 스프인 채로**
2010,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함선미, 김대호, 김병찬, 김환중, 유광근

**마스크/카멜레온**
2010,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함선미, 김대호, 김병찬, 김환중, 유광근

**핀란드**
2010,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함선미, 김대호, 김병찬, 김환중, 유광근

**주디 라둘**

**법정 극장: 유죄를 인정하는 군인과 기소된 공화국 21대 대통령의 재판**
2009, 7채널 비디오 설치
작가, 벤쿠버 모리스와 헬렌벨킨갤러리 및 벤쿠버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지미 더햄**

**행복 추구**
2002, DVD로 전환한 35 mm 필름 비디오, 12분
작가 및 파리 미셸 랑 갤러리 제공

**지아드 안타르**

**감자농장**
2009, DVD로 전환한 8 mm 필름 비디오, 4분
출연: 파디 다납, 하빕 비디

**베이루트 폐허**
2007–2009, 컬러 프린트, 각 95×124 cm
협업: 라샤 살티

**캐서린 오피**

**취임식 연작**
2009, 컬러 프린트, 127×95.5 cm(1점), 각 61×46.6 cm(6점)
로스앤젤레스 레건프로젝트 제공

**크리스토둘로스 파나요투**

**아이랜드**
2010, 흑백 슬라이드 160장, 가변 크기
이미지 제공: 키프로스 공화국 공보부 아카이브작가 및 이스탄불 로데오 제공

**토비아스 칠로니**

**르 벨르 디 스캄피아**
2009, 사진 애니메이션, 9분 16초
작가 및 베를린 KOW 제공

**빅 섹시랜드2006**
2006, 컬러 프린트, 67×100 cm
작가 및 베를린 KOW 제공

**빅 섹시랜드2008**
2008

**투안 앤드류 응우옌**

**힙합의 역사를 샘플링하는 힙합의 역사: 레드 리믹스**
2008, 자전거, 개조된 내장 스피커, MP3 플레이어,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티노 세갈**

**이것은 새롭다**
2010, 상황극, 가변 크기
현장 해설: 김다영, 정효경
서울 개인 소장

경희궁분관(구 서울600년기념관)

**더글라스 고든**

**내 당나귀와 함께하는 고행**
2008,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Studio Lost but found 제공

**루카스 밤보지/캉 기마랑스/베토 마갈량이스**

**끝없음의 끝**
2001, DV, 컬러, 돌비 디지털, 92분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프리미티브 프로젝트**
2009, 비디오, 사진, 가변크기
프리미티브 프로젝트 제공

**에릭 반 리스하우트**

**섹스는 감상적이다**
2009, HD, 컬러, 사운드, 21분

**이주요**

**한강에 누워**
2003–2006,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임민욱**

**손의 무게**
201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13분 50초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조덕현**

**허스토리 뮤지엄 프로젝트**
2010, 여성 100명의 목소리 설치, 가변 크기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중정

**김순기**

**우물의 침묵**
2010,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 《트러스트》 프로그램 목록

## 프리비엔날레

**2009 국제심포지엄 〈미디어아트를 바라보는 병렬적 시선들〉**

**일시** 2009.12.8 13:3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진행·참여** 김선정, 손영실

**내용·참여** 김선정 '미디어_시티 서울 2010을 구상하며'
윤준성 '병렬과 교차: 도시 특정적 비디오아트'
김승덕 '가상의 귀환'
얍 굴드몬드 '미디어 아트: 레스 이스 모어'
프랭크 고트로 '미디어 번'
질의 및 종합 토론: 김성원

**2009 국제심포지엄 〈미디어아트를 바라보는 병렬적 시선들〉**

**일시** 2009.12.09 13:3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진행·참여** 김선정, 손영실

**내용·참여** 박일호 '매체의 전환, 미적 경험의 확장'
후미히코 수미토모 '예술과 미디어에 있어서의 창의성: 요코하마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2009'
젠 미주이크 '엑스페리멘타: 호주, 멜버른에서의 미디어 아트'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모럴리티'
김지훈 '블랙 박스와 버추얼 윈도우를 넘어서: 오늘날의 미디어 아트에서 스크린의 스케일과 위치'
클라라 킴 '상상의 커뮤니티들'
질의 및 종합 토론: 심철웅

**프레스 프리뷰**

**일시** 2010.9.4–5 12:0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참여** 타렉 아투이

## 개막 행사

**개막축하공연**

**일시** 2010.9.6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작가** 타렉 아투이

**〈언-드럼1: 소음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들〉**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정문 앞

**작가** 타렉 아투이

## 아웃도어 프로그램

**〈언-드럼2: 차이니즈 커넥션〉**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정문 앞

**작가** 타렉 아투이

**〈언-드럼3: 의미론적 주사 전자현미〉**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정문 앞

**작가** 타렉 아투이

**〈율리케와 아이몬의 순응〉**

**장소** 서울시립미술관과 덕수궁 중명전 사이

**작가** 블라스트 씨어리
퍼포머: 김현중, 유성진, 정진희

**〈자동건축: 앙헬레스 푸엔테스와 로헬리오크루스비예가스의 대화〉**

**장소** 서울스퀘어

**작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발견된 조각품〉**

**일시** 2010.9.6–11.11 (11회)

**장소** 한국경제신문

**작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나/우리는 누구인가?:유니-페이스〉**

**장소** 서울스퀘어

**작가** 서도호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장소** 덕수궁 대한문 근방

**작가** 던컨 스피크먼

##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12 《너에게 주문을 건다》

| | |
|---|---|
| 기간 | 2012.9.11–2012.11.4 |
| 전시총감독 | 유진상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상암 DMC홍보관 |
| 작가 | 21개국 49명/팀 (국내 14, 해외 35) |
| 작품 | 57점 |
| 관객 | 102,404명 |
| 프로그램 | 15종 23회 |
| 참여자 | 220명 |
| 예산 | 12.3억 원 |

2012년 9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 미디어 시티 서울 2012 《너에게 주문을 건다》는 예년과 비슷하게 자문위원회를 통해 유진상 전시총감독을 임용하였다. 일곱 번째 비엔날레는 감독 임용 이후로 김홍희 제4대 관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본격적인 현대미술 기획 기관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가운데 치러진다. 미술관 학예사 1인이 지원 근무 형태로 참여했고, 기획팀의 코디네이터 8인은 미술관이 아닌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며 행사를 꾸렸다.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을 제시하고자 했던 2010년과 달리 기술 중심의 미디어아트에 다시 집중하는 선택을 보여준다. 협력 큐레이터 유키코 시카타, 올로프 반 빈든, 최두은과 함께 작가 49명/팀의 작품 57점을 소개했고, 전시와 프로그램 장소로 서울시립미술관과 상암 DMC 홍보관 두 곳을 고루 사용했다. 2006년에 개관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나 금천예술공장에서 프로그램이 있었던 점은 서울을 네트워킹하는 《미디어 시티 서울》의 역할에 충실한 선택이었다. 이 해에 예산은 1억 원 이상 삭감되었고, 관객은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너에게 주문을 건다》 포스터, 2012
홍보물 제작: (주)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프리비엔날레
〈뉴 미디어아트:
새로운 이슈와 상황들〉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2011.12.8

《너에게 주문을 건다》 개막식

서울시립미술관, 2012.9.11

홍성민
〈내셔널지오그라픽〉

2012

개막 공연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2012.9.11

정연두
〈식스 포인츠〉

2010,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8분 44초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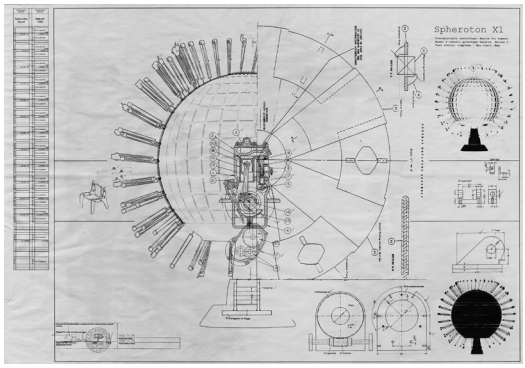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2

구동희
〈맥 아래서, 주문을 건다〉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15분 30초

협력: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2

틸 노박
〈원심력체험〉

2011, 필름/비디오(7 시리즈),
컴퓨터 프린트(7 시리즈),
3분(반복 재생),
53×84 cm(2점), 54×84 cm

작가 및 CFCA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상암 DMC 홍보관 전시 전경, 2012

외부 전시상영 프로그램
〈도시에 주문을 걸다〉

DMC미디어보드 상영 모습,
2012.9.11–11.4
기획 : 뉴 미디어아트 연구회(NMARA)

# 《너에게 주문을 건다》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상암 DMC홍보관

**고단 사비치 & 벤트 쉴렌**

**파케트브뤼크**
2012, 네트워크 미디어,
90×90×180 cm
작가 제공

**구동희**

**맥 아래서: 주문을 건다**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15분 30초
협력: 아트스페이스 풀 및
미디어시티 서울 2012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김정한(BiKE Lab.)**

**EMC(도시의 마음, 그 발현)**
2012, 시맨틱 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 가변 크기
협력: 이현진, 김홍기, 김중도,
조일현, BiKE Lab.(김정한 외 EMC
프로젝트 팀)

**나타니엘 멜로스**

**영국사의 일곱시대 티저**
2010, 블루레이 full HD 비디오
프로젝션, 사운드, 4분
작가 및 런던 매트갤러리 제공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눈을 감는 영혼들**
2012, 3채널 HD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데니스 페저**

**수직적 착란**
2010, 필름, 4분
작가 제공

**데이비드 보웬**

**파리트윗**
2012, 혼합 매체,
76.2×76.2×127 cm

**데이비드 클레어보트**

**알제의 행복한 순간의 단면들**
2008, 단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흑백, 스테레오 오디오, 37분
작가 및 파리 이봉랑베르, 앤트워프
미쉘린슈와이처, 취리히 하우저 &
워스 제공

**도미닉 가뇽**

**평화롭게 잠들다, 미국 단편들 중**
2009, 디지털 비디오, 62분
작가 제공

**단편들과 사랑 모두 지옥으로**
2011, 디지털 비디오, 62분

**로미 아치투프**

**크라프트의 마지막 테이프**
2012, 뉴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로버트 오버벡**

**가상세계의 끝**
2010, 게임, 디본드에 새틴 프린트,
82×144 cm

**로베르 르파주, 사라 캔더다인,
제프리 쇼**

**파편화**
2011, 동기화된 3D 비디오 6대 설치,
10분 48초(반복 재생)

**료지 이케다**

**데이터.매트릭스(n°1-10)**
2009, 오디오 비주얼 설치, 10채널
프로젝션, 가변 크기
도쿄 코야나기갤러리 제공

**료타 쿠와쿠보**

**10번째 감상(점 · 선 · 면)**
2010, N 게이지 레일과 기차, 다양한
일상용품, 가변 크기

**마나베 다이토 & 이시바시 모토이**

**입자들**
2011, 공간, 빛, 소리, 컴퓨터,
6023×10041×5358 cm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공동제작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예술가는
아름다워야 한다**
1975, 퍼포먼스
작가 및 뉴욕 션켈리갤러리 제공

**모리스 브나욘/모벤**

**세상으로 통하는 터널**
2012,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설치,
혼합 매체(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음성인식, 향수, 선풍기), 가변 크기

**미카미 세이코**

**시선추적기술**
2011, PA 시스템, 아이트래킹 장치,
액츄에이터와 양방향 입체 헤드폰,
가변 크기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커미션

**방앤리**

**FAQ**
2012, 멀티스크린 설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오픈 소스,
가변 크기

**Lost in Translation**
2012, 멀티스크린 설치, 가변
스크린플레이, 구글 번역 API ver.2,
가변 크기

**Revision History X**
2012, 종이에 잉크젯과 실크스크린,
가변 크기

**블라블라브랩**

**스스로 기념품이 되어보세요**
2011, 3D 프린터, 키넥트, ABS
플라스틱, 가변 크기

**소 칸노 & 야마구치 타카히로**

**센스리스 드로잉 봇**
2011, 스케이드보드, 금속 추,
전자부품, 컬러 스프레이, 가변 크기

**아델 압데세메드**

**기억**
2012, 모니터에 비디오, 16:9,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 20초(반복재생)
작가 및 뉴욕 데이비드 즈위너 제공

**아크람 자타리**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거야**
2010, 필름, 12분
작가 및 함부르크/베이루트
스파이어-셀머갤러리 제공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거야**
2010, 스텐실 종이에 타이핑,
가변 크기

**에브리웨어**

**크로우드로우**
2012, 군중에 의해 조작되는
페인트건, 50×50×50 cm

**엑소네모**

**데스크톱밤**
2012, 마우스 커서가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컴퓨터 설치 및
프로젝션, 사운드, 가변 크기

**옌스 분덜링**

**디폴트 투 퍼블릭**
2008–2011, 퍼블릭 네트워크 작업,
벽에 프로젝션, 가변 크기

**윤지현 & 김태윤**

**A/DD/A**
2012,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정연두**

**식스 포인츠**
2010,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8분 44초
작가 및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식스 포인츠_한국**
2010

**식스 포인츠_인도**
2010

**식스 포인츠_이태리**
2010

**식스 포인츠_멕시코**
2010

**식스 포인츠_중국**
2010

**제니 홀저**

**정치에 관하여**
2008, 흑백 피그먼트 프린트,
190.5×152.4 cm
작가 및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당신은 죽일 것이다/나는 망각한다**
2006, 흑백 피그먼트 프린트,
139.7×111.1 cm

**즈비넥 발라드란**

**우주의 모형**
2009, 단채널 비디오, 2분 45초
작가 제공

**지문**

**나무좀 25마리, 나무,마이크,
사운드 시스템**
2009, HD 비디오, 반복 재생

**최재은**

**37°56.42.42'N, 126°97.4414'E**
2012, 혼합 매체, 프린터, 카메라, 페이퍼 롤, 컴퓨터 2대, 가변 크기

**틸 노박**

**원심력체험**
2011, 필름/비디오(7 시리즈), 컴퓨터 프린트(7 시리즈), 3분(반복 재생), 84×53 cm(4점), 84×60 cm(2점), 84×54 cm
작가 및 CFCA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플로리스 카이크**

**악성금속증**
2006, 비디오

**전자목(目)**
2005, 비디오

**생명의기원**
2010, 컨셉 스케치, 비디오, 가변 크기

**하이브**

**사이**
2012, 프로젝션, 트랙킹 카메라, PC, 사운드, 가변 크기

**헤이크 디자인 + 리서치**

**미스커뮤니케이션번호.6**
2008, 라디오 주파수로 연결된 마이크로폰/스피커 유닛, 리스닝 허브, 가변 크기

**홍성민**

**내셔널지오그라픽**
2012, 퍼포먼스

**줄리에트**
2010, 연극 공연, 70분
작가 및 베를린/라이프치히 아이겐 + 아트갤러리 제공

**홍승혜**

**더 센티멘탈 8_보족적 인스톨레이션**
2012, 2채널 플래시 애니메이션, 벤치 3개, 바닥에 스티커 좌석 번호, 1분 43초, 각 41.8×240×60 cm

상암 DMC홍보관

**김기철**

**사랑이거나 사탕발림이거나**
2012, 소리조각/음성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소리, 가변 크기
협력: [K.S The Man]

**김원화**

**DMC 우주센터 전망대**
2012, 단채널 인터랙티브 비디오/ Maya 3D유니티

**문준용**

**Inter_Scenery**
2012,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 크기
협력: 이은경, 김민환

**셉 캄바르트 & 조나단 해리스**

**We Feel Fine**
2006, 웹

**아론 코블린 & 크리스 밀크**

**조니 캐쉬 프로젝트**
2010,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양시장**
2006,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 파올로 시리오**

**페이스북의 얼굴들**
2011,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에릭 마이예**

**미술비평봇**
2012, 컴퓨터, 네트워크 아트, 트위터 봇, 전시장 내 가변크기
작가 및 APDV갤러리와 피에르 티에리의 기술전문가 제공

**존 새트롬**

**QTzrk**
2011, 비디오, 3분 12초

**dNA(더블네거티브스아키텍처)**

**세계를 바라보는 슈퍼아이**
1998–2011, 터치패널 스크린에 공간기록 소프트웨어

**JK 켈러**

**재스퍼 존슨에 관한 단상의 재배열**
2011, 애니메이션, 비디오, 22분 50초
파흐 & 안센도르프 갤러리 제공

# 《너에게 주문을 건다》 프로그램 목록

## 프리비엔날레

**〈뉴 미디어아트: 새로운 이슈와 상황들〉**

**일시** 2011.12.8 13: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미나실

**내용·참여** 유진상, '그림자의 중심'
마크 그뢰드, '자아의 재정립: 공간, 지각, 이미지 간의 역학관계에 관한 언급'
유키코 시카타, '3.11 이후: 예술, 삶, 과학 및 사회 통합을 시도하는 신대중을 위해'
올로프 반 빈든, '비주얼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로'
루스 베인, '엑스페리멘타: 새로운 예술과 새로운 관객'
질의: 김남수, 이원곤

## 개막 행사

**〈내셔널지오그라픽〉**

**일시** 2012.9.11 17:28–17:38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진행·참여** 홍성민

## 연계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워크숍**

**일시** 2012.9.2 13: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진행·참여** 박경근, 한경우, 김원화, 강이연, 김두진, 현창민
강미정, 전혜현, 이재준, 박영욱, 백곤, 현창민

**금천예술공장 2012 다빈치 아이디어 〈내일의 전야: 산업 그리고 미디어아트〉**

**일시** 2012.9.10–10.9

**장소** 금천예술공장

**진행·참여** 강이연, 김병규, 김영희, 조예진, 후니다 킴, 랩526, 유두원,
김치호, 윤석희, 민찬욱, 유동휘, 하이브, 한윤전, 한병준, 노바 장

**외부전시상영 〈도시에 주문을 걸다〉**

**일시** 2012.9.11–11.4

**장소** 서울스퀘어, DMC미디어보드(씨제이이엔엠, 엘지 씨엔에스, SBS 프리즘타워), 한빛거리, 한빛미디어 파크

**진행·참여** 뉴 미디어아트 연구회(NMARA)

**DMC 창설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DMC의 미래: 테크놀로지, 도시, 그리고 문화〉**

**일시** 2012.9.13 14:00–17:30

**장소** DMC 단지 내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장

**내용·참여** 제롬 C. 글렌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미래 방향'
김도년 '미래 지식산업의 생태계, 성공을 함께 만드는 장소'
아드리안 데이비드 척 '과잉연결시대의 다중감각적 인간 커뮤니케이션'
우스만 헤이크 "스마트 시티'의 허구'
토론: 박신의, 이각범, 윤형호 'DMC 미래 발전 방안'

**주한독일문화원 패널디스커션 〈재난과 예술: 새로운 시각?〉**

**일시** 2012.9.14 14:00–16:00

**장소** 주한 독일문화원

**진행·참여** 유진상

**내용·참여**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시카타 유키코
박진희
박진영

**SeMA 체험교육프로그램 〈미술관 데이트: 전시장에서 와글와글〉**

**일시** 2012.9.15–11.3 매주 토 10:00–12: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YCAM 워크숍 〈소리의 주변을 걷다〉**

**일시** 2012.9.16 13: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본관 지하 1층)

**진행·참여** 다이아 아이다, 쿠미코 이다카

**난지아트쇼 〈Ⅷ: Phantasma - Korea〉**

**일시** 2012.9.18–30

**장소**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특별 퍼포먼스 1 〈뮤지엄 나이트 라이브 코딩 쇼〉**

**일시** 2012.9.18, 10.16 20:00–21:00 총 2회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진행·참여** 최영준 a.k.a. O.X

**난지아트쇼 〈Ⅸ: Hyper text〉**

**일시** 2012.10.4–10.14

**장소**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특별 강연 〈왕을 해킹하다 : 디지털 시대의 수평적 경제〉**

**일시** 2012.10.5 14: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진행·참여** 자로밀

**6기 오픈 스튜디오**

**일시** 2012.10.19–10.21

**장소**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특별 퍼포먼스 2 〈제이미 알렌의 회로 음악〉**

**일시** 2012.10.19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진행·참여** 제이미 알렌

# 양아치와의 대화, 「미디어아트」

양아치(작가)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트러스트》 작가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 작가

**권진** 2000년 초부터 '웹 아티스트'로 알려지며 미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02년에 일주아트하우스에서 개인전 〈양아치 조합〉을 발표하셨고요. 첫 개인전에서 시도했던 것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아치**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통상 한국에서는 '웹아트'라고 말하지만, 그 시작은 아시다시피 '넷아트' 혹은 '넷닷아트'입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상 '웹아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전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보스턴에는 여러 대학이 모여 있어서 1990년대 새로운 활동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이 있었어요. 당시 전 개방형 수업을 청강하며 자유롭게 여러 학교를 드나들었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을 알게 되었죠. 지금 와서 보면 그분들 중에는 대단한 기업 대표, 저명한 학자나 활동가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강처럼 보스턴의 찰스강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활동…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흩어지지 않고 '인터넷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감각이요.

1996년부터 '중국 로봇'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IMF가 터져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는 거꾸로 한국의 예술가들을 (인터넷을 통해) 밖으로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했습니다. 당시는 대안공간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학생들이 기존의 미학과 차별적인 활동의 기저이자 현상으로 웹을 상정하고 논문들을 쓰던 때였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 알게 된 분 중에 윤재갑 기획자나, 김장언 기획자가

있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웹 문화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계실 때에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 말씀하시는 '넷아트'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 관심사나 경험에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권진** 인터뷰를 다니시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양아치** 너무 옛날이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때는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언더그라운드를 유튜브가 다 소집해 버려서 '언더그라운드 씬'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시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전 그런 문화에서 자생하는 타투이스트, 사회운동가, 여성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권진** 그러면 관심이 매체 중심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비롯한 창작 생태계 저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술계에서 '넷아티스트'로 소개된 거고요?

**양아치** 한국에 오자마자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 이곳의 미디어 활동에 애착을 두게 되면서예요. 당시 미술계는 웹은 고사하고 미디어라는 말도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죠. 미술에서는 뉴미디어로 비디오아트만 다룰 때에요. 그건 다르잖아요. 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되지만, 당시에는 미디어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활동은 해야겠는데, 미술은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같은 시기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진보 네트워크www.jinbo.net와 연결되었고, 이곳은 당시 제가 추구하는 바와 좀 닮아 있었습니다. Bulletin Board System이라는 게시판 문화가 있었잖아요? 당시 진보 네트워크에서 BBS의 오픈소스 개념을 실제로 가공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어요.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비쌌던 시절이거든요. 적게는 오백만 원에서 비싸게는 몇천만 원 할 때에요. 진보 네트워크가 오픈소스로 관리자모드를 세팅해주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기술을 미술 쪽에 연결해주고 싶었어요. 그즈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주민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요. 노동 네트워크도 있었죠. 노동 운동과 미디어가 만나서 현장을 기록하는 영상이 바로 해외로 전달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문화는 그런 식이었어요. 예전의 '놀이패' 같은 모임이 일종의 '비디오패'가 되어서 노동 운동의 일상을 기록하고, 유포하고… 당시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엘리트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로만 여기던 시절이었는데, 진보 네트워크 혹은 노동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미술이고 문화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고 난 한참 뒤에 '웹 아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권진** 처음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면서 미디어에 대해 공유하는 언어나 이해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양아치** 여전하지요. 이 인터뷰에서도 바로 '웹아티스트'로 시작했고… 당시에도 어떤 논란이나 논의 없이 바로 '웹아트'가 되는 것이 저로서는 좀 신기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을 직업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일주아트하우스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일주아트하우스는 공공미디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그 방향성이 저와 정말 잘 맞아떨어졌어요. 미디어는 그 속성상 당연히 공공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아트하우스 프로그램 주최 측은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비디오아트'를 넘어서서 미디어의 개념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들이 찾던 아티스트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 미술을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한 웹 프로젝트 〈양아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데이터를 제일 중요하게 봤는데, 한국의 미술씬에서는 플래시를 더 주목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졸라맨' 같은 애니메이션 중심의 콘텐츠가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만큼 붐이었고,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툴이 플래시였어요. 미술에서는 이런 툴로 생산된 것들이 빠르게 시각화가 되니까 주목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저밖에 없게 된 거죠. 모두가 플래시를 했던 시절에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만한 용어로 '웹아트'가 있었고… 타이밍이 그랬던 거죠.

**권진** 당시 일주아트하우스에서 공공미술의 연장에서 미디어아트를 위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했었다고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아트 제작 시스템과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결합한 모델처럼 이해됩니다. 미디어라는 매체로 이루어진 미술 생산에 공공성을 인식하고 이식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거죠. 관련해서 더 기억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양아치** 너무 많은데요. 우선 프로그램 기획자가 박삼철, 이섭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었고. 백남준아트센터 계시는 이채영 씨나 제주도에서 문화공간 양 운영하시는 김연주 씨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정말 큰 노력으로 한국의 미디어아트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계가 꼭 기억 해야 하는 인물들이에요. 작가들은 그 뒤에 많이 나왔죠. 배영환 작가나 임흥순 작가도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 많죠. 보통 레지던시라고 하면 공간 지원을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이뤄졌던 것은 미디어 교육이에요. 기본적으로 장비 교육이 있었고요. 미디어 작업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공간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권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2000년 서울시 주관으로 기술, 예술, 산업이라는 세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로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미술관 주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규모로 쭉 지속되어왔고요. 초기에는 기술의 발전이나 효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미디어아트에 집중했었던 반면, 작가님이 참여하셨던 2010년을 기점으로 미디어아트의 주체가 조금 더 예술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양아치** 그 당시에는 예산의 규모도 규모지만, 미디어를 도시하고 엮으려는 노력이 많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술로 들어오면서 그게 당연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버렸고요. 미술의 동력은 기본적으로 해석과 번역인데, 이 해석과 번역이 미술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의 알고리즘과 만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미학적인 태도와 행동들이 참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권진** 초기의 《미디어_시티 서울》에서 소개되는 작품과 도시 곳곳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간의 간극을 느끼셨다는 거네요? 이러한 괴리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양아치** 민중미술 계열 선생님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을 재미있게 기억합니다. (웃음) 지금은 생각도 못 할 텐데…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웹아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한 적도 되게 많았고요. 미학적으로 '웹'과 '민중'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데, 선생님들이 겪은 세월 간에 틈이 있다 보니 웹이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걸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미술에서 '웹아트'는 데이터가 아닌 플래시(형태로 보여주기)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인(디지털적인) 작동 방식을 전달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진** 2010년 6회 비엔날레에 출품하셨던 작품 〈밝은 비둘기 현숙 씨, 경성〉은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덕수궁이 내려다보이는 미술관 옥상에서 촬영되었고, 주변 환경에 어우러진 동시대 서울의 서사가 작품으로 들어오지요.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나요?

**양아치** 아시다시피 '감시'가 제 작업의 키워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밝은 비둘기 현숙 씨, 경성〉은 CCTV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들여다보자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요. 적게는 6채널에서 많게는 13채널을 이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눈을 비롯한 도시와 연결된 눈을 통해 감시와 역 감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때는 미디어아트라고 하면 굉장히 차갑고, 건조하고, 직선 중심의

조형성… 이런 이해가 있었는데 전 그게 싫었어요. 완전히 녹아들기를 바랐고,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하나의 사물처럼 보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옥상에서 공연은 서울시청에서 노동 운동 시위가 있을 때 촬영했어요. 그 소리가 전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컸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성공회 교회가 있잖아요, 6시만 되면 종을 쳐요. 그 시간에 촬영을 위한 공연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미술관 옥상에서 보고 듣는 전체적인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쪽의 시위 현장에서는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또, 6시가 되니 퇴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질서와 무질서를 옥상에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작품은 그런 풍경 전체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구성했습니다.

**권진** 웹의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작품에서 출발해서 연출된 상황을 통해 도시의 감시망과 미디어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고 다시 현대의 공동체를 질문하는 작품까지 이어지는 궤적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변화를 비엔날레의 진행과정과 평행하게 읽어볼 수도 있겠고, 혹은 미디어아트 역사라는 다른 축에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양아치** 음, 제 작업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변화가 너무 많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조형적인 변화는 있을 수도 있지만, 개념적인 측면이나 주제 의식은 거의 같아요. 저는 감시와 역-감시, 스크린,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유동성이나 위치…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위치를 보통은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사물 얘기가 많은데. 제가 첫 개인전에서 보여준 것이 〈양아치 조합〉이잖아요.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건 '이메일로 사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보낸다는 개념인데,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요. 지금은 사물을 Object로도 보고, Thing으로도 보는 등 개념의 확장이 보편화되었지만, 당시는 데이터를 Object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죠. 소수의 네트워크 관련자들은 Post O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현재 조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지만, 여기에 여전히 '가상성'이 관통하고 있어요. 모두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동시에 웹/넷이 가진 가상성을 전시공간에서 이어갑니다. 저는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는 웹을 가상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확장된 현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가상공간에는 물리적인 힘이 없잖아요. 실제 공간에서 작동하는 중력의 힘이 X, Y, Z값으로 전환되어 가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신체가 개입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는 식의 논란이 재밌었는데… 하여튼 그런 가상성에 대한 애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공간의 가상성 안에서 조형적으로 선택하는 원근법이 재미있고요.

〈밝은 비둘기 현숙씨, 경성〉에서 CCTV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원근법을 가져옵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바라캇컨템포러리, 2020)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라이다Lidar라는 미디어 툴을 알게 되었어요. 도시 스캐닝 장비인데요. 예를 들면, 도시를 스캐닝하면 어떤 피사체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초당 포인트가 1억 개 이상 나오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라는 것이 데이터값인데, 그 값 자체가 시점이 되고 피사체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정말 반가웠죠.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원근법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미술 작업으로 풀어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풀어내는 방법이 미술 언어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각적인 형태로 작품들을 완성했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아무튼 제 작품은 개념적으로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웃풋이 너무 달라 보인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진** 〈신용〉(2018)에 대한 구성이 출발하게 된 배경과 기술적으로 새롭게 혹은 다르게 시도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양아치** 10회 비엔날레 주제가 '좋은 삶'이잖아요. 저는 이 주제가 '풍자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웃음). 제가 알고 있는 '뉴노멀'은 이런 게 아닌데, '의식주'라는 의제가 예술을 통해서 어떤 좌표를 가질 수 있을까도 궁금했고, 큰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시 전 금융이나 자본의 문제를 주제로 공부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개념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지만. 당시는 미적거릴 때였거든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신용이에요. 기존의 화폐가 중앙은행에 신용을 주도할 권리를 준 것이라면, 가상화폐는 그 신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봤죠. 완전히 준비는 안 되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용〉을 작업했습니다. 작품에서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들어내지는 않아요. 가상화폐를 둘러싼 미디어적 환경과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권진** '미술 언어에 대한 지지'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게 기술과 예술이 만날 때의 균형이라고 해야 하나… '예술'이라는 개념 만큼이나 '기술'이라는 개념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기술을 통해야만 발언할 수 있고요. 작가님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양아치** 지금 질문에 중요한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기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술과 기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당연히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현대미술은 해석과 번역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힘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세돌의 퇴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둑에서 최고의 해석과 번역을 하는 인간이 승패를 떠나 해석과 번역의 기술인 빅 데이터를 만나면서 바둑계를 떠납니다. 그런데 미술은 아직도 해석과 번역을 하고 있지요.

저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기술이라는 측면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기존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은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기술과 예술에 대한 해석의 알고리즘으로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해석과 번역이 아닌 무엇이 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것이 동사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의 동사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명사를 활용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거 같아요. 큐레이션은 명사 중심이 아니라 동사 중심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개념과 조형 방식을 찾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문제에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권진**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사는 개념이나 관념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나요?

**양아치**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사물을 Object와 Thing으로 나누잖아요. Thing은 알다시피 Internet of Things에서의 Thing인데, 정보 전달을 기초로 하는 사물 네트워크를 의미하죠. 그런 맥락에서 미술은 Thing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술은 전기 전자 네트워크 연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미술은 너무 위기인 거예요. 단순히 전기 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 방식 맥락에서 기술과 예술이 모두 명사니까요. 지금 두 분 앞에 놓여있는 그 책상이라는 Object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사물에 불과해 버리는… 그렇지만 Thing으로서 사물은 변신하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해석과 번역을 통해 책상(미술)을 분해도 해보고… 여러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해석, 번역, 그리고 시장 맥락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니 흥미를 잃은 게임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동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참석했던 어떤 포럼에서 한 선생님이 젊은 작가들에 대해 비판을 하시기에 근거가 뭔지 좀 들어봤는데 신체 없는 활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은 요즘의 신체는 여러 미디어 환경에서 여러 아이디를 통해 한 백 개쯤은 되는 거잖아요? 각 신체를 발행하는 신체적 감각이 모두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사물을 Object와 Thing으로 구별하는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적 관념이 그동안 축적된 한계들을 해제시키고 미술을 완전 다른 형태로 업데이트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방식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반복하는 건 승산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터뷰도 다른 무엇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방향성 점검이 필요한데, 상황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코로나19로 대두된 환경의 변화, 제도적 차원에서 패러다임도 달라졌고, 그리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는 이름처럼 출발점부터 구체적이지만 계속 변화하는 이 비엔날레의 특정성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모습이 어때야 할지, 아니 우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아치** 저는 당연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애정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장을 열어주어 너무 기뻤어요. 미국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울에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취향을 떠나, 어쨌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전체로 흩날리고… 너무 당연한 듯이 미디어와 도시는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 좀 초라해지는 거예요. 해석과 번역만을 위한 장소니까,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커리어 쌓기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걸 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큰 이슈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 자주 이야기되는 AI를 미술 쪽에서는 자꾸 'AI 아트'로만 생각하지요. 그 사람 다음에 모빌리티가 나오면 또 '모빌리티 아트', 로봇이 나오면 또 '로봇 아트'. 뭐만 하면 다 아트래. (웃음)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AI 챗봇 '이루다' 사건 같은 경우, 거기에는 기술과 데이터 계산법으로 이루어내는 이상한 알고리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미술에서는 성희롱이라는 윤리적 시선으로만 다루니 사건을 슬기롭게 못 쓴 거죠. 물론 윤리적인 비판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미학적인 비판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는 한동안 데이터를 쓸 수 없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뉴노멀'이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삶이 미술에 먹이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AI 쪽 개발자들은 키워드랑 이미지 몇 개 입력하면 입체주의도 만들고 표현주의도 만든다고 그럽니다.

예술가들은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의 힘은 그것을 해방하는 데 있는 거니까요.

1
FRAGILE
fragile

빅 반 데르 폴
〈삼생가약〉

2016, 7개의 인터뷰 비디오와 7번의 릴레이 전시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네덜란드 몬드리안재단 제작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귀신 간첩 할머니》

| | |
|---|---|
| 기간 | 2014.09.02–2014.11.23 |
| 예술감독 | 박찬경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영상자료원 |
| 작가 | 17개국 40/팀(국내 16, 해외 24) |
| 작품 | 114점(커미션 17, 공동 제작지원 1) |
| 관객 | 130,994명 |
| 프로그램 | 33종 68회 |
| 참여자 | 3,665명 |
| 웹사이트 | archive.mediacityseoul.kr/2014/ |
| 예산 | 1.5억 원(프리비엔날레), 15.9억 원 |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관, 비엔날레, 갤러리 등 한국 미술 제도의 단위별 미술 콘텐츠 생산이 골고루 이루어졌다. 과거를 돌아보고 기록을 자원으로 저축하는 아카이브가 미술 제도 내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고,[21] 미술관을 찾는 향유 저변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소재와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한편, '대안공간' 세대가 주도했던 실험적 예술활동은 나이가 들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과 태도로 사고를 하는 세대가 미술 제도의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굿-즈》는 미술을 '직업'으로 삼은 신진 창작자들이 미술 생태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고민의 하나로 소량 제작한 작업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장터로 기획되었다.[22] 이들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미술과 미술 향유의 방식, 그 저변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창작 환경이 변화했음을 확인하는 신호가 되었다. 동시에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디지털적 사고를 병행하는 청년 미술인들의 모습은 '미디어'가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현대 도시 삶의 기본 조건-자연임을 상기시켜주었다.

같은 시기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 삼색전, 비서구권 프로젝트, 크로스 장르 전시 등을 통해 '미술관 기획'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변화의 속도에 부응했고, 젊은 미술인들은 빠르게 제도로 흡수되었다. 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미술관 직영 비엔날레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명칭을《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로 바꾸고, 예술감독 이하 기획팀을 미술관이 직접 고용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술감독을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예술감독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역대 최초로 현업 작가인 박찬경 예술감독이 위촉되었고, 주제에 충실한 국제 현대미술 행사이자 미술관 대표 기획전으로서 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다.

2014년 9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귀신 간첩 할머니》는 기획 자문의 협력과 더불어 예술감독이 큐레이터 역할을 겸하며 기획에 관한 결정과 책임을 모두 맡게 된다. 한편, 미술관 학예사 1인은 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전시 제작, 운영, 홍보 인력으로 구성된 기획팀원들을 미술관이 직접 고용하여 미술관에 연합된 기획팀 구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미술관의 기존 인프라와 실질적인

《귀신 간첩 할머니》 포스터, 2014
시각 아이덴티티 및 그래픽 디자인: 정진열

연결이나 미술관 사업으로서 공감대 형성은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며, 조금 더 구조적인 협력 구도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23]

전시는 미디어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아시아의 식민과 냉전의 경험을 회고하고,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질문하는 작가 40명/팀의 작품 114점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제작된 신작 17점과 공동 제작지원 1점은 8회 에디션의 성과다. 이것은 단순히 신작 제작이 많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전시 주제에 가깝게 어우러지는 신작을 생산하여 전시의 질적 향상과 예술 창작의 실험성에 활기를 더하는 비엔날레의 역할에 충실했던 첫 시도였기 때문이다. 현대 작품들 외에도 조선 후기 서양 천문학 지식을 반영했던 동양 천문도 〈혼천전도(渾天全圖)〉, 1989년부터 라디오를 통해 기획, 채집, 제작 및 송출된 구전 노래와 이야기 〈할머니 라운지-목소리 저편〉, 일본 전위미술 집단이 벌였던 '의식'에 대한 기록, 그리고 한반도 굿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들은 민속 문화의 생생한 아카이브로 전시되어 예술의 지식과 지성의 원류를 돌아보게 하는 입체적인 구성을 만들었다. 나아가, 참여작가 장영혜중공업의 트레일러 제작, 정서영의 배너 이미지 제작, 정은영의 개막식 공연이 이후 전시장에서 작품으로 보여지며 작품, 프로그램과 전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주제별로 구성된 스크리닝과 전시는 서소문본관에서의 활동들과 대구를 이루고, 이 모든 활동들을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디자인 등 비엔날레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에 '기획'을 더해 전체가 유기적인 미디어로 공명하였다.

《귀신 간첩 할머니》의 또 다른 성과는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선행했던 지점이다. 2013년 9월부터 엽서 프로젝트, 주제별 토크와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11월에 개최된 〈프리비엔날레 허브〉는 주제에 집중한 도서 100여 권과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는 전시면서 작은 극장으로 개최된다. 다음 해 9월의 개막식과 더불어 구성된 이틀간의 프로그램에서는 공연 2종, 7명 작가와 토크,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상영회〉가 열렸고, 이후 5개의 주제로 나누어진 스크리닝이 이어진다. 11월의 마무리 프로그램은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도록과 단행본으로 나눠진 2종의 출판물까지 《귀신 간첩 할머니》는 비엔날레 주제에 대한 서사를 약 12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집중도 있게 쌓아나갔다. 예산은 예년 대비 약 3억 원 상승했고, 12곳의 후원과 협찬을 유치했다.

하나금융그룹 후원의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가 처음 제정되었었고, 첫 수상작으로 에릭 보들레르의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 그리고 이미지 없는 27년〉(2011)이 선정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3,665명, 전시 관람객은 130,944명을 기록하여 다시 상승세로 회복했다.

21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주제는 지난 프로젝트를 되돌아보고 '아카이빙'하는 것이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아카이브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서울시립미술관, 2015

22 《굿-즈》 공식 홈페이지 참조, 2014. http://goods2015.com/goods_01.html

2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결과보고서』, 서울시립미술관, 2014, pp.191.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중국과 중국의
모더니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강의: 왕후이, 진행: 황호덕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2013.9.30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프리비엔날레 〈문화의 특수성과 예술의
보편성〉

강사: 알랭 바디우, 세실 빈터,
진행: 서용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8층, 2013.10.1

《귀신 간첩 할머니》 개막공연
〈서울새남굿〉

이상순, '부정거리',
'상산별상신장영실', '대감놀이',
'바리공주', '도령거리', '길가리기'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2014.9.1

《귀신 간첩 할머니》 개막행사
〈작가와의 대화〉

토크: 에릭 보들레르(상), 노재운(하)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영상자료원,
2014.9.1

《귀신 간첩 할머니》 개막공연,
정은영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서울시립미술관, 2014.9.1

정은영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작자미상
〈혼천전도(渾天全圖)〉

19th century, 한지, 복제품,
86.7×59 cm

서울역사박물관 원본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앞) 양혜규
〈소리 나는 춤-이복 언니〉

2014, 철제 스탠드, 분말 코팅,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190×99×102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뒤) 주재환
〈건곤실색 일월무광 (乾坤失色
日月無光)〉

1994, 캔버스에 유채, 60×73 cm

개인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타무라 유이치로
〈세와료리스즈키보초(世話料理鱸包丁)〉

2014, 책상, 의자, 칼, 도마, 냉동고
등 부엌 오브제,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 20분 30초,
19분 23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야오루이중
〈푸르스름한 무엇〉 연작 중에서

1998, 섬유지에 사진 흑백 인화,
16.7×24.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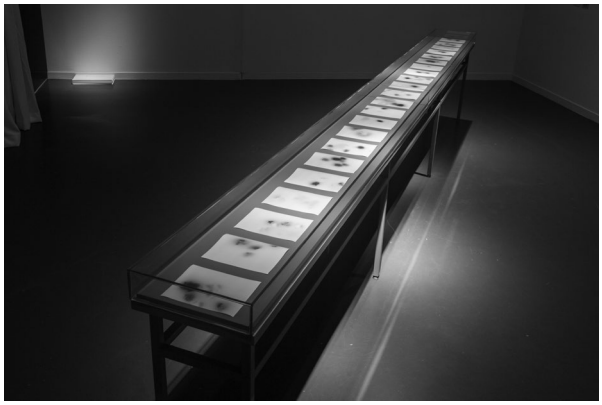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야오루이중
〈인간성의 이면〉 연작

1992–2008, 섬유지에 사진 흑백 인화,
각 100×150 cm(8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리나 셀란더
〈레닌의 램프는
농부의 오두막에서 빛난다〉

2011, 연속 HD 비디오, 흑백, 사운드와
무음, 진열 테이블에 방사선 사진
22장과 광택 처리한 스테인레스강
텍스트 명판, 90×500×36 cm,
17.8×24 cm(사진),
50×90 cm(명판), 23분 43초

명판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뒤/좌) 최민화
〈효박한 이 세상에 불고천명 하단말가 가련한 세상사람 경천순천 하였더라〉

1989, 캔버스에 유채, 290×138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앞/가운데) 김인회
평안도 진적굿 기록

1984–1991, 비디오, 30분

작가 제공

(뒤/우) 김수남
〈한국의 굿: 만신들 1978–1997〉 연작

1978–1997,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40×58 cm

김수남 재단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제로지겐/카도 요시히로
〈제로지겐 기록영상〉

1969, 비디오, 69분

〈이나바의 흰 토끼〉

1968, 비디오, 68분

〈제로지겐 아카이브〉

2014, 연대기, 출판물, 기록사진 등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배영환
〈오토누미나 - 만년 동안의 잠,
인왕산 선바위〉

2010, 목재 선반 위 청자 오브제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노재운
〈지팡이〉

2014, 혼합 매체 인터페이스,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자오싱 아서 리우
〈코라〉

2011–2012, 3K 비디오,
사운드 편곡, 14분

사운드 편곡: 아론 트래버스, 멜로디
외트뵈시

타이페이 치웬갤러리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최진욱
〈북한 A〉와 〈북한 B〉

2000, 캔버스에 아크릴,
각 130×97 cm

작가 및 개인소장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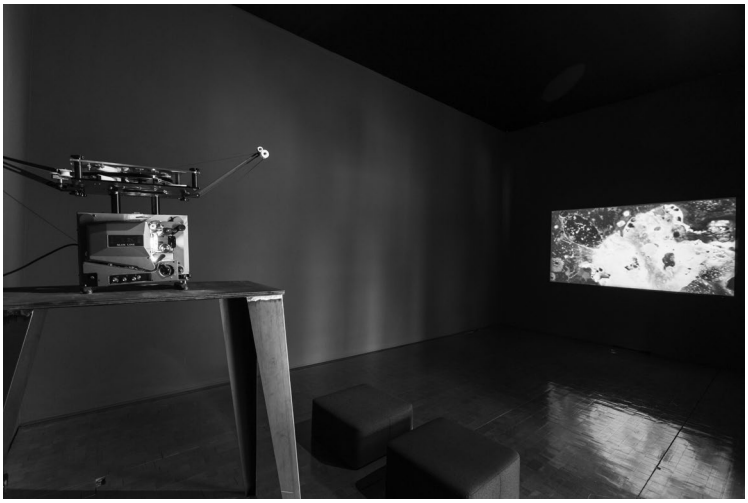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조해준, 이경수
〈바다가 육지라고 생각하는 배〉

2014, 드로잉, 목조각, TV 모니터,
나무 액자, 파라핀,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자크라왈 닐탐롱
〈인트랜짓〉

2013, 16 mm 필름으로 전환한
35 mm 필름, 5분, 반복 재생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미카일 카라키스
〈해녀〉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멍석, 방석, 가변 크기,
17분 46초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정서영
〈달에서 달까지〉

2014, 잉크젯 프린트, 200×30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최원준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2014, 3채널 HD 비디오, 약 25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호신텅
〈홍콩 인터-비보스 영화제〉

2012, 설치, 혼합 재료,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호신텅
〈미지의 닫힌 원〉과
〈베일에 가려진 얄팍한 세상〉

설치와 혼합 매체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한국영상자료원 전시 전경,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정면 현수막과
거리 배너, 2014

# 《귀신 간첩 할머니》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김수남**

**강사리 범굿, 경상북도 영일군 강사리**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거제도 별신굿, 경상남도 거제군 죽림마을**
1986,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수용포 수망굿, 경상북도 영일군**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58×40 cm(5점)
김수남 재단 제공

**양주 소놀이굿, 경기도 양주**
1983,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웅진 배연신굿, 경기도 강화군**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전라도 씻김굿,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58×40 cm(3점)
김수남 재단 제공

**제주도 신굿,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제주도 영등굿, 제주도 북제주군 하도리**
1982,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제주도 영등굿,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청사포 별신굿,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198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통영 오귀새남굿,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산덕리**
1982,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평안도 다리굿,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함경도 망묵굿,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황해도 내림굿, 서울 삼각산**
198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8×40 cm
김수남 재단 제공

**황해도 지노귀굿,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98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58×40 cm(2점)
김수남 재단 제공

**김인회**

**서울 천신맞이굿,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1991, 비디오, 30분
작가 제공

**일산 말머리 도당굿,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1984, 비디오, 30분
작가 제공

**제주도 영등굿,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1985, 비디오, 30분
작가 제공

**평안도 진적굿,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986, 비디오, 30분
작가 제공

**황해도 지노귀굿, 서울 성북구 석관동**
1985, 비디오, 30분
작가 제공

**나이토 마사토시**

**바 바 바쿠하츠(할머니 폭발)**
1988(출력연도), 젤라틴 실버 프린트, 각 51×41 cm(8점)
작가 제공

**니시노 고야산, 고보지, 아오모리현**
1969

**다카야마이나리 신사, 아오모리현**
1970

**오소레잔, 아오모리현**
1968

**오소레잔, 아오모리현**
1968

**혼지, 아오모리현**
1969

**오소레잔, 아오모리현**
1968

**구도지, 아오모리현**
1969

**구도지, 아오모리현**
1969

**볼 거리**
1988(출력연도), 젤라틴 실버 프린트, 각 51×41 cm(4점)
작가 제공

**아사쿠사, 도쿄**
1970

**도노 이야기**
1988(출력연도), 젤라틴 실버 프린트, 51×41 cm
작가 제공

**사사키 기젠의 묘, 도노, 이와테현**
1971

**로쿠시 신사, 도노, 이와테현**
1975

**센다에 있는 코마츠 장자 유카리의 가옥 내 신단, 도노, 이와테현**
1975

**망자의 이미지, 고묘지, 도노, 이와테현**
1975

**치매 요양원의 할머니들, 도노, 이와테현**
1975

**도쿄**
1988(출력연도), 젤라틴 실버 프린트, 51×41 cm
작가 제공

**위령제, 아라카와, 도쿄**
1970

**노재운**

**지팡이**
2014, 혼합 매체 인터페이스, 가변 크기

**지팡이**
2014, 혼합 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특수 효과의 벽**
2014, 벽면에 아크릴 거울,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프레임 웍스-뇌사경**
2014, 혼합 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극종**
2010, 철판, 갈고리, 체인으로 제작된 글자, 30×59.5×1 cm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이 세상은 피의 바다**
2009, 아크릴 패널에 투명 안료, 28×180×2 cm
작가 제공

**어떤 귀신은 사람보다 낫고 어떤 사람은 귀신보다 더 나쁘다**
2009, 아크릴 패널에 투명 안료, 29×190×2 cm
작가 제공

**클라투 바라다 닉토**
2011, 아크릴 패널에 투명 안료, 29×190×2 cm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공포 속에 산다-3.11 이후**
2013, 2채널 HD 비디오 설치, 컬러, 스테레오, 16:9, 가변 크기, 29분
작가 및 갤러리 아이겐 + 아트, 라이프치히/베를린 제공

**디스토피아를 부르는 주문**
2008–2009, 드로잉 42점을 레이저 프린팅한 벽지, 아카이브 사진과 만화, 2채널 HD 비디오 설치, 컬러, 스테레오, 16:9, 가변 크기, 17분 25초
작가 및 갤러리 아이겐 + 아트, 라이프치히/베를린 제공

**닐바 귀레쉬**

**야와 전화 부스**
2011, 동기화된 3채널 비디오, 16:9, 33분 46초
작가, 이스탄불 람파 및 비엔나 마틴잔다갤러리 제공

**야와 전화 부스-2**
2014, 천에 혼합 매체, 세 폭 제단화, 95×106 cm(왼쪽), 91.5×106 cm(가운데), 104×107 cm(오른쪽)
작가, 이스탄불 람파 및 비엔나 마틴잔다갤러리 제공

**야외 전화 부스 연작 중 텔레커뮤니케이션-1**
2011, C 프린트, 150×108 cm
작가, 이스탄불 람파 및 비엔나 마틴잔다갤러리 제공

**치르치르 연작 중 젖가슴**
2010, C 프린트, 180×120 cm
작가, 이스탄불 람파 및 비엔나
마틴잔다갤러리 제공

**트라브존 연작 중 교차점**
2010, C 프린트, 150×100 cm
작가, 이스탄불 람파 및 비엔나
마틴잔다갤러리 제공

**딘 큐 레**

**바리케이드**
2014, 프랑스 식민기 베트남 가구,
스피커, 스테레오 시스템, 마이크,
스탠드, 사운드, 가구 부품 14개,
가변 크기
협력: 하메(무함마드 볼크바)
작가 제공

**리나 셀란더**

**레닌의 램프는 농부의 오두막에서 빛난다**
2011, 연속 HD 비디오, 흑백,
사운드와 무음, 진열 테이블에
방사선 사진 22장과 광택
처리한 스테인레스강 텍스트
명판, 500×90×36 cm,
24×17.8 cm(사진),
90×50 cm(명판), 23분 43초
명판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마할디카 유다**

**선라이즈 자이브**
2005,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
포럼 렌텡 제공

**미카일 카리키스**

**소리 내는 아이들**
2013–2014, HD 비디오, 사운드,
스테레오, 15분 30초
작가 제공

**해녀**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멍석, 방석, 가변 크기
17분 46초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민정기**

**금강산 만물상**
2014, 캔버스에 유채,
280×240 cm

**금강산 비봉폭포**
1999, 캔버스에 유채, 224×237 cm

**바심 막디**

**시간은 침몰한 배처럼 당신을 향해 웃는다**
2012, HD 비디오로 전환된 수퍼
8 mm 필름, 9분 31초
이스탄불 아트수메르, 프라하
헌트카스트너 및 카이로 집섬갤러리
제공

**구겨진 것**
2014, HD 비디오로 전환된 수퍼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19분 2초
아브라 그룹 아트 프라이즈 2014
커미션

**모든 미묘한 몸짓**
2012-진행 중, 후지 크리스탈
아카이브지에 컬러 인쇄 시리즈와
은박 글씨, 각 45×52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및 이스탄불
아트수메르 제공

**배영환**

**오토누미나 - 만년 동안의 잠, 인왕산 선바위**
2010, 목재 선반 위 청자 오브제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오토누미나**
2010, 목재 선반 위 청자 오브제
설치, 가변 크기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오토누미나-관념산수**
2014,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션 스나이더**

**전람회**
2008, 디지털 비디오로 전환된 필름,
6분 59초
베를린 네우갤러리, 파리
샹탈크화셀갤러리 및 런던
리손갤러리 제공

**스키마(텔레비전)**
2006–2007, 비디오, 10분 1초
베를린 네우갤러리, 파리
샹탈크화셀갤러리 및 런던
리손갤러리 제공

**쑤 위시엔**

**화산치앙**
2013,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젤라틴 실버 프린트된 사진,
의례용 종이돈, 가변 크기,
각 41×50 cm(1세트 28점), 21분 8초
작가 제공

**야오루이중**

**인간성의 이면 연작**
1992–2008(2014년 재인화),
섬유지에 사진 흑백 인화,
각 150×100 cm(8점)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만세(萬歲)**
2011,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20초
작가 제공

**만만세(萬萬歲)**
2013,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 20초
작가 제공

**만만세(萬萬歲): 오아시스 빌라**
2013, 디지털 C 프린트,
220×54 cm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푸르스름한 무엇 연작**
1998(2014년 재인화), 섬유지에 사진
흑백 인화, 각 24.3×16.7 cm(8점)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양혜규**

**소리 나는 춤-이복 언니**
2014, 철제 스탠드, 분말 코팅,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99×190×102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소리 나는 보름달-중량 중형 #2**
2014, 철제 액자, 금속 격자판, 분말
코팅,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54×173×54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소리 나는 돌림 타원-놋쇠 도금 #13**
2014, 철제 시트, 분말 코팅,
볼베어링, 금속 격자판,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73×103×8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소리 나는 돌림 타원-놋쇠 도금 #14**
2014, 철제 시트, 분말 코팅,
볼베어링, 금속 격자판,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73×103×8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소리 나는 돌림 타원-놋쇠 도금 #15**
2014, 철제 시트, 분말 코팅,
볼베어링, 금속 격자판,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73×103×8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소리 나는 돌림 도형 E-놋쇠 도금#23**
2014, 철제 시트, 분말 코팅,
볼베어링, 금속 격자판,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100×100×8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바람이 도는 궤도-놋쇠 도금**
2013, 선풍기, 철봉, 분말 코팅,
케이스로 덮인 턴테이블, 스피드
컨트롤러, 조광기, 캐스터,
황동으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90×238×90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바람이 도는 궤도-놋쇠 니켈 도금**
2013, 선풍기, 철봉, 분말 코팅,
케이스로 덮인 턴테이블, 스피드
컨트롤러, 조광기, 캐스터,
니켈로 도금된 종, 금속 고리,
90×238×90 cm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 그리고 이미지 없는 27년**
2011, HD 비디오로 전환한 슈퍼
8 mm 필름, 66분
작가 및 카디스트 예술 재단 제공

**아다치 마사오의 감옥 드로잉**
오랜 행군을 다시 시작하다,
1998년 4월의 부활절
(재제작), 옛날 옛날에, 인간은
새였답니다, 1998년 2월,
감옥에서의 꿈(일종의 순환),
1998년 4월, 남쪽에서 온
신부가 되도록 부르기, 1998년
5월, 제목 없음(자화상(참을
수 없는 분노)), 1998년 3월,
면회실 앞에서, 1997년 11월,
감옥에도 봄이 왔다, 1997년
3월(재제작), 자화상(60세
생일), 1999.5.18
1997–2000, 아다치 마사오가
베이루트 감옥에서 제작한
드로잉 8점, 종이에 연필,
색연필, 수채화, 가변 크기
아다치 마사오 영상위원회
제공

**시게노부 후사코의 가족 앨범**
2012, 1900–1973년에 찍은
27장의 사진, 뮤지엄보드와
나무 액자, 103×153 cm

**AKA 연쇄살인마**
1969, 89분 길이 비디오 부분, 20분
협력: 아다치 마사오, 사사키 마모루, 마츠다 마사오, 유 야마자키, 노노무라 마사유키, 이와부치 스스무

**27년**
2012, 밀가루 풀로 바른 대테러 분석 과정, 국방정보대학의 테러정보분석 소개, 미 국방부(약 1980년)의 포스터 다이어그램과 전시 포스터, 가변 크기
전시포스터 디자인: 레귤러(장-마히 코항)

**도큐먼트의 초상**
여학생 게릴라, 1969, 적군파/PFLP: 세계전쟁 선포, 1971, 천사들의 황홀경, 1972, 텔아비브 로드 공항, 1972년 5월 31일, 임신한 시게노부 후사코, 시게노부 후사코와 시게노부 메이, 도쿄 경찰 본부로 이송되는 시게노부 후사코, 2000년 11월 8일, 죄수/테러리스트, 2006, 지명수배 전단, 도쿄, 2010
2011, 종이에 실크스크린, 액자, 60×80 cm

**오티 위다사리**

**자발 하드로, 자발 알 자나(푸르른 산, 천상의 산)**
2013, HD 비디오, 10분
작가 및 포럼 렌텡 제공

**요네다 토모코**

**적운(積雲)**
2011–2012, 크로모제닉 프린트, 83×65 cm, 65×83 cm(1세트 9점)
작가 및 슈고아츠 제공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패전 기념일), 야스쿠니 신사**
2011년 8월 15일 촬영

**국화**
2011년 가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촬영

**검은 비둘기들, 히로시마 평화의 날**
2011년 8월 6일 촬영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

**히로시마 평화의 날**
2011년 8월 6일 촬영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

**흰 비둘기의 깃털, 패전 기념일, 야스쿠니 신사**
2011년 8월 15일 촬영

**신사 참배를 위한 사다코의 종이학, 히로시마**
2011년 8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촬영

**재난 대피로 비워진 후쿠마현 이타테 마을**
2011년 여름에 촬영

**말, 재난 대피로 비워진 후쿠시마현 이타테 마을**
2011년 여름에 촬영

**신년 하례회, 도쿄 에도성**
2012년/2일 촬영

**평행하는 타인의 삶-조르게 간첩조직과의 조우**
2008, 젤라틴 실버 프린트, 각 9.5×9.5 cm(1세트 15점)
작가 및 슈고아츠 제공

**다카라즈카 극장, 도쿄 (클라우센 & 부토케비치)**

**코이시카와 식물원, 도쿄(미야기 & 야마나)**

**헤이안 신사 I, 교토 (조르게 & 오자키)**

**헤이안 신사 II, 교토 (조르게 & 오자키)**

**우에노 공원, 도쿄 (오자키, 스메들리 & 미야기)**

**모던 호텔, 하얼빈 (클라우센 & 베네딕트)**

**선양/옛 펑톈 (클라우센 & 하인리히)**

**임페리얼 호텔 (조르게, 베른하르트, 클라우센, 부클리치, 오자키 외)**

**도쿄도 미술관(조르게 & 오자키)**

**나라 공원(조르게 & 오자키)**

**우에노 공원 I, 도쿄 (미야기 & 스타인)**

**고베 항구 I(부켈리치)**

**우에노 공원 II, 도쿄 (미야기 & 스타인)**

**고베 항수 II(부켈리치)**

**로코 산, 고베(가와이 & 오자키)**

**요안나 롬바르드**

**궤도상의 재연**
2010, 4채널 비디오 설치, 반복 재생
작가 제공

**감정을 동원하기**
12분(반복 재생)

**후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6분(반복 재생)

**아기가 원하는 만큼 모유를 먹이는 엄마**
6분(반복 재생)

**일군의 자기소개에 대한 보고**
6분(반복 재생)

**자오싱 아서 리우**

**코라**
2011–2012, 3K 비디오, 사운드 편곡, 14분
사운드 편곡: 아론 트래버스, 멜로디 외트뵈시
타이페이 치웬갤러리 제공

**자크라왈 닐탐롱**

**인트랜짓**
2013(2014 필름 변환), 16 mm 필름으로 변환한 35 mm 필름, 5분(반복 재생)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장영혜중공업**

**당신, 무의미와 외로움만이 존재하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기**
2014, 오리지널 텍스트와 사운드트랙, HD 퀵타임 무비, 90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트레일러

**독도는 우리 땅일까?**
2014, 오리지널 텍스트와 사운드트랙, HD 퀵타임 무비, 15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트레일러

**정서영**

**흙탑**
2013, 피그먼트 프린트에 연필, 21×29.7 cm, 29.7×42 cm(1세트 9점)
일민미술관 제공

**여섯 개의 모퉁이**
2014, 시멘트, 약 670×88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달에서 달까지**
2014, 잉크젯 프린트, 300×20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오래된 문제**
2014, 알루미늄, 각목, 자석 그리고 인쇄된 이미지,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증거**
2014, 미술관 외벽 대형 실사 출력 설치, 720×72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현수막

**정은영**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2014, 퍼포먼스, 45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 및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공동 제작지원

**제로지겐/가토 요시히로**

**제로지겐 기록영상**
1969, 비디오, 68분

**이나바의 흰 토끼**
1968, 비디오, 68분

**제로지겐 아카이브**
2014, 혼합 매체(연대기, 출판물, 다큐멘터리 사진 등), 가변 크기
아카이브 디자인: 킷-토스트
작가 제공

**제시 존스**

**유령과 영역**
2008, 비디오로 전환된 16 mm 필름, 12분 21초
작가 제공

**인간의 곤경**
2010, 디지털 스틸컷으로 구성된 16 mm 필름, 3분
작가 제공

**조해준, 이경수**

**바다가 육지라고 생각하는 배**
2014, 드로잉, 목조각, TV 모니터, 나무 액자, 파라핀,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사이의 풍경-다큐멘터리 드로잉**
2012–2014, 종이에 드로잉, 나무 액자, 목조각,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주재환**

**건곤실색 일월무광(乾坤失色 日月無光)**
1994, 캔버스에 유채, 73×60 cm
개인 소장

**쯔엉 꽁 뚱**

**요술 정원**
2012–2014, 발견된 사진, C 프린트 재제작물, 각 40×30 cm(8점)

**요술 정원**
2014, 비디오, 8분 20초

**요술 정원**
2012–2014, 나뭇잎, 바위, 노래하는 새 2마리, 미니어처 사람, 50×25 cm

**삼단계 현실 Vol.3**
2014, 마일라 필름에 연필, 플렉시글라스, 가족, 49페이지, 26×37×1.5 cm

**땅 한 움큼의 여정**
2014, 비디오 설치, 3분 37초

**땅 한 움큼의 여정**
2014, 흰개미 둥지, 페인트, 40×38×60 cm

**최민화**

**효박한 이세상에 불고천명 하단말가 가련한 세상사람 경천순천 하였어라**
1989, 캔버스에 유채, 290×138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최상일, 김지연**

**할머니 라운지-목소리 저편**
2014, 사운드 아카이브, 가변 크기
아카이브 디자인: 킷-토스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최승훈 + 박선민**

**모든 떨리는 것에 대한**
2014, 혼합 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최원준**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2014, 3채널 HD 비디오, 약 25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아프리칸 르네상스 기념비**
2014, 섬유강화 플라스틱, 북한에서 디자인하고 남한에서 재제작

**영웅릉의 무명 용사비**
2014년 나미비아 빈트후크, 2014, 섬유강화 플라스틱, 북한에서 디자인하고 남한에서 재제작, 가변 크기

**짐바브웨 국립철도공사(불라와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 2013년 짐바브웨, 2013, 디지털 C 프린트, 86×60 cm
파리 케브랑리박물관 커미션

**독립기념비**
2013년 세네갈 다카르, 2013, 디지털 C 프린트, 86×60 cm
파리 케브랑리박물관 커미션

**철거된 조슈아 은코모의 동상자리**
2013년 불라와요 짐바브웨, 2013, 디지털 C 프린트, 86×60 cm
파리 케브랑리박물관 커미션

**아프리칸 르네상스 기념비**
2013, 디지털 C 프린트, 86×60 cm
파리 케브랑리박물관 커미션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아카이브 설치**
2014, 혼합 매체(책, 엽서, 우표, 『로동신문』 기사, 선반과 진열장),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최진욱**

**북한 A**
2000, 캔버스에 아크릴, 130×97 cm
개인 소장

**북한 B**
2000, 캔버스에 아크릴, 130×97 cm
작가 제공

**타무라 유이치로**

**세와료리스즈키보초(世話料理鱸包丁)**
2014, 책상, 의자, 칼, 도마, 냉동고 등 부엌 오브제,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 20분 30초, 19분 23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프로펠러 그룹**

**쿠치의 게릴라들**
2012,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20분 4초
작가 제공

**필라 마타 듀폰트**

**이상적인 포옹**
2013, HD 비디오, 사운드, 5분 4초
작가 제공

**호신텅**

**홍콩 인터-비보스 영화제**
2012,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홍콩 M + 제공

**작자미상**

**혼천전도(渾天全圖)**
19세기, 한지, 복제품, 59×86.7 cm
서울역사박물관 원본 소장

**요지연도(瑤池宴圖)**
조선 후기, 비단에 채색, 460×159 cm
경기대학교박물관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노재운**

**항성시 1번_항성시**
2009, 철판에 레이저로 새긴 숫자, 컬러 코팅, 45×75×7 cm
작가 제공

**항성시 2번_파르티잔**
2011, 철판에 레이저로 새긴 숫자, 무색 코팅, 45×75×7 cm
작가 제공

**항성시 3번_삼인문년**
2011, 철판에 레이저로 새긴 숫자, 컬러 코팅, 45×75×7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호신텅**

**미지의 닫힌 원**
2014, 설치, 혼합 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베일에 가려진 얄팍한 세상**
2014, 종이에 컬러 프린트, 각 69×102 cm(1세트 7점)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 《귀신 간첩 할머니》 프로그램 목록

## 프리비엔날레

**〈엽서〉**

**일시** 2013.9–12

**진행·참여** 김실비, 김영글, 노재운, 박창현, 배영환

**내용·참여** 미디어시티서울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통로 제시하기 위해, 작가가 선정한 이미지와 인용문으로 이루어진 엽서를 제작 및 배포

---

**〈중국과 중국의 모더니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시** 2013.9.30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진행·참여** 강의: 왕후이
진행: 황호덕

---

**〈문화의 특수성과 예술의 보편성〉**

**일시** 2013.10.1 19:00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8층

**진행·참여** 강의: 알랭 바디우, 세실 빈터
진행: 서용순

---

**〈동아시아 브리콜라주 - 일본을 중심으로〉**

**일시** 2013.10.2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진행·참여** 강의: 정은영, 황호덕, 박소현
진행: 박찬경

---

**〈불교생태주의, 생명예술과 예술〉**

**일시** 2013.11.1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진행·참여** 김주현, 우희종

---

**〈바리데기 저승편〉**

**일시** 2013.11.1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안은미, 이정우

**〈프리비엔날레 허브〉**

**일시** 2013.11.5–12.15 화–일 10:0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크리스털 상영관

**진행·참여** 공간 디자인: 권용주, 이수성

**내용·참여** 비엔날레의 주제와 연관된 책과 영화를 볼 수 있는 북카페와 작은 극장 형식의 전시
『Tokyo 1955–1970: A New Avant-Garde』(MoMA),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황호덕, 이상현 편, 박문사), 『민중과 유토피아』(조경달 저, 역사비평사) 외 주제에 관련된 도서 100여 권/작가 자료: 김수남, 안은미, 나이토 마사토시, 바심 막디, 닐바 귀레쉬, 토모코 요네다, 타무라 유이치로, 아오주이청, 제임스 T. 홍, 외 작가의 도록, DVD 온라인, 링크, 포트폴리오
김기영 〈고려장〉(1963, 110분), 〈충녀〉(1972, 115분), 〈이어도〉(1977, 111분), 〈하녀〉(1960, 108분), 신상옥 〈천년호〉(1969, 89분) 2회, 〈백사부인〉(1960, 91분) 2회, 노르베르트 베버 〈고요한 아침의 나라〉(1927, 118분) 3회

---

**〈파국의 지형학〉**

**일시** 2013.11.11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노재운, 문강형준, 조선령

---

**〈동학의 이상사회 상상〉**

**일시** 2013.11.11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배영환, 박찬경

---

**〈금융자본과 일상의 파국〉**

**일시** 2013.12.3 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파트타임스위트, 서동진

## 개막 행사

**〈서울새남굿〉**

**일시** 2014.09.01. 13:40–15:1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이상순 만신, '부정거리', '상산별상신장영실', '대감놀이', '바리공주', '도령거리', '길가리기'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일시** 2014.09.01. 17:0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참여** 정은영

**작가와의 대화 1**

**일시** 2014.9.1 18:00–19:4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참여** 에릭 보들레르, 자크라왈 닐탐롱

**작가와의 대화 2**

**일시** 2014.9.2 12:00–19:30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진행·참여** 제로지겐/가토 요시히로, 타무라 유이치로, 제시 존스, 호신텅, 노재운

**상영회**

**일시** 2014.9.2 10:00–11:00, 21:30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내용·참여** 개막식 연계 상영 프로그램
스크리닝: 제로지겐/가토 요시히로 〈제로지겐 기록영상〉(1969), 〈아나바의 흰토끼〉(1968), 나타샤 니직, 〈안드레아 하늘〉(2014)
감독과의 대화: 나타샤 니직

## 극장상영 프로그램

**〈영매〉**

**일시** 2014.9.2–5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내용·참여** 미디어와 미디움(영매)의 재결합으로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고 교섭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영상
스크리닝: 김기영 〈이어도〉(1977), 김상돈 〈4분간 숨을 참아라〉(2008), 나타샤 니직 〈안드레아의 하늘〉(2014), 애드윈 〈상흔의 여행〉(2007), 오톨리스 그룹 〈지구 영매〉(2013), 〈래디언트〉(2012), 요셉 앙기 노엔 〈장르 서브 장르〉(2013), 조해준, 유희 〈사이의 풍경〉(2013), 타무라 유이치로, 끄리사꼰 틴톱타이 〈정령〉(2012), 핌파카 토위라 〈매낙〉(1995)

**〈아시아 고딕〉**

**일시** 2014.9.11–17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내용·참여** 식민지 경험과 군사독재 등 비극적 아시아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아시아의 화제작
스크리닝: 신상옥 〈천년호〉(1969),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유령의 집〉(2001), 〈뱀파이어〉(2008),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크리스텔 르뢰 〈아시아의 유령〉(2005), 이장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1989), 잉 케이 〈셰익스피어 머스트 다이〉(2012), 키들랏 타히믹 〈과잉개발의 기억〉(1980–2014), 호 추 니엔 〈보헤미안 랩소디 프로젝트〉(2007), 〈지구〉(2009), 〈우타마: 역사의 모든 이름은 나〉(2003)
강연: 허상범 (9.13 14:00)

**〈냉전극장〉**

**일시** 2014.10.14–19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내용·참여** 식민지와 냉전 경험을 아우르는 세계의 다양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스크리닝: 리티 판 〈잃어버린사진〉(1930), 이강천 〈피아골〉(1955), 이두용 〈최후의 증인〉(1980), 이원세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1974), 임권택 〈짝코〉(1980), 장 클로드 보나르도 〈모란봉〉(1958), 제임스 T.홍 〈731부대: 지옥의 두 버전〉(2007), 〈사죄〉(2012), 〈지양춘건의 상처-전진과 후퇴〉(2012), 조슈아 오펜하이머 〈액트 오브 킬링〉(2012), 홍형숙 〈경계도시2〉(2009)
강연: 양투앙 코폴라 '〈모란봉〉 관련 강연'(10.15 19:30)
관객과의 대화: 홍형숙, 신은실 '〈경계도시2〉 관련 관객과의 대화'(10.17 19:30), 이두용, 주성철 '〈최후의 증인〉 관련 관객과의 대화'(10.19 14:00)

**〈그녀의 시간〉**

**일시** 2014.11.4–9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내용·참여** 할머니들의 구술과 증언을 중심으로, 역사와 사건을 사유하는
스크리닝: 라야 마틴 〈완벽하게 사라지는 법〉(2013), 김동령, 박경태 〈거미의 땅〉(2013), 박배일 〈밀양전〉(2013), 변영주 〈낮은 목소리2〉(1997), 유현목 〈장마〉(1979)
관객과의 대화: 박배일, 신은실 '〈밀양전〉 관련 관객과의 대화'(11.5 19:30), 변영주, 신은실 '〈낮은 목소리2〉 관련 관객과의 대화'(11.6 19:30), 김동령, 신은실 '〈거미의 땅〉 관련 관객과의 대화'

**〈다큐멘터리 실험실〉**

**일시** 2014.11.18–23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내용·참여** 지역 영상교육, 대안 비디오 제작이 왕성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진 실험적 다큐멘터리
스크리닝: 김숙현 〈죽은 개를 찾아서〉(2010), 닥랩 〈하노이 닥랩 작품 모음〉(2010–2013), 이원우 〈난시청〉(2008), 조혜정 〈재구성의 경로들(유관순 프로젝트)〉(2011), 황선숙 〈전람회의 그림〉(2013), OK. 비디오/루앙루파 〈인도네시아 비디오 아트 10년〉(2001–2009)
관객과의 대화: 황선숙, 신은실 (11.18 19:30) 김숙현, 이원우, 신은실 (11.22 16:30)

## 연계 프로그램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3 16:00–20: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괴력난신', '소리의 저편', '오래된 미디어', '동아시아 신화, 교육, 미술', '구술과 증언의 예술'
박찬경 '왜 귀신 간첩 할머니인가?'
양혜규, 정도련 '궤도와 공명'
박노자 '회색지대의 스파이들'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4 16:00–20: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리앙 '왜 여귀를 볼 수 있는가?'
최원준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권헌익 '친근한 이방인'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5 13:00–17: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최상일, 김지연 '할머니의 말과 소리'
이용우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정은영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7 15:00–19:30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내용·참여** 리앙 '왜 여귀를 볼 수 있는가?'
권헌익 '친근한 이방인'
최원준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8 13:00–17:30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내용·참여** 최상일, 김지연 '할머니의 말과 소리'
이용우 '아시아 디바와 근대성의 목소리들'
데이비드 테 '현재에 관해 언급하기: 동남아시아의 동시대와 그곳에 출몰하는 것들'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8 16:00–19:30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정서영 '일시적으로 모은 오래된 문제들'
김용언 '이상한 할머니들'
황젠홍 '타이완풍의 실어증 미디어'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9 15:00–18:30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내용·참여** 박찬경 '뉴미디어 신화와 오래된 것의 상상'
황젠홍 '타이완풍의 실어증 미디어'
정은영 〈칼잡이들〉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29 16:00–20: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내용·참여** 김인회 '80년대 굿의 기록과 교육'
정재서 '신화는 귀환하고 있는가? – 서왕모와의 교신을 위하여'
민정기, 최진욱, 박진아 '작가대담'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 경기문화재단 컨퍼런스〉**

**일시** 2014.10.30 15:00–18: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지하1층 세미나실, 계원예술대학교 조형관

**내용·참여** 박찬경, 김종길 '비엔날레의 큐레이터쉽과 증언의 방식들'
공선옥 '간첩처럼 숨어서 귀신처럼 기도하는 할머니'
조해준 '놀라운 아버지 – 구술과 기록의 여정'

---

**〈전시에서의 미디어: 제도권 안에서 영상미디어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형태〉**

**일시** 2014.11.9 14: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할머니 라운지

**진행·참여** 이현인, 김경호

---

**〈아카이빙/편집과 축적/즉흥과 기록〉**

**일시** 2014.11.14 13:00–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할머니 라운지

**진행·참여** 이루리, 심혜화

---

**〈관객과 함께 읽는 비엔날레〉**

**일시** 2014.11.14 15:30–17: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할머니 라운지

**진행·참여** 김소영, 최혜경

---

**SeMA - HANA 미디어아트 어워드**

**일시** 2014.12.3 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참여** 심사위원: 김홍희, 안소연, 모리무샤 야스마사, 정도련, 행커 슬레거 우트레흐트
수상: 에릭 보들레르,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 그리고 이미지 없는 27년〉(2011)

**내용·참여** 현대미술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디어아트의 창작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제정한 상.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 | |
|---|---|
| 기간 | 2016.9.1–2016.11.20 |
| 예술감독/큐레이터 | 백지숙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
| 작가 | 24개국 61명/팀(국내 22, 해외 38) |
| 작품 | 135점(커미션 17, 제작지원 9, 공동 제작지원 5) |
| 관객 | 175,884명 |
| 프로그램 | 55종 113회 |
| 참여자 | 1,377명 |
| 웹사이트 | archive.mediacityseoul.kr/2016/ |
| 예산 | 1.8억 원(프리비엔날레), 17.8억 원 |

아홉 번째 비엔날레를 준비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은 예년과 같이 예술감독 추천위원회와 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미술관 학예사 2인과 행정 직원 1인을 추가 편성한다. 백지숙 예술감독은 프리비엔날레 연도에 각 전시, 출판, 프로덕션을 맡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3인과 코디네이터 4인으로 이루어진 기획팀을 구성하고, 타렉 아부 엘 페투, 주은지, 크리스티나 리쿠페로를 기획 자문으로, 게이코 세이, 길예경, 미겔 로페즈, 장문정, 치무렝가를 출판 편집위원으로 초대한다. '포스트뮤지엄'이라는 미술관 의제를 비엔날레라는 형식으로 연구하듯 꾸려진《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2016은 미술의 여러 제도와 실천을 둘러싼 다양한 실험을 감행했다. 프리비엔날레에서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은 진행중인 과정에서의 단계별 모임으로 구성되어 비엔날레 참여자 모두를 위한 내부 워크숍처럼 운영되었다. 〈커뮤니티아트〉는 공동체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서 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는 간담회였고, 〈열린출판회의〉는 출판 편집위원이 각자의 주제에 대한 사전 협의와 논의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자리였다. 전시 개최 전부터 출간된 비정기출판물『그런가요』4개 호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여름캠프는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비엔날레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며, 대안적인 미술 활동의 유효성을 이야기하는 비엔날레 서사를 점진적이면서 다각적으로 쌓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미술관이라는 영구적인 시스템과의 협력 관계에서 연결 가능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는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렸다. 전시는 언어의 다른 이름으로 현대미술, 현대미술 정점의 화두로서 재난과 기술, 그리고 현재를 타계하는 시제로서 미래를 상상하며 현실에 접근하는 작가 61명/팀의 작품 122점을 소개했다.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로 포진된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은 교육과 연구, 관람객과 비 관람객, 소장과 공유 등 미술관이라는 제도를 둘러싼 여러 질문들을 포괄했으며, 2013년 개관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과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을 모두 전시와 프로그램 장소로 확장하여 타깃 관람객과 참여자에 맞춘 공간의 활용과 콘텐츠를 구성하고, 더불어 큰 폭의 관람객 상승까지 도모했다. 8회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포스터, 2016
그래픽 디자인: 매스 프랙티스
(강이룬, 어민선)

신작 제작은 커미션 17점, 제작지원 9점, 공동 제작지원 5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며 그 완성도와 밀도에서 현재까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함양아 작가 기획의 〈더 빌리지〉는 남서울미술관을 임시 교육 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탈바꿈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정보, 지식, 감각을 경험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로 보여주었다. 최태윤 작가 기획의 〈불확실한 학교〉는 북서울미술관의 교육실 공간을 활용하여 '탈학습' 개념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워크숍과 세미나를 운영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작가, 사회복지사, 활동가,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집중하여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현하고 역시 그 결과물을 전시로 연결했다. 빅 반데 폴의 〈삼생가약〉은 2002년 프랑스의 프락 소장품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서울 버전으로, 미술관 소장품 139점을 사전 선별하여 게스트 큐레이터 6인의 릴레이 전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은 기존 소장품에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만들고 미술 지식의 지속적인 생산구조를 탐색했다.

다른 무엇보다 9회 비엔날레의 가장 큰 성과는 출판과 참여 형태의 다양화다. 전시 가이드북은 단순한 리플릿이 아닌 작품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독 출판물로 역할을 겸했다. 도록은 비엔날레 주제를 뒷받침하는 글과 사진기록 외에도 기획자와 참여자들의 인터뷰, 프로그램 기록, 작품 목록 등 비엔날레 기록물로서 완성도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55종의 프로그램이 113회나 진행되면서 전시에서 소개되고 연결되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가 생겨났고, 이것의 형태가 퍼포먼스, 워크숍, 토크, 전시 등으로 세분되었다. 참여자는 전문가, 교육자, 어린이, 일반 관객, 학생, 교육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미술가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러 역할과 위치를 부여한 프로그램은 제공자와 수혜자 구도를 벗어나, 콘텐츠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다양한 관점으로 특정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의 다각화를 이루었다. 결과보고서는 '국내에서 동시에 열린 다른 비엔날레에 비해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뚜렷했고, 동시대 한국의 맥락에 부합하는 작품과 전시 기획을 보여준다는 인식을 세웠으며, 새로운 독자층을 개발했다.'[24]는 평가를 기록한다.

두 번째로 개최된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는 개막식 일정에 맞춰 사전 진행되었고, 크리스틴 선 킴의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2015)과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의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칠하기 3〉(2015)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예산은 예년 대비 약 2억 원 증액했고, 17곳의 후원과 협찬을 유치했으며, 전시장소 3곳을 모두 합한 관람객은 175,844명으로 2000년을 제외한 역대 최대 관객 수를 기록하였다.

24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결과보고서』, 서울시립미술관, 2016, pp.217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프리비엔날레 〈열린출판회의〉

진행: 게이코 세이, 길예경,
미겔 로페즈, 백지숙, 장문정,
치무렝가(응토네 에자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사무동
1층 회의실, 2015.11.27

최태윤
〈불확실한 학교〉

2016, 프로그램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 2016.8.13–24

'코드로 시 쓰기'와 '개인 정보와
정보 시각화' 워크숍
2016.8.21, 24

세미나 '의상을 입어라'

초대작가: 주황, 수화통역: 강현주,
임정애,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2016.9.10

(좌로부터)

이진솔
〈소리와 침묵〉, 2015–2016

곽규섭
〈키티와 튤립 캐릭터들〉,
〈허브나라친구 캐릭터들〉, 201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 전시 전경, 2016

함양아
〈더 빌리지〉

2016,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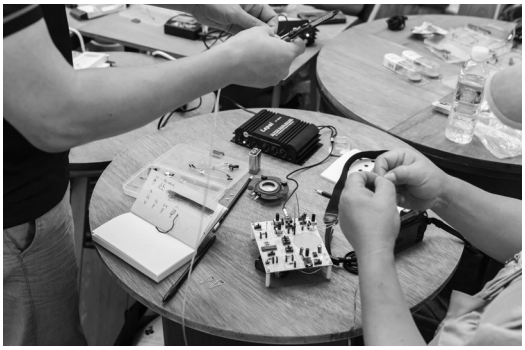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네덜란드 몬드리안재단 제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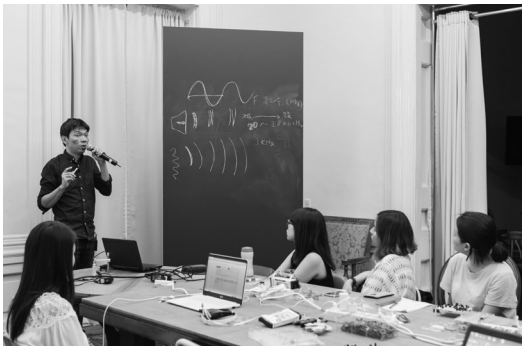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16.8.6–28

'자명, 공명, 그리고 공감'

강사: 권병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16.8.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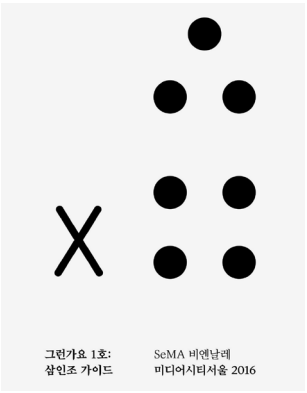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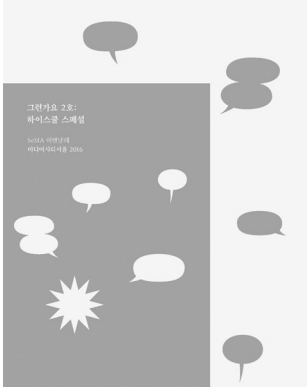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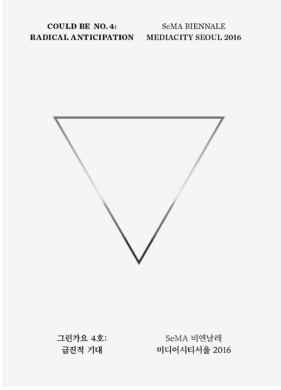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개막식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2016.8.30

『그런가요』(1호: 삼인조 가이드,
2호: 하이스쿨 스페셜, 3호: 시체 전시와
지난 그래픽 스토리, 4호: 급진적 기대),
2016





『그런가요』 한국의 독립서점과
미술공간 및 온라인 배포

우고 론디노네
〈개 같은 날들은 끝났다〉

1998, 네온, 아크릴 유리, 반투명 포일,
알루미늄, 330×770×10 cm

작가 및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사라 헨드렌
〈끼어든 경사로〉

2016,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프로덕션 디자인: 양지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앨리스 셰퍼드
〈탄력을 받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퍼포먼스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2016.9.4

빅 반 데르 폴
〈삼생가약〉

2016, 7개의 인터뷰 영상, 7번의 릴레이 전시 및 설치. 가변 크기

게스트 큐레이터: 마정연, 정소연, 윤경희, 박현정, 장준환, 김연용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네덜란드 몬드리안재단 제작 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게스트 큐레이터와의 인터뷰:
SF소설가 정소연(좌), 미술교육자
김연용(우)

서울시립미술관 수장고 인터뷰
촬영 전경, 2016

차재민
〈12〉

2016, HD 비디오, 3채널, 컬러,
사운드, 33분 46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파트타임스위트
〈나를 기다려, 추락하는 비행선에서〉

2016, 360° VR 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45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에두아르도 나바로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퍼포먼스

퍼포머: 장홍석, 조현상, 김은경,
송명규, 이정민, 이제성,
안무가: 김명신

난지천 공원 오리연못 옆, 2016.9.3
사진: 이지아

2013, 퍼포먼스, 말 의상과 설명문,
가변 크기

작가 및 알렉옥센포드컬렉션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주황
〈의상을 입어라〉

2016, 사진, 라이트박스 6개,
190×63×735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김주현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연작

2010–2011, 종이에 채색,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16

김주현
〈뒤틀림 그물망 144 2〉

2016, 동선 + LED, 70×120×60 cm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좌측부터)

한묵
〈번개탑〉

1976, 캔버스에 유채, 145×154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공간〉

1981, 캔버스에 유채, 195×110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16

홍승혜
〈유령〉

2016,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벤치, 6채널
프로젝션 공간설치, 흑백, 사운드, 가변
크기, 4분 16초 (반복 재생), 서라운드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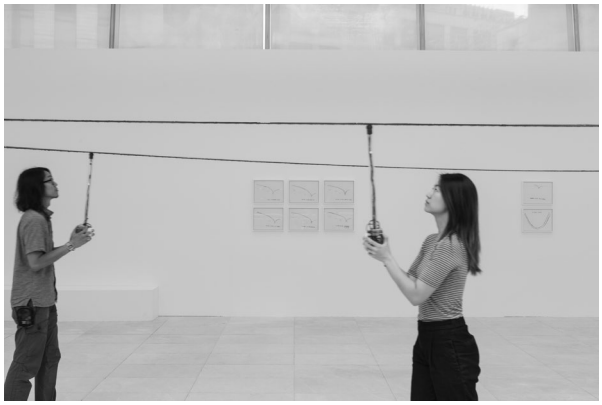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16

크리스틴 선 킴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

2015, 벨크로, 자석, 주문 제작 전자
장치, 작가의 할머니 김인삼의 목소리,
가변 크기

작가 및 캐롤/플레쳐 갤러리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칠하기 3〉

2015, 단채널 비디오, 25분 55초

〈제목 없음(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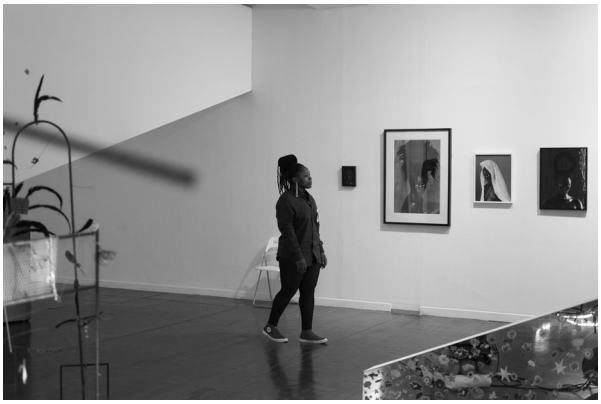
2016, 데님, 발포고무,
각 162.6×162.6×45.7 cm

〈제목 없음(플랫폼)〉

2016, 데님, 나무, 35.6×27.9×8.9 cm

작가 및 뉴욕/브뤼셀
C L E A R I N G 갤러리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구수현
〈관람 시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퍼포먼스

퍼포머: 레베카 비루기, 사 딕, 알리
알닌, 알린 파이타렌, 이사 센욘가

2016 미술주간 협력
서울시립미술관 기록영상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2016.10.14–16

안민욱
〈합의된 납치극〉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퍼포먼스

납치범 1: 송규호, 납치범 2: 안대웅,
운전사: 장 창, 매표직원: 안민욱

2016 미술주간 협력

서울시립미술관, 2016.10.14, 15, 21, 22

크리스틴 선 킴과 최태윤
〈미래 보증〉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퍼포먼스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2016.9.1

말하는 미술
〈반짝이는 공동체와 예술의 문제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프로그램

공개 녹음, 출연: 양효실, 한받, 임태훈,
김용익, 김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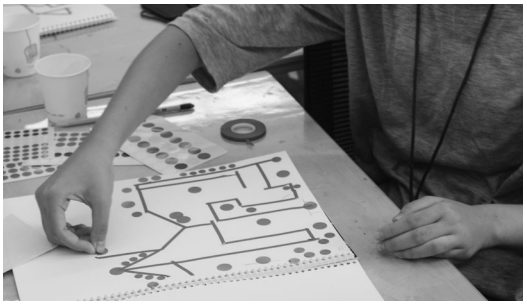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2016.10.23

말하는 미술
〈말하는 미술×미디어시티서울
2016 특별판〉

2016, 청취 라운지,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설치 전경, 2016



문미희
〈느리게 걷는 아이〉

2016, 프로그램

강사: 한예진, 양은진, 박규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
2016.9.24–10.29

#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강이룬 & 고아침 & 소원영**

**한국 인터넷 관광 안내서**
2016, 온라인 프로젝트
http://k-www.kr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구수현**

**관람시간**
2016, 퍼포먼스
퍼포머: 레베카 비루기, 사 딕, 알리 알닌, 알린 파이타렌, 이사 센욘가
2016 미술주간 협력
서울시립미술관 소장(기록영상)

**김실비**

**육십진법에 따른 연애편지**
2016, HD 비디오, 9:16, 컬러, 사운드, 6분 18초
음원 작곡, 제작: 김형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작고 따뜻한 죽음**
2016, 디지털 프린트, 260×70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계시의 나날과 자매**
2016, 4K HD 비디오 변환, 16:9, 컬러, 사운드, 11분 38초
출연: 파란 푸르, 엘리 코헨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김옥선**

**카벵가**
2016, 비디오, 컬러, 사운드, 14분 12초

**김익현**

**모두가 연결되는 미래**
2016, 사진,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종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김지영**

**불온한 공동체, 불화하는 말들의 기록**
2016, 천에 자수, 1000×100 cm
테크니션: 김명진, 참여자: 김영미, 배지현, 이은미, 서윤, 정재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김희천**

**썰매**
2016, 단채널 HD 비디오, 17분 27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나스티비셔스**

**막**
2012, 6채널 비디오, 12분 7초
작가 제공

**iFind, iABUSe To SiMPLiFy, iCUSToMize oBjeCTiVe Mine, iyoU WHAT See**
2011, 비디오, 7분 58초
작가 제공

**Ending Bad People is Ambiguity The Strength, the Courage & the Audacity is in Trusting the Universe! Have Faith, a Violet Spirit, be an Eagle, never loose Hope Be Coherent & U will find (the) Tangibility of Life**
2015, 벽지, 가변 크기

**나타샤 니직**

**W 노래**
2016, HD 비디오, 사운드, 13분 45초

**1914년 일기**
2016, HD 비디오, 18분 21초

**1918년 일기**
2016, HD 비디오, 9분 6초

**퍼포먼스 1**
2016, HD 비디오, 사운드, 5분 45초
퍼포머: 김뉘연, 방혜진, 백종관, 윤경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퍼포먼스 2**
2016, HD 비디오, 사운드, 5분 45초
퍼포머: 김뉘연, 방혜진, 백종관, 윤경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노리미치 히라가와**

**불가분의 것(프로토타입 no. 1)**
2015, DLP 프로젝터, 스피커,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니나 카차두리안**

**이끼 지도**
1992(2016 리프린트), C 프린트, 각 28×20 cm
작가 및 캐서린 클락 갤러리, 캐서린 클락 갤러리 소속

**니콜라스 망간**

**채광권**
2015, 2채널 HD 비디오, 사운드, 오프그리드 태양광 에너지, 가변 크기
런던 치즌헤일갤러리 및 시드니 아트스페이스 공동 커미션
작가, 멕시코 레이버갤러리, 멜버른 수톤갤러리 및 오클랜드 홈킨슨 모스맨 제공

**두웨인 링클레이터**

**UMFA1981.016.001**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1981.016.002**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1981.016.003**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1981.016.004**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1982.001.008**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2003.10.19**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2003.10.20(Tafoya)**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UMFAED.1998.3.21**
2015, 유타미술관 소장품의 내추럴 ABS 3D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카트리오나제프리스갤러리 제공
유타대학교 유타미술관 소장

**디네오 스샤 보파페**

**세디뱅[샘], 비와 함께 온다**
2016, 혼합 매체, 가변 크기

**마르게리트 위모**

**클레오파트라 아카펠라**
2015, 아홉 개의 사라진 언어로 부르는 사랑 노래의 HD 합성 음성, 7분 48초(반복 재생)
작가 및 케임브리지대학교 인공지능실험실 피에르 랑샹탱 제공

**블랙 맘바**
2015, 플로리다 블랙 맘바의 독 2그램, 안료, 페인트, 가변 크기
작가 제공

**말하는 미술**

**말하는 미술 × 미디어시티서울 2016 특별판**
2016, 청취 라운지,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무니라 알 솔**

**침묵하는 혀**
2009–2010, 다섯 개의 모니터가 있는 비디오 설치, 가변 크기
아랍예술문화재단(AFAC) 제작지원
작가 및 베이루트/함부르크 스파이어-제믈러갤러리 제공

**문화살롱 공**

**여강길 '유랑'**
2016,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바젤 압바스 & 루안 아부라암**

**하지만 내 마스크는 강력하다**
2016, 설치, 사운드, 비디오, 혼합 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작가 및 캐롤/플레쳐갤러리 제공

**박제성**

**의식 000 Pataphor**
2016, VR 설치, 가변 크기
테크니컬 디렉터: 김원기,
프로젝트 매니저: 유도원,
사운드 디자이너: 김동욱

**벤 러셀**

**아틀란티스**
2014, S16 mm 필름 변환 HD
비디오, 가변 크기

**벤자 크라이스트**

**미지의 진화 #02**
2016, 혼합 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샌프란시스코/파리 카디스트
제작지원

**빅 반 데르 폴**

**삼생가약**
2016, 7개의 인터뷰 비디오, 7번의
릴레이 전시 및 설치, 가변 크기
게스트 큐레이터: 마정연, 정소연,
윤경희, 박현정, 장준환, 김연용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네덜란드 몬드리안재단 제작지원

**사라 헨드렌**

**끼어든 경사로**
2016,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프로덕션 디자인: 양지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소이치로 미하라**

**공백 프로젝트 #3 우주**
2016, 이끼, 흙, 전기, 가변 크기
심비오티카와 교토아트센터 작가
스튜디오 프로그램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신시아 마르셀**

**라이트모티프**
2011, 비디오, 16:9, 4분 16초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자동차**
2012, 비디오, 16:9, 7분 11초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대치**
2005, 비디오, 4:3, 7분 50초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신시아 마르셀 & 티아고 마타 마샤두**

**일방통행로**
2013, 비디오, 16:9, 8분 40초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아키히코 타니구치**

**빅 브라우저 3D**
2016,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흐마드 호세인**

**제4단계**
2015, HD 비디오, 16:9,
1920×1080, 37분
샤르자예술재단 프로덕션 기금 제작

**안민욱**

**합의된 납치극**
2016, 퍼포먼스
납치범 1: 송규호, 납치범 2: 안대웅,
운전사: 장 창, 매표직원: 안민욱
2016 미술주간 협력

**에두아르도 나바로**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2013, 퍼포먼스, 말 의상과 설명문,
가변 크기
작가 및 알렉옥센포드컬렉션 제공

**올리버 라릭**

**여러 개의 버전(미사일 변주)**
2010, 알루미늄 합성 보드에
에어브러시 페인트,
각 약 40×25 cm
런던 개인 소장

**우고 론디노네**

**개 같은 날들은 끝났다**
1998, 네온, 아크릴 유리, 반투명
포일, 알루미늄, 770×330×10 cm
작가 및 서울 국제갤러리 제공
© Ugo Rondinone

**우슬라 메이어**

**곤다**
2012, HD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30분
작가 및 런던 LUX 제공

**이미래**

**무너지는 것들 나의 가장 과격한 꿈 속에서**
2016, 실리콘, 석고, 모터 및
혼합매체, 가변 크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이반 나바로**

**제목 없음(쌍둥이 빌딩)**
2011, 네온, 나무, 거울, 반투명 거울
외 혼합 매체, 각 147×147×19.5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자넬레 무홀리**

**저드와[여자 아이만] I, 암스테르담**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13.35×2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솜냐마[검은] I, 파리**
2014, 실버 젤라틴, 윈도우 마운트와
유리 프레임, 53.3×80 cm(이미지),
63.3×90 cm(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템베가[믿을 수 있는] I 뉴욕 업스테이트**
2015, 실버 젤라틴, 유리 프레임,
38.7×5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지부일레[돌아옴] I, 시라큐스**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43.5×6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나의 정체성/가정부, 브룩클린, 뉴욕**
2015, 실버 젤라틴 프린트, 유리
프레임, 21.7×30 cm(이미지),
31.7×40 cm(프린트)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베스터 V, 마요트 제도**
2015, 프레임 없는 실버 젤라틴,
41×5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저드와[여자 아이만] II, 암스테르담**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32.1×4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검은 암사자를 경배하라 II, 오슬로**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43.6×5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바베길레[본] II, 오슬로**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37.7×50 cm(이미지),
47.7×60 cm(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장석준**

**평평한 도시 프로젝트_플랫54**
2015, 멀티채널 비디오, 6분 36초

**저우타오**

**파랑과 빨강**
2014, 단채널 HD 비디오, 16:9, 컬러,
사운드, 24분 25초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제공

**제인과 루이스 윌슨**

**콘바스 오토바트, 피폭된 카메라**
2012, 청동, 20×15×20 cm
작가, 맨체스터 휘트워스아트갤러리,
런던 포르마아트앤미디어 및 뉴욕
303갤러리 제공

**계기 착륙 실험실 4, 수소폭탄 실험 장소, 서포크, 영국**
2014, C 타입 핸드 프린트, 알루미늄
마운트, 디아섹, 225×180 cm
작가, 맨체스터 휘트워스아트갤러리,
런던 포르마아트앤미디어 및 뉴욕
303갤러리 제공

**원전도시, 자연은 진공을 증오한다 IV**
2011, C 타입 핸드 프린트, 알루미늄
마운트, 디아섹, 228×180 cm
작가, 맨체스터 휘트워스아트갤러리,
런던 포르마아트앤미디어 및 뉴욕
303갤러리 제공

**원전도시, 자연은 진공을 증오한다 V**
2011, C 타입 핸드 프린트, 알루미늄
마운트, 디아섹, 228×180 cm
작가, 맨체스터 휘트워스아트갤러리,
런던 포르마아트앤미디어 및 뉴욕
303갤러리 제공

**폐기된 측정 단위/영국 측정 단위 III**
2010, 마데이라 나무, 에나멜 페인트, 놋쇠, 1.6×728×4.8 cm
작가, 맨체스터 휘트워스아트갤러리, 런던 포르마아트앤미디어 및 뉴욕 303갤러리 제공

**폐기된 측정 단위/영국 측정 단위 IV**
2010, 마데이라 나무, 에나멜 페인트, 놋쇠, 1.6×728×4.8 cm
작가, 맨체스터 휘트워스아트갤러리, 런던 포르마아트앤미디어 및 뉴욕 303갤러리 제공

### 조나타스 지 안드라지

**태평양**
2010, 스티로폼 모형 보드
애니메이션, 지도, 슈퍼-8 카메라
종이 스톱 모션, 12분 45초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네고 봉 40개에 1헤알**
2013, 리소그래프 프린트
40점(각 20×20 cm), 레이저 프린트 80점(각 15×15 cm), 플렉시글라스에 팬터그래프 프린트 4점(각 65×17.5 cm), 플렉시글라스에 팬터그래프 프린트 3점(각 30×30 cm), 합판에 세리그래피 10점(각 31×31×3 cm), 합판에 세리그래피 3점(각 66.5×66.5×3 cm), 합판에 세리그래피 2점 (각 132×66.5×3 cm) 설치, 가변 크기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 주앙 마리아 구즈망 + 페드루 파이바

**과일과 채소 썰기**
2016,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1분 30초
아라우 아르가우어시립미술관 및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공동 제작지원

**게**
2016,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1분 30초
아라우 아르가우어시립미술관 및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공동 제작지원

**바닷가재의 수수께끼**
2016,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2분 25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

**뺑, 차, 바오 게임**
2011,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2분 27초
협력: 케냐 라무 팜 오일 공장
파리 프락 일 드 프랑스/르 플라토 제작

**유성학 2**
2016,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7분
아라우 아르가우어시립미술관 및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공동 제작지원

**프로젝터(카메라 테스트)**
2016,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3분
아라우 아르가우어시립미술관 및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공동 제작지원

**탄환 열차에서 잠 자기**
2015,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8분 2초
도움: 카디스트 재단, 타구치 아트 컬렉션
로스엔젤레스 레드캣 커미션

**바퀴**
2011,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2분 33초
상투메프린시페 비엔날레 및 프락 일 드 프랑스/르 플라토
공동 제작

**선지자의 말**
2011,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2분 2초
협력: 케냐 라무 팜 오일 공장
파리 프락 일 드 프랑스/르 플라토 제작

**거북 복어**
2011,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2분 25초
협력: 케냐 라무 팜 오일 공장
플로렌스 마리노마리니미술관 제작

**냄비보다 작은 냄비**
2010, 16 mm 필름, 컬러, 사운드 없음, 2분 25초

### 주황

**의상을 입어라**
2016, 사진, 라이트박스 6개, 63×190×735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차재민

**12**
2016, HD 비디오, 3채널, 컬러, 사운드, 33분 46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병원**
2016,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분 30초/20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혹은**
2016,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분 30초/20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지옥의 소리**
2016
프로듀서: 최윤석, 엔지니어: 황현우, 녹음: 씨티알싸운드, 프로덕션: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내레이션:우정원, 1화 시나리오:송아영, 출연:Qrator, 구수현, 송지은, 유목연, 2화 시나리오: Qrator, 출연:구수현, 송지은, 안대웅, 유목연, 3화 시나리오: 송아영 출연: 구수현, 송지은, 송아영, 안대웅, 정재민, 장근희, 4화 시나리오:Qrator, 출연: 구수현, 김태균, 류재훈, 송지은, 안대웅, 우정출연: 구보경, 김은하, 김현지, 김균지, 이동민, 이강규, 방지예, 협력: 안민욱의합의된 납치극, 5화 시나리오: 송아영, Qrator, 출연: 구수현, 김태덕, 류재훈, 송지은, 이목은, 안대웅, Qrator, 장근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 케망 와 레홀레레

**우주의 또 다른 막간 궤도**
2016, 칠판에 분필, 1070×59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작가 및 스티븐슨 갤러리 제공

###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칠하기 3**
2015, 단채널 비디오, 25분 55초
작가 및 뉴욕/브뤼셀 C L E A R I N G 갤러리 제공

**제목 없음(베개)**
2016, 데님, 발포고무, 각 162.6×162.6×45.7 cm
작가 및 뉴욕/브뤼셀 C L E A R I N G 갤러리 제공

**제목 없음(플랫폼)**
2016, 데님, 나무, 35.6×27.9×8.9 cm
작가 및 뉴욕/브뤼셀 C L E A R I N G 갤러리 제공

### 크리스틴 선 킴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
2015, 벨크로, 자석, 주문 제작 전자 장치, 작가의 할머니 김인삼의 목소리, 가변 크기
작가 및 캐롤/플레쳐 갤러리 제공

**삐딱하게 본 미래**

**흔적을 숨기는 미래**

**과거가 무서운 미래**

**기억으로 가득한 미래**

**정체성 혼란을 겪는 미래**

**비밀이 많은 미래**

**온종일 미래**

**잘못 놓인 미래**

**멀리 떨어진 미래**

**밤새 미래**
2016, 종이에 목탄, 각 40×30 cm(10점)
작가 및 화이트스페이스베이징 제공

### 파트타임스위트

**나를 기다려, 추락하는 비행선에서**
2016, 360° VR 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45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피에르 위그

**제목 없음(인간 가면)**
2014, 필름,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2:66, 19분
작가, 런던 하우저 & 워스갤러리 및 파리 안나레나필름 제공

### 함양아

**잠**
2015,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8분 40초
프로듀서: 김종규, 김재홍,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한국 독일문화원, SBS 문화재단/국립현대미술관/올해의작가상 활동기금 제작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I came for 행복/항복**
2011, 네온설치, 가변 크기

### 황새둥지

**'NERIRI KIRURU HARARA' 방만한 예술책**
2016, 책, 16×24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김주현**

**5 토러스**
2015, 동선 + LED,
200×350×300 cm

**뒤틀림 1 뫼비우스의 띠**
2016, 동선 + LED,
170×193×55 cm

**뒤틀림 그물망 144 2**
2016, 동선 + LED,
70×120×60 cm

**로빈스차일즈 + A.L. 스타이너**

**C.L.U.E. (색과 장소의 절대 경험), I부**
2007, 디지털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사운드, 10분 48초
비디오 데이터 뱅크 제공,
www.vdb.org

**샹탈 아커만**

**상하이에 내리는 땅거미**
2007/2009, 단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중국식 전등 2개,
14분(반복 재생)
샹탈아커만재단 및
마리안굿맨갤러리 제공

**소냐 보멜**

**코바늘로 뜬 세포막**
2008/2009, 손뜨개 털,
각 11×62×1 cm(발),
44×6×1 cm(복부와 다리),
각 14×74×1 cm(팔),
27×32×1 cm(머리),
26×38×1 cm(상반신)
작가 제공

**신체 지도 제작법**
2010/2011, 46점의 사진 프린트,
각 20×30 cm
에리히 스코프와 협업작가 제공

**자넬레 무홀리**

**베스터 I, 마요트 제도**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50.5×70 cm(이미지),
60.5×80 cm(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솜냐마[검은] III, 파리**
2014,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59.5×8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홀렌기위[구조된], 파리**
2014,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53.3×8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베스터 IV, 마요트 제도**
2015, 코튼지에 잉크젯, 유리 없는
프레임, 57.8×80 cm(이미지와 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할렘에서 나의 정체성/할렘의 가정부/메이드 인 할렘, 아프리칸 마켓 116번가**
2015, 화학 섬유 종이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잉크, 유리 없는 프레임,
40×50 cm(이미지), 50×60 cm(종이)
작가, 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스티븐슨갤러리 및 뉴욕
얀시리처드슨갤러리 제공

**캐롤리 슈니먼**

**물 빛/물 바늘 (뉴저지 마흐와 호수)**
1966, 컬러, 사운드, 16 mm 필름 HD
비디오, 11분 13초
뉴욕 일렉트로닉아츠인터믹스(EAI)
제공

**한묵**

**공간**
1981, 캔버스에 유채, 195×110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번개탑**
1976, 캔버스에 유채, 145×154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홍승혜**

**유령**
2016,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벤치,
6채널 프로젝션 공간설치, 흑백,
사운드, 서라운드, 가변크기,
4분 16초(반복 재생)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김주현**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1**
2010–2011, 종이에 채색, 51×51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2**
2010–2011, 종이에 채색,
56.5×62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3**
2010–2011, 종이에 채색,
56.5×62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4**
2010–2011, 종이에 채색, 55×55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5**
2010–2011, 종이에 채색,
40×40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6**
2010–2011, 종이에 채색, 32×34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7**
2010–2011, 종이에 채색,
30×30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8**
2010–2011, 종이에 채색, 32×34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9**
2010–2011, 종이에 채색, 73×71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기억의 노선을 위한 드로잉 10**
2010–2011, 종이에 채색, 73×71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로렌스 렉**

**시바의 길(2072년 서울)**
2016, 리얼 타임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HD 비디오, 사운드,
스테레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커미션

**박제성**

**의식 302 좌표**
2016, PVC 캘지 220g,
45386×4900 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제작지원

**벤 러셀**

**인생은 한 번뿐**
2015, S16 mm 필름 변환 HD 비디오,
오브제, 가변 크기

**신시아 마르셀**

**같은 세계의 반복**
2009–2010, 설치, 지워진 칠판, 분필
가루와 지우개, 840×120×10.2 cm
작가 및 베르멜료갤러리 제공

**아키히코 타니구치**

**나와 닮은 것/본다는 것에 대하여**
2016, 컴퓨터, 프로젝터, 게임
컨트롤러,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올리버 라릭**

**제목 없음**
2014–2015,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55초

**이반 나바로**

**저항**
2009, 형광등, 전기, 금속 고정 장치,
카트, 자전거, 371×127×58 cm
파리/브뤼셀 갤러리다니엘탕플롱 제공

**저우타오**

**닭은 오리에게 말하고, 돼지는 개에게 말한다**
2004, 2채널 비디오 설치, 8분 38초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제공

**최태윤**

**언러닝 다이어리**
2016, 잉크 드로잉, 가변 크기

#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프로그램 목록

## 프리비엔날레

**〈커뮤니티아트〉**

**일시** 2015.9.4

**장소** 북서울미술관 스튜디오2

**진행·참여** 김용익, 김월식, 이혁종, 박이창식, 송지은, 안민욱, 이명훈

**내용·참여**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작가들과 연계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여 공동체 예술을 통해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커뮤니티아트〉**

**일시** 2015.12.18

**장소** 황새둥지

**진행·참여** 김용익, 이혁종, 박이창식, 송지은, 안민욱

**〈커뮤니티아트〉**

**일시** 2016.1.21

**장소**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진행·참여** 김지영, 김용익, 김월식, 이혁종, 박이창식, 송지은, 안민욱

**〈커뮤니티아트〉**

**일시** 2016.2.26

**장소** 문화살롱 공, 한탄 임진강 지질공원

**진행·참여** 김용익, 문미희, 박이창식, 송지은, 안민욱, 이혁종, 채은영

**〈커뮤니티아트〉**

**일시** 2016.3.4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강의실

**진행·참여** 김용익, 김월식, 김지영, 김태균, 문미희, 박이창식, 송지은, 채은영, 김진주, 예희정, 윤재민, 이지아, 이혁종, 이희인

**〈열린출판회의〉**

**일시** 2015.11.27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회의실

**진행·참여** 게이코 세이, 길예경, 미겔 로페즈, 백지숙, 장문정, 치무렝가(응토네 에자베)

**내용·참여**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 편집자, 필자, 번역자 등이 함께 자리해 각 호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한 토론 및 대담

## 여름캠프 〈더빌리지〉

| | |
|---|---|
| 기간 | 2016.8.6–28 |
| 장소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1층과 야외 |
| 기획 | 함양아 |
| 영상촬영 | 조영천, 왕민철 |
| 사진촬영 | 함재원 |
| 영상편집 | 함혜경, 박진우 |
| 진행 | 김유란, 김수연, 김소희, 하민철 |
| 후원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 제작지원 |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
| 공간조성 | COM |

**토요열린수업 '다이아몬드 라이트 서울: 다이아몬드와 인종, 공간, 색과 문화'**

**일시** 2016.8.6

**진행·참여** 천민정, 가브리엘 크로이츠

**'예술과 관료제, 그리고 공공적 삶'**

**일시** 2016.8.9–12

**진행·참여** 박소현

**'자명, 공명, 그리고 공감'**

**일시** 2016.8.9–12

**진행·참여** 권병준

**'예술, 소셜미디어와 익명성'**

**일시** 2016.8.9–12

**진행·참여** 게이코 세이

**'모두의 식탁'**

**일시** 2016.8.9–12, 16–19, 25–28

**진행·참여** blblbg + 모두의 부엌

**'몸과 움직임의 모양'**

**일시** 2016.8.11, 12, 16, 18, 19

**진행·참여** 노경애

**토요열린수업 '몸과 움직임의 모양 - 퍼즐 맞추기'**

**일시** 2016.8.13

**진행·참여** 노경애

**'조정'**

**일시** 2016.8.16–19

**진행·참여** 사샤 카라리취

**'창조적 도시와 예술: 예술, 정치, 도시의 삶'**

**일시** 2016.8.16–19

**진행·참여** 파스칼 길렌

**토요열린수업 '공유지의 예술적 구조 - 도시와 예술적 다중의 중얼거림'**

**일시** 2016.8.20

**진행·참여** 파스칼 길렌

**'피로의 학교'**

**일시** 2016.8.25–28

**진행·참여** 행크 슬래거

**'작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일시** 2016.8.25–28

**진행·참여** 마리안느 플로트롱

**'예술교사를 위한 영화학교'**

**일시** 2016.8.25–28

**진행·참여** 황젠홍

**토요열린수업 〈장소와 몸짓〉**

**일시** 2016.8.27

**진행·참여** 김현경

## 여름캠프 〈불확실한 학교〉

| | |
|---|---|
| 기간 | 2016.8.13–11.19 |
| 장소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 |
| 기획 | 최태윤 |
| 코디네이터 | 서새롬 |
| 후원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식 개선 및 unlearning이란 무엇인가?'**

**일시** 2016.08.13. 11:00–16:00

**진행·참여** 최태윤

**'코드란 무엇인가?'**

**일시** 2016.08.17. 19:00–21:00

**진행·참여** 최태윤

**'코드로 시 쓰기'**

**일시** 2016.08.21. 14:00–17:00

**진행·참여** 최태윤

**'개인정보와 정보시각화'**

**일시** 2016.08.24. 19:00–21:00

**진행·참여** 최태윤

**'내 작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일시** 2016.8.28 14:00–17:00

**진행·참여** 최태윤

**불확실한 학교 세미나 1. '역사와 동시대성'**

**일시** 2016.8.29 11:00–13: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회의실

**진행·참여** 나타샤 니직

**불확실한 학교 세미나 2. '재난과 자연시스템'**

**일시** 2016.9.1 11:00–13: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 강의실

**진행·참여** 미하라 소이치로

**불확실한 학교 세미나 3. '램프와 접근성 매핑'**

**일시** 2016.9.3 11:00–14:00

**장소**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 야외공원

**진행·참여** 초대작가: 사라 헨드렌, 엘리스 셰퍼드
영어통역: 우형민, 최태윤
수화통역: 김현철, 문은정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불확실한 학교 세미나 4. '한계가 아닌 가능성'**

**일시** 2016.9.10 11:00–12: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초대작가: 에두아르도 나바로, 김명신, 이정민
수화통역: 강현주, 임정애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

**불확실한 학교 세미나 5. '의상을 입어라'**

**일시** 2016.9.10 13:00–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초대작가: 주황
수화통역: 강현주, 임정애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

**불확실한 학교 세미나 6. '나의 개러지 밴드'**

**일시** 2016.9.11 15:00–17:00

**장소**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진행·참여** 홍승혜

---

**'개러지밴드'**

**일시** 2016.9.11 15:00–17:00

**장소**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진행·참여** 수화통역: 김현철, 이현화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

**전시 준비 워크숍 1회차**

**일시** 2016.9.12 19:00–21:00

**진행·참여** 수화통역: 신문철, 조유나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

**'동영상과 스토리텔링'**

**일시** 2016.9.19 18:00–21:00

**진행·참여** 이길보라

---

**'개러지밴드'**

**일시** 2016.9.21 19:00–21:00

**진행·참여** 문자통역: 이시은(에이유디 조합원)

---

**'아트링크'**

**일시** 2016.10.8, 22 17:30–19:30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스튜디오 2

**진행·참여** 김인경, 최유리

---

**'코드스터디'**

**일시** 2016.10.19 16:30–18:00, 11.08 16:00–18:10,
11.15 17:10–19:00

**장소** 로사이드

**진행·참여** 참여: 곽규섭
진행: 김태경, 정유미
참관: 고재필, 곽동욱

---

**상호의존 전시 상영회**

**일시** 2016.11.19 14:00–17:00

**진행·참여** 곽규섭, 박범×고재필×안용우, 김성원, 라야

## 연계 프로그램

**SeMA - HANA 미디어아트 어워드**

**일시** 2016.8.31 11:00–17: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및 로비

**진행·참여** 심사위원: 김홍희, 후어 알 카시미,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주은지, 비너스 라우
공동수상: 크리스틴 선 킴,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2015),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웃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역사로 칠하기 3〉(2015)

**내용·참여** 현대미술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디어아트의 창작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제정한 상.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

---

**『그런가요』 열람공간**

**일시** 2016.9.1–11.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층 복도

**진행·참여** 책임편집: 길예경, 게이코 세이, 치무렝가, 미겔 로페즈
디자인 및 자문: 장문정
공간 디자인: COM

**내용·참여**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와 관련 자료들을 열람 가능한 아카이브

---

**〈미래 보증〉**

**일시** 2016.9.1 17:0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최태윤, 크리스틴 선 킴

**내용·참여** 전자부품과 모터를 사용하여 만든 추상적인 풍경을 참여자들과 함께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영어, 한국어 수화, 영어 수화로 동시에 진행

---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일시** 2016.9.3 17:00–19:00

**장소** 난지천 공원

**진행·참여** 작가: 에두아르도 나바로
안무가: 김명신
퍼포머: 장홍석, 조현상, 김은경, 송명규, 이정민, 이제성

**내용·참여** 인간과 동물의 만남에 주목해 말의 형상을 본딴 가면, 의상, 보철 장치를 전시하고, 이 전시물을 가지고 진행한 퍼포먼스

---

**〈열린출판회의2〉**

**일시** 2016.9.4 14: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게이코 세이

**내용·참여**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 연계 프로그램으로, 편집자, 필자, 번역자 등이 함께 자리해 각 호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 및 대담을 진행

**〈탄력을 받은〉**

**일시** 2016.9.4 17:00–18: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진행·참여** 엘리스 셰퍼드

**내용·참여** 사라 헨드렌의 〈끼어든 경사로〉(2016)를 통해 장애와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도전하고 휠체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퍼포먼스

---

**〈예술가의 런치박스×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일시** 2016.9.6, 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최태윤, blblbg, 황새둥지

**내용·참여** 점심시간을 이용해 작가와의 만남과 현대미술의 이해를 높여온 〈예술가의 런치박스〉와 미디어시티서울 2016이 함께 진행

---

**〈열린출판회의3〉**

**일시** 2016.9.10 15: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미겔 로페즈, 리즈 박

**내용·참여**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 연계 프로그램으로, 편집자, 필자, 번역자 등이 함께 자리해 각 호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 및 대담을 진행

---

**〈불화하는 말들의 기록〉**

**일시** 2016.9.22, 10.20 14: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김지영

**내용·참여** 참여자들 각자가 자신의 불온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언어를 실과 바늘로 새기는 워크숍

---

**〈느리게 걷는 아이〉**

**일시** 2016.9.24, 10.1, 08, 15, 22, 29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지하1층 커뮤니티 갤러리

**진행·참여** 작가: 문미희
강사: 한예진, 양은진, 박규민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내용·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도시를 읽어나가는 체험 프로그램
'감각 이야기'(09.24), '현장 워크숍'(10.1), '지도와 영상 제작'(10.08), '스토리북 제작 및 발표'(10.15), '지도 제작'(10.22), '지도 제작 및 전시 준비'(10.29)

**〈이어지는 미래〉**

**일시** 2016.10.1, 8, 15, 22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지하1층 스튜디오2

**진행·참여** 작가: 이미래
강사: 차슬아, 최하늘
대상: 중학생

**내용·참여** 이미래의 〈무너지는 계획 - 나의 가장 과격한 꿈속에서〉(2016)의 제작방식에서 착안한 워크숍
'기초 조형 재료 탐구'(10.1), '키네틱 조형 제작 및 발표'(10.8), '키네틱을 활용한 설치 구상과 만들기'(10.15), '개별 조형물로 이어지는 몸체 제작, 키네틱 퍼포머티브 수업'(10.22)

---

**〈한국 인터넷 관광 안내서: 가지 않은 길〉**

**일시** 2016.10.1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강이룬, 강현숙, 고아침, 소원영, 송호준, 안정배, 이미영, 최승준, 최빛나, 홍은주, 김기창, 오가현, 윤종수, 이수빈, 진달래

**내용·참여** 강이룬 & 고아침 & 소원영의 〈한국 인터넷 관광 안내서〉 연계 전문가 워크숍

---

**〈한국 인터넷 관광 안내서〉**

**일시** 2016.10.8 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강이룬, 강현숙, 고아침, 소원영, 송호준, 안정배, 이미영, 최승준, 최빛나, 홍은주, 김기창, 오가현, 윤종수, 이수빈, 진달래

**내용·참여** 한국형 인터넷의 특질을 살펴보는 〈한국 인터넷 관광 안내서〉 연계 워크숍

---

**〈합의된 납치극〉**

**일시** 2016.10.14, 15, 21, 22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 황새둥지/문화살롱 공/리트머스 녹음실/모카포트

**진행·참여** 작가: 안민욱
납치범: 송규호, 안대웅
운전사: 장 창
매표직원: 안민욱

**내용·참여** 서울을 벗어난 미술현장에서의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객을 납치해 공동체 미술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과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를 연결하는 지점을 찾는 퍼포먼스

---

**〈관람 시간〉**

**일시** 2016.10.14 10:00–20:00, 15–16 10:00–19:00, 2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진행·참여** 작가: 구수현
퍼포머: 레베카 비루기, 사 딕, 알리 알닌, 알린 파이타렌, 이사 센욘가

**내용·참여**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기도 안산의 용역회사를 통해 이주민 노동자를 전시장에서 지킴이로 고용하고, 이들이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특정적 상황을 통해 미술관-작품-전시장 근무자-관람객의 정치적 구조와 관계성을 조명

---

**'함께'하는 비엔날레**

**일시** 2016.10.2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진행·참여** 안미희, 천윤희, 하석원, 성유리, 변지혜, 이성민

---

**말하는 미술×미디어시티서울 2016 특별판 2부 공개녹음**

**일시** 2016.10.22

**진행·참여** 진행: 김진주
패널: 김용익, 양효실, 임태훈, 한받

**내용·참여** 예술과 공동체 사이의 고민을 주제로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 공개녹음

##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

| | |
|---|---|
| 기간 | 2018.9.6–2018.11.18 |
| 예술감독 콜렉티브 | 김남수, 김장언, 임경용, 홍기빈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로미디어캔버스 |
| 작가 | 16개국 66명(팀)(국내 38, 해외 28) |
| 작품 | 95점(커미션 71, 제작지원 3) |
| 관객 | 66,165명 |
| 프로그램 | 26종 79회 |
| 참여자 | 892명 |
| 웹사이트 | archive.mediacityseoul.kr/2018/ |
| 예산 | 1.8억 원(프리비엔날레), 17.8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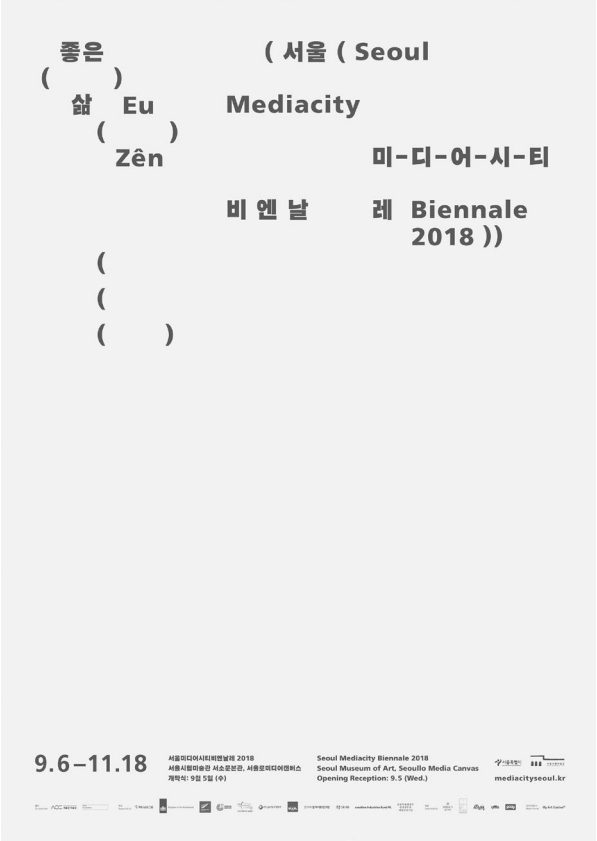
20주년을 맞이하며 최효준 제5대 관장은 서울시의 대표 미술 축제로서 원년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뜻으로 사업 명칭을 다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바꾸고, 조직 구성의 혁신적인 변화를 꾀한다. 역대 최초로 콜렉티브 기획 체계를 구성하였고, 무용, 미술, 출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남수, 김장언, 임경용, 홍기빈이 초대된다. 예산은 예년과 같으며, 11곳의 후원과 협찬을 유치하였다. 사무국은 미술관 소속 학예사 3인과 행정 주무관 1인이 총괄하는 체제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4인과 코디네이터 6인을 미술관이 직접 고용하여 기획팀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9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열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은 불안이 팽배한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를 질문하는 '뉴노멀'이라는 주제에 맞춰 무용, 건축, 환경, 경제, 사회, 대중음악, 연극 등 미술 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참여자'[25] 66명/팀의 작품 95점을 소개했다. 전체 출품작의 70% 이상에 달하는 작품 71점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제작되었고, 전시장 내에 마련된 '아고라'[26]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강연, 토론회, 토크, 워크숍과 퍼포먼스까지 모두 작품으로 간주하여 제도의 관성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담팀의 부재, 대다수가 비 미술인으로 이루어진 디렉토리얼 콜렉티브 역할의 부정확함,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이지 못한 민주성과 공동의 책임부담은 비엔날레라는 전문적인 형식과 효율적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역대 최저 관객 수인 66,165명을 기록하였다.

세 번째로 치러진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는 처음으로 국내 작가 안건형을 수상자로 결정하였고, 이듬해 작가는 수상작 〈한국인을 관두는 법〉(2018)을 미술관에 기증하였다.

25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미술 외 분야의 초대 인물을 모두 '참여자'로,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활동을 모두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26 '아고라'는 전시공간 내 여러 모임, 무형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름이다.




《좋은 삶》 포스터, 2018
그래픽 디자인: 박연주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 개막식
서울시립미술관, 2018.9.5

권병준
〈오묘한 진리의 숲 2〉

2018, 위치인식시스템, 헤드폰 8개,
음원 16개, 스테레오, 109분 46초

SFX Seoul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에디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8

리슨투더시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201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재난대비워크숍, 워크숍,
드로잉 출력물 28장, 가변 크기,
31분 48초(영상);
40.2×26.4 cm, 40×26 cm(출력물)

제작: 리슨투더시티,
촬영 및 편집: 김청승(서울영상집단),
출연: 김성열, 김효정, 박두환,
이성우, 양인우, 하용준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마침, 좋은 삶〉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퍼포먼스, 48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전경,
2018.10.3–5

노경애
〈움직이는 표준〉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퍼포먼스, 48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전경,
2018.11.8–9

김상돈
〈바다도 없이〉

2018, 설치,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8

안건형
〈한국인을 관두는 법〉

2018, 2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62분 39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8

구민자
〈23:59:60〉

2015, 2018, 설치, 실크에 프린트, 가변 크기

63개 곳의 69명 참여자와 협업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6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상영 프로그램

참여작가: 구민자, 디륵 플라이쉬만,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편집), 리슨투더시티, 박연주,
이그니토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인민의 아카이브,
탁영환·이경남, 이소영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상영 전경, 2018

# 《좋은 삶》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고연옥 & 잣 프로젝트**

**우리는 적당히 말했다**
연극(9.12, 13, 14, 15 16:00-16:30, 아고라)
2018, 공연예술, 4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구민자**

**23:59:60**
2015, 2018, 설치, 실크에 프린트, 가변 크기
참여자: 니우에 섬(키스 바이알), 오아후(레이첼 민니스), 호놀룰루(저스틴 데이비스), 파페이테(헤이바 포텔), 맹가레바(가브리엘 티카로투), 앵커리지(마이클 콘티), 로스앤젤레스(하루코 다나카), 밴쿠버(주디 정), 샌프란시스코(디노 딩코), 알타데나(비아 가요토), 텍사스(브렌트 히락), 콜로라도(폴 시송), 멕시코시티(후안 델 포소), 리마(로사우라 데 라 크루즈), 과달라하라(가브리엘 리코), 보고타(에스테반 에르난데스), 오타와(지니 유), 뉴욕(안옥현, 킴 레빈, 제이 드러먼드, 리처드 휴만), 클리블랜드(조셉 퐁상), 부에노스아이레스(세바스찬 엘싱거), 부에노스아이레스(베투 구티에레스), 리우데자네이루(토마스 리바스), 누크(양쥬 모츠펠트), 버드 섬 SGSSI(알라스테어 윌슨), 킹 에드바르트 포인트(메튜 필립스), 민델로(에르네스토 - 네스티노 고메즈), 아조레스(토마스 코레이아), 모로코(사이드 레), 런던(크리스틴 피터슨), 포르투(디아나 타마네), 빌바오(플로렌시아 로하스), 쾰른(아이라 바텔), 스트라스부르(모하메드 엘 무리드), 겐트(구민자), 앤트워프(린 후벨), 암스테르담(곽윤주), 살라망카(엔리케 마티), 호테보르(기반 벨레), 칼리닌그라드(사샤 루빈), 하리우마(마르케 몽코), 수쿰(라이자 찬바), 부다페스트(가브리엘라 소조), 아테네(로울라 비달리), 말라제치나(폴리나 슈츠싯스카야), 두바이(라나 김), 노보시비르스크(안드레 소벳킨), 이제프스크(로멘 드미트리 포스트니코프), 라스두(베로니카 그란룬트), 알마티(알렉산더 우가이), 방콕(미티 루앙크리티아), 요그야카르다(파야르), 하바롭스크(스베틀라나 티코노바), 홍콩(클라라 쳉), 이르쿠츠크(닉 타르카노프), 베이징(레이니아 호), 싱가포르(알렉산더 양), 서울(김재범, 백윤석), 시드니(권현주), 블라디보스토크(바체슬라프 스닛사렌코), 마가단(아르템 코발레프), 뉴칼레도니아(카린느 모렐, 패브리스 모렐), 캄차카(알렉산더 패트로프),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트스키(맥스 크라스코프), 웰링턴(나타리 로버트 페이야르)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23:59:60**
2015, 2018, 이미지 슬라이드, 2분 39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권병준**

**오묘한 진리의 숲 2**
2018, 위치인식시스템, 헤드폰 8개, 음원 16개, 스테레오, 109분 46초
SFX Seoul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에디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좋은 삶을 만드는 활동가 되기 ABC**
시민참여 프로그램(11.06. 14:00-17:00, 아고라)
2018, 퍼포먼스, 180분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제공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그니토**

**기후변화 힙합 토크 콘서트 - 티핑포인트**
공연, 토크(9.5 18:00-18:15, 10.19 19:00-20:30, 아고라)
2018, 공연, 토크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티핑포인트 뮤직비디오**
2018,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션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김상돈**

**바다도 없이**
2018, 설치,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김월식 + 무늬만 커뮤니티**

**반야용선**
2018, 창원 시장불, 지동신과 가네쉬도상 작품에 사용된 폐지들, 60인치 모니터 5개, 가변 크기

**김현탁**

**자전거 Bye Cycle**
2018, 전기 동력 자전거, 영사기와 필름, 700×20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자전거 Bye Cycle**
2018, 렉쳐 퍼포먼스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노경애**

**움직이는 표준**
퍼포먼스(11.8, 9 16:00-16:30, 아고라)
2018, 퍼포먼스, 2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댄 첸**

**임종 지킴이 로봇**
2018, 혼합 매체, 38.1×38.1×33.2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데이비드 하**

**기계에게 그림 가르치기**
2018, 디지털 인터랙티브 설치
작가 제공

**두샨 바록과 모노스콥**

**전시 도서관**
2018, 각종 오브제, 비디오, 디지털 액자, 금속, 목재, 650×550×24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디륵 플라이쉬만**

**목걸이로 측정된 10년 간의 바이오매스 [1523그루의 나무/나의열대우림농장 2008 - 2018] _ 서울 버전**
2018, 1523개의 목걸이, 설치,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망고-02, 2018년 5월 19일 [나무의 둘레를 재는 법]**
2018, 포토그램, 20×2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쿤치, 리드인 공동편집)**

**카탈로그**
2018, 텍스트, 인쇄물, 선반, 복사기, 마이크, 담화, 비디오 프로젝션, 오디오, 다양한 지역의 균사체와 포자, 활동과 이벤트, 불확정성,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예술발전기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카탈로그 표지**
2018, 단채널로 편집된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1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류한길**

**소시오프리컨시**
2018,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리슨투더시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201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재난대비워크숍, 드로잉 출력물 28장, 가변 크기
31분 48초, 40.2×26.4 cm(출력물), 40×26 cm(출력물)
제작: 리슨투더시티, 촬영 및 편집: 김청승(서울영상집단), 출연: 김성열, 김효정, 박두환, 이성우, 양인우, 하용준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장애포괄 재난매뉴얼**
2018, 책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워크숍**
2018, 워크숍 북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내성천**
2018, 비디오, 5분 7초

**마리오 클링게만**

**언캐니 미러**
2018, 컴퓨터, 카메라, 스크린이 있는 리얼타임 설치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마이크 타이카**

**비현실 초상화**
2017,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이미지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우리, 그리고 그들**
2018, 프린터,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의자,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미팅룸**

**Open Research Station**
2018, 웹 기반 리서츠 플랫폼,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믹스라이스**

**오백 명의 남자들과 게임 그리고 경품: 면봉 한 봉지, 냅킨 한 봉지, 볼펜 한 자루, 설탕 1kg짜리 한 봉지, 액자, 소금1kg 한 봉지, 감자 한 봉지**
2018,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라이트 패널 3개, 가변 크기, 7분 40초, 45×60 cm(패널)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민세희**

**모두의 인공지능, A.I entirely on us**
2018, 데이터 시각화, 웹 기반 작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민세희, 데이비드 하, 로렌 리 매카시, 루바 엘리엇, 마리오 클링게만, 마이크 타이카, 모두의연구소(김승일), 스캇 켈리 & 벤 폴킹호른, 신승백 김용훈, 오스카 샤프 & 로스 구드윈, 정지훈, 진 코건, 최승준**

**모두의 인공지능, A.I, Entirely on us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토론회, '모두의 인공지능 Ⅰ'(9.7 16:00-19:00, 아고라), 토론 '모두의 인공지능 Ⅱ'(10.27 16:00-17:00, 아고라)
2018, 참여작가 13명의 공동작업,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박형준, 리처드 G. 윌킨슨, 미셸 보웬스, 케이트 라워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
케이트 라워스의 강연(9.27 14:00-16:00, 아고라)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도넛경제' 소개, 미셸 보웬스의 강연(10.2 10:00-12:00, 아고라): 동료 생산이 기존의 자본주의를 보완, 발전시킨 포스트 자본주의임을 역설, 리처드 윌킨슨의 강연(11.1 10:00-12:00, 아고라): 객관적 수치와 통계자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 논의
2018, 강연 시리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배남우**

**FUTURE SHOP**
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보물섬 콜렉티브**

**니에트! 니에트! 니에트!**
2018

**김동찬, 단독 드리블**
2018, 자전거, 자전거 트레일러, 축구공, 방송용 모니터, 나무, 910×2700×215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민성홍, 안테나 새**
2018, 나무, 바퀴, 안테나, 세라믹, 사운드 시스템,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송민규, 어둠속의 속도**
2017, 캔버스에 아크릴, 180×720 cm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2017 커미션
작가 제공

**최진요, 글을 쓰는 사람**
2018, 종이에 옵셋인쇄, 21×14.8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하석준, 종교는 믿는 것, 기술은 이해하는 것**
2018, 레진, TV, 단채널 비디오, 20분, 3000×2000×300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황경현, 평㎡**
2017, 종이에 콩테, 아크릴, 공간설치, 330×330 cm
경기문화재단 2017 커미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무중력지대 양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 낱장들**
2018, 텍스트, 인쇄물,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 얼굴들**
2018, 멀티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2018 청년독립선언**
2018, 텍스트, 캡션, 종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청년 독립의 재구성: '자치적' 독립과 그를 위한 조건들**
게릴라 토론회 1(10.06 11:00-12:00, 아고라), 홍기빈 강연 + 프로젝트 소개(10.06 14:00-15:30, 아고라), 청년 독립생활자 7분 마이크(10.14 14:00-15:00, 아고라), 데이빗 커티스의 강연(10.14 15:30-18:00, 아고라), 최종토론회(11.17 14:00-16:00, 아고라)
2018, 강연 및 게릴라 토론회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샘 라빈**

**온라인 쇼핑 센터**
2016, 비디오, 11분
작가 제공

**스캇 켈리 & 벤 폴킹호른**

**찰나의 표지판**
2018, 나무 보드에 디지털 프린트, 빌보드 3점, 150×75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스털링 크리스핀**

**데이터 마스크(시리즈)**
2013–2015, 3D 프린트 나일론, 거울, 안면 인식 및 탐지 알고리듬, 유전 알고리듬, 18×26 cm
작가 제공

**신도시**

**낮잠 특급**
2018, 혼합 매체, 500×200×23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신승백 김용훈**

**넌페이셜 포트레이트**
2018,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캔버스, 스마트폰, 테이블,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씨위드**

**SEEWITH**
2018, 비디오 스트리밍,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SEEWEED**
2018, 단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아담 하비**

**CV Dazzle**
2010–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메이크업 및 헤어: 수빈아카데미,
모델: 지스퀘어모델아카데미,
사진: 차현석
작가 제공

**프라이버시 기프트 숍**
2013-진행 중, 전자 상거래 플랫폼
http://privacygiftshop.com
작가 제공

**프라이버시 생각하기**
2016–2018, 커스텀 사이니지에
그래픽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아람 바톨**

**비밀정보교환소**
2010-진행 중, 공공 개입, USB 키,
테플론 테이프, 시멘트,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아람 바톨, 나자 부텐도르프**

**포스트-스노든 네일**
2016, 네일 아트, 손톱에 붙인 다섯
개의 마이크로 SD 카드, 총 128GB
용량, 디지털 컨텐츠,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안건형**

**한국인을 관두는 법**
2018, 2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62분 39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애드버스터즈 미디어 재단**

**죽은 시간 없이 살라**
토크 페드로 이노우에의 '돈 말고
오직 사랑을 위하여'(9.8 11:00-11:45,
아고라), 워크숍 페드로 이노우에의
'밈 전쟁'(9.8 14:00-16:30, 2 강의실)
2018, 조롱, 후회와 도발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애디 바겐크네히트**

**Brb**
2018, 셀카봉, 비디오 블로거
마이크와 조명, 아이폰과 망 케이블,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양아치**

**신용**
2018,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언매핑 유라시아**

**유라시안 스텝스 - 첫 번째 이동**
2018,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청소년 프로젝트 'SEED' 제작
리트발트 빨강 파랑 의자,
인쇄물, 돌페인팅, 온라인 플랫폼
www.unmappingeur.asia, 가변
크기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스를 위한 실천 및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NEDxPO2018(네덜란드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작가 제공

**에드 브라운**

**브레인 버거**
2013, 2채널 디지털 비디오, 여러
전자 장치, 44분 23초
작가 제공

**에바/프랑코 마테스**

**BEFNOED**
2016, 비디오, 스크린, 주문 제작 벽
받침대, 각종 케이블,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엘리사 지아디나 파파**

**브러시 스트로크**
2012–2018, CNC 커팅한
알루미늄에 UV 프린트,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제작지원

**오스카 샤프 & 로스 구드윈**

**선스프링**
2016, 비디오, 9분
작가 제공

**윤원화, 윤지원**

**부드러운 지점들**
강연, 토크, 워크숍 '정령, 도적,
방울'(9.7 15:00-19:00, 10.6 14:00-
15:30, 10.27 14:00-18:00,
3층 전시실)
2018, 말과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공간,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은정태**

**길은 뚫린 골목_공간구획의 논리와
경험**
퍼포먼스(10.24 14:00-16:00, 삼청동,
10.27 10:00-12:00, 익선동)
2018, 퍼포먼스, 12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길은 뚫린 골목_공간구획의 논리와
경험**
2018, 2채널 HD 비디오, 29분 57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이그니토**

**티핑포인트**
2018, 랩/힙합
작사: 이그니토, 작곡: 레이딕스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뉴 노멀**
2018, 랩/힙합
작사: 이그니토, 헝거노마, 작곡:
레이딕스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이소영**

**너의 영역**
2014/2018,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39분

**구즈베리**
2017–2018, 2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3분 33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인민의 아카이브**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
2018, 온라인 검색 엔진, 설치,
단채널 비디오 여러 대,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광고)**
201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16:9, 1분 14초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불화 不和**
2018, 비디오 프로젝션, 15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마침, 좋은 삶**
퍼포먼스(10.3, 4, 5 11:00-19:00,
아고라)
2018, 퍼포먼스, 48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일평단심2, 一平丹心2**
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정기현**

**실험실-예외점 + 4℃**
2018, 수족관, 현미경, 식생,
양모, 머리, 비디오 설치,
2500×600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정재철**

**실크로드 프로젝트 - 기록 2018**
2018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에디션
작가 제공

**1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 루트맵
드로잉1**
2006, 장지에 연필, 채색,
210×450 cm

**실크로드 프로젝트 - 기록 2018 -
1,2,3,4**
2018, 디지털 프린트, 각 50×74 cm

**제레미 베일리**

**네일 아트 뮤지엄**
2014, 비디오, 6분
작가 및 토론토 패리내디미갤러리 제공

**진 코건**

**신경 합성**
2017, 비디오, 픽셀에 그라디언트,
2분 40초
작가 제공

**최성일 · 리케 글라저**

**데이터 쿠키**
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최하늘**

**홈비디오 #43, 미디어시티 나들이(2056, 9)**
2018, 다양한 크기의 조각군, 900×1200×285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환경 트리아제(triage): 민주주의와 죽음의 정치(necropolitics)내에서의 실험**
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탁영환 · 이경남**

**전기 양은 꿈을 꾸는가 1**
2018,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콤포지션, 2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전기 양은 꿈을 꾸는가 2**
2018, 비디오, 디지털 콤포지션, 1분 30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팩토리 콜렉티브**

**발 밑의 미래**
2018, 혼합 매체, 2m2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프로젝트 코버**

**반(反)감지 코트 타입 II**
2017, 혼합 직물 및 매체
작가 제공

**허윤경**

**은근어디든**
퍼포먼스(9.19, 20, 21 15:00–15:30, 서울시립미술관 안팎)
2018, 퍼포먼스, 2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kook +**

**영토해킹 Hacking territory**
2018, 스튜디오형 공간 설치, 2200×500×600 cm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000간**

**위드굿즈**
2018, 시계, 반짇고리, 접시,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위드오피스**
2018, 책상, 의자, 오피스 집기, 재봉틀 등, 가변 크기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도심 전광판 프로젝트

**구민자**

**23:59:60**
2015, 2018, 이미지 슬라이드, 2분 39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그니토**

**티핑포인트 뮤직비디오**
2018,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션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디륵 플라이쉬만**

**몰입의 규칙/아보카도, 카카오, 치코, 코코넛, 달란단, 두왓, 구아바, 구야바노, 칼라만시, 카마공, 카소이, 랑카, 라왕, 마코파, 마호가니, 망고, 몰라베, 나라, 포멜로, 산톨, 티크**
2018, 비디오, 1분 31초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편집)**

**『카탈로그』 표지**
2018, 단채널로 편집된 3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리슨투더시티**

**내성천**
2018, 비디오, 5분 7초

**박연주**

**좋은 삶**
2018, 단채널 비디오, 1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이소영**

**너의 영역**
2014/2015,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인민의 아카이브**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광고)**
201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16:9, 1분 14초

**탁영환 · 이경남**

**전기 양은 꿈을 꾸는가 1**
2018,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콤포지션, 2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좋은 삶》 프로그램 목록

## 프리비엔날레

**〈소통의 장〉**

**일시** 2017.10.25–10.26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진행·참여** 김정헌, 심상용, 이경남, 이병천, 장다울, 최소연, 최정수, 홍기빈, 김규항, 김인선, 서진석, 양이원영, 윤호섭, 이제석, 조한혜정, 주재환

**〈배움·나눔의 장〉**

**일시** 2017.11.2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내용·참여** 홍기빈 '경제 성장의 추억: 권력의 집중과 인간/자연의 트라우마'
김규항 '한국 현대미술의 "어려움"에 대하여'
서진석 '21세기 미래형 매개공간–백남준의 예술세계를 통하여'

**〈배움·나눔의 장〉**

**일시** 2017.11.22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내용·참여** 심상용 '2000년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 "위대한 예술(Great Art)"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양효실 '여성주의에서 정치와 윤리'
신보슬 '미술관 플랫폼의 확장 - 토탈미술관의 아웃리치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배움·나눔의 장〉**

**일시** 2017.11.24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내용·참여** 이소요 '생물을 다루는 예술가들'
장다울 '예술은 액티비즘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김포도 '생태, 사는 형태: 둔촌주공아파트 동네고양이의 생태적 이주 프로젝트'

**〈배움·나눔의 장〉**

**일시** 2017.12.1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내용·참여** 황경하 '음악가의 방식으로 싸우는 법'
심소미 '미시적 도시 개입을 통해 보는 작동의 모순'
노명우 '사회학적 상상력과 변화'

**〈배움·나눔의 장〉**

**일시** 2017.12. 6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내용·참여** 박지형 '도시와 물: 흐름과 이음에 대한 생태학적 단상'
신정훈 '1960년대 말 한국 미술과 건축에서의 "환경"'
강윤주 '"메가트랜드", 생활예술!'

**〈배움·나눔의 장〉**

**일시** 2017.12.7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회의실, 세마홀

**내용·참여** 김남수 '태평양의 커튼'
김지하 '아시아문화전당의 필름앤비디오 연구 및 아카이브'
스미토모 후미히코 '아트 마에바시 미술 실천에서의 정체성, 과정, 규모'
제이슨 웨이트 '바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 연계 프로그램

**〈환경 분류: 민주주의와 시체정치(necropolitics) 내에서의 실험〉**

**일시** 2018.9.6 18:00–20: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회의실

**진행·참여**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

**일시** 2018.9.7 18:30–19:30, 10.17 17:30–19:30, 11.17 14: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 3층 전시실, 2강의실

**진행·참여** 인민의 아카이브

**내용·참여** 예술자료들이 공공기관에서 분류되면서 예술가가 무력화되는 현상과 기존의 예술 아카이브를 전복시키는 방식을 소개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팝-업 워크숍'(9.7), '관객참여 프로그램'(10.17), '아카이브와 퍼블릭 도메인' 워크숍(11.17)

**〈인공지능 협업을 원하는 예술가를 위한 머신 러닝 이해하기〉**

**일시** 2018.9.8, 15, 10.13, 20 14: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 3층 전시실 내외

**진행·참여** 하석준(보물섬 콜렉티브)

**〈ml4a Workshop〉**

**일시** 2018.9.8 10:00–13:00, 14: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3강의실

**진행·참여** 진 코건

**내용·참여** 기계 학습에 관한 무료 학습서인 ml4a 배포 서비스 워크숍 프로그램: '머신러닝과 예술'(10 am-1 pm), 'A.I 기술과 미래'(2-5 pm)

**〈모노스콥의 〈전시 도서관〉에 대하여〉**

**일시** 2018.9.8 14: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1회의실

**진행·참여** 두샨 바록과 모노스콥

---

**〈마이리아곤 1: 낱말의 여러 세계〉**

**일시** 2018.9.9 16: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팩토리 콜렉티브

---

**〈위드굿즈〉**

**일시** 2018.9.11–9.20 중 매주 화, 수, 목, 9.25–11.16 중 매주 화, 수, 목, 금, 11.18 10:00–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 2, 3층 전시실

**진행·참여** 000간

---

**〈카탈로그 잇!〉**

**일시** 2018.9.11 17:30–19: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두샨 바록과 모노스콥

---

**〈영토해킹〉**

**일시** 2018.9.13 17:00–20:00, 9.20 14:00–18:00, 10.4 16:00–18:00, 10.11 16:00–20:00, 10.18 17:00–20:00, 11.7 17:00–20: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

**진행·참여** koot +

---

**〈『카탈로그』〉**

**일시** 2018.9.15 10:00–19:00, 9.16 14:00–16:00, 9.19 17:00–19:30, 9.27 19:30–21:30, 9.29 10:30–13:00, 14:30–18: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3층 전시실 내외

**진행·참여**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군치, 리드인 공동편집)

**내용·참여**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독자-저자 네트워크의 비판적 실천을 탐구
제1장: 전문(9.15)
제2장: 끌룹 눔방 바차 독서 그룹(9.16)
제3장: 포자, 포자, 산발적으로 피어나는 포자(9.19)
제4장: 번역 - 오염된 언어들(9.27)
제5장: 유령 책장(9.29)
부록: 지식의 편향화(9.29)

---

**〈다종의 균과 함께 먹기, 살기〉**

**일시** 2018.9.29 13: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 3층 전시실

**진행·참여** 팩토리 콜렉티브

---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일시** 2018.10.13 10:00–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진행·참여** 리슨투더시티

---

**〈아티스트 토크: 디륵 플라이쉬만〉**

**일시** 2018.10.16 14:00–15: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디륵 플라이쉬만

---

**〈자전거 By Cycle〉**

**일시** 2018.10.20 17:00–18: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김현탁, 김남수

---

**〈미래 기술환경〉**

**일시** 2018.10.27 15: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정지훈, 김승일

---

**SeMA-HANA 미디어아트 어워드**

**일시** 2018.10.31 14:00–15: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심사위원: 김승덕, 서현석, 조정환, 데이빗 커티스, 장지캉
수상: 안건형, 〈한국인을 관두는 법〉(2018)

**내용·참여** 현대미술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디어아트의 창작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제정한 상.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

---

**〈예술 카탈로그의 해부학〉**

**일시** 2018.11.2 14:00–19: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두샨 바록과 모노스콥, 조아나 씨까우

---

**〈도시와 커먼스〉**

**일시** 2018.11.13 14:00–16: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박형준, 000간

---

**〈신용〉**

**일시** 2018.11.18 15:00–17:0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1층 아고라

**진행·참여** 양아치

## 김홍희와의 대화, 「미술관과 아시아」

김홍희(큐레이터)
제4대 서울시립미술관장 2012–2017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기획자문위원
제1회 《도시와 영상》 운영자문위원

**권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계시면서 '기획하는 미술관'을 추구하셨고, 같은 시기 비엔날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에서 기획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며 경험하셨던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김홍희** 되돌아보면 대단한 출발점이었어요.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며 개최한 최초의 문화행사이자 아트 축제로, 서울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시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되었죠. 미디어를 화두로 네트워크의 구심점이자 매개로서 서울이 갖는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미술의 잠재력을 미디어로 보여주려는 점에서 참신함이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전시 이외 행사가 다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트라이앵글 워크숍'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예술, 과학, 산업, 그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삼각관계. 그래서 '트라이앵글'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멀티미디어 산업계에서 예술과 디자인 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기술만 있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했지요. 한편으로 예술가들은 기술적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저도 기획자로서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삼성 등 기업이나 카이스트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을 쓸 수 있을지 곁에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 워크숍'은 작가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워크숍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실제로 어떤 결실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논의가 촉발된 것 자체가 유의미했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거죠.

**권진** 2000년에는 기획자문위원만 26명이 초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직도만 봐도 첫 행사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김홍희** 행사의 범위가 1회치고 상당히 컸어요. 어린이를 위한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인 〈디지털 앨리스〉, 백남준, 매튜 바니, 브루스 나우만 등 동시대 국제적인 작가들을 소개한 〈이스케이프〉, 그리고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의 전광판 프로젝트 〈시티비전/클립시티〉는 서울에 있는 전광판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선보였죠. 비싼 전광판을 이렇게 쓴다고 혼도 좀 나고 그랬어요. (웃음) 그때는 미디어아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니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었죠. 〈지하철 프로젝트〉는 서울 시내 13개 역사에서 진행했었죠. 이 모든 것이 전 방위적으로 포진 가능했던 건 예산도 컸기 때문이에요. 고건 시장님 시기인데, 행사를 전면적으로 후원해주셨죠. 그리고 강홍빈 부시장 역시 문화 쪽에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송미숙 총감독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 서울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조직하다 보니, 가능한 인력과 예산이 총동원되었는데, 2회부터는 규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시의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겠지만, 왜 시가 행사를 축소했는지를 미술계가 생각해봐야 하겠죠.

**권진** 1회에서 2회로 넘어오며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행사를 조직할 때만 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들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비엔날레' 형식으로 치른다는 결정뿐만 아니라, 예술, 기술 그리고 산업의 장기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지향점도 분명했고요.

**김홍희** 맞아요. 2회 비엔날레를 치를 장소까지 거창하게 지정해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권진**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김홍희** 그런 것도 있겠죠. 또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단번에 성과를 올리려다 보니 일종의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면 시에서 '예산 대비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권진** 1990년대 초반부터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변화하는 동시대성을 주목하며 국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6년 제1회 《도시와 영상》 운영위원으로서 선생님의 역할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목만으로도 분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변화하는 미디어와 도시 환경을 주목하는 여러 행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오셨습니다. 시대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행사를 함께 도모하는 동료들이나 원동력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홍희**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광주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부산비엔날레》 등이 차례로 생겨나고, 한국의 '미술씬'이 급격하게 국제화를 맞게 됩니다. 미술계에서 진취적인 사고를 했던 큐레이터들이나 작가들이 큰 포부와 기대를 하고 함께 대열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점은 개개인의 열정을 끌어모으는 중심적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의 문화예술 정책이나 전략이 세워져서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의 에너지가 그냥 산발적으로 뻗어있었다고 할까요. 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있었지만, 모두를 하나의 집약된 에너지로 발전시킬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했죠. 시대적인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의 꼭짓점에 항상 백남준 선생이 계셨습니다. 백 선생님은 예술가로서 많은 행사와 조직에 관여하시면서 영감을 주셨고, 저를 포함한 여러 큐레이터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작가도 많이 지원 하셨어요. 그래서 전 항상 백 선생님이 나라에서 못한 일을 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만들어지고 《광주비엔날레》가 출범한 것도 백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백남준한테 빚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권진** 관장님 재임시절로 넘어가 이야기해볼게요. 2012년 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미술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역시 설정하신 미술관의 방향성 안에서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요.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도 2014년에 제정되었고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김홍희** 저는 미술관에서 일하기 전 경기도미술관 재임시절(2006-2010)부터 미술관 경영철학으로 '포스트뮤지엄'을 주창하고 실천했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 제가 초대 관장이었기 때문에 '포스트뮤지엄'을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그나마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이 경기창작센터에 레지던시를 만들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버려졌던 폐교를 레지던시로 전환해서 한국 작가들만이 아닌 외국 작가들도 초대하고, 새로운 미술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립미술관에 와서 보니 여기에는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도 있고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비엔날레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이 미술관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미래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포스트뮤지엄'으로 행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견인차예요. 전 미술관이 케케묵은 관행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전 이 일을 시작할 때 미술관 같은 공공 영역이 아닌 쌈지아트스페이스와 같은 대안공간, 그리고 《광주비엔날레》나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아왔어요. 독립군을 자처한 거죠. 전방에서 기술을 쌓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독립군 정신'이 미술관을 진취적인 방향으로 개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미술관을 '포스트뮤지엄', 즉 21세기형 미래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미디어 시티 서울》을 미술관 직영으로 전환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미술관 산하에 있었지만, 미술관과의 연결성이 희미한 일종의 위성 부서로 매회 실무자가 바뀌며 꾸려졌거든요. 비엔날레가 미술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충분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주비엔날레》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조직을 참고로 작은 규모나마 효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미술관의 직영 체제의 비엔날레 조직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공식 명칭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로 바꾸고 예술감독과 비엔날레팀이 충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총무과 담당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예사를 기획업무에 참여시켜 비엔날레 업무를 익히게 하는 등 명실상부한 미술관 비엔날레로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자 했죠. 조직 개편 이후 2014년에는 박찬경 예술감독, 그리고 2016년에는 백지숙 예술감독이 위촉되었습니다. 5년의 관장 임기 동안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두 번의 비엔날레는 제가 생각했던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결연관계, 직영 관계를 통해서 포스트뮤지엄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진** 8회와 9회 에디션에서 만들었던 '대안적'인 시도가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변화나 혁명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막상 새로움을 시도하던 시점에서는 위험천만한 결정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나요. 남들이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쌈지아트스페이스와 《광주비엔날레》 등 독립큐레이터 활동을 통해 앞서 경험하신 바가 있으셨기에 예술감독의 결정에 대한 신뢰나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미술관 관장과 비엔날레 예술감독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홍희**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관계에서 관장의 역할은 예술감독이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재임 당시 예술감독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6년 6회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 당시를 떠올리며 예술감독의 고충을 이해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점은, 미술관의 비엔날레 전담 학예사가 되도록 바뀌지 않고 연속성을 가져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엔날레를 서포트하는 미술관 조직과 체계를 바탕으로 관내 인력, 특히 학예사와 협력이 원활해야 매번 바뀌는 예술감독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권진** 미술관 직영 비엔날레의 모델로서 호주의 《아시아퍼시픽트리엔날레》(APT)를 언급하신 적 있으세요. 이 트리엔날레의 어떤 특징들을 주목하셨나요?

**김홍희** APT는 《베니스비엔날레》나 《도큐멘타》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한 운영 성격을 가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아시아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 범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출신 작가들도 포함되지요. 이런 방향성이 호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기에 다른 비엔날레와 다른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호주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원주민 미술을 보호하고 육성시키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APT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첨단미술과 원주민 미술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점에서 비서구 비엔날레가 본받을 만합니다. 한국의 《광주비엔날레》, 중국의 《상하이비엔날레》, 대만의 《타이베이비엔날레》, 일본의 《요코하마비엔날레》 등 여러 서구 중심적인 아시아비엔날레와 대조가 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APT는 브리즈번의 현대미술관 퀸즐랜드아트갤러리가 직영합니다. APT 초기의 발전 단계에서는 조직 체계가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 퀸즐랜드아트갤러리 관장이 감독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조직 내에 비엔날레 팀을 운영하는 행정 전문 '오피서'가 있어요. 이 '오피서'는 초청 큐레이터와 같은 비중으로 비엔날레 주제를 설정하는 일에 동참하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피서'로 있던 분들이 지금은 다른 기관의 관장으로 부임하는 등 미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이런 지점들은 미술관이 직접 비엔날레를 운영하면서 취할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점은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비엔날레는 작가들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대부분 방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퀸즐랜드아트갤러리는 그걸 다 소장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일종의 '임장(현장상황에 따른 대처) 컬렉션'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 기증받거나 저렴하게 사들이면서 방대한 비엔날레 소장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도 광주시립미술관 직영이나 결속체제로 운영됐더라면 비엔날레 소장품도 풍부해지고 국제적인 위상도 상승했을 거로 생각해요. 제가 미술관에 있을 때 비엔날레 작가들이 회수하지 않는 작품을 미술관 상황에 맞게 수집하기 위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요.

**권진** 8회와 9회 비엔날레 작품들이 비교적 많이 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를 수상한 안건형 작가는 수상작을 기증한 사례도 있고요. 백남준 선생님의 〈시장〉(2000) 역시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김홍희** 사실 소장품이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끝나고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기록으로서 성격과 목적이 분명하지요. 앞으로도 미술관에서 이 지점을 유념하고 일궈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진** 이 인터뷰가 수록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996–2022 보고서』도 비엔날레의 인적자원을 주목하고, 그들의 지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기록을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토대로 전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희** 저 역시 동감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권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홍희** 첫째는 비엔날레의 대안성과 변화를 이끌 추동력 때문입니다. '미술계'라는 생태계에서 비엔날레의 중요성은 정체된 미술계의 분위기나 담론을 전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비엔날레가 국제적이고 유명한 큐레이터들의 먹이사슬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한편 미술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일시적인 작품, 프로젝트, 그리고 마이너리티 미학을 시도할 수 있는 것 역시 비엔날레에요. 《귀신 간첩 할머니》는 '아시아성'을 주목했지요. 아사아를 은유하고 의인화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표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물결이나 시대적 전망을 예고하여 전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죠. 전 그 주제가 참 와 닿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억압적 요소를 들춰내면서 아시아라는 주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죠. 그리고 개막식에서 비엔날레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굿을 미술관에서 시연하여 수많은 관객의 참여를 이끌었고요. '포스트뮤지엄'의 또 다른 핵심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관객을 가시화시키는 대중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는 주제적으로 소수자, 장애인, 사회 교육, 환경문제 등 첨예한 시의적 주제를 다룬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비엔날레는 아시아성의 대중화에 방점을 찍었고, 다른 하나는 개념적으로 타자에 관한 화두를 던져서 비엔날레의 대안적 기능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재임 시절에 있었던 비엔날레여서가 아니라, 두 비엔날레의 성과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비엔날레는 동아시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를 지리적이고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통한 'K-미술'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갈구하는 동아시아 신세대들에게 어필한 한류와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적 혼성, 즉 한국성과 서구성이 절묘하게 결합한 현대 아시아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같은 동아시아 비엔날레가 미술 한류의 순기능적

사이트로 기능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엔날레는 큐레이터, 평론가, 코디네이터 등 작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력 지원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성공적인 비엔날레를 치를 수 있는 역량 있는 기획자가 조속히 배출되어야 한국미술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작가도 그를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평가받게 할 인물 없이는 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큐레이터가 국제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존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성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당시 1회 출범부터 서울의 역사와 도시구조와의 긴밀한 관련성 등을 고려하며 도시 특정적 행사로 시작했고 그동안 서울을 국제도시로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 해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미디어 발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과 더불어 도시 외양을 바꾸고 시민들의 상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의 필수적인 문화 동반자입니다.

**권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홍희** 비엔날레는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것과 영합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화두를 던져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자극을 주는 대안적인 조직이자 예술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강조한 연속성 속에서 미술 생태계를 변화시킬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적인 차원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과 관련한 미술 언어를 개발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나 이해와 더불어, 위로, 힐링, 도덕적 가치, 공공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대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업, 기술, 과학과는 다른 미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미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이 사라지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 미디어아트 2019-2022

미네르바 쿠에바스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

2021, 벽면에 아크릴, 가변 크기

픽셀 아트 디자인: 프란시슈액 얀 노보트니악,
벽화 작업: 고경호, 김민정, 김수연, 이건희, 이제, 최주응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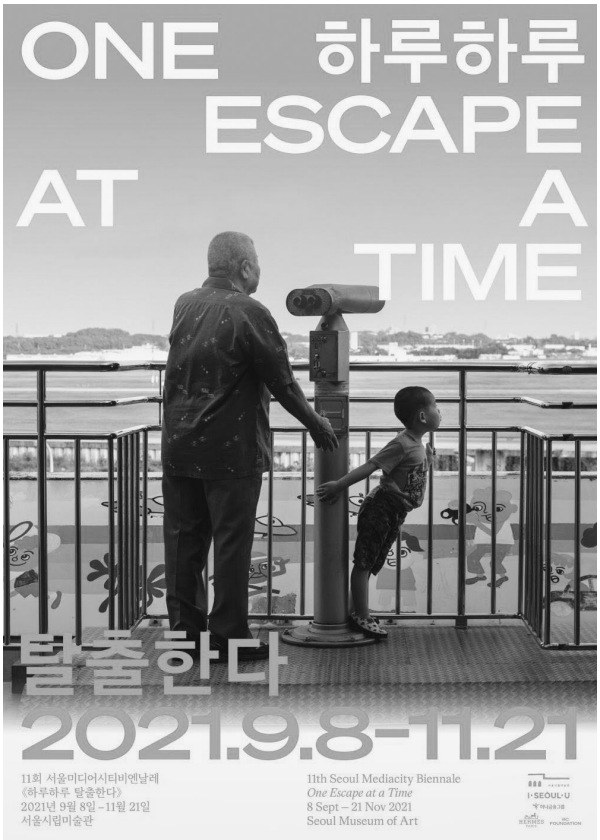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하루하루 탈출한다》

| | |
|---|---|
| 기간 | 2021.9.8–2021.11.21 |
| 예술감독 | 융 마 |
|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유통망 97개 거점, 온라인 |
| 작가 | 22개국 41명/팀(국내 11, 해외 31) |
| 작품 | 58점(제작지원 18, 공동 제작지원 2) |
| 관객 | 852,742명 |
| 프로그램 | 42종 988회 |
| 참여자 | 4,932명 |
| 웹사이트 | archive.mediacityseoul.kr/2021/ |
| 예산 | 1.8억 원(프리비엔날레), 25.3억 원 |

2020년대에 가까워지며 전국에 비엔날레 숫자만 총 15개로 집계되고 2018년 한 해에만 9개가 개최되었다.[27] 이렇듯 미술계는 지자체 정책 사업의 하나로 비엔날레가 쉽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제도의 남용을 목격한다. 한편《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디어와 도시에 공명하는 전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는 얻었다. 하지만 비엔날레 사업 자체의 희소성이 줄어들고,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여러 층위의 미디어콘텐츠가 일상 생활권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미디어아트를 전면에서 다루는《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정체성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해졌다. 동시에, 당대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공립기관의 역할이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환경 내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양분되었고, 서울시립미술관은 도시에 파생된 잠재적 자원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으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

2019년 백지숙 제6대 관장은 예술감독 임용에 앞서 지난 예술감독과 타 비엔날레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자문회의를 먼저 개최하고, 이어서 추천위원회와 선임위원회를 통해 역대 최초 외국인이자 최연소 예술감독인 융 마를 임용하게 된다. 그리고 예술감독이 초대한 협력 큐레이터 이지원, 클라우디아 페스타나와 함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5인, 프로젝트 매니저 1인, 코디네이터 3인으로 이루어진 기획팀이 꾸려지고, 미술관은 소속 학예사 1인과 행정 주무관 1인으로 이루어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프리비엔날레는 대중문화와 동시대 예술이 교차하는 부분을 주목했던〈극장상영회〉,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참여로 '도피주의'라는 비엔날레 주제를 탐구하는 〈피드백 동반자〉, 그리고 비엔날레를 구성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비엔날레 준비과정을 직접 소개하는〈리미티드 온라인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확산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을 1년 연기하였고, 신작 프로덕션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진행 중이던 사안들을 대거 수정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역대 최초로 홀수 연도인 2021년에 개최된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하루하루 탈출한다》는 9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렸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엔날레는 급격히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 팬데믹으로 드러난 시대의 불안정한 풍경을 마주하는




《하루하루 탈출한다》 포스터, 2021
그래픽 디자인: 워크숍스×파크-랭거

동시대의 '도피주의적' 삶의 방식을 주목했다. 인스타그램으로 상징되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유통, OTT 플랫폼에서 기존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범람하는 콘텐츠, 하루가 다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카페 풍경의 안과 밖은 많은 동시대인이 경험하는 도피처다. 그리고 11회 비엔날레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사용하는 탈출구의 하나로서 비엔날레를 제안했다.

전시 개막 전부터 단계별로 진행된 온라인채널 론칭, 서울시 전역의 97개 거점에서 콘텐츠 유통, 그리고 전시까지 비엔날레 '클러스터'의 구성 과정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도시와 유기적인 관계망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게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었다. 특히, 유통망은 도심 미디어캔버스를 포함한 카페, 서점, 레스토랑, 바와 같은 공간을 끌어들여 지금의 서울에서 생산하고 유통되는 문화 허브이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잠재적 협력 공간으로의 관계를 처음 맺었다. 유통망에 참여한 비엔날레 출품작 27점은 포스터, 영상 클립, 음원과 설치 형태로 재가공되어 총 174점 제작 및 배포되었고, 공간별로 적게는 1점부터 많게는 10여 점까지 작품이 전시장 밖 공간에서 유통되었다. 뉴스레터 『노선도』는 여러 참여자의 인터뷰와 작품에 관한 내용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전달했고, 마지막에 출간된 4호는 연계 프로그램 "SF 글쓰기 워크숍" 참여자들의 단편 소설 아홉 편을 소개하는 지면이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11회 에디션의 특징은 예술을 일상과 구분 짓지 않고 자세를 낮춘 전술에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 혹은 작품이 응시하는 시점은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고립된 상황, 그로 인한 내면의 변화와 갈등,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해 불거지는 사회적인 불평등, 모순, 편견과 노스탤지어를 발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솔직한 상태를 표현하고 다루는 언어이자 장치로서 시트콤, 영화, 패션, 아이돌 문화, 홍콩 누아르, 뉴스, 퍼포먼스, 광고, 잡지, 연애소설, 만화, 연극. 대중가요, 애니메이션과 같은 보편의 미디어가 형식으로 개입했다. 섬세하게 조금씩 다른 결로 조율된 작품 간의 거리나 전시 안에서 부여된 여러 역할은 예술을 다른 미디어의 우위로 두거나 고립시키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만든 주제전'[28]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은 약 4억 원 증액되었고, 23곳의 후원과 협찬을 유치하였으며, 83곳의 민간거점과 도심 미디어캔버스 시청자 수를 합하면 역대 최고의 관람객인 852,742명을, 그중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관람객 수는 40,747명을 기록하였다.

네 번째로 개최된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는 아이사 혹슨의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2021)과 하오징반의 〈나도 이해해…〉(2021)가 공동 수상했으며, 심사와 시상식은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27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2018년 전국 9개 비엔날레, 총 164만 명 관람", 2018.12.20.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46

28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결과보고서』, 서울시립미술관, 202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극장상영회〉

서울극장 5관, 2019.12.6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피드백 동반자〉

서울시립미술관, 2020.7.28

쉬쩌위
〈청둥오리의 이상한 죽음〉(2020)
중 발췌

《하루하루 탈출한다》 유통망 카페 잔
전시 전경
서울시 중구, 2021.8.1–12.30

치호이
〈회전목마〉(2014)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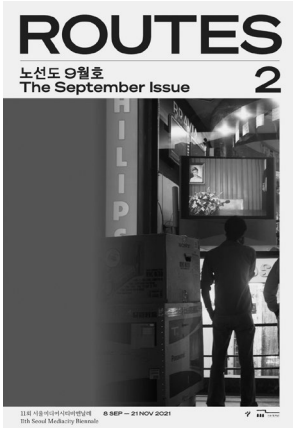
《하루하루 탈출한다》 유통망
책방연희 전시 전경
서울시 마포구, 2021.8.1–12.30

브리스 델스페제
〈바디 더블 34〉(2015)중 발췌

《하루하루 탈출한다》 유통망 EP
COFFEE N BAR 전시 전경
서울시 마포구, 2021.8.1–12.30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
(2020) 중 발췌

《하루하루 탈출한다》 유통망
책방곱셈 전시 전경
서울시 마포구, 2021.8.1–12.30



《하루하루 탈출한다》 뉴스레터
『노선도』 고요서사 배포 전경
서울시 용산구, 2021.8.1–12.30

취미가×워크스
〈OoH〉

2021, 미디어캔버스, 현수막, 티셔츠
그래픽, 웹사이트에 디지털 이미지와
비디오,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케이팝스퀘어미디어 전시 전경,
2021.8.28–11.20

취미가×워크스
〈OoH〉

2021, 미디어캔버스, 현수막, 티셔츠
그래픽, 웹사이트에 디지털 이미지와
비디오,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사라 라이
〈암흑가의 킬러〉

2021,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No) Time〉

2020, 복합 매체 설치,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블라인드

안무/공연: 베르너 허쉬, 알리야 타니샤,
조이 알푸에르토 리터, 줄리 커닝햄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인드르지흐할루페츠키소사이어티,
보주 문화관리과,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프락브르타뉴, CA2'마드리드 공동제작
작가, 파리 마르셀알릭스 및 암스테르담
엘렌드브루인프로젝츠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홍진훤
〈DESTROY THE CODES〉

2021, 복합 매체 설치, 웹 기반 유튜브
구독 및 스트리밍 서비스, 단채널 비디오
2개, 컬러,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무니라 알 카디리
〈비누〉

2014,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기획, 감독, 편집: 무니라 알 카디리,
배우: 힐다 스완나팔리, 실라 K.,
쿠마리 S.

크리에이티브 타임 아티스트 리포트
프로그램 커미션(2014)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DIS
〈절호의 위기〉

2018,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3분 48초

작가 및 런던
프로젝트네이티브인포먼트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하오징반
〈나도 이해해...〉

2021, HD 비디오, 컬러와 흑백,
사운드, 21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아이사 혹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뮤직 비디오와 설치,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설치), 12분 17초(비디오)

협력: 아이사 혹슨과 버니 카닥,
캐서린 고, 테레사 바로조, 프란체스카
카사우아이(aka 필리핀 슈퍼우먼밴드),
촬영 및 편집: 브랜든 렐루시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21

2021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온라인 시상식

심사위원장: 안규철, 사회: 김희진,
수상자: 아이사 혹슨, 하오징반

서울시립미술관과 온라인, 2021.10.18

# 《하루하루 탈출한다》 작품 목록

서울시립미술관

**강상우**

**Forest Neighbor**
2021,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56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고등어**

**공동고백**
2021, 2채널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8분 54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신체이미지_낮풍경**
2019–21, 연필 드로잉, 각 56×70 cm(12점)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김민**

**Yes We Cam**
2012–16, 사진, 문서 사본, 가변 크기
영상 제작 파트너: 토론토비엔날레, 트리니티 스퀘어 비디오, 아트 테이프 센터, 코야마 프로바이드
작가 제공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의 인생(에피소드 1)**
2020,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4분 15초
작가 제공

**류한솔**

**버진 로드**
2021,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21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츄-윙**
2021, 벽 위에 아크릴,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리랴오**

**모르는 채로 2020**
2020, 3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6분 52초, 10분 39초, 16분 45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리우추앙**

**러브 스토리**
2013/2021,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및 상하이 안테나스페이스 제공

**리처드 벨**

**호주인 긁기**
2008,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작가 및 브리스번 밀라니갤러리 제공

**브로큰 잉글리쉬**
2009,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1분 15초
작가 및 브리스번 밀라니갤러리 제공

**디너 파티**
2013,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9분 30초
작가 및 브리스번 밀라니갤러리 제공

**림기웅**

**오행(五行)**
2021, 사운드트랙 5개, 가변 크기
도움: 양종승 박사
작가 제공

**무니라 알 카디리**

**비누**
2014,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기획, 감독, 편집: 무니라 알 카디리, 배우: 힐다 스완나팔리, 실라 K., 쿠마리 S.
크리에이티브 타임 아티스트 리포트 프로그램 커미션(2014)
작가 제공

**미네르바 쿠에바스**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
2021, 벽면에 아크릴, 가변 크기
픽셀 아트 디자인: 프란시슈액 얀 노보트니악, 벽화 작업: 고경호, 김민정, 김수연, 이건희, 이제, 최주웅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바니 아비디**

**연설**
2007, 모니터에 스틸 이미지,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9점, 각 90×60 cm
작가 제공

**애국가**
2000,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 42초
작가 제공

**브리스 델스페제**

**바디 더블 3**
1995, S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분 50초(반복 재생)
출연: 브리스 델스페제작가 제공

**바디 더블 34**
2015, 3 개의 HD 비디오 연동, 컬러, 사운드, 5분 6초(반복 재생)
출연: J. 브누아, A. 콜레, C. 코르니용, O. 드뮈르제, F. 뒤투아, A. 이메리트, R. 간돌프, Q. 구주, A. 허스월, A. 미세레즈, A. 피노, A. 로카, M. 테스타스, E. 젤리
작가 제공

**사라 라이**

**암흑가의 킬러**
2021,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샤론 헤이즈**

**역사의 소리에 귀를(녹음된 목소리)**
2011, 빈티지 레코드 커버, 94×63 cm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역사의 소리에 귀를(미국 정신의 본질)**
2011, 빈티지 레코드 커버, 188×63 cm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역사의 소리에 귀를(미연합중국과 정치)**
2011, 빈티지 레코드 커버, 188×63 cm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역사의 소리에 귀를(빅 뉴스)**
2011, 빈티지 레코드 커버, 94×63 cm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역사의 소리에 귀를(소리로 듣는 세계)**
2011, 빈티지 레코드 커버, 220×63 cm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역사의 소리에 귀를(지켜야 할 시간)**
2011, 빈티지 레코드 커버, 94×63 cm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쉬쩌위**

**청둥오리의 이상한 죽음**
2020,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45초
협력: 첸완인
작가 제공

**토끼 314**
2020,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없음, 7분 16초
협력: 첸완인
작가 제공

**씨씨 우**

**유만혼의 미완된 귀환**
2019, 복합 매체 설치, 비디오, 16 mm 필름에서 변환, 영화 소품 조명, 가변 크기(설치), 19분 17초(비디오)
사운드트랙: 빅토르 아우
작가 제공

**아마츄어 증폭기**

**김추자는 영원하다**
2006,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 14초
작가 제공

**당신은 공중에서 내려오지 마라 DCXTB**
2002,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 30초
작가 제공

**사계절 스픈사**
2009,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6초
작가 제공

**아이사 혹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뮤직 비디오와 설치,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설치), 12분 17초(비디오)
협력: 아이사 혹슨과 버니 카닥, 캐서린 고, 테레사 바로조, 프란체스카 카사우아이(aka 필리핀 슈퍼우먼밴드), 촬영 및 편집: 브랜든 렐루시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야마시로 치카코**

**친빈 웨스턴: 가족의 재현**
2019, 4K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32분 10초
작가 및 도쿄
유미코치바어소시에이츠 제공

**올리버 라릭**

**사이**
2018, HD 비디오, 흑백, 사운드, 4분 35초
작가 및 베를린 타냐레이튼 제공

**왕하이양**

**아파트**
2019, HD 비디오, 컬러와 흑백, 사운드, 14분
작가 제공

**요한나 빌링**

**넌 날 아직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울 에디션)**
2002, 2021, 사운드, 사진 기록, 가변 크기
원곡: 로키 에릭슨, You Don't Love Me Yet(1984년 발매), 프로듀서: 박다함, 커버 뮤지션: 김뜻돌, 김오키, 까데호, 놀이도감, 모스크바 서핑클럽, 빅베이비드라이버, 영다이, 워나, 위댄스, 효도앤베이스, 사진: 박세영, 김창구, 김해영, 허윤, 그래픽 디자인: 도연경, 권기영, 영어 폰트 디자인: 오베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및 런던 홀리부쉬가든스 제공

**유리 패티슨**

**선_셋 프로_비전**
2020-21,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불칸), 개조한 델 파워엣지 R620", 지포스 TX 1650 GPU, 대기 모니터 유라드모니터 모델 A3, LED 매트릭스 스크린, 조립식 앵글, 케이블, 192×270×75 cm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더블린 더글러스하이드갤러리 공동제작
작가 및 더블린/런던 마더스탱크스테이션리미티드 제공

**장영혜중공업**

**삼성의 뜻은 재탄생**
2021, 단채널 비디오 7개, 오리지널 텍스트와 음악 사운드트랙,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장윤한**

**We Chose the Moon**
2021, 텍스트, LED 사이니지, 웹사이트, 가변 크기
웹 디자인: 피닉스 유추 황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정금형**

**언더 컨스트럭션**
2021,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취미가×워크스**

**OoH**
2021, 미디어캔버스, 현수막, 티셔츠 그래픽, 웹사이트에 디지털 이미지와 비디오, 가변 크기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치호이**

**회전목마**
2014, 슬라이드 프로젝션, 컬러와 흑백, 80매, 8-9분
작가 제공

**탈라 마다니**

**자궁**
2019,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없음, 3분 26초
작가 및 로스앤젤레스 데이빗콜단스키갤러리 제공

**토비아스 칠로니**

**추락**
2021,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폴 파이퍼**

**구현하는 자**
2018-21,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분 45초
작가 제공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No) Time**
2020, 복합 매체 설치,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블라인드, 20분
안무/공연: 베르너 허쉬, 알리야 타니샤, 조이 알푸에르토 리터, 줄리 커닝햄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인드르지흐할루페츠키소사이어티, 보주 문화관리과,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프락브르타뉴, CA2'마드리드 공동제작
작가, 파리 마르셀알릭스 및 암스테르담 엘렌드브루인프로젝츠 제공

**벽 목걸이 작업(예측할 수 없는 집회)**
2021, 금색 체인, 고리, 150×240 cm
작가, 파리 마르셀알릭스 및 암스테르담 엘렌드브루인프로젝츠 제공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
2020, 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 37초
작가, 런던 카를로스/이시카와 및 헬싱키 컨템퍼러리 제공

**하오징반**

**나도 이해해...**
2021, HD 비디오, 컬러와 흑백, 사운드, 21분
작가 제공

**합정지구**

**사사로운 프로젝트**
2020-, 온라인 프로젝트 http://sasarounproject.com/ss/
기획: 권세정, 박은정, 서다솜, 이제, 전그룬, 웹 디자인 및 개발: 김민경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헨리케 나우만**

**프로토 네이션**
2021, 혼합 매체 설치, 가변 크기
사운드트랙: 리비자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및 베를린 KOW 제공

**홍진훤**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v2.0**
2021, 복합 매체 설치, 웹 기반 유튜브 구독 및 스트리밍 서비스, 단채널 비디오 2개, 컬러,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150×200 cm(설치), 18분 25초, 20초(반복 재생)
푸티지: 미디어 참세상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작가 제공

**DESTROY THE CODES**
2021, 온라인 프로젝트 https://destroy.codes/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C-U-T**

**KALEIDOSCOPE**
2021, 복합 매체 설치, 비디오, 컬러, 사운드, 4분 16초, 5분 30초

**DIS**

**절호의 위기**
2018,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3분 48초
작가 및 런던 프로젝트네이티브인포먼트 제공

**기본소득: 이성애자의 트루바다**
2018,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
작가 및 런던 프로젝트네이티브인포먼트 제공

**ONEROOM**

**DECODING MODELS**
2020-, 온라인 프로젝트 https://decodingmodels.com/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지원

# 《하루하루 탈출한다》 프로그램 목록

## 프리비엔날레

**〈극장상영회〉**

**일시** 2019.12.6 19:00–21:00

**장소** 서울극장 5관

**내용·참여** 스크리닝: DIS 〈절호의 위기〉(2019), 미네르바 쿠에바스 〈해적과 영웅〉(2006), 〈상상의 경제〉(2006), 무니라 알 카디리 〈비누〉(2014), 토비아스 칠로니 〈마스키로프카〉(2017), 야마시로 치카코 〈정육점 여자〉(2019)
대화: 융 마, 미네르바 쿠에바스

---

**〈극장상영회〉**

**일시** 2019.12.7 14:00–16:30

**장소** 서울극장 5관

**내용·참여** 스크리닝: 무니라 알 카디리 〈우주선〉(2017), 쉬쩌위 〈유일한 사본〉(2019), 요한나 빌링 〈마법 같은 세상〉(2005), 리처드 벨 〈브로큰 잉글리시〉(2009), 밍 웡 〈블러디 메리 - 남쪽 바다의 노래〉(2018)
대화: 융 마, 백지숙

---

**〈극장상영회〉**

**일시** 2019.12.8 14:00–18:30

**장소** 서울극장 5관

**내용·참여** 스크리닝: 강상우 〈클린 미〉(2014),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침묵〉(2016), 〈뒤로 가기〉(2019), 스파이크 존즈 〈그녀〉(2013)
대화: 이지원, 강상우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6.1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진행·참여**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장해림, 황남웅
발표: 정연두, 김계원, 신학,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53명

**내용·참여** '도피주의'를 키워드로 학생들의 초기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7.28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3강의실

**진행·참여**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장해림, 이문석, 황남웅
참여: 5개 팀(꿈, 일시정지, 타투, 이모티콘, 아지트)

**내용·참여**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팀별 피드백 세션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8.7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회의실

**진행·참여**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장해림, 이문석, 황남웅
시민참여형예술플랫폼, 길거리 인간, Do ot Feed the Animals, Escape & Travel, 오래된 미래-창신동 의자

**내용·참여**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팀별 피드백 세션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8.1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진행·참여**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이지원, 장해림, 이문석, 황남웅
발표: 정연두,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30여 명

**내용·참여** 첫 번째 피드백 세션으로부터 발전된 기획안에 대한 기획팀의 프레젠테이션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10.3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진행·참여**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이지원, 장해림, 이문석, 황남웅
참여: 정연두,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30여 명, 캠퍼스타운 관계자

**내용·참여** 최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체 피드백 세션 진행. 캠퍼스타운 연계 시상식 개최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12.2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정연두, 김계원,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36명

**내용·참여** 9개 팀이 세 조로 짝을 지어 각각의 최종 결과물에 상호 피드백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12.7

**내용·참여** 『사회적 도피기술 연구』 출판

---

**〈리미티드 온라인 시리즈〉**

**일시** 2020.10.29–12.8 매주 목 1회(총 6회) (2020.12.31까지 공개)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유지원, 장해림, 융 마, 송주연, 허미석, 장영혜중공업
합정지구, 정연두, 헨리케 나우만, 박선영, 고등어

**내용·참여** 비엔날레팀과 참여작가가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토크

## 온라인 채널

https://www.mediacityseoul.kr/ko/online

**〈삼성의 뜻은 재탄생〉**

**일시** 2021.5.27–7.8 매주 목

**내용·참여** 장영혜중공업의 〈삼성의 뜻은 재탄생〉(2021)을 구성하는 7편의 비디오를 소개

**〈오행(五行)〉**

**일시** 2021.7.12–16

**내용·참여** 림기옹의 〈오행(五行)〉(2021)을 구성하는 5편의 음원을 소개

**〈넌 날 아직 사랑하지 않으니까(서울에디션)〉**

**일시** 2021.7.26–30

**진행·참여** 김뜻돌, 효도앤베이스, 위댄스, 김오키, 놀이도감, 영다이, 모스크바 서핑클럽, 워나, 빅베이비드라이브, 까데호

**내용·참여** 비엔날레의 디지털 포털인 '온라인 채널' 중, 요한나 빌링의 〈넌 날 아직 사랑하지 않으니까(서울에디션)〉(2002, 2021)에 참여한 국내 뮤지션 10명의 음원을 소개

**〈We Chose the Moon〉**

**일시** 2021.8.2

**내용·참여** 장윤한의 〈We Chose the Moon〉(2021)의 웹 버전 소개

**〈사사로운 프로젝트〉**

**일시** 2021.8.6

**내용·참여** 합정지구의 〈사사로운 프로젝트〉 소개

**〈DESTROY THE CODES〉**

**일시** 2021.8.13

**내용·참여** 홍진훤의 〈DESTROY THE CODES〉 웹서비스 온라인채널 버전

**〈Decoding Models〉**

**일시** 2021.8.20, 10.1, 16

**내용·참여** 을지로 소재 미술공간 ONEROOM의 웹 기반 프로젝트 〈Decoding Models〉는 디지털 프로그램의 문법을 경유하여 미술 작품의 프로덕션 과정을 살펴본다. 토크에서는 ONEROOM과 참여작가 류한솔, 홍진훤이 자신의 출품작과 더불어 각기 크로마키 기법과 구독서비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OoH〉**

**일시** 2021.8.30

**진행·참여** 취미가×워크스

**〈선셋 프로비전(상태 모니터)〉**

**일시** 2021.9.30

**내용·참여** 유리 패티슨의 〈선셋 프로비전 (상태 모니터)〉(2020-21)의 온라인 버전

## 유통망

민간 83곳, 공공기관 11곳, 미디어캔버스 3곳, 미디어보드 약 800여 곳, TBS 교통방송

**〈유통망〉**

**일시** 2021.8.1–12.31

**장소** 민간거점, 공공기관, 미디어캔버스, 도심 미디어보드 등

**내용·참여** 미술관 밖 공공 및 민간 거점에 비엔날레 작품 21점을 포스터, 비디오 클립, 음원, 설치의 형태 27종으로 가공하여 총 174점 배포

포스터: 치호이, 〈회전목마〉 중 일부(2014), 쉬쩌위, 〈청둥오리의 이상한 죽음〉 스틸이미지(2020), 김민, 〈Yes We Cam〉 연작 중 일부(2012–2016), 올리버 라릭, 〈사이〉 스틸이미지(2018), 리랴오, 〈모르는 채로 2020〉 스틸이미지(2020), 고등어, 〈신체이미지_낮풍경〉 연작 중 일부(2019–2020), 류한솔, 〈버진 로드〉 스틸이미지(2021),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 스틸이미지(2020), 씨씨 우, 〈유만혼의 미완된 귀환〉 스틸이미지(2019), 토비아스 칠로니, 〈가게〉 프린트(2021), C-U-T, 프로필 이미지, 브리스 델스페제, 〈바디 더블 34〉 스틸이미지(2016), 리우추앙, 〈러브 스토리〉 중 일부(2013/2021),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No) Time〉 스틸이미지(2020), 합정지구, 〈사사로운 프로젝트〉 아이덴터티 이미지(2020)

비디오 클립: 브리스 델스페제, 〈바디 더블 3〉 중 발췌(1995), 쉬쩌위, 〈청둥오리의 이상한 죽음〉 중 발췌(2020), 올리버 라릭, 〈사이〉 중 발췌(2018),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 중 발췌(2020), 씨씨 우, 〈유만혼의 미완된 귀환〉 중 발췌(2019), 리랴오, 〈모르는 채로 2020〉 중 발췌(2020),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No) Time〉 중 발췌(2020)

음원: 요한나 빌링, 〈넌 날 아직 사랑하지 않으니까(서울 에디션)〉 커버 버전 10곡(2002/2021), 림기옹, 〈오행(五行)〉(2021)

설치: 장윤한, 〈We Chose the Moon〉(2021), 홍진훤,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v2.0〉의 온라인 구독서비스(2021)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at 케이팝스퀘어〉**

**일시** 2021.8.28–11.20 매주 수, 토 매시 2회(1일 36회)

**장소** 삼성역 케이팝스퀘어미디어

**내용·참여** 출품작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시장 밖 일상 공간에서 미디어작품 송출 및 유통

취미가×워크스 〈OoH〉(2021) 중 발췌(8.28–9.11),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No) Time〉(2020) 중 발췌(9.15–9.20), 아이사 혹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2021) 중 발췌(10.2–10.16), 유리 패티슨 〈선_셋 프로_비전〉(2020–21) 중 발췌(10.20–11.3), C-U-T 〈KALEIDOSCOPE〉(2021) 중 발췌(11.6–11.20)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on TBS〉**

**일시** 2021.9.18 23:00–00:00, 9.25 16:00–17:00

**장소** TBS 교통방송

**내용·참여** 출품작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시장 밖 일상 공간에서 미디어작품 송출 및 유통

바니 아비디 〈애국가〉(2000), 아이사 혹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2021), DIS 〈절호의 위기〉(2018),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2020), 아마츄어 증폭기 〈김추자는 영원하다〉(2006), 폴 파이퍼 〈구현하는 자〉(2018-21)

## 연계 프로그램

**〈진입로〉**

**일시** 2021.9.9 11.18 매주 목 12:30

**장소** 온라인(인스타그램 라이브)

**진행·참여** 유지원, 이문석, 허미석, 김신재, 송주연, 정선주, 박시내, 이시재, 장해림, 홍진훤

**내용·참여** 비엔날레 출품작과 유통망 프로젝트의 참여공간들을 소개

**〈SF 글쓰기를 따라 탈출하기〉**

**일시** 2021.9.11–10.16 매주 토 14:00–16:00

**장소** 온라인, 서울시립미술관 2강의실

**진행·참여** 진행: 이문석
강사: 정보라, 이종산, 전삼혜

**내용·참여** 글쓰기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SF 글쓰기 워크숍

**〈무니라 알 카디리, 〈여성화한 파라오〉〉**

**일시** 2021.9.11 19:00–21: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퍼포먼스/토크: 무니라 알 카디리

**내용·참여** 친밀함과 접촉의 중요성을 다루는 렉쳐 퍼포먼스

**〈작가 토크: 브리스 델스페제〉**

**일시** 2021.9.23 19:00–21: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토크: 브리스 델스페제

**내용·참여** 〈바디 더블〉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브리스 델스페제 작업세계

**〈대화: 홍진훤과 김민〉**

**일시** 2021.9.29 19:00–20:30

**장소** 온라인(Zoom)

**진행·참여** 홍진훤, 김민

**내용·참여** 오늘날 시각 미디어가 갖는 권력과 이와 관련된 홍진훤과 김민의 작업을 소개

**〈C-U-T 인터뷰〉**

**일시** 2021.10.1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유지원
인터뷰: C-U-T, 밍 웡

**내용·참여** 대중문화 산업에서 충분히 재현되지 않는 탈국적적이고 퀴어 친화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확장시키는 케이팝 스펙트럼의 가능성

**대중미디어 가이드 〈대중음악 산업과 팬덤 문화: 케이팝 네이티브〉**

**일시** 2021.10.02 17:00–19: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유지원
강연: 김윤아, 복길, DJ GCM

**내용·참여** 대중미디어와 새로운 매체 및 기술을 살펴보는 강연 프로그램

**〈미술관 속으로 탈출하기〉**

**일시** 2021.10.3–11.14 매주 일 14:00–16:00

**장소** 온라인, 서울시립미술관 내외

**진행·참여** 진행: 이문석
강사: 이유에스플러스건축(서민우, 지정우)

**내용·참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워크숍 프로그램

**〈작가 토크: 홍진훤〉**

**일시** 2021.10.6 19:00–20:3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장해림
토크: 홍진훤

---

**대중미디어 가이드 〈환상이 현실로, 현실이 환상으로〉**

**일시** 2021.10.9 17:00–19: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김신재
강연: 김보영

---

**대중미디어 가이드 〈도피 끝에서 만난 생존 또는 실험: 콘텐츠랩 비보의 미디어스케이프〉**

**일시** 2021.10.16 17:00–19: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송주연
강연: 심혜경

---

**2014 SeMA-HANA 미디어아트 어워드**

**일시** 2021.10.18 14:00–14:30

**장소** 심사토론: 온라인
시상식: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온라인(유튜브)

**진행·참여** 심사위원: 백지숙, 융 마, 안규철, 수잔느 페퍼, 준 앱
공동수상: 아이사 혹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2021), 하오징반, 〈나도 이해해...〉(2021)

**내용·참여** 현대미술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디어아트의 창작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제정한 상.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

---

**〈판타지 공원〉**

**일시** 2021.10.22 04:00(21.12.31까지 공개)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존 맥컬리(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내용·참여** 캐나다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펼치는 온라인 퍼포먼스

---

**대중미디어 가이드 〈〈으라파파〉: 다양한 즐거움을 위한 연분홍TV의 항해〉**

**일시** 2021.10.23 17:00–19: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이문석
강연: 김일란

---

**〈라운드 테이블: 합정지구〉**

**일시** 2021.10.27 19:00–20:3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진행: 유지원
토크: 합정지구

**내용·참여** 합정지구의 공간 설립과 운영에 대한 운영자들의 대담

---

**〈아마츄어 증폭기, 〈을지 프리덤 인디언〉〉**

**일시** 2021.11.5 19:30, 11.8 18:00, 11.12 18:00

**장소** 을지로 일대, 온라인(인스타그램 라이브)

**진행·참여** 아마츄어 증폭기

---

**〈쿠키 몬스터 통역사〉**

**일시** 2021.11.15 06:00(21.12.31까지 공개)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에이미 램(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과 올리버 후세인

**내용·참여** 개인의 경험, 인종차별, 쿠키 몬스터라는 대중문화를 엮어낸 온라인 퍼포먼스

---

**〈피드백 동반자〉**

**일시** 2020.11.16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진행·참여**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이지원, 장해림, 이문석
정연두, 김계원, 신학,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관계자 외 학생 약 30명

---

**〈C-U-T, 〈KALEIDOSCOPE〉〉**

**일시** 2021.11.19 19:00

**장소** 온라인

**진행·참여** C-U-T

**내용·참여** C-U-T의 〈KALEIDOSCOPE〉(2021)의 온라인 버전 프로젝트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정거장》

| | |
|---|---|
| 기간 | 2022.7.21–10.3 |
| 장소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시내 문화공간 |
| 작가 | 19명/팀 |
| 작품 | 60여 점 |
| 웹사이트 | mediacityseoul.kr<br>archive.mediacityseoul.kr/2022/ |
| 예산 | 2.7억 원 |

2020년부터 미술관은 오랜 시간《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운영의 어려움이었던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 변화를 모색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엔날레 담당 학예사가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자원의 누적에 한계를 확인했고, 예술감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시적인 조직은 미술관의 주요한 국제 행사를 임시팀에 잠깐 맡기는 결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2021년 부터《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사업에 합류한 프로젝트 디렉터는 전담팀 구성의 시작이었다. 동시에《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범지구적인 유행병과 그로 인해 불거지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며 20년 넘게 지속해 온 연속성에서 틈을 발견한다. 해외 작가의 방문이나 북적이는 관람객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풍경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긴급하게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나 가상 유니버스는 실질적인 교류의 대체물일 뿐이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이어지던 몇 가지 루틴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그 역할과 위치를 재점검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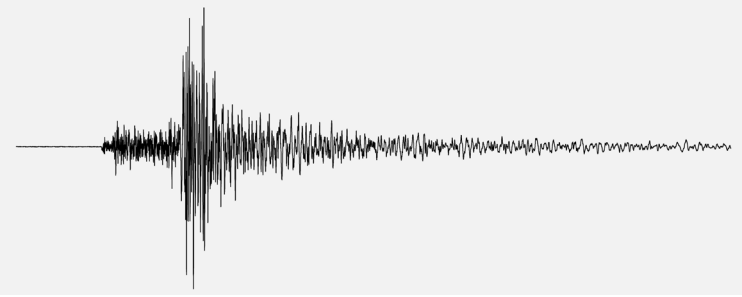
12회 개최에 앞서 올해는 특정 에디션이 아닌《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자체를 들여다보는 프리비엔날레《정거장》을 개최한다. 본 프로그램은《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소장 자원과 함께 한국 미술사에서 있었던 미디어 실천과 실험을 살펴보며 미디어아트에 관한 인식을 경험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준비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먼저 시작된《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데이터 정리와 관련한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누적된 비엔날레 기록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의 진화 과정과 한국의 미술제도 팽창를 연결하여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출간된다. 본 책자에 정리하고 수록한《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데이터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선별적으로 소개되는 작품이나 자료를 통해 미술사적 상황과 연결선에서《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정체성을 검토해 볼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전시에서 다루는 작품들 대부분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엔날레라는 일시적인 제도위에서 생겨나는 미술 실천과 사유를 미술관이라는 영구적인 제도안에서 자원으로 보존하는 작품들은 그 자체만으로《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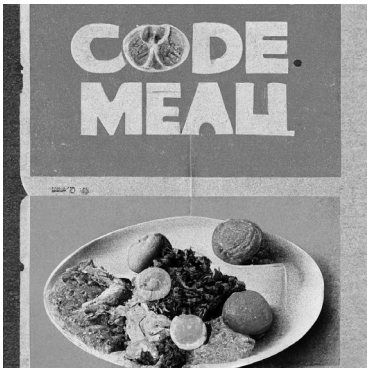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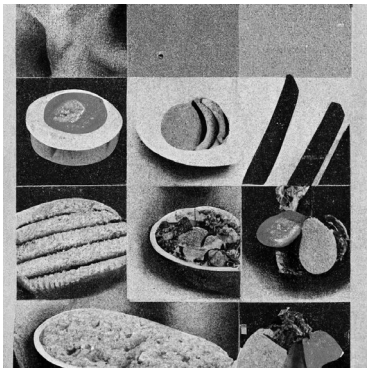
2022, 프로그램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서울 지진 관측소에서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 파형
작가 및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제공





전유진
〈코드 밀 키트〉

2022, 프로그램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텍스트를 시각화시키는 AI 모델
미드저니(MidJourney)에 '코드 밀
키트, 레트로한 콜라주로'라는 문장을
적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작가 제공

그리고 이와 같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연구는 자연스럽게 미디어아트 연구로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아트는 기술과 예술의 대칭적인 구도나 기술적 변화에 따라 변모해간 형태 이전에 분할, 반복, 흐름, 복사, 확장, 전달, 증식 그리고 동시간성이라는 성질을 주목하고 예술의 본질에 닿아 있는 미디어적 사유를 확인하는데 있다. 제1회 도시와 영상 《1988-2002》(1996)부터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2002)까지 작품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한국 미술사의 작품들을 다시 보고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명시된 매체와 무관한 미디어적 특성은 물론 특정 시공간에 귀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작품의 현재성을 발견하게 된다.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프리비엔날레는 이러한 미디어적 경험을 확장된 형태의 미적 참여와 생산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미디어로 소개될 것이다.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서울)〉

2022, HD 비디오, 약 3분 5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홍철기
〈가벽〉(가제)

2022, 전시장 폐기목재로 만든
장소특정적 벽, 프로젝터, 사운드,
가변 크기, 약 3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이규철
〈공간과 시지각 1986-2〉

1986, 나무, 종이에 인화,
31.5×52×12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사진: 배병우

# 김경호, 홍철기와의 대화 「협력자들」

김경호(미술 작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테크니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테크니션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기술감독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정거장》 기술감독

홍철기(미술 작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사진 기록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 사진 및 영상 기록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사진 기록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 《정거장》 작가

---

**권진** 안녕하세요, 두 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네 번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각각 기술감독과 사진기록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한 번의 비엔날레가 치러지는데 필요한 여러 전문가 가운데서 두 분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 분은 작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적 재현을,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현장 기록을 담당하는 비엔날레 협력자들이죠. 일을 시작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김경호** 2006년부터 2년 동안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근무했어요. 그전까지는 사진을 전공했고요. 영화학교에서 필름부터 아날로그 장비,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공까지 아우르는 프로세싱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영화제작 과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기존 교육 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장비들이 방치되고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기자재와 정보가 있는 영화학교에서 기술 조교로 근무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습득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최종 작업에서 프레임이 밀리고, 소리가 틀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신호에 대한 체계를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임을 만들고, 영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런 걸 한 2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기본 체력을 만든 것 같아요. 2011년부터 주변 작가들이 화면에 줄이 생기거나 깨지고 프레임이 뒤틀리는 문제들을 물어오면서 관련한 컨설팅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014년 봄 일민미술관에서 있었던 《토탈리콜》이라는 전시에 테크니션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곧이어 8회 비엔날레에서 제가 했던 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권진** 말씀하신 2008년에서 향후 약 5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까지 작품과 전시 제작 환경에서 장비와 기술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김경호** 제가 처음 영화학교에 갔을 때만 해도 필름이 대세였죠. 2006년도 즈음 HD 캠코더들이 보급되면서 인디씬에서도 고화질 장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10년도 초반까지도 아날로그 기반 장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필름 영상을 디지털화한 후 후반작업을 거쳐 다시 필름으로 출력하는 영상 처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근본적인 지점에서 후반작업과 상영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요즘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데이터가 원하는 해상도나 퀄리티를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 기관도 거의 없었고요. 영화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 할리우드에서 활동하셨던 영화감독이나 촬영 감독 같은 분들이 마치 지식 보부상처럼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특강을 통해 전달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체계화된 정보를 학습하기보다는 파편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랄까요? 영화학교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요. 기술이 계속 변해가면서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수많은 변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영상작업들은 그런 수많은 변종의 꼼수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무수한 시도들이 있던 시절에 (디지털) 기술이 완성되었고, 바로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많은 미술가는 테입에서 메모리 유형으로 넘어가던 과도기 시절에 테입으로 촬영한 소스를 컴퓨터로 옮기는 단계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미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일이 필요했고, 외국 뉴스 방송 쪽에서 촬영 및 기술 지원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권진** 2013년 발표하신 개인전은 서울 주재 이란 케이블뉴스방송국에서 뉴스 제작 기술 디렉터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뉴스, 이미지 재현, 뉴미디어 환경에서 벌어지는 '상상의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전시였어요. 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빙 실무를 진행하는 일을 하셨고요. 미술 제도에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개인으로서 빈틈을 막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전시의 기술 디렉팅을 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김경호** 저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버지가 사진관을 운영하셨어요. 어릴 때 암실에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빛이 이미지가 되지?' 이런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에서 사진영상학과를 전공하며 머릿속에 상상만 하던 것들을 학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눈앞에 보이는 시각 이미지 데이터 뒤편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상상하는… 일종의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일을 하면서 데이터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온전한'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죠. '온전히'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다가,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의미론적으로도 '온전히'를 질문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매우 세부적으로 원하는 표현, 그러니까 재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같은 과정을 거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매체나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상하는 걸 구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재료가 미디어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보여주는 경우 작가의 의도는 결국 장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전시 장비는 작품 제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중간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작품의 의도, 흐름, 처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게 된다는 걸 경험에서 알게 되었어요. 작가의 의도를 읽고, 어떤 부분을 연결해서 오류를 최대한 줄여 작품 의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모든 현실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상을 만들어보자 생각하게 되었죠.

**권진** 그런 개인적인 관심과 활동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이 일민 전시였고요?

**김경호**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전시에 공간 조성으로 참여했던 부업들 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8회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보니 제게 요구되는 부분이 확장되었죠. 기술적인 전문성만이 아니라 일의 운영에 있어서요. 저는 워크플로우를 짜는 등 구조 계획 작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규모가 큰 전시는 개별적인 작품보다도 데이터와 전시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권진** 변수가 많은 미디어아트 전시에서 작가님 같은 특수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현장 전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비를 대여하고 설치해주는 일반적인 장비 업체들이 있잖아요. 만리아트메이커스의 경쟁력을 설명해주시겠어요?

**김경호** 저는 2014년 말부터 예술인협동조합에서 약 3년 정도 활동을 했고, 지속 가능한 창작 구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서 작업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더군다나 저는 자본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작가들과 협동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생존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많이 고민했어요. 초기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다가, 협동조합 경험을 하다 보니 단순한 명목 단위의 협동조합이라는 묶음만으로는 예술 영역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해봤거든요. 작업에 들이는 에너지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서 공동체의 구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민했지만, 결국 협동조합 형식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일을 하면서 독일에 '에이도텍'이라는 미디어 회사를 알게 되었죠. 그들의 시스템을 봤고 참조하게 되었어요. 사실 형태가 저희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고 현업 작가들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동 조건과 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면서 의미 있는 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 경쟁력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저희가 참여하는 미술 행사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팀들은 우리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느리게 일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아요. 그리고 핵심 인력 외는 모두 프리랜서들인데. 이 프리랜서 인력에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체계도 잡혀있고요. 저희 역시도 작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팀원들에게 조그마한 공구 세트도 선물했습니다.

**권진** 그러니까 만리아트메이커스는 단순한 수익 창출만을 목적하기보다는, 전시와 작품 생산에 수반되는 제대로 된 기술 지원을 위한 팀을 꾸리고, 여기에 현업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수입원을 만드는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교육 플랫폼이기도 한 매우 이상적인 구조를 지향하네요.

**김경호** 네, 저도 계속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술 변화는 굉장히 빠르고, 작가들은 이 모두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혼자서 작업할 수 없거나 고착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잘 유통하고, 그리고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생태계 구축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까 기관에서 시스템을 짜는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기술적인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핵심을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외부 팀이 만나 상호 학습하는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함께 놀고, 학습하며, 만들고… 사실 미술관이라는 단단한 조직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런 방식 없이는 매번 바뀌는 예술 트렌드나 상황에 적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권진**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김경호** 일의 지속성입니다. 저희는 실력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꽤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써먹을 데가 없어요. 독일의 에이도텍이라는 회사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한정적이에요. 해외 진출을 상상해본다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있지만, 중국은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기술적 수준이 높고, 동남아시아 역시 서구권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엘리트가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저희 같은 회사가 수익률을 낮추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점이 빨리 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함께하는 동료들과 계속 손을 잡고 있을 만한 (재밌는) 일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완전 상업적인 회사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물론 저희 역시도 이윤을 추구하지만, 상업적인 회사들의 마인드는 따라가기 힘들죠. 계산이 정확하고, 빠르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그들의 태도는 저희처럼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회사들과는 다릅니다. 경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디어 전시에 특화되고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다른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이 예술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권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김경호** 저희는 어떤 전시를 맡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 상영회를 하면서 작품과 전시에 대한 사전시각화 과정을 가집니다. 작업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전체 전시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지요. 11회 비엔날레 경우는 이 단계에서 상상했던 바와 실질적인 결과가 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성과 관련해서 11회 참여작가 유리 패티슨의 〈선_셋 프로_비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품 매뉴얼도 미리 왔고,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이미지를 구현해 내는 작품의 작동 방식도 분명했지만, 현장에서 LED 패널과 연결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미디어 작품은 새로운 장비로 연결하는 등 그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변수가 많고,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예측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지요. 유리의 작품을 구현할 때 정말 고생했는데… 해결점만 바라보면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그런 선택은 작품의 원리에 개입하게 되는 거라 원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패널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느라 어려웠고, 결국엔 해결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제어하는 작가 관점에서 세부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해 전시 프로덕션보다 작품 프로덕션으로 업무 범위가 넘어가는 거였죠. 《하루하루 탈출한다》를 떠올려보면, 전반적으로 미디어 자체를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잘 조화된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독의 의도에 부합하게 섬세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면서 준비했고요.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떤 작품들은 조금이라도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방법을 찾고, 어떤 작품들은 공간 상황에 맞게 성능이 낮은 스피커를 선택하고 오히려 볼륨을 조절하며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준비 단계에서 상영회를 통해 전시의 전체 이미지를 상상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권진** 홍철기 작가님은 어떻게 비엔날레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홍철기** 제가 인터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제 위치가 전문가 혹은 예술가이기보다는 비전문가 혹은 관객의 입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특히 지금까지 인터뷰하셨던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요.

**권진** 세대도 다르고요.

**홍철기** 네. 그리고 저는 제도권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요. 오로지 흥미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흥미로운 것들을 찾다 보니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 관점, 판단, 태도나 기준 등이 미술 제도권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게 제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웃음) 그런 전형적이지 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미술 비엔날레라는 제도를 전문가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저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8년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초청된 슈카르트(ŠKART)라는 세르비아 작가 콜렉티브가 한국에 왔었죠. 저는 어떤 행사고 어떤 작가인지도 모른 채 그들의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소개받은 일이었고, 그땐 뭐든 처음 보고 겪는 게 공부가 되던 시절이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한국 활동을 따라다니며 했던 여러 일 중에 사진기록도 있었고요.

**권진** 슈카르트는 어떤 활동을 하는 팀인가요?

**홍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떠올려보는 이름이라 좀 가물가물하지만, 사회적 논쟁거리나 주요한 이야기들을 공적인 장소에서 퍼포머티브한 형식으로 풀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공동 자수 작업이나 합창단처럼 임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지요.

**권진** 그들의 공동제작 과정의 기록을 하면서 사진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홍철기** 그렇죠. 그게 기회가 되어서 이런저런 전시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전시 촬영이 일이기보다 일종의 학습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 작가들과 이야기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데, 저는 방구석에 앉아 뭐를 읽거나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방식이 맞지 않아서… 일단은 전시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시를 기록하는 행위는 전시를 한 번 더 보는 것과 같았죠. 그렇게 여러 선배 작가들의 전시를 촬영하다가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 사진기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나요?

**권진** 제4회 APAP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습니다.

**홍철기** 네. 그때 처음으로 큰 규모의 미술 행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능력보다는 주변의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신 덕분에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4회 APAP가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권진** 구체적으로 어떤 변곡점일까요?

**홍철기** 처음으로 전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고 참여했던 경험이었죠. 더군다나 APAP는 규모가 컸고, 안양예술재단이라는 기관 혹은 제도권이 주도한 행사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험과 달랐습니다. 사진기록에서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APAP는 트리엔날레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고… 그 많은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다 보니 사진 촬영의 모든 장르를 전부 답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전시, 프로그램, 외부와 내부에서의 활동사진, 스튜디오 촬영 등 거기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권진** 네, 비물질적인 예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작품들을 공유재로 전환하고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홍철기** 맞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여러 작품과 프로젝트를 접하고 기록했던 경험이 이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참여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권진** 비전문가라고 말씀하시지만 2015년 첫 개인전 이후로 작품 활동도 병행하시잖아요? 작품을 위한 촬영과 사진기록을 위한 촬영을 비교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철기** 제가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일종의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점, 태도,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관도 포함되겠죠. 첫 번째 개인전은 소소한 주위의 풍경을 다루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없던 풍경'인데. 사실 이 풍경은 실재하지만, 일반적인 관심 밖에 존재하는, 소외된 풍경입니다.

**권진** 가시적이지 않은 존재들을 사진을 찍어서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나요?

**홍철기** 그렇죠. 근데 그 가시적이라는 단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가시적인 공간이니까요. 다만 가시권에 없다고 해야 하나… 여하튼 제 작업이 향하는 바가 그렇다면, 전시공간은 반대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완벽하게 가시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성이 뚜렷한 공간입니다. 그 '가시성'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그 지점이 결국 사진이라는 매체가 원천적으로 가지는 질문과 맞물립니다. 뭐 모든 시각 매체가 포함되는 얘길 수 있지만, 어쨌든 구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진'에 가까운 거죠. 전시라는 형태, 형식, 그리고 제도에 관한 것들은 관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매우 절대적인 대상이고, 그래서 제게는 미술품, 미술행위, 전시공간과 미술관을 찍는 것이 저의 개인적 관심사와 정 반대에 있기에 생기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어떤 판단을 만들어 가는데, 이를테면 저 모퉁이가 프레임 안에 들어갈지 아닐지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주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제게 단순한 수입원이기 전에 더 큰 즐거움입니다.

**권진**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는 행위에는 대상을 정하고, 프레임을 결정하고, 사용처에 맞는 보정작업 등 다양한 선택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앞서 APAP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대상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는 상황에도 여러가지가 있고요. 전시에는 영상 작품도 있고, 조각, 회화, 설치, 그리고 수반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움직임이 단순한 토크나 강연부터 움직임이 동적인 퍼포먼스나 야외 워크숍도 있고,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프로덕션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상황에서 매 순간 판단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홍철기** 전시와 프로그램 기록이 개인 작업과 다른 부분은 객관성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전시의 특징이나 시각적인 구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프레이밍이 중요합니다. 사각의 사진 프레임에 들어가는 정보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객관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일종의 '정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증명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에는 정면이 있고, 전시기록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회적인 정면이 뭔지를 판단하고 찾아가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프레임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지다가… 지난 개인전은 공간을 360도로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자는 시도까지 해본 건데요. (웃음) 아무튼 프레이밍은 너무 어렵습니다.

**권진** 프레임에 무엇을 담느냐가 곧 사진의 발언으로도 여겨지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진에서는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정면'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철기** 네.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의 증명사진 같은 거니까. 프레임 안에 정보들이 간결하고 조화롭게 보여질 수 있길 원합니다.

**권진** 홍철기 작가 사진에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려는 거리 설정과 예민한 톤의 조정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과장이나 '오버'하는 선택을 안 한다는 미덕이랄까요.

**홍철기** 그렇긴 한데… 드라마를 만들어내기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못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웃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정이 결정짓는 무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눈으로 보는 상태와 유사한 이미지로 편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정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시기록 사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는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사진으로 찍고 포토샵을 통해 인위적으로 맞춰 완벽한 것처럼 보여주는 결과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나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쩌면 아마도 우리가 직면한, 아니 제가 직면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후보정된 이미지가 실제를 초월하는 이미지로 여겨지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직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소화할지 좀 고민이 되지만요. 부정만 하는 태도에서 지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직면하는 나의 태도 등을 제시해주는 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작업이나 전시에 대한 네비게이팅을 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진** 두 분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관련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비엔날레 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생겨난 여러 종류의 전시를 두루 보고 경험하셨을 텐데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김경호** 가장 큰 변별점은 어떤 근본적인 합의,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시대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진**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좀 더 기술적인 매체로서의 미디어인가요?

**김경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의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사실 기술에 대한 한계는 일종의 '돌도끼'처럼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는 일반적인 전시와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고. 사회적인 의미나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 화려함을 선택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그런 지점에 대해 좀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일반적인 속성에 쉽게 포섭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요.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비록 오래된 기술을 쓰거나 혹은 그와 상관없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본다는 점…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른 비엔날레를 둘러보면 한눈에 굉장히 강렬하지만, 이 비엔날레는 오히려 그런 전형성을 해체해온 여정 같아요.

**권진** 여전히 미디어아트라고 하면 기술적인 외양을 우선에 둔 형식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긴 역사적 흐름을 상기해보면 기술과 예술은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의 형태까지 진행되어왔고요. 오늘날의 미디어아트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규정한다기보다는 소위 미디어아트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경험을 어떻게 뛰어넘을지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웃음)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고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은 게임과 같은 플랫폼과 예술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작품이 게임 형식으로 구현됩니다. 미디어의 화려한 측면에만 집중하면, 그것의 방법적인 구현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의 의미가 형식의 기저에 깔려있더라도, 기술적 한계 자체를 훌쩍 뛰어넘는 놀라움을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술은 그 의미를 찾는 지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미디어아트는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에서 어떤 의미나 방향을 제시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서 기술이 가져오는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엔날레는 바로 그런 눈으로 전시를 만들어 왔고요. 덧붙여, 앞으로 미디어아트에서 가장 조망되는 기술은 AI 알고리즘과 소셜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의미들 사이를 뒤흔들며 지금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미디어아트는 그것이 돌멩이든, 나무든, 컴퓨터든, VR이든 상관없이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조망하거나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진** 미래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김경호** 지금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들이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이목을 끌어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예술적인 실험과 의미를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위험이 따르더라도 한 걸음 더 앞에 가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태도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기존의 자료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그동안 만들어 온 의미가 더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지난 전시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요. 전시가 끝나면 모두 닫아버리지 않고,

새로운 행사에서도 앞에 있었던 전시나 작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겠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창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작품 프로덕션을 진행할 때 작가들에게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술학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창작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비싼 작업을 수입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내에 있는 작가나 학생들과 협업의 기회를 만들죠. 이와 같은 경험은 전시보다도 큰 파급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홍철기** 저는 무엇보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객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게 비엔날레는 어려워서 재미를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시를 촬영한다는 행위가 곧 미술을 공부한다는 점과 비슷한데요. 전시를 보고 촬영하는 건 결국 이 전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미디어를 다루는 전시다 보니, 전시장에 쓰여 있는 문구나 도슨트 선생님들의 설명 등으로 어렴풋이 아는 정도가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판단 자체가 힘들 만큼 어려운 전시도 있어요. (웃음) 현대미술은 고전이 아니라서 계속 공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점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변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비엔날레는 관객과의 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특히 9회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현대미술에 접근하게 하는 여러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몽적인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권진** 관객이 궁금하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는 거죠?

**홍철기** 네, 그렇죠. 그런 통로들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카이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집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수집, 분류, 그리고 목록과 쓰임까지를 아우르는 과정이요. 기록은 결국 미래를 위한 일이고, 앞으로의 쓰임을 고민하며 진행되는 기록은 결국 더 나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그리고 더 나은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관계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곧 내용의 견고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권진** 네, 이번 프리비엔날레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그런 부분이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체성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동시에 참여의 방법과 형태를 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홍철기**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작가들과의 소통이나 지속적인 관계 구축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비엔날레는 일종의 상아탑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역할에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대비시키는 것도 있으니까요.

**권진** 그런 역할을 병행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으로 단계별 구성이 필요합니다.

**홍철기** 네, 그렇죠. 발굴에만 그치지 말고, 작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연계성을 더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지난 개인전에서 시도한 작품은 만리아트메이커스 도움 없이 구현되지 못했을 텐데요.

**권진** 숨겨져 있는 공간들을 360도로 촬영해서 다면체 공간에 다채널 영상으로 설치했던 개인전 《언저리》(쇼앤텔, 2020) 말씀하시는 거죠?

**홍철기** 개인전 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리아트메이커스라는 공동체의 존재와 지향점들 덕분에 전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작품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지점들은 우리 사회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술인들끼리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진**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인 네트워킹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로서 비엔날레요?

**홍철기** 네, 결국은 그런 연결성이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생각하는 거고요.

**김경호** 저도 덧붙이자면, 학습과 놀이가 선순환하는 형태가 결국 변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억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지속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근간이 되는 부분을 잘 키워나가지 않으면, 결국 생기를 잃게 됩니다. 저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학습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결국 좋은 성과를 가지느냐와 연결됩니다.

**권진** 오랜 시간 일로 만나와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몰랐던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 데이터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외관

# 작가 목록

**총계**

| | 참여작가(명/팀) |
|---|---|
| 도시와 영상 1 ('96) | 27 |
| 도시와 영상 2 ('98) | 55 |
| 도시와 영상 3 ('99) | 33 |
| 1회 비엔날레 ('00) | 93 |
| 2회 비엔날레 ('02) | 79 |
| 3회 비엔날레 ('04) | 41 |
| 4회 비엔날레 ('06) | 58 |
| 5회 비엔날레 ('08) | 70 |
| 6회 비엔날레 ('10) | 42 |
| 7회 비엔날레 ('12) | 49 |
| 8회 비엔날레 ('14) | 40 |
| 9회 비엔날레 ('16) | 61 |
| 10회 비엔날레 ('18) | 66 |
| 11회 비엔날레 ('21) | 41 |
| 개인 | 576 |
| 콜렉티브 | 146 |
| 국내 | 295 |
| 해외 | 420 |
| 혼성 | 7 |
| 20대 | 46 |
| 30대 | 282 |
| 40대 | 180 |
| 50대 | 57 |
| 60대 이상 | 31 |
| 미확인 및 기타 | 23 |
| 2회 이상 참여 작가 | 43 |
| 총 | **722** |

**도시와 영상 1 ('96)**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강우현 | 1953 |
| 공성훈 | 1965-2021 |
| 구본창 | 1953 |
| 금누리 | 1951 |
| 김세훈 | 1964 |
| 김윤 | 1959 |
| 김장섭 | 1953 |
| 박불똥 | 1956 |
| 박현기 | 1966-2000 |
| 배준성 | 1967 |
| 백남준 | 1932-2006 |
| 석영기 | 1960 |
| 심철웅 | 1958 |
| 안상수 | 1952 |
| 오경화 | 1960 |
| 윤동천 | 1961-2008 |
| 이강우 | 1965 |
| 이원곤 | 1956 |
| 이융 | 1971 |
| 이중재 | 1966 |
| 정영훈 | 1966 |
| 조경숙 | 1960 |
| 최은경 | 미상 |
| 한수정 | 1967 |
| 홍성도 | 1953 |
| 홍성민 | 1964 |
| 홍순철 | 1955 |

**도시와 영상 2 ('98)**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강경아 | 1965 |
| 강민권 | 1966 |
| 고낙범 | 1960 |
| 그룹올빼미(김기덕, 이병옥, 정세진) | 1998 |
| 김두섭 | 1967 |
| 김범 | 1963 |
| 김병수 | 1973 |
| 김상길 | 1974 |
| 김소라 | 1965 |
| 김오안 | 1974 |
| 김용익 | 1947 |
| 김용철 | 1961 |
| 김우일 | 미상 |
| 김홍석 | 1964 |
| 김희경 | 1971 |
| 레이몬드 한 | 1967 |
| 목나정 | 1971 |
| 민인기 | 1962 |
| 박영국 | 1946 |
| 박이소 | 1957 |
| 박한진 | 1938 |
| 박혜준 | 1957 |
| 박활민, 노경애, 김동섭 | 1998 |
| 서정국 | 1958 |
| 성남프로젝트(김태헌, 김홍빈, 박용석, 박찬경, 박혜연, 조지은, 임흥순) | 1998 |
| 손봉채 | 1967 |
| 안규철 | 1955 |
| 안승업 | 1958 |
| 양혜규 | 1971 |
| 오돌또기 | 1997 |
| 오정미 | 1961 |
| 우나임, 프레드 레미 | 1998 |
| 유진상 | 1965 |
| 유현정 | 1968 |
| 이성강 | 1962 |
| 이수경 | 1963 |
| 이승택 | 1932 |
| 임정규 | 1975 |
| 장정연 | 1966 |
| 전린 | 1936 |
| 전승일 | 1965 |
| 정수진 | 1971 |
| 정혜승 | 1973 |
| 조범진 | 미상 |
| 주명덕 | 1940 |
| 주재환 | 1941 |
| 진달래팀(김두섭, 안병학, 이관용, 이세영, 이우일, 최준석, 현태준) | 1994 |
| 최민화 | 1954 |
| 최은경, 김윤 | 1998 |
| 킴벌리 사리 톰즈 | 미상 |
| 토마스 한 | 1960 |
| 함경아 | 1966 |
| 함양아 | 1968 |
| 홍순명 | 1959 |
| 홍승혜 | 1959 |

**도시와 영상 3 ('99)**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권순환 | 1957 |
| 김대수 | 1955 |
| 김승영 | 1963 |
| 김영진 | 1961 |
| 김재권 | 1945 |
| 김진수 | 1963 |
| 김해민 | 1957 |
| 김현희 | 1970 |
| 김희선 | 1966 |
| 문주 | 1961 |
| 서양범 | 1961 |
| 신현중 | 1953 |
| 염은경 | 1953 |
| 오상길 | 1957 |
| 올리버 그림 | 1964 |
| 우순옥 | 1958 |
| 육태진 | 1961 |
| 윤영석 | 1957 |
| 이기일 | 1967 |

| | |
|---|---|
| 이용백 | 1966 |
| 이주용 | 1958 |
| 이준목 | 1961 |
| 임영선 | 1959 |
| 임충섭 | 1941 |
| 임희중 | 1965 |
| 조덕현 | 1957 |
| 조태병 | 1950 |
| 채미현 | 1957 |
| 최우람 | 1970 |
| 한계륜 | 1969 |
| 허구영 | 1966 |
| 허은경 | 1964 |
| 황규태 | 1938 |

**1회 비엔날레 ('00)**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게리 힐 | 1951 |
| 그레이엄 거신 | 1960 |
| 그룹 A12와 그룹 스탁커와 | 2000 |
| 그룹 클리오스트라트와 | |
| 스테파노 보에리 | |
| 김기철 | 1969 |
| 김상길 | 1974 |
| 김소라 | 1965 |
| 김영진 | 1961 |
| 김유선 | 1967 |
| 김해민 | 1957 |
| 김형기 | 1960 |
| 나빈 라완차이쿨과 | 2000 |
|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 |
| 나카니시 요시히사 | 1965 |
| 다라 번바움 | 1946 |
| 댄 그레이엄 | 1942-2022 |
| 더글라스 고든 | 1966 |
|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와 | 2000 |
| 올레 스히렌 | |
| 렘 쿨하스와 | 2000 |
| 애드가 클라이네 | |
| 로드니 그레이엄 | 1949 |
| 로리 앤더슨 | 1947 |
| 로즈마리 트로켈 | 1952 |
| 리암 길릭 | 1964 |
| 린 허쉬만 리슨 | 1941 |
| 마르코 브람빌라 | 1960 |
| 마르코 펠리한 | 1969 |
| 마이클 주 | 1966 |
| 매튜 바니 | 1967 |
| 매튜 크롤리 | 1965 |
| 바바라 스타인먼 | 1950 |
| 박무림 | 1966 |
| 박지아 | 1969 |
| 박찬경 | 1965 |
| 박찬국 | 1959 |
| 박현기 | 1966-2000 |
| 발리 엑스포트 | 1940 |
| 백남준 | 1932-2006 |
| 베른트 할프헤어 | 1964 |
| 브루스 나우만 | 1941 |
| 비토 아콘치 | 1940-2017 |
| 빌 비올라 | 1951 |
| 샘 테일러 우드 | 1967 |
| 샹탈 아커만 | 1950-2015 |
| 서정국 | 1958 |
| 송일곤 | 1971 |
| 수파티스트 | 1998 |
| 스탠 더글러스 | 1960 |
| 스티브 맥퀸 | 1969 |
| 스티븐 피핀 | 1960 |
| 씰 플로이어 | 1968 |
| 아서 자파 | 1960 |
| 안리 사라 | 1974 |
| 안젤라 블록 | 1966 |
| 알렉산더 클루게 | 1932 |
| 알렉산더와 수잔 마리스 | 미상 |
| 요나스 오케르룬드 | 1965 |
| 유현미 | 1964 |
| 이건용 | 1942 |
| 이경희 | 1956 |
| 이동기와 강영민 | 2000 |
| 이불 | 1964 |
| 이수경 | 1963 |
| 이정란 | 1954 |
| 이준목 | 1961 |
| 임동식 | 1945 |
| 자넷 카디프와 | 1957 |
| 조지 뷔레스 밀러 | |
| 자하 하디드 | 1950-2016 |
| 장페이리 | 1957 |
| 저우티에하이 | 1966 |
| 제인과 루이스 윌슨 | 1967 |
| 제프 프레이스 | 1965 |
| 조안 조너스 | 1936 |
| 차이궈치앙 | 1957 |
| 찰스 롱과 스테레오 랩 | 2000 |
| 청소 프로젝트 | 2000 |
| 최인호 | 1960 |
| 캐리 영 | 1970 |
| 코가네자와 타케히토 | 1974 |
| 크리스 커닝햄 | 1970 |
| 크리스타 조머러와 | 1992 |
| 로랑 미뇨노 | |
|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 1944-2021 |
| 키스 타이슨 | 1969 |
| 타시타 딘 | 1965 |
| 토니 아워슬러 | 1957 |
| 토마스 데만트 | 1964 |
| 페리 호버만 | 1954 |
| 폴 라미레즈-조나스 | 1965 |
| 폴 파이퍼 | 1966 |
| 피에르 비스무스 | 1963 |
| 피터 기달 | 1946 |
| 피필로티 리스트 | 1962 |
| 하룬 파로키 | 1944-2014 |
| 한수정 | 1967 |
| 함진 | 1978 |
| 홍명섭 | 1948 |

**2회 비엔날레 ('02)**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강애란 | 1960 |
| 강은수 | 1974 |
| 강주원 | 미상 |
| 강홍구 | 1956 |
| 고경호 | 1960 |
| 고정아 | 미상 |
| 기서비(임상빈, 강은영) | 2002 |
| 김규완 | 미상 |
| 김범수 | 1965 |
| 김수정 | 미상 |
| 김시만 | 1958 |
| 김안식 | 미상 |
| 넬슨 헨릭스 | 1963 |
| 노보틱 리서치 | 1991 |
| 델핀 코엥데 | 1969 |
| 로버트 라차리니 | 1965 |
| 림 알 페이잘 | 1968 |
| 마르티나 로페즈 | 1962 |
| 문주 | 1961 |
| 문형민 | 1970 |
| 미아오샤오춘 | 1964 |
| 미하일 쿤제 | 1961 |
| 밀토스 마네타스 | 1964 |
| 백남준 | 1932-2006 |
| 볼프강 헤어볼트 | 1967 |
| 비요크, 인서트사일런스 | 2002 |
| 사비노 달제니오 | 1973 |

| | |
|---|---|
| 숀 커 | 1968 |
| 신경철 | 1978 |
| 신청우 | 미상 |
| 심현주 | 1969 |
| 쓰나미.넷 | 미상 |
| 아츠코 우다 | 1973 |
| 안수진 | 1969 |
| 앤드류 올슨 | 미상 |
| 야스히로 스즈키 | 1979 |
| 양만기 | 1965 |
| 양민하 | 1966 |
| 에두아르도 칵 | 1962 |
| 에두아르도 플라 | 1952–2012 |
| 에바 스탠람 | 미상 |
| 엠브이알디브이 | 1993 |
| 왕궈펑 | 미상 |
| 위안광밍 | 1965 |
| 유관호/고쿠보 다카시 | 2002 |
| 유민호 | 미상 |
| 유혜진 | 1972 |
| 이경호 | 1967 |
| 이소미 | 1964 |
| 이용백 | 1966 |
| 이태일 | 미상 |
| 이토 아츠히로 | 1965 |
| 임영균 | 1955 |
| 전준호 | 1969 |
| 정상현 | 1972 |
| 정영훈 | 1966 |
| 제니퍼 스타인캠프 | 1958 |
| 조셉 네크바탈 | 1951 |
| 조이수 | 1970 |
| 존 에프 사이먼 주니어 | 1963 |
| 존 톤킨 | 1963 |
| 질라 로이테네거 | 1968 |
| 차오페이 | 1978 |
| 카타르지나 코지라 | 1963 |
| 카트린 이캄, 루이 플레리 | 1987 |
| 켄 파인골드 | 1952 |
| 코디 최 | 1961 |
| 클로드 웸플러 | 1966 |
| 토마스 스트리커 | 미상 |
| 페드로 메이어 | 1935 |
| 페트라 므르직 & 장 프랑수아 모리소 | 1999 |
| 폴 존슨 | 1969 |
| 프랑수아 퀴를레 | 1967 |
| 프레임(박윤나/박지나/이은택/최종범/최영준/최두수) | 2002 |
| 피터 로빈슨 | 1966 |
| 하준수 | 미상 |
| 할룩 아칵스 | 1970 |
| 홍성철 | 1969 |
| 홍승혜 | 1959 |

**3회 비엔날레 ('04)**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김기라 | 1947 |
| 날리니 말라니 | 1946 |
| 다니엘 가르시아 안두하르 | 1966 |
| 댄 퍼잡스키 | 1961 |
| 랭랜즈 & 벨 | 1978 |
| 로버트 아놀드 | 미상 |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울라이 | 1975 |
| 마커스 리올 | 1971 |
| 문경원 | 1969 |
| 밀토스 마네타스 | 1964 |
| 박준범 | 1976 |
| 반 소워와인, 이소벨 놀레즈, 리암 페네시 | 2004 |
| 베아테 가이슬러, 올리버 잔 | 1993 |
| 베아트 브로글, 필립 짐머만 | 미상 |
| 볼프 니콜 헬츨레 | 1950 |
| 쉴파 굽타 | 1976 |
| 스테판 베라스, 린다 데비, 로버트 데비, 케리 리첸스 | 2004 |
| 스테판 어네거, 안소니 헌트 | 2002 |
| 안젤라 데타니코, 라파엘 라인, 지리 스칼라 | 2003 |
| 앤-마리 슐레이너, 브로디 콘돈, 호앙 레안드레 | 2002 |
| 야노베 켄지 | 1965 |
| 얀-페터 존탁 | 1965 |
| 에드도 스턴 | 1972 |
| 엘리자베스 밴더 자그 | 1952 |
| 왕지안웨이 | 1958 |
| 이세정 | 1970 |
| 장영혜중공업 | 1999 |
| 정동암/정문열 | 2004 |
| 카미사토 아키오, 시바타 사토시, 마시모 타케히사 | 미상 |
| 컬렉티브_팩트 | 2002–2009 |
| 코고 타쿠지 * 캔디 팩토리 프로젝트 | 1965 |
| 키스팔 자볼릭 | 1967 |
| 탄 텍 웽 | 미상 |
| 톰 베츠 | 1973 |
| 펑멍보 | 1966 |
| 프레데릭 모서, 필립 슈빙어 | 1988 |
| 플레익스 | 2001 |
| 호세 카를로스 카사도 | 1971 |
| 홍성담 | 1955 |
| ENESS | 1997 |
| OVNI 아카이브(아부-알리, 레트로유) | 1992–1999 |

**4회 비엔날레 ('06)**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김창겸 | 1961 |
| 김태은 | 1971 |
| 노먼 클라인 + 로즈마리 카멜라 + 안드레아스 크라트키 | 2006 |
| 니시오 요시나리 | 1982 |
| 니콜라 클라우스 + 장 자크 비르게 | 2002 |
| 디에트마 오펜후버 + 샘 아우잉거 + 한스 스트로블 | 2006 |
| 레안드로 엘리히 | 1973 |
| 루나 이슬람 | 1970 |
| 루시아 코치 + 가브리엘 아세베도 베랄데 | 2006 |
| 류호열 | 1971 |
| 리우딩 | 1976 |
| 리우웨이 | 1972 |
| 린 허쉬만 리슨 | 1941 |
| 마츠무라 에리코 | 1980 |
| 마티유 브리앙 | 1972 |
| 마틸드 테르 헤이네 | 1969 |
| 미아오샤오춘 | 1964 |
| 미첼 테란 + 제프 만 | 2006 |
| 박성훈 | 1972 |
| 박지수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연구소 | 2006 |
| 변지훈 | 1974 |
| 빅빅보스 | 2006 |
| 사와 히라키 | 1977 |
| 소프트패드 | 1999 |
| 쉬용 | 1963 |
| 스콧 스니브 | 1969 |
| 아니 라띠 | 1956 |
| 아다드 하나 | 1971 |
| 아사노 코헤이 + 마츠우라 코스케 | 미상 |
| 악셀 로흐 | 1971 |
| 얀쥔 | 1973 |
| 오용석 | 1976 |
| 와타나베 고 | 1975 |
| 우시 다이고 | 1979 |
| 이이남 | 1969 |
| 이인미 + 릴루에 데아 자할라 | 2006 |
| 이한수 | 1967 |

| | |
|---|---|
| 임상빈 | 1976 |
| 재커리 리버만 | 1977 |
| 존 제라드 | 1974 |
| 주지아 | 1963 |
| 진시영 | 1971 |
| 천샤오시웅 | 1962 |
| 최병일 | 1970 |
| 최원정 | 1975 |
| 카타리나 뢰프스트롬 | 1970 |
| 칸쉬안 | 1972 |
| 케서린 야스 | 1963 |
| 크랙 윌쉬 | 1966 |
| 티모시 재거 + 알렉스 드라굴레스쿠 | 미상 |
| 프리드리히 키르쉬너 | 1980 |
| 피필로티 리스트 | 1962 |
| 헤르난 디아즈 알론소 | 1969 |
| 후루이케 다이스케 | 1973 |
| 후세인 샬라얀 | 1970 |
| FM3(장지엔 + 크리스티안 바이런트) | 1999 |
| S-E-R-V-O | 1999 |

**5회 비엔날레 ('08)**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게랄드 반 데어 카프 | 1959 |
| 궈이첸 | 1979 |
| 김신일 | 1971 |
| 김윤철 | 1970 |
| 다니엘 플룸 | 1968 |
| 다미엔 온티베로스 라미레즈 | 1974 |
| 라파엘 로자노-헤머 | 1967 |
| 리 후이 | 1977 |
| 마농 드 보어 | 1966 |
| 마르쿠스 한센 | 1963 |
| 마르크 리 | 1969 |
| 마리 세스터 | 1955 |
| 마리나 주르코우 | 1962 |
| 마이클 모리스 · 사토 요시코 | 1996 |
| 마이클 벨 스미스 | 1978 |
| 마츠오 타카히로 | 1979 |
| 모니카 브라보 | 1964 |
| 모리 유코 · 미하라 소이치로 | 2008 |
| 뮌 | 2002 |
| 미구엘 엔젤 리오스 | 1943 |
| 미네트 바리 | 1968 |
| 바니 아비디 | 1971 |
| 서효정 | 1972 |
| 수잔 빅터 | 1959 |
| 신기운 | 1976 |
| 아나이사 프랑코 | 1981 |
| 아니쉬 카푸어 | 1954 |
| 양투안 슈미트 | 1961 |
| 앤 베로니카 얀센스 | 1956 |
| 야신 셉티 | 1979 |
| 양푸동 | 1971 |
| 에리카 하쉬 | 1970 |
| 올라퍼 앨리아슨 | 1967 |
| 원성원 | 1972 |
| 윌리엄 켄트리지 | 1955 |
| 유현정 | 1968 |
| 이자와 코타 | 1969 |
| 이준 | 1972 |
| 이토 아츠히로 | 1965 |
| 일렉트로부티그(아리스타크 체르니셰프 · 알렉세이 슐긴) | 2005 |
| 정연두 | 1969 |
| 정영훈 | 1966 |
| 조이스 힌터딩 · 데이빗 헤인즈 | 미상 |
| 준 응우옌-하츠시바 | 1968 |
| 줄리앙 매르 | 1969 |
| 진기종 | 1981 |
| 채미현 · Dr.정 | 1957 |
| 치우안시옹 | 1972 |
| 카를로스 아모랄레스 | 1970 |
| 카를로스 코로나스 | 1964 |
| 크리스타 조머러와 로랑 미뇨노 | 1992 |
| 크리스토퍼 토마스 알렌(라이트 서전) | 1974 |
| 크리스티나 마테우스 | 1968 |
| 클레버슨 | 1972 |
| 타니아 루이즈 구티에레즈 | 1973 |
| 타카하시 쿄타 | 1970 |
| 테레사 세라노 | 1936 |
| 토마스 쾨너 | 1965 |
| 튜라 힐덴 · 피오 디아즈 | 2005 |
| 파블로 발부에나 | 1978 |
| 폴 챈 | 1973 |
| 피터 스트류컨 | 1939 |
| 헤르빅 바이저 | 1969 |
| 헤르빅 투르크 | 1964 |
| 헬가 그리피스 | 1959 |
| 홍동루 | 1968 |
| 후지 시로 | 1976 |
| AES + F | 1995 |
| C. E. B. 리아스 | 1972 |
| ITRI 크리에이티비티 랩 | 1965 |

**6회 비엔날레 ('10)**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고이즈미 메이로 | 1976 |
| 김범 | 1963 |
| 김성환 | 1975 |
| 김순기 | 1946 |
| 나스린 타바타바이 & 바박 아프라시아비 | 2010 |
| 노순택 | 1971 |
| 더글라스 고든 | 1966 |
| 던컨 스피크먼 | 1976 |
| 데이만타스 나르케비시우스 | 1964 |
| 라이너 가날 | 1961 |
| 루카스 밤보지/캉 기마랑스/베토 마갈량이스 | 2010 |
| 마농 드 보어 | 1966 |
| 마크 브래드포드 | 1961 |
| 미키 크라츠만 | 1959 |
| 박찬경 | 1965 |
| 블라스트 씨어리 | 1991 |
| 빌럼 데 로이 | 1969 |
| 사라 모리스 | 1967 |
| 서도호 | 1962 |
| 쉴파 굽타 | 1976 |
| 시징맨(첸 샤오시옹, 김홍석, 오자와 츠요시) | 2007 |
| 아네테 켈름 | 1975 |
| 아드리아 줄리아 | 1968 |
|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 1968 |
|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 1970 |
| 안토니오 카바예로 | 1940 |
| 앨런 세큘라 | 1951–2013 |
| 야엘 바타나 | 1970 |
| 양아치 | 1970 |
| 에릭 반 리스하우트 | 1968 |
| 왈리드 라드 | 1967 |
| 율리카 루델리우스 | 1968 |
| 이주요 | 1971 |
| 이즈미 타로 | 1976 |
| 임민욱 | 1968 |
| 조덕현 | 1957 |
| 주디 라둘 | 1962 |
| 지미 더햄 | 1940 |
| 지아드 안타르 | 1966 |
| 캐서린 오피 | 1961 |
| 크리스토둘로스 파나요투 | 1978 |
| 타렉 아투이 | 1980 |
| 토비아스 칠로니 | 1973 |
| 투안 앤드류 응우옌 | 1976 |
| 티노 세갈 | 1976 |

**7회 비엔날레 ('12)**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고단 사비치 & 벤트 쇨렌 | 2012 |
| 구동희 | 1974 |
| 김기철 | 1969 |
| 김원화 | 1980 |
| 김정한(BiKE Lab.) | 1971 |
| 나타니엘 멜로스 | 1974 |
|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 1995 |
| 데니스 페저 | 1978 |
| 데이비드 보웬 | 1975 |
| 데이비드 클레어보트 | 1969 |
| 도미닉 가뇽 | 1974 |
| 로미 아치투프 | 1958 |
| 로버트 오버벡 | 1983 |
| 로베르 르파주, 사라 캔더다인, 제프리 쇼 | 2012 |
| 료지 이케다 | 1966 |
| 료타 쿠와쿠보 | 1971 |
| 마나베 다이토 & 이시바시 모토이 | 2011 |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 1946 |
| 모리스 브나욘/모벤 | 1957 |
| 문준용 | 1982 |
| 미카미 세이코 | 1961 |
| 방앤리 | 2012 |
| 블라블라브랩 | 2011 |
| 셉 캄바르 & 조나단 해리스 | 2005 |
| 소 칸노 & 야마구치 타카히로 | 1984 |
| 아델 압데세메드 | 1971 |
| 아론 코블린 & 크리스 밀크 | 2010 |
| 아크람 자타리 | 1966 |
|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 파올로 시리오 | 2011 |
| 에릭 마이예 | 1961 |
| 에브리웨어 | 2007 |
| 엑소네모 | 1996 |
| 옌스 분덜링 | 1979 |
| 윤지현 & 김태윤 | 2012 |
| 정연두 | 1969 |
| 제니 홀저 | 1950 |
| 존 새트롬 | 1980 |
| 즈비넥 발라드란 | 1973 |
| 지문 | 1977 |
| 최재은 | 1953 |
| 틸 노박 | 1980 |
| 플로리스 카이크 | 1982 |
| 하이브 | 미상 |
| 헤이크 디자인 + 리서치 | 1998 |
| 홍성민 | 1964 |
| 홍승혜 | 1959 |
| dNA(더블네거티브스아키텍처) | 1998 |
| JK 켈러 | 1976 |
| NMARA(이준, 김경미) | 2010 |

**8회 비엔날레 ('14)**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김수남 | 1949–2006 |
| 김인회 | 미상 |
| 나이토 마사토시 | 1938 |
| 노재운 | 1971 |
|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 1995 |
| 닐바 귀레쉬 | 1977 |
| 딘 큐 레 | 1968 |
| 리나 셀란더 | 1973 |
| 마할디카 유다 | 1981 |
| 미카일 카리키스 | 1975 |
| 민정기 | 1949 |
| 바심 막디 | 1977 |
| 배영환 | 1969 |
| 션 스나이더 | 1972 |
| 쑤 위시엔 | 1982 |
| 야오루이중 | 1969 |
| 양혜규 | 1971 |
| 에릭 보들레르 | 1973 |
| 오티 위다사리 | 1973 |
| 요네다 토모코 | 1965 |
| 요안나 롬바르드 | 1972 |
| 자오싱 아서 리우 | 1968 |
| 자크라왈 닐탐롱 | 1977 |
| 장영혜중공업 | 1999 |
| 정서영 | 1964 |
| 정은영 | 1974 |
| 제로지겐/가토 요시히로 | 1963 |
| 제시 존스 | 1978 |
| 조해준, 이경수 | 2005 |
| 주재환 | 1941 |
| 쯔엉 꽁 뚱 | 1986 |
| 최민화 | 1954 |
| 최상일, 김지연 | 2014 |
| 최승훈 + 박선민 | 2003–2015 |
| 최원준 | 1979 |
| 최진욱 | 1956 |
| 타무라 유이치로 | 1977 |
| 프로펠러 그룹 | 2006 |
| 필라 마타 듀폰트 | 1981 |
| 호신텅 | 1986 |

**9회 비엔날레 ('16)**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강이룬 & 고아침 & 소원영 | 2016 |
| 구수현 | 1983 |
| 김실비 | 1981 |
| 김옥선 | 1967 |
| 김익현 | 1985 |
| 김주현 | 1965 |
| 김지영 | 1986 |
| 김희천 | 1989 |
| 나스티비셔스 | 2010 |
| 나타샤 니직 | 1967 |
| 노리미치 히라가와 | 1982 |
| 니나 카차두리안 | 1968 |
| 니콜라스 망간 | 1979 |
| 두웨인 링클레이터 | 1976 |
| 디네오 스샤 보파페 | 1981 |
| 로렌스 렉 | 1982 |
| 로빈스차일즈 + A.L. 스타이너 | 2016 |
| 마르게리트 위모 | 1986 |
| 말하는 미술 | 2015 |
| 무니라 알 솔 | 1978 |
| 문화살롱 공 | 2007 |
| 미하라 소이치로 | 1980 |
| 바젤 압바스 & 루안 아부라암 | 1983 |
| 박제성 | 1978 |
| 벤 러셀 | 1976 |
| 벤자 크라이스트 | 1975 |
| 빅 반 데르 폴 | 1994 |
| 사라 헨드렌 | 1973 |
| 샹탈 아커만 | 1950–2015 |
| 소냐 보멜 | 1980 |
| 신시아 마르셀 | 1974 |
| 신시아 마르셀 & 티아고 마타 마샤두 | 미상 |
| 아키히코 타니구치 | 1983 |
| 아흐마드 호세인 | 1981 |
| 안민욱 | 1982 |
| 에두아르도 나바로 | 1979 |
| 엘리스 셰퍼드 | 미상 |
| 올리버 라릭 | 1981 |
| 우고 론디노네 | 1964 |
| 우슬라 메이어 | 1970 |
| 이미래 | 1988 |
| 이반 나바로 | 1972 |
| 자넬레 무홀리 | 1971 |
| 장석준 | 1981 |
| 저우타오 | 1976 |
| 제인과 루이스 윌슨 | 1967 |
| 조나타스 지 안드라지 | 1982 |
| 주앙 마리아 구즈망 + 페드루 파이바 | 2011 |
| 주황 | 1964 |
| 차재민 | 1986 |

| | |
|---|---|
| 최태윤 | 1982 |
| 캐롤리 슈니먼 | 1939 |
|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2007 |
| 케망 와 레홀레레 | 1984 |
|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 1986 |
| 크리스틴 선 킴 | 1980 |
| 파트타임스위트 | 2013 |
| 피에르 위그 | 1962 |
| 한묵 | 1914–2016 |
| 함양아 | 1968 |
| 홍승혜 | 1959 |
| 황새둥지 | 2010 |

**10회 비엔날레 ('18)**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000간 | 2012 |
| 고연옥 & 잣 프로젝트 | 2018 |
| 구민자 | 1977 |
| 권병준 | 1971 |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2011 |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그니토 | 2018 |
| 김동찬 | 1982 |
| 김상돈 | 1973 |
| 김월식 + 무늬만 커뮤니티 | 2005 |
| 김현탁 | 1968 |
| 노경애 | 1971 |
| 댄 첸 | 1982 |
| 데이비드 하 | 1981 |
| 두샨 바록과 모노스콥 | 2004 |
| 디륵 플라이쉬만 | 1974 |
|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쿤치, 리드인 공동편집) | 2013 |
| 로렌 리 매카시 | 1987 |
| 루바 엘리엇 | 1988 |
| 류한길 | 1975 |
| 리슨투더시티 | 2009 |
| 리처드 G. 윌킨슨 | 1943 |
| 마리오 클링게만 | 1970 |
| 마이크 타이카 | 1982 |
| 모두의연구소(김승일) | 1975 |
| 미셸 보웬스 | 1958 |
| 미팅룸 | 2013 |
| 믹스라이스 | 2006 |
| 민성홍 | 1972 |
| 민세희 | 1975 |
| 민세희, 데이비드 하, 로렌 맥카시, 루바 엘리엇, 마리오 클링게만, 마이크 타이카, 모두의 연구소(김승일), 스캇 켈리 & 벤 폴킹호른, 신승백, 김용훈, 오스카 샤프 & 로스 구드윈, 정지훈, 진 코건, 최승준 | 2018 |
| 박연주 | 미상 |
| 박형준 | 1969 |
| 박형준, 리처드 윌킨슨, 미셸 보웬스, 케이트 라워스 | 2018 |
| 배남우 | 1977 |
| 보물섬 콜렉티브 | 미상 |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무중력지대 양천 | 2018 |
| 샘 라빈 | 1981 |
| 송민규 | 1981 |
| 스캇 켈리 & 벤 폴킹호른 | 2016 |
| 스털링 크리스핀 | 1985 |
| 신도시 | 2015 |
| 신승백 김용훈 | 2012 |
| 씨위드 | 2017 |
| 아담 하비 | 1981 |
| 아람 바톨 | 1972 |
| 아람 바톨, 나자 부텐도르프 | 2018 |
| 안건형 | 1976 |
| 애드버스터즈 미디어 재단 | 1989 |
| 애디 바겐크네히트 | 1981 |
| 양아치 | 1970 |
| 언매핑 유라시아 | 2017 |
| 에드 브라운 | 1982 |
| 에바/프랑코 마테스 | 1994 |
| 엘리사 지아디나 파파 | 1979 |
| 오스카 샤프 & 로스 구드윈 | 2016 |
| 윤원화, 윤지원 | 2018 |
| 은정태 | 1968 |
| 이그니토 | 1982 |
| 이소영 | 1974 |
| 인민의 아카이브 | 2017 |
|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 2003 |
| 정기현 | 1964 |
| 정재철 | 1959 |
| 정지훈 | 1970 |
| 제레미 베일리 | 1979 |
| 진 코건 | 1985 |
| 최성일 · 리케 글라저 | 2018 |
| 최진요 | 1982 |
| 최하늘 | 1991 |
| 케이트 라워스 | 1970 |
|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 1987 |
| 탁영환 · 이경남 | 2018 |
| 팩토리 콜렉티브 | 2018 |
| 프로젝트 코버 | 미상 |
| 하석준 | 1971 |
| 허윤경 | 1986 |
| 황경현 | 1990 |
| kook + | 2017 |

**11회 비엔날레 ('21)**

| 작가명/팀명 | 생년/결성–몰년/해체 |
|---|---|
| 강상우 | 1983 |
| 고등어 | 1984 |
| 김민 | 1992 |
| 라이프 오브 어 크랩헤드 | 2006–2020 |
| 류한솔 | 1989 |
| 리랴오 | 1982 |
| 리우추앙 | 1979 |
| 리처드 벨 | 1953 |
| 림기옹 | 1964 |
| 무니라 알 카디리 | 1983 |
| 미네르바 쿠에바스 | 1975 |
| 바니 아비디 | 1971 |
| 브리스 델스페제 | 1972 |
| 사라 라이 | 1983 |
| 샤론 헤이즈 | 1970 |
| 쉬쩌위 | 1985 |
| 씨씨 우 | 1989 |
| 아마츄어 증폭기 | 1974 |
| 아이사 혹슨 | 1986 |
| 야마시로 치카코 | 1976 |
| 올리버 라릭 | 1981 |
| 왕하이양 | 1984 |
| 요한나 빌링 | 1973 |
| 유리 패티슨 | 1986 |
| 장영혜중공업 | 1999 |
| 장윤한 | 1985 |
| 정금형 | 1980 |
| 취미가×워크스 | 2021 |
| 치호이 | 1977 |
| 탈라 마다니 | 1981 |
| 토비아스 칠로니 | 1973 |
| 폴 파이퍼 | 1966 |
|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 2006 |
| 필비 타칼라 | 1981 |
| 하오징반 | 1985 |
| 합정지구 | 2015 |
| 헨리케 나우만 | 1984 |
| 홍진훤 | 1980 |
| C-U-T | 2021 |
| DIS | 2010 |
| ONEROOM | 2017 |

# 참여자 목록 - 전시와 프로그램

**참여자 총계**

| 분류 | 참여자 (단위: 명) |
|---|---|
| 전시와 프로그램 | 528 |
| 출판 | 281 |
| 위원 | 184 |
| **총** | **976** |

**도시와 영상 1 ('96)**

| | | |
|---|---|---|
| 서울시 |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 김상범 |
| | 문화관광국 문화관광정보개발팀장 | 김기선 |
|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진행 | 황성옥 |
| | 큐레이터 | 김진하 |
| | | 박삼철 |
| | | 이섭 |
| | | 이주헌 |
| | 기획팀 보조 큐레이터 | 배영환 |
| | 기획팀 아트디렉터 | 홍순철 |
| | 기획팀 기술디렉터 | 장형재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주)위가건축 |
| | 포스터 디자인 | 안상수 |
| | 컴퓨터 작업 | 김세나 |
| | | 이혜란 |
| | 원색 분해 | 그래픽코리아 |

**도시와 영상 2 ('98)**

| | | |
|---|---|---|
| 서울시 | 문화관광국장 | 김우석 |
|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진행 | 황성옥 |
| | 행정 | 황진구 |
| | 큐레이터 | 이영철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주)위가건축 |
| | 촬영 | 민인기 |
| | 인터뷰 | 김세준 |

**도시와 영상 3 ('99)**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유준상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황성옥 |
| | 관리과장 | 정군태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주)위가건축 |
| | 사진 기록 | 팔과 이분의 일(이성재) |

**1회 비엔날레 ('00)**

| | | |
|---|---|---|
| 서울시 | 문화관광국장 | 최령 |
| | 문화관광국 문화정책팀장 | 유한홍 |
|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진흥팀장 | 이충세 |
|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진흥팀 | 김철수 |
| | | 박현용 |
| | | 송명자 |
| | | 신광수 |
| | | 윤미정 |
| | | 임근호 |
| | | 최상원 |
| | | 최선미 |
| | 문화관광국 문화사업개발팀장 | 김용원 |
| | 문화관광국 문화환경조성팀장 | 윤기환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유준상 |
| | 전시과 코디네이터 | 정다은 |
| | 총감독 | 송미숙 |
| | 큐레이터 | 바바라 런던 |
| | | 박신의 |
| | | 유병학 |
| | | 장창익 |
| | | 제레미 밀러 |
| |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
| |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획조정실장 | 최동윤 |
| | 총무팀장 | 박대우 |
| | 총무팀 | 권종봉 |
| | | 김명진 |
| | | 김영선 |
| | | 민경남 |
| | | 한우석 |
| | 전시1팀장 | 박규형 |
| | 전시1팀 | 김미라 |
| | | 김은수 |
| | | 김희진 |
| | | 문루시 |
| | | 이근용 |
| | | 이리아 |
| | | 정형탁 |
| | 전시2팀장 | 정동윤 |
| | 전시2팀 | 김희영 |
| | | 박지수 |
| | | 이윤구 |
| |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 | 안상수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전시형 |
| | 전시 인테리어 | 조&어쏘시에트 |
| | 기술지원팀 | 김형중 |
| | | 이정성 |
| | 기술 | 아트마스트 |
| | 미디어 장비 | (주)대륙미디어 |
| |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국 행정지원실장 | 이치우 |
| | 행사운영팀장 | 윤병세 |
| | 행사운영팀 | 김광두 |
| | | 김종천 |
| | | 최성갑 |

| | |
|---|---|
| | 최중덕 |
| 운송 및 설치 | 한진 |
| 행사장 시설물 설치 | (주)한양테크 |
| 인력 및 행사장 운영 | (주)카오스 |
| 예산회계팀장 | 김동구 |
| 예산회계팀 | 신상균 |
| | 최재관 |
| 수익사업팀장 | 박정하 |
| 수익사업팀 | 김봉수 |
| | 서경애 |
| | 정승연 |
| 홍보팀장 | 이회승 |
| 홍보팀 | 김진희 |
| | 문혜영 |
| | 박선혜 |
| | 송진화 |
| | 장승순 |
| | 한미애 |
| 광고 대행 | LG 애드 & KBS |
| | 영상사업단 |
| 해외홍보 | Blue Medium |
| 시설관리팀 | 김경현 |
| | 박영재 |
| | 이상권 |
| 개막 공연 | MBC 미디어텍 |
| 서울 포라 2000 | 서울시립대학교 |
| 청소년 디지털 문화제 | (주)디지틀조선일보 |
| VRST 2000 | VRST 협회 |
| 입장권 판매 | (주)지구촌 |
| | 정보문화써비스 |
| | 한빛은행 |
| 기념품 | 한국관광명품전 |
| 구내 식당 운영 | 맨하탄 |
| 식음료 판매 | (주)대상 |
| | (주)롯데칠성 |

**2회 비엔날레 ('02)**

| | |
|---|---|
| 전시총감독 | 이원일 |
| 협력 큐레이터 | 구나란 나다라잔 |
| | 그레고르 얀슨 |
| | 마리 드 브루게롤 |
| | 마이클 코헨 |
| | 아즈마야 타카시 |
| | 킴 마찬 |
| | 황두 |
| 심포지엄 디렉터 | 김성희 |
| 심포지엄 협력 디렉터 | 낸시 바튼 |
| 심포지엄 코디네이터 | 송민아 |
| 학예실장 | 이동연 |
| 전시팀장 | 최흥철 |
| 행사팀장 | 주현아 |
| 기획예산팀장 | 김동구 |
| 사업팀장 | 김승한 |
| 운영팀장 | 홍순도 |
| 운영팀 보조 | 함성언 |
| 국제협력팀장 | 로렌시나 화란트 리 |
| 국제협력팀 국내담당 코디네이터 | 강선주 |
| | 김은영 |
| | 이강산 |
| | 정세진 |
| 국제협력팀 국제담당 코디네이터 | 강여울 |
| | 배은아 |
| | 변홍철 |
| 국제협력팀 국내담당 코디네이터 보조 | 양민효 |
| 국제커뮤니케이션 | (주)로렌스 제프리스 |
| 홍보팀장 | 조소영 |
| 홍보팀 | 백윤경 |
| | 전지연 |
| 총괄 대행 | (주)아이디컴 |
| 기술 전문위원 | 김현중 |
| 기술지원 | 양상기 |
| 프로그래머 | 김홍일 |
| | 이성식 |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백윤령 |
| | 이지현 |
| 홈페이지 프로그래머 | 강무경 |
| 홈페이지 제작 | 김수정 |
| 디자인 개발 | 국민대학교 |
| | 테크노디자인대학원 |
| 나이트갤러리 뮤직 디렉터 | 이상용 |

**3회 비엔날레 ('04)**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하종현 |
| | 사무국장 | 김동구 |
| | 총무부장 | 김흥식 |
| | 총무부 | 김경호 |
| | | 위성현 |
| | | 전소록 |
| | | 주상일 |
| | 전시과장 | 박천남 |
| | 전시과 | 임근혜 |
| | 수집연구과장 | 전소록 |
| | 수집보존과장 | 정혁 |
| | 수집보존과 | 양귀영 |
| | 교육홍보과장 | 박중규 |
| | 교육홍보과 | 유수기 |
| | | 유정심 |
| | | 이말숙 |

| | | |
|---|---|---|
| | | 이진희 |
| | | 최철주 |
| | 전시총감독 | 윤진섭 |
| | 큐레이터 | 리즈 휴즈 |
| | | 요한 파인애플 |
| | | 한스 D. 크리스/ |
| | | 틸만 바움개르텔 |
| | 전시팀장 | 신보슬 |
| | 전시팀 코디네이터 | 라지웅 |
| | | 윤가혜 |
| | | 황록주 |
| | 전시운영팀장 | 김현중 |
| | 전시운영팀 | 손차혜 |
| | | 엄현수 |
| | 전시운영 협력 | SCS(이수연) |
| | 전시 공간 조성 | (주)미지아트(박근수) |
| | 운송 | (주)DHL 코리아(위찬) |
| | 사업개발팀장 | 손광훈 |
| | 사업개발팀 | 황승룡 |
| | 행사운영팀장 | 김지형 |
| | 행사운영팀 | 김경윤 |
| | | 김후남 |
| | | 오수정 |
| | 홍보팀장 | 이현민 |
| | 홍보팀 | 여인성 |
| | 인턴 | 노현정 |
| | | 유지영 |
| | | 이주연 |
| | 디자인 | (주)FRUM(한창호, 김수현, |
| | | 이성일, 박윤희, 이혜연) |

**4회 비엔날레 ('06)**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하종현 |
| | 사무국장 | 김동구 |
| | 총무부장 | 홍순화 |
| | 총무부 | 박연웅 |
| | | 박재원 |
| | | 주상일 |
| | | 지양수 |
| | | 최홍규 |
| | | 황성구 |
| | 총무예산팀 | 이범승 |
| | 전시과장 | 박천남 |
| | 전시팀장 | 황록주 |
| | 전시과 | 박파랑 |
| | | 이은주 |
| | 수집보존과장 | 정혁 |
| | 교육홍보과장 | 권순기 |
| | 교육홍보과 | 김성민 |
| | | 유정심 |
| | | 이진희 |
| | | 정유진 |
| | | 최정주 |
| | 코디네이터 | 윤가혜 |
| | | 이주연 |
| | 전시총감독 | 이원일 |
| | 큐레이터 | 레브 마노비치 |
| | | 유코 하세가와 |
| | | 이리스 마이어 |
| | | 피 리 |
| | 전시운영팀장 | 김현중 |
| | 전시운영팀 | 이기화 |
| | | 정재연 |
| | 행사운영팀장 | 정형탁 |
| | 행사운영팀 | 김연실 |
| | | 박진희 |
| | 사업개발팀장 | 이랑 |
| | 사업개발팀 | 송의진 |
| | | 이지영 |
| | 홍보팀장 | 박승애 |
| | 홍보팀 | 김선진 |
| | 인턴 | 백지은 |
| | | 이유진 |
| | 전시 운영 | (주)시월네트워크 |
| | | (이채관) |
| | 전시 인테리어 | (주)미지아트(박근수) |
| | 운송 및 설치 | (주)한솔BBK |
| | 미디어 장비 | (주)명성미디어 |
| | | (양동현, 강호성) |
| | 디자인 | 씨디자인(조혁준, |
| | | 김미성, 강영) |
| | 번역 | 정은혜 |

**5회 비엔날레 ('08)**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유희영 |
| | 상임위원 | 김동구 |
| | 경영지원부장 | 이희승 |
| | 총무과장 | 서석일 |
| | 전시과장 | 장민한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이주연 |
| | | 최홍철 |
| | 코디네이터 | 김원영 |
| | | 박하나 |
| | | 유소영 |
| | | 최은정 |
| | 수집보존과장 | 정혁 |
| | 교육홍보과장 | 전재선 |
| | 총감독 | 박일호 |

| | | |
|---|---|---|
| | 큐레이터 | 라울 자무디오 |
| | | 마르텐 베르데 |
| | | 안드레아즈 브뢰크만 |
| | | 토루 마츠모토 |
| | 인턴 | 고민경 |
| | | 김하나 |
| | 전시 운영 및 홍보 | (주)비티엘케이(이미정) |
| | | (주)판컴(한송이) |
| | 전시 공간 조성 | (주)미지아트(박근수) |
| | | (주)올리브컴인터내셔날 |
| | | (허정, 기보미, 이지혜) |
| | 전시 조성 | (주)멀티싱크(엄현수) |
| | 디자인 | (주)바이널(조홍래, |
| | | 조영호) |
| | 운송 및 설치 | (주)한솔BBK |
| | 운영 및 홍보 | CJ 미디어(목명균, |
| | | 황혜자, 이희원) |

**6회 비엔날레 ('10)**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유희영 |
| | 경영지원부장 | 임질택 |
| | 학예연구부장 | 이수균 |
| | 총무과장 | 김승진 |
| | | 이윤근 |
| | 전시과장 | 장민한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정효임 |
| | | 최관호 |
| | | 한병길 |
| | 수집보존과장 | 정혁 |
| | 교육홍보과장 | 곽태수 |
| | | 이석환 |
| | 총감독 | 김선정 |
| | 협력 큐레이터 | 니콜라우스 |
| | | 샤프하우젠 |
| | | 클라라 킴 |
| | | 후미히코 수미토모 |
| | 코디네이터 | 권주연 |
| | | 김나정 |
| | | 김난영 |
| | | 이유진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최춘웅 |
| | 전시 공간 조성 | (주)지온 아트 앤 디자인 |
| | 기술지원 | (주)멀티텍 |
| |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 | 스튜디오 람블/ |
| | | 홈부르거 |
| | 번역 | 김태현 |
| | | 엄미정 |
| | | 정희은 |
| | 자막 | 김혜경 |
| | | 홍승범 |
| | 오디오가이드 내레이션 | 김지은 |
| | | 존-제임스 호드슨 |
| | 운영 및 홍보 | (주)두미르 |
| | | 배은아 |
| | 해외 홍보 | 나탈리 하르트예스 |
| | 운송 | (주)엘앤비 파인아트 |
| | 프로듀싱 | miiruu |
| | 웹사이트 프로젝트 | 리하르트 페이헌 |
| | | 박재용 |

**7회 비엔날레 ('12)**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김홍희 |
| | 경영지원부장 | 임질택 |
| | 학예연구부장 | 최승훈 |
| | 총무과장 | 김승진 |
| | 전시과장 | 조진근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이기모 |
| | | 정효임 |
| | 교육홍보과장 | 김동원 |
| | 수집연구과장 | 정혁 |
| | 전시총감독 | 유진상 |
| | 협력 큐레이터 | 올로프 반 빈든 |
| | | 유키코 시카타 |
| | | 최두은 |
| | 코디네이터 | 김소원 |
| | | 문다운 |
| | | 정혜연 |
| | 코디네이터, 자막 번역 | 민유진 |
| | | 이지원 |
| | | 조주리 |
| | 테크니션 | 전영우 |
| | 작품제작지원 | 강성재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주)글로벌컴스 |
| | 기술지원 | (주)멀티텍 |
| | 번역 감수 | 안천 |
| | 영상 편집 | 박재민 |
| | 자막 번역 | 윤혜영 |
| | | 이덕균 |
| | 자막 및 홍보영상 제작 | 강윤지 |
| | | 이민 |
| | | 최상웅 |
| | 운영 및 홍보 | (주)에이지아이 |
| | | 소사이어티 |
| | 홍보 대행 | (주)쥬스컴퍼니 |
| | 운송 및 설치 | (주)한솔BBK |
| | 웹사이트 개발 | (주)스트로우 |
| | DMC 프로그램 진행 | 김현지 |

**8회 비엔날레 ('14)**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김홍희 |
| | 경영지원부장 | 김정회 |
| | | 정창훈 |
| | 학예연구부장 | 선승혜 |
| | 총무과장 | 최관호 |
| | 전시과장 | 임근혜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유민경 |
| | | 이성규 |
| | 교육홍보과장 | 유수기 |
| 한국영상자료원 | 원장 | 이병훈 |
| | 한국영화사연구소 부장 | 조준형 |
| | 한국영화박물관 큐레이터 | 이주영 |
| | 영사 | 손준호 |
| | | 임윤홍 |
| | 시네마테크 KOFA 프로그래머 | 모은영 |
| | 자막 | 시네서브자람 |
| | 예술감독 | 박찬경 |
| | 전시팀장 | 장혜진 |
| | 전시팀 코디네이터 | 김소영 |
| | | 이루리 |
| | | 이선유 |
| | | 이현인 |
| | 전시팀 극장상영 코디네이터 | 박소현 |
| | | 신은실 |
| | 전시 인턴 | 강준기 |
| | | 박도욱 |
| | | 신새록 |
| | | 이길재 |
| | | 이선주 |
| | | 장혜림 |
| | | 정병욱 |
| | 전시인턴, 홍보팀 소셜미디어 매니저 | 정채현 |
| | 홍보팀장 | 심아빈 |
| | | 유주연 |
| | 홍보팀 코디네이터 | 김혜영 |
| | | 김혜진 |
| | 홍보팀 퍼블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고아라 |
| | 홍보 | CJ E&M |
| | 테크니션 | 김경호 |
| | 기술지원 | (주)멀티텍 |
| | 시각 아이덴티티 및 그래픽 디자인 | 이현 |
| | | 정진열 |
| | 번역 | 김솔하 |
| | | 김정복 |
| | | 김정혜 |
| | | 김지평 |
| | | 김진희 |
| | | 이경희 |
| | | 이미래 |
| | 자막 제작 | 이미지줌 |
| | 자막 번역, 오디오가이드 스크립트(영문) | 박재용 |
| | 레즈스트라 | 이유진 |
| | 트레일러 제작 | 장영혜중공업 |
| | 웹 디자인 | 김형재 |
| | | 홍은주 |
| | 전시 공간 조성 | (주)글로벌컴스 |
| | 전시 가구 디자인 | 킷-토스트 |
| | 전시 공간 디자인 자문 | 이미경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안정만 |
| | | 전용석 |
| | 운송 및 설치 | (주)한솔BBK |
| | 오디오가이드 내레이션 | 박해일 |
| | | 최희서 |
| | 오디오가이드 스크립트(국문) | 우아름 |
| | 오디오가이드 사운드 디자인 | 강이다 |
| | 보험 | LIG 손해보험 |

**9회 비엔날레 ('16)**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김홍희 |
| | 경영지원부장 | 권영섭 |
| | 학예연구부장 | 백기영 |
| | 총무과장 | 황차호 |
| | 전시과장 | 임근혜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권진 |
| | | 유민경 |
| | 전시과 행정 | 허은정 |
| | 전시과 코디네이터 | 김수연 |
| | | 김유란 |
| | | 도민선 |
| | | 송고운 |
| | | 이지희 |
| | 수집연구과장 | 최관호 |
| | 교육홍보과장 | 유수기 |
| | 교육홍보과 학예연구사 | 변지혜 |
| | 예술감독/큐레이터 | 백지숙 |
|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이지원 |
| | 프로덕션/프로그램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이성민 |
| | 출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강유미 |
| | 코디네이터 | 김정현 |
| | | 장단 |
|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김난영 |
| | | 서새롬 |
| | 프로덕션/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박은혜 |
| | | 허미석 |
| | 인턴 | 강다영 |
| | | 김보윤 |

| | |
|---|---|
| | 김인오 |
| | 변수진 |
| | 송주호 |
| | 이예은 |
| | 이정민 |
| | 임지연 |
| | 정화연 |
| | 최혜원 |
| | 탁영건 |
| | 함은영 |
| 테크니션 | 김경호 |
| | 박이현 |
| 장비 | (주)멀티텍 |
| 전시 공간 디자인 | 힐긋(선보성, 이창석) |
| 『그런가요』 전시 공간 디자인 | COM(김세중, 한주원) |
| 전시 공간 조성 | (주)지아이플랜 |
| | 제이비컴 |
| 그래픽 디자인 | 매트 프랙티스 |
| | (강이룬, 어민선) |
| 사진 및 영상 기록 | 김익현 |
| | 홍철기 |
| 자막 제작 | 슈가솔트페퍼 |
| | 인터즈 |
| 자막 번역 | 고아침 |
| | 곽재은 |
| | 김정혜 |
| | 김해주 |
| | 남하나 |
| | 박혜연 |
| | 신현진 |
| | 유지원 |
| | 이연식 |
| | 정윤희 |
| | 정주영 |
| |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
| 운영총괄 | 티팟 |
| 작가지원 | 이알 |
| PR 매니저 | 이유진 |
| 홍보마케팅 | 그레이월 |
| 운송 및 설치 | (주)동부아트 |
| | 현대파인아트 |
| 오디오가이드 내레이션 | 윤여정 |
| 오디오가이드 스크립트 | 조은수 |
| 오디오가이드 사운드 디자인 | 이민휘 |
| 트레일러 제작 | 차재민 |
| 보험 | KB 손해보험 |

**10회 비엔날레 ('18)**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직무대리 | 유병홍 |
| | 학예연구부장 | 백기영 |
| | 총무과장 | 황차호 |
| | 전시과장 | 고원석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권진 |
| | | 윤민화 |
| | | 전소록 |
| | 전시과 행정 | 오윤경 |
| | | 한문희 |
| | 전시과 코디네이터 | 남원정 |
| | | 장해림 |
| | 교육홍보과장 | 유수기 |
| | 교육홍보과 학예연구사 | 김정아 |
| | | 김채하 |
| | 수집연구과장 | 홍승주 |
| | 예술감독 콜렉티브 | 김남수 |
| | | 김장언 |
| | | 임경용 |
| | | 홍기빈 |
|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김시습 |
| | | 배예임 |
| | | 정선희 |
| | | 조우리 |
| | 코디네이터 | 김관희 |
| | | 김민경 |
| | | 나기현 |
| | | 박주원 |
| | | 손경민 |
| | | 채승미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조재원(공일스튜디오) |
| | 전시 공간 조성 | 디자인본 |
| | 그래픽 디자인 | 박연주 |
| | 그래픽 디자인 도움 | 이유정 |
| | 번역 | 김솔하 |
| | | 김정혜 |
| | | 문가별 |
| | | 송미경 |
| | | 이경희 |
| | 자막 제작 | 투미너스 |
| | 사진 및 영상 기록 | 스튜디오 수직수평 |
| | | (유용지+홍철기) |
| | 웹 프로그래밍 | 홍진원 |
| | 운영총괄 | (주)시월 |
| | 장비/테크니션 | (주)멀티텍 |
| | 운송 및 설치 | (주)동부아트 |
| | 보험 | 에이스손해보험 |

**11회 비엔날레 ('21)**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백지숙 |
| | 경영지원부장 | 박태주 |
| | | 이상국 |
| | 학예연구부장 | 김희진 |
| | 프로젝트 디렉터 | 권진 |
| | 총무과장 | 김기용 |
| | | 이영순 |
| | 총무과 시설팀장 | 신현성 |
| | 총무과 시설팀 | 김종민 |
| | | 이진섭 |
| | | 이호완 |
| | | 천성욱 |
| | | 최수길 |
| | | 최연식 |
| | | 한선호 |
| | | 허정민 |
| | 총무과 행정 | 김지은 |
| | | 박창현 |
| | 총무과 방호 | 노영규 |
| | | 유영범 |
| | | 정인철 |
| | 총무과 방호 공공안전관 | 권은지 |
| | | 장지혜 |
| | | 조현기 |
| | 전시과장 | 고원석 |
| | 전시과 학예연구사 | 이보배 |
| | | 이지민 |
| | 전시과 행정 | 김현 |
| | | 성민관 |
| | 교육홍보과장 | 봉만권 |
| | | 송은숙 |
| | 교육홍보과 | 유수경 |
| | | 이성민 |
| | | 이연미 |
| | | 이은주 |
| | | 정지혜 |
| | 교육홍보과 실무관 | 권지은 |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운영부장 | 백기영 |
| | 운영과장 | 오근 |
| | 학예과장 | 서주영 |
| 서울시립미술관 후원회 세마인 | 실장 | 현선영 |
| | 예술감독 | 용 마 |
| | 협력 큐레이터 | 이지원 |
| | |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
|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김신재 |
| | | 송주연 |
| | | 유지원 |
| | | 장해림 |
| | | 허미석 |
| | 프로젝트 매니저 | 이문석 |
| | 코디네이터 | 박시내 |
| | | 이시재 |
| | | 황남웅 |
| | 감독 어시스턴트 | 정선주 |
| | 기술감독 | 김경호 |
| | 운영 및 홍보 | (주)얼트씨 |
| | 전시 공간 디자인 | 이용재아키텍츠 |
| | 전시 공간 조성 | (주)주성디자인랩 |
| | 운송 및 설치 | (주)다산TNL |
|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오운 |
| | 자막 제작 | 슈가솔트페퍼 |
| | 미디어 장비 | (주)만리아트메이커스 |
| | 그래픽 디자인 | 워크숍스×파크-랭거 |
| | 영문 에디터 | 앤드류 머클 |
| | 사진 기록 | 글림워커픽쳐스 |
| | 트레일러 제작 및 영상 기록 | 스튜디오 S2 |

**12회 프리비엔날레 ('22)**

| | | |
|---|---|---|
| 서울시립미술관 | 관장 | 백지숙 |
| | 학예연구부장 | 김희진 |
| | 전시과장 | 고원석 |
| | 프로젝트 디렉터 | 권진 |
| | 전시과 행정 | 문평온 |
|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박시내 |
| | | 이문석 |
| | 수집연구과장 | 전소록 |
| | 수집연구과 학예연구사 | 김민선 |
| | | 김서현 |
| | | 한지숙 |
| | 교육홍보과장 | 봉만권 |
| | 교육홍보과 학예연구사 | 이진 |
| | | 유수경 |
| | 교육홍보과 | 김지수 |
| | | 이은주 |
| | | 차현지 |
| | 총무과장 | 이영순 |
| | 시설팀장 | 신현성 |
| | 총무과 시설팀 | 박도복 |
| | | 허정민 |
| | 총무과 방호 | 이현섭 |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 시설관리 | 임동근 |
| 서울시립미술관 후원회 세마인 | 실장 | 현선영 |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 오운 |

# 참여자 목록 - 출판

**도시와 영상 1 ('96)**

| | | |
|---|---|---|
| 도록 | 편집 디자인 | 김진하 |
| | | 이섭 |

**도시와 영상 2 ('98)**

| | | |
|---|---|---|
| 도록 | 발행인 | 고건 |
| | 편집인 | 김우석 |
| | 번역 | 이영준 |
| | 디자인, 자료 수집 | 가슴시각개발연구소 |
| | 디자인 | 박활민 |
| | 제작 진행 | 황성옥 |
| | 사진 기록 | 김상길 |
| | 자료 수집 | 김상화 |
| | 문화과장 | 박경만 |
| | 팀장 | 정군태 |
| | 인쇄 | (주)조광출판인쇄 |

**도시와 영상 3 ('99)**

| | | |
|---|---|---|
| 도록 | 발행인 | 고건 |
| | 편집인 | 유준상 |
| | 영문 번역 | 백종화 |
| | 디자인 | (주)위가건축 |
| | 인쇄 | 태웅문화사 |

**1회 비엔날레 ('00)**

| | | |
|---|---|---|
| 도록 | 번역 | 김옥분 |
| | | 김제민 |
| | | 박남희 |
| | | 이영준 |
| | | 조수진 |
| | | 천수원 |
| | 디자인 제작 | 관훈기획 |
| | 북 디자인 | 김호근 |
| | 인쇄 | (주)평화당인쇄 |

**2회 비엔날레 ('02)**

| | | |
|---|---|---|
| 도록 | 편집 | 이원일 |
| | 편집 진행 | 김은영 |
| | | 양민효 |
| | | 이강산 |
| | | 이동연 |
| | 디자인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

**3회 비엔날레 ('04)**

| | | |
|---|---|---|
| 도록 | 발행인 | 이명박 |
| | 편집인 | 하종현 |

**4회 비엔날레 ('06)**

| | | |
|---|---|---|
| 도록 | 발행인 | 오세훈 |
| | 편집인 | 하종현 |

**5회 비엔날레 ('08)**

| | | |
|---|---|---|
| 도록 | 발행인 | 오세훈 |
| | 편집인 | 유희영 |

**6회 비엔날레 ('10)**

| | | |
|---|---|---|
| 도록 | 발행인 | 오세훈 |
| | 편집인 | 유희영 |
| | 편집 진행 | 배은아 |
| | | 앤디 세인트 루이스 |
| | | 이성민 |
| | 필자 | 권주연 |
| | | 김나정 |
| | | 김난영 |
| | | 김선정 |
| | | 김영하 |
| | |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
| | | 라이언 이누에 |
| | | 잘랄 투픽 |
| | | 정효임 |
| | | 최관호 |

| | | |
|---|---|---|
| | | 클라라 킴 |
| | | 후미히코 수미토모 |
| | 번역 | 강여울 |
| | | 권진 |
| | | 김정복 |
| | | 김지영 |
| | | 문혜진 |
| | | 박재용 |
| | | 송미경 |
| | | 에바 후텐라우크 |
| | | 이경진 |
| | | 이웅건 |
| | | 파멜라 미키 |
| | 한글 감수 | 김수기 |
| | 영문 감수 | 로라 이와사키 |
| | 그래픽 디자인 | 슬기와 민 |
| | | 인진성 |

**7회 비엔날레 ('12)**

| | | |
|---|---|---|
| 도록 | 발행인 | 박원순 |
| | 편집인 | 김홍희 |
| | 필자 | 오리트 할펀 |
| | | 올로프 반 빈든 |
| | | 유진상 |
| | | 유키코 시카타 |
| | | 최두은 |
| |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
| | 번역 | 권진 |
| | | 김솔하 |
| | | 김현지 |
| | | 문혜진 |
| | | 이덕균 |
| | | 이승민 |
| | | 이웅건 |
| | | 이지원 |
| | | 조주리 |
| | 번역 감수 | 안천 |
| | 번역 및 영문 감수 | 민유진 |
| | | 토드 샘플 |
| | 디자인 | (주)에이지아이 소사이어티 |

**8회 비엔날레 ('14)**

| | | |
|---|---|---|
| 도록 | 발행인 | 김홍희 |
| | 책임 편집 | 박찬경 |
| | 편집 | 구정연 |
| | 편집, 번역 | 김정혜 |
| | 번역 | 김현경 |
| | | 박재용 |
| | 교정·교열 | 김수기 |
| | 영문 감수 | 로버트 라일스 |
| | 디자인 | 문민주 |
| | | 정진열 |
| 단행본 『귀신 간첩 할머니 - 근대에 맞서는 근대』 | 발행인 | 김홍희 |
| | 발행인, 번역 | 김수기 |
| | 책임 편집, 필자 | 박찬경 |
| | 편집 | 구정연 |
| | | 김정혜 |
| | 필자 | 고이즈미 요시유키 |
| | | 공선옥 |
| | | 권헌익 |
| | | 김금화 |
| | | 김용언 |
| | | 다지마 마사키 |
| | | 리앙 |
| | | 문강형준 |
| | | 박노자 |
| | | 베르톨트 브레히트 |
| | | 션 스나이더 |
| | | 아파찻퐁 위라세타쿤 |
| | | 왕후이 |
| | | 이용우 |
| | | 조한혜정 |
| | | 한선희 |
| | 번역 | 김현경 |
| | | 문영민 |
| | | 박재용 |
| | | 아담 보네 |
| | | 존 모리스 |
| | | 테일러 스토어 |
| | | 피오나 거(허 샤오) |
| | 영문 감수 | 강유미 |
| | 교정·교열 | 현실문화연구 |
| | 디자인 | 정진열 |
| | 사진 | 김중원 |
| | | 양철모 |
| | 사진 기록 | 홍철기 |

**9회 비엔날레 ('16)**

| | | |
|---|---|---|
| 도록 | 발행인 | 김홍희 |
| | 편집, 필자 | 길예경 |
| | | 백지숙 |
| | | 이성민 |
| | 편집, 번역 | 이지원 |
| | 편집 | 강유미 |
| | 필자 | 게이코 세이 |
| | | 마정연 |
| | | 미겔 로페즈 |
| | | 유시 파리카 |
| | | 장문정 |
| | | 최태윤 |
| | | 치무렝가(응토네 에자베) |
| | | 클레어 에번스 |
| | | 티모시 모튼 |
| | | 파울 파이글펠트 |
| | | 함양아 |
| | 번역 | 고아침 |
| | | 김정혜 |
| | | 김지연 |
| | | 이경희 |
| | 영문 감수 | 다이애나 마리 린턴 |
| | | 손한나 |
| | 디자인 | 매스프랙티스(강이룬, 어민선) |
| | 인쇄 | (주)으뜸 프로세스 |
| 비정기 간행물 『그런가요』 1호 | 발행인 | 김홍희 |
| | 책임 편집 | 길예경 |
| | 편집 | 강유미 |
| | 필자 | 구정연 |
| | | 김영수 |
| | | 박샤라폽 |
| | | 박현정 |
| | | 신인아 |
| | | 우아름 |
| | | 윤향로 |
| | | 융기 |
| | | 정주영 |
| | | 차재민 |
| | | 현시원 |
| | | 호키포키 |
| | 필자, 한영 번역 | 윤원화 |
| | 한영 번역 | 고아침 |
| | | 김하연 |
| | | 리즈 박 |
| | | 미키 송 |
| | 영문 감수 | 에스더 유 |
| | 디자인 | 장문정 |
| | | 장승아 |

| | | |
|---|---|---|
| 비정기 간행물 『그런가요』 2호 | 발행인 | 김홍희 |
| | 책임 편집, 필자 | 게이코 세이 |
| | 편집 | 강유미 |
| | 필자 | 도유림(푸요) |
| | | 박정혜(정혜) |
| | | 성지윤(찌루) |
| | | 오다향(야니) |
| | | 주요한(아미) |
| | 디자인 | 장문정 |
| | | 장승아 |
| | 번역 | 곽재은 |
| | 한영 번역 | 가브리엘 문 |
| | | 김하연 |
| | | 이경희 |
| | 일한 번역 | 이연식 |
| | 일영 번역 | 나오키 마츠야마 |
| | 영문 감수 | 에스더 유 |
| | 교정 | 바르샤 나이르 |
| 비정기 간행물 『그런가요』 3호 | 발행인 | 김홍희 |
| | 책임 편집 | 치무렝가(응토네 에자베) |
| | 선임 편집 | 봉가니 코나 |
| | | 스테이시 하디 |
| | 편집 | 강유미 |
| | 온라인 편집 | 린도쿨레 은코시 |
| | 편집 지원 | 노엘 크리스 |
| | | 이예은 |
| | 편집 기자 | 아킨 아데소칸 |
| | 감수 | 로다 아이작스 |
| | | 코넬리아 놀 |
| | 필자 | 낸시 로즈 헌트 |
| | | 네이티브 마카리 |
| | | 니킬 싱 |
| | | 런던 캄웬도 |
| | | 로이소 음키제 |
| | | 마이클 A. 곤잘레스 |
| | | 맥 매길 |
| | | 모 하산 |
| | | 브리즈 요코 |
| | | 사라 라프키 |
| | | 지미 레이지 |
| | | 카르스텐 횔러 |
| | | 캐서린 아냔고 |
| | | 텐지웨 은코시 |
| | | 퓨믈레 에이프릴 |
| | | 프란시스 버거 |
| | | 후세인 나시르 살리 |
| | 필자, 편집 기자 | 모제스 뫼르츠 |
| | 번역 | 곽재은 |
| | | 아흐메드 알-나와즈 |

| | | |
|---|---|---|
| | 디자인 | 빈센트 플리슨 |
| | | 이민정 |
| | | 장문정 |
| | 그래픽 및 편집 디자인, 필자 | 그레임 아렌제 |
| | 교정·교열 | 안드레아 미슨 |
| | | 카렌 프레스 |
| | 인쇄 | (주)으뜸프로세스 |
| | 행정 지원 | 닐라 사바 |
| | | 두두 라몰라 |
| | 판매 및 배급 | 테레사 아유기 |
| | | 팸 룽와나 |
| 비정기 간행물 『그런가요』 4호 | 발행인 | 김홍희 |
| | 책임 편집 | 미겔 로페즈 |
| | 편집 | 강유미 |
| | 편집 지원 | 이예은 |
| | 필자 |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 |
| | | 세실리아 비꾸냐 |
| | |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 |
| | | 외뷸 드르무족루 |
| | | 윌슨 디아즈 |
| | | 자불라니 첸 페레이라 |
| | | 조이 레너드 |
| | | 줄리아 브라이언-윌슨 |
| | | 쥐세페 캄푸자노 |
| | | 카를로스 모타 |
| | 영한 번역 | 김정혜 |
| | 디자인 | 이정민 |
| | | 장문정 |
| 가이드북 | 발행인 | 김홍희 |
| | 번역 | 고아침 |
| | | 김정혜 |
| | | 김하연 |
| | | 이경희 |
| | 영문 감수 | 로버트 라일스 |
| | 디자인 | 매스프랙티스(강이룬, 어민선) |
| 단행본 『모두의 학교 〈더 빌리지〉 프로젝트』 | 편집 | 구정연 |
| | | 이성민 |
| | | 이한범(미디어버스) |
| | | 허미석 |
| | 필자 | 권병준 |
| | | 노경애 |
| | | 마리안느 플로트롱 |
| | | 모두의 부엌 |
| | | 박소현 |
| | | 벌레벌레배급(blblbg) |
| | | 사샤 카라리취 |
| | | 신현진 |
| | | 파스칼 길렌 |
| | | 함양아 |
| | | 행크 슬래거 |
| | | 황젠홍 |
| | 필자, 인터뷰 | 게이코 세이 |
| | 인터뷰 | 김현정 |
| | | 센 칭 카이 |
| | | 후세인 알리 네신 |
| | 번역 | 김민아 |
| | | 우현정 |
| | 디자인 | 헤이조(조현열) |
| | 사진 기록 | 김익현 |
| | | 홍철기 |
| | 인쇄·제책 | 스크린그래픽 |

**10회 비엔날레 ('18)**

| | | |
|---|---|---|
| 도록 | 발행인 | 유병홍 |
| | 기획 | 김남수 |
| | | 김장언 |
| | | 임경용 |
| | | 홍기빈 |
| | 편집 | 강유미 |
| | | 남원경 |
| | | 박주원 |
| | 번역 | 김솔하 |
| | | 김정혜 |
| | | 김하연 |
| | | 문가별 |
| | | 송미경 |
| | | 이경희 |
| | 디자인 | 박연주 |
| | 사진 기록 | 스튜디오 수직수평 (유용지 + 홍철기) |
| | 인쇄 | (주)금강인쇄 |

**11회 비엔날레 ('21)**

| | | |
|---|---|---|
| 도록 | 발행인 | 백지숙 |
| | 필자 | 융 마 |
| | 편집 | 이정민 |
| | 편집, 필자 | 이지원 |
| | 영문 편집 | 앤드류 머클 |
| | 편집 보조 | 장해림 |
| | 필자 | 미묘 |
| | | 웨슬리 모리스 |
| | | 이푸 투안 |
| | | 켈리 코놀리 |
| | |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
| | | 폴 B. 프레시안도 |
| | 한영 번역 | 김현정 |
| | | 박연수 |

| | | |
|---|---|---|
| | | 콜린 모엣 |
| | 한영/영한 번역 | 고아침 |
| | 영한 번역 | 손세희 |
| | | 신현주 |
| | | 조응주 |
| | 불한 번역 | 목정원 |
| | 디자인 | 워크숍스×파크-랭거 |
| | 사진 기록 | 글림워커픽쳐스 |
| | 인쇄 및 제본 | (주)으뜸 프로세스 |
| 뉴스레터 『노선도』 | 발행인 | 백지숙 |
| | 기획 및 집필 | 서울시립미술관(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 | 편집 | 이문석 |
| | 디자인 기획 | 워크숍스 |
| | 편집 디자인 | 얼트씨 |
| 뉴스레터 『노선도』 4호 | 필자 | 1ssol23 |
| | | 고도 |
| | | 김민지 |
| | | 김종원 |
| | | 리머 |
| | | 서은 |
| | | 홍주은 |
| | | 홍준희 |

**12회 프리비엔날레 ('22)**

| | | |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996–2022 보고서』 | 발행인 | 백지숙 |
| | 글, 책임 편집 | 권진 |
| | 자료 정리, 편집 | 이문석 |
| | 자료 정리 | 이슬비 |
| | 인터뷰 | 김경호 |
| | | 김홍희 |
| | | 양아치 |
| | | 원광연 |
| | | 홍철기 |
| | 한영 번역 | 바른 |
| | 영문 감수 | 앤디 세인트 루이스 |
| | 디자인 |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
| | 디자인 도움 | 마바사(신재호) |
| | 인쇄·제책 | (주)금강인쇄 |

# 참여자 목록 - 위원

**도시와 영상 1 ('96)**

| | | |
|---|---|---|
| 운영위원 | 강준혁 | 공간사랑 극장장 |
| | 김홍희 | 독립 큐레이터 |
| | 박현기 | 작가 |
| | 안상수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
| | 조덕현 |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

**도시와 영상 2 ('98)**

| | | |
|---|---|---|
| 추진위원회 위원장 | 성완경 | 인하대학교 환경미술학과 교수 |
| 추진위원 | 구본창 | 작가 |
| | 박현기 | 작가 |
| | 육근병 | 작가 |
| | 이원곤 | 작가 |
| | 최병상 | 작가 |
| | 홍순철 | 작가 |

**도시와 영상 3 ('99)**

| | | |
|---|---|---|
| 추진위원회 위원장 | 강태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추진위원 | 권순환 | 작가 |
| | 김원방 | 계간 『미술과 담론』 편집장 |
| | 김해민 | 작가 |
| | 신현중 | 작가 |
| | 염은경 | 작가 |
| | 오병권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
| | 정군태 | 미확인 |

**1회 비엔날레 ('00)**

| | | |
|---|---|---|
| 기획자문위원 | 강태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 김규칠 | 한국미래사회연구소 부소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보원장 |
| | 김문환 | 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정책개발원장,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상임위원 |
| | 김영섭 | 건축문화설계연구소 |
| | 김정현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 | 김형곤 | KIST 책임연구원 |
| | 김홍희 | 쌈지스페이스 관장, 미술평론가 |
| | 노소영 | 워커힐미술관장 |
| | 문애란 | (주)Welcomm 부사장 |
| | 문주 |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박명진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 | 박영기 | SBS Arttech 실장 |
| | 박영민 | CG Production 인디펜던스 대표 |
| | 박현기 | 작가 |
| | 성완경 | 인하대학교 환경미술학과 교수 |
| | 심광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 | 심철웅 | 아트디렉터 |
| | 안상수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
| | 안인기 | Hello art.com 관장 |
| | 원광연 | KAIST 전산학과 교수 |
| | 유동렬 | 맥커드 대표이사 |
| | 유택상 | 산업자원부 산업디자인기반기술개발 책임연구원 |
| | 유흥영 | 한국마임협회장, 극단 사다리 대표 |
| | 윤명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방재공학센터 소장 |
| | 이경희 | 삼성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 이구형 | 대한 인간공학회 이사 |
| | 이귀윤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명지초등학교장 |
| | 이돈응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 이영범 | 이영범 건축설계 디자인 연구소 대표 |
| | 이영준 | 前 『월간미술』 기자, 도서출판 눈빛 편집위원 |
| | 이원곤 | 경주대학교 교수, 한국영상학회장 |
| | 이원복 | 만화가, 애니메이션학회장 |
| | 이진광 | 디지틀조선일보 상무 |
| | 장동훈 | 대전엑스포 영상관 영상제작 총감독 |
| | 정순기 | 경북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
| | 정준모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 | 정헌이 |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
| | 제임스 리 |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수 |
| | 조혜정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자문위원장 |
| | 차미례 | 前 『문화일보』 부장, 문화평론가 |

| | | |
|---|---|---|
| | 최민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
| | 최은경 | 작가 |
| | 한상기 | (주)벤처포트 대표이사 |
| | 홍성민 |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조형과 교수 |
|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 강홍빈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 | 이용태 |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
| 조직위원 | 김문환 | 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정책개발원장,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상임위원 |
| | 배경률 | 정보화 기획 단장 |
| | 유수열 | MBC 프로덕션 사장 |
| | 유준상 | 서울시립미술관장 |
| | 유준상 |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장 |
| | 이만재 | 아주대학교 교수 |
| | 이영순 | 미확인 |
| | 이종선 | 미확인 |
| | 임재오 |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
| | 정귀래 |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 |
| | 조경목 | 제5대 과학기술처 차관, 제12대, 제13대 국회의원 |
| | 최덕인 | 한국과학기술원장 |
| | 최령 | 서울시 문화관광국장 |
| | 표재순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2회 비엔날레 ('02)**

| | | |
|---|---|---|
| 기획자문위원 | 댄 카메론 | 뉴욕 뉴 뮤지엄 수석 큐레이터 |
| | 데이비드 리마넬리 | 『아트포럼』 객원 편집기자 |
| | 로버트 로젠브럼 | 뉴욕 솔로몬구겐하임미술관 20세기 미술 큐레이터 |
| | 마그다 사원 | 포스트마스터스 갤러리 대표 |
| | 사라 다이아몬드 | 반프아트센터 미디어 프로그램 디렉터 |
| | 코디 최 | 작가, 뉴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 자문위원회 위원장 | 이종상 |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박물관장 |
|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윤진섭 | 미술평론가, 호남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 |
| 자문위원 | 김필연 | 필 디자인 대표, 서울시 홍보디자인 자문위원 |
| | 문주 |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백명진 | 서울대학교 영상디자인과 교수 |
| | 유재길 |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
| | 정지홍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

**3회 비엔날레 ('04)**

| | | |
|---|---|---|
| 기획위원회 위원장 | 김영용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
| 기획위원 | 김동구 |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사무국장 |
| | 김봉구 | 서울미술협회장 |
| | 김선정 |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
| | 노소영 | 아트센터나비 관장 |
| | 배윤호 | 공간연출가 |
| | 원광연 | KAIST 전산학과 교수 |
| | 유민호 | 성신여자대학교 디지털정보매체학과 교수 |
| | 윤진섭 |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
| | 하종현 | 서울시립미술관장 |
| 조직위원회 위원장 | 김봉구 | 서울미술협회장 |
| 조직위원 | 김영용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
| | 김태호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노소영 | 아트센터나비 관장 |
| | 서정신 | 문화컨설팅 스프링 대표 |
| | 안창근 | (주)거산기획 회장 |
| | 원광연 | KAIST 전산학과 교수 |
| | 유민호 | 성신여자대학교 디지털정보매체학과 교수 |
| | 윤진섭 |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
| | 이봉재 | 서울산업대학교 인문학과 교수 |
| | 정정화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부교수 |
| | 하종현 | 서울시립미술관장 |

**4회 비엔날레 ('06)**

| | | |
|---|---|---|
|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윤진섭 |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
| 기획자문위원 | 김동구 | 제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사무국장 |
| | 김선정 | 베니스비엔날레 2005 한국관 커미셔너 |
| | 서승택 | 아트센터나비 학예실장 |
| | 서진석 | 대안공간루프 디렉터 |
| | 원광연 | KAIST 전산학과 교수 |
| | 유민호 | 성신여자대학교 디지털정보매체학과 교수 |
| | 유진상 |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시간예술학과 교수 |
| | 이원일 | 독립 큐레이터, 제2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
| | 이훈송 | 빗트폼 서울 갤러리 실장 |
| 조직위원 | 김동구 | 제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사무국장 |
| | 김선정 | 베니스비엔날레 2005 한국관 커미셔너 |
| | 김태호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한국미술협회원 |
| | 노소영 | 아트센터나비 관장 |
| | 안창근 | (주)거산기획 회장 |
| | 오광수 | 前 국립현대미술관장 |
| | 윤진섭 |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
| | 이승진 | 문화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 | 이용 | 경향신문 문화전문위원 |
| | 이원일 | 독립 큐레이터, 제2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
| | 이정선 |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

| | | |
|---|---|---|
| | 하종현 | 서울시립미술관장 |
| 평가위원 | 유민호 | 성신여자대학교 디지털정보매체학과 교수 |
| | 유진상 |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시간예술학과 교수 |
| | 윤진섭 |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
| | 이건수 | 『월간미술』 편집장 |
| | 이원곤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5회 비엔날레 ('08)**

| | | |
|---|---|---|
| 자문위원회 위원장 | 김봉태 | 작가, 前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
| 자문위원 | 김배영 |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 |
| | 김현숙 | 미술사가, 미술평론가, 한국근대미술사학회 부회장 |
| | 원인종 |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
| | 유희영 | 서울시립미술관장 |
| | 윤진섭 | 호남대학교 교수, 前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
| | 이두식 | 작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한국미술협회장 |
| | 이용 | 경향신문 NI 연구소 위원 |
| | 조태병 | 작가,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교수 |
| | 채미현 | 작가, 前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
| 평가위원 | 김봉태 | 작가, 前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
| | 김진엽 |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
| | 이건수 | 『월간미술』 편집장 |
| | 이용 | 경향신문 NI 연구소 위원 |
| | 이원곤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 | 하선규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

**6회 비엔날레 ('10)**

| | | |
|---|---|---|
| 자문위원회 위원장 | 노경조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
|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강태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자문위원 | 김미진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
| | 심철웅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양창호 |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
| | 오병욱 |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조덕현 |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
| | 조은정 | 서울벤쳐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최승훈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
| 전시평가위원회 위원장 | 노경조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
| 전시평가위원 | 김진엽 |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
| | 왕인자 | 예술전문지 『컬쳐오션』 대표 |
| | 조은정 | 서울벤쳐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진휘연 | 성신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

**7회 비엔날레 ('12)**

| | | |
|---|---|---|
| 자문위원회 위원장 | 이나경 | 중앙대학교 교수 |
|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이원곤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 자문위원 | 문상모 | 문화체육관광위원 |
| | 문주 |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우순옥 | 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
| | 이건수 | 『월간미술』 편집장 |
| | 하선규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
| 전시행사 평가위원 | 강수미 |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 | 김상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 김연호 | 미디어극장 아이공 디렉터 |
| | 박만우 |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 | 박신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 | 박찬경 | 작가, 영화감독 |
| | 임근준 | 미술평론가 |

**8회 비엔날레 ('14)**

| | | |
|---|---|---|
| 예술감독 선정위원 | 강수미 |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 | 김종길 | 경기문화재단 기획총무팀 |
| | 김홍희 | 서울시립미술관장 |
| | 김희진 | 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
| | 서진석 | 대안공간루프 디렉터 |
| | 안규철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예술감독 추천위원 | 김선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 정보원 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 김성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
| | 박만우 |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 | 백지숙 | 아뜰리에 에르메스 디렉터 |
| | 이영준 |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
| 전시자문위원 | 김선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 정보원 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 데이비드 테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조교수 |
| | 안셀름 |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 시각예술분과 수석 |
| | 프랑케 | 큐레이터 |
| | 정도련 | 홍콩 M + 미술관 수석큐레이터 |
| | 클라라 킴 | 前 미네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 시각예술 시니어 큐레이터 |
| 전시평가위원 | 김노암 | 前 문화역서울 284 예술감독 |
| | 김윤경 | 아뜰리에 에르메스 디렉터 |
| | 김장언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2팀장 |
| | 김희진 | 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
| | 이영욱 | 전주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
| 편집자문위원 | 길예경 |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공원도서관 디렉터, 시각문화비평지 저널 『볼』 편집위원 |
| | 박소현 | 독립 연구자 |
| | 박소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

**9회 비엔날레 ('16)**

| | | |
|---|---|---|
| 예술감독 선정위원 | 김용익 | 작가 |
| | 김홍희 | 서울시립미술관장 |
| | 박찬경 | 작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
| | 이영욱 | 전주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
| | 홍승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
| 예술감독 추천위원 | 안규철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 | 이지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장 |
| | 정연심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
| | 최정화 | 작가 |
| | 홍성도 | 홍익대학교 조소과 교수 |
| 자문위원 | 주은지 |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 샤르자비엔날레 12 큐레이터 |
| |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 제6회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
| | 타렉 아부 엘 페루 | 영 아랍 씨어터 펀드 및 미팅 포인츠 페스티벌 디렉터 |
| 전시평가위원 | 박찬경 | 작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
| | 안미희 |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 |
| | 안소연 | 前 플라토미술관장 |
| 편집위원 | 게이코 세이 | 저자, 큐레이터, 미디어 활동가 |
| | 길예경 |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공원도서관 디렉터, 시각문화비평지 저널 『볼』 편집위원 |
| | 미겔 로페즈 | 코스타리카 Teor/etica 큐레이터 |
| | 장문정 | 조지아대학교 그래픽디자인 조교수. AGI 소사이어티 디렉터 |
| | 치무렝가 | 범아프리카 계간지 『크로닉』 전시 및 출판팀 |

**10회 비엔날레 ('18)**

| | | |
|---|---|---|
| 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 | 이영욱 | 전주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
| 외부자문위원 | 김정헌 | 작가, 前 한국문화예술위원장 |
| | 서진석 |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 | 안미희 |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장 |
| | 이기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큐레이터 |
| | 최소연 | 테이크아웃드로잉 디렉터 |
|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 전시평가위원 | 김종길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
| | 백원담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 | 안미희 |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장 |
| | 현시원 | 시청각 디렉터 |
| 콜렉티브 선정위원 | 김노암 | 아트스페이스 휴 디렉터, 미술비평가 |
| | 박미정 | 환기미술관장 |
| | 백기영 |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
| | 서진석 |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 | 최효준 | 서울시립미술관장 |

**11회 비엔날레 ('21)**

| | | |
|---|---|---|
| 예술감독 선정위원 | 김성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본부 예술감독 |
| | 김홍희 | 前 서울시립미술관장 |
| | 배형민 |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
| | 백지숙 | 서울시립미술관장 |
| | 안미희 | 경기도미술관장, 前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 부장 |
| 예술감독 추천위원 | 김선정 | 前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 | 김해주 | 前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
| | 박만우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 | 배명지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 | 양혜규 | 작가 |
| | 오인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 | 윤원화 | 시각문화연구자 |
| | 이대형 |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 |
| | 장승연 | 前 『아트인컬처』 편집장 |
| | 정도련 | 홍콩 M + 미술관 부관장 |
| | 클라라 킴 | 런던 테이트모던 국제부문 큐레이터 |
| 운영자문위원 | 박만우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 | 박찬경 | 작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
| | 배형민 |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
| | 안미희 | 경기도미술관장, 前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 부장 |
| | 유진상 |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예술감독 |
| 전시평가위원 | 심소미 | 독립 큐레이터 |
| | 안소연 | 아뜰리에 에르메스 아트디렉터 |
| | 홍보라 | 갤러리팩토리 디렉터 |

# 후원 및 협력

**총계**

| | |
|---|---|
| 후원 | 162 |
| 협력 | 25 |
| 협찬 | 42 |
| **총** | **148** |

**도시와 영상 1 ('96)**

| | |
|---|---|
| 후원 | 디지틀조선일보사 |

**도시와 영상 2 ('98)**

| | |
|---|---|
| 후원 | 디지틀조선일보사 |
| | 필립스 |

**도시와 영상 3 ('99)**

| | |
|---|---|
| 후원 | 디지틀조선일보사 |
| | 삼성 SyncMaster |
| | 인포넷월드 |
| | 필립스 |

**1회 비엔날레 ('00)**

| | |
|---|---|
| 후원 | 경인방송(舊 iTV 인천방송)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과학기술부) |
| | 김포공항세관 |
| | 디지틀조선일보사 |
| | 문화체육관광부(舊 문화관광부) |
| | 방송통신위원회(舊 정보통신부) |
| | 서울교통공사(舊 도시철도공사) |
| | 서울교통공사(舊 서울지하철공사) |
| | 서울시립미술관 |
| | 서울역사박물관(舊 서울시립박물관) |
| | 세종문화회관 |
| | 아리랑 국제방송 |
| | 주한독일문화원 |
| | 주한영국문화원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주한호주대사관 |
| | 한국관광공사 |
| | 한국철도공사(舊 철도청) |
| | 한국항공공사(舊 한국공항관리공단) |
| |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
| | Doobob |
| | KBS 한국방송공사 |
| | MBC 문화방송 |
| 협찬 | 네이버 |
| | 대한항공 |
| | 삼보컴퓨터 |
| | 삼성전자 |
| | 샤프전자 |
| | 한국 엡손 |
| | 홀리데이 인 서울 |
| | KT(舊 한국통신) |
| | LG 전자 |

**2회 비엔날레 ('02)**

| | |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舊 문화관광부) |
| | 방송통신위원회(舊 정보통신부) |
| | 산업통상자원부(舊 산업자원부)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스위스예술문화원(프로 헬베티아) |
| | 주한네덜란드대사관 |
| | 주한뉴질랜드대사관 |
| | 주한대만대표부 |
| | 주한독일대사관 |
| | 주한미국대사관 |
| | 주한미상공회의소 |
| | 주한벨기에대사관 |
| | 주한스웨덴대사관 |
| | 주한스위스대사관 |
| |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
| | 주한이탈리아대사관 |
| | 주한이탈리아문화원 |
| | 주한중국대사관 |
| | 주한캐나다대사관 |
| | 주한터키대사관 |
| | 주한폴란드대사관 |
| | 주한프랑스대사관 |
| | 주한호주대사관 |
| 협찬 | 서울플라자호텔 |
| | 제일화재 |
| | 주식회사 에넥스 |
| | 주식회사 엔텍 |
| | 주식회사 코스가이드 |
| | 호텔 프리지던트 |
| | Luck Technology Inc.(Slim Audio) |
| | UBS Group AG |

**3회 비엔날레 ('04)**

| | |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舊 문화관광부) |
| | 방송통신위원회(舊 정보통신부) |
| | 스위스예술문화원(프로 헬베티아) |
| | 아시아링크 |
| | 아트센터나비 |
| | 앤씨소프트 |
| | 에프엘 더 스타일 |
| | 익스페리멘타 아트 빅토리아 |
|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 | 주한독일대사관 |
| | 주한스위스대사관 |
| | 주한영국대사관 |
| | 주한영국문화원 |
| | 주한캐나다대사관 |
| | 주한프랑스대사관 |
| | 주한호주대사관 |
| | 호한재단 |
| |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
| | MFG |

**4회 비엔날레 ('06)**

| | |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舊 문화관광부) |
| | 방송통신위원회(舊 정보통신부) |
| | 웨스틴 조선 부산 |
| | 주한독일대사관 |
| | 주한스웨덴대사관 |
| | 주한스위스대사관 |
| |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
| | 주한영국문화원 |
|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
| | 주한이탈리아문화원 |
|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 | 주한중국문화원 |
| | 주한캐나다대사관 |
| | 주한프랑스대사관 |
| | 주한호주대사관 |
| | 한국정보통신대 디지털미디어연구소 |

**5회 비엔날레 ('08)**

| | |
|---|---|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교육과학기술부) |
| | 네이버 |
| | 몬드리안재단 |
| | 문화체육관광부 |
| | 오스트리아 연방 교육문화예술부 |
| | 주한네덜란드대사관 |
| |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
| | 주한프랑스대사관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프랑스 엑스프레스 |
| | CJ 미디어 |
| | KT & G 상상마당 |

**6회 비엔날레 ('10)**

| | |
|---|---|
| 후원 | 몬드리안재단 |
| | 브리티시 컬럼비아 예술위원회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 | 주한영국문화원 |
| | 주한프랑스대사관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한국관광공사 |
| 협찬 | 경방 타임스퀘어 |
| | 매일유업 |
| | 삼성전자 |
| | 하이트맥주 |
| | 한국 엡손 |
| | SK 텔레콤 |
| 협력 | 사무소 |
| | 서울역사박물관 |
| | 이화여자고등학교 |
| | 인투모스 |
| | 한국경제신문 |
| | 한국외국어대학교 |
| | MBC 문화방송 |

**7회 비엔날레 ('12)**

| | |
|---|---|
| 후원 | 몬드리안재단 |
|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 | 주한독일문화원 |
| | 주한스페인대사관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한국관광공사 |
| 협찬 | 국제갤러리 |
| | 두성종이 |
| | 삼원음향 |
| | 스트로우 |
| | 파나소닉코리아 |
| 협력 | 2012 제로원 비엔날레 |
| | 금천예술공장 |
|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 | 디지털미디어시티 |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 | 서울스퀘어 |
| | 야마구치 미디어아트센터 |
| | 주한독일문화원 |
| | 한빛미디어갤러리 |
| | CJ E & M |
| | LG C & S |
| | SBS 미디어넷 |

**8회 비엔날레 ('14)**

| | |
|---|---|
| 기업후원 | 하나금융그룹 |
| 후원 | 국제갤러리 |
| | 김수남기념사업회 |
| | 네이버 |
| | 스웨덴예술지원금위원회 |
| | 주한 서호주정부대표부 |
| | 주한독일문화원 |
| | 주한영국문화원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CJ E & M |
| 협찬 | 삼성전자 |
| | 효성 |
| 협력 | 한국영상자료원 |

**9회 비엔날레 ('16)**

| | |
|---|---|
| 기업후원 | 하나금융그룹 |
| 후원 | 2016 미술주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몬드리안재단 |
| | 서울문화재단 |
|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 | 주한미국대사관 |
| | 주한브라질문화원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카디스트 |
| | 호한재단 |
| 협찬 | 국제갤러리 |
| | 버니니 스파클링 와인 |
| | 신라스테이 |
| | 에르메스 코리아 |
| | 에이앤더블유 |
| | 현대자동차 |
| | LG 전자 |

**10회 비엔날레 ('18)**

| | |
|---|---|
| 기업후원 | 하나금융그룹 |
| 후원 | 네덜란드창조산업기금 |
| | 도서출판 학고재 |
| | 마이아트가이드 |
| | 주한네덜란드대사관 |
| | 주한뉴질랜드대사관 |
| | 주한독일문화원 |
| | 주한브라질대사관 |
| | 주한이탈리아문화원 |
|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 |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예술발전기금 |
| | SH에너지화학 |
| 협찬 | 두성종이 |
| | 신라스테이 |
| | 우피아 |
| | 이탈리아 관광청 |
| | 푹디자인 |
| 협력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
| | 서울은 미술관 |

**11회 비엔날레 ('21)**

| | |
|---|---|
| 기업후원 | 에르메스 코리아 |
| | 하나금융그룹 |
| 후원 | 독일국제교류처 |
| | 스위스예술문화원(프로 헬베티아) |
| | 일본문화청(아트 플랫폼 재팬) |
| | 주한영국문화원 |
| | 주한프랑스문화원 |
| | 캐나다예술위원회 |
| | 컬처 아일랜드 |
| | 토론토예술위원회 |
| | 프레임 |
| | 홍콩예술발전국 |
| | RC 재단 |
| 협력 | 2021 미술주간(예술경영지원센터) |
| | CJ 파워캐스트 |
| | TBS |

## 1988 -2023 연대기

| 연도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서울시립미술관 | 일상미디어와 사회·문화·경제 | 타 비엔날레와 문화예술제도 |
|---|---|---|---|---|---|
| 1988 | | | · 서울시립미술관 개관<br>(서울올림픽준비단<br>문화담당관실 소관) | · 1988 서울 올림픽 개최<br>· 천리안, PC통신<br>상용서비스 개시 | · 정보문화의 달(매년 6월) 제정 |
| 1989 | | | | · 여권법 시행령 개정,<br>해외여행 자유화 | |
| 1991 | | | | · 분당, 일산, 평촌 등<br>1기 신도시 건설 | |
| 1992 | | | | · 케텔, 하이텔로 변경 후<br>서비스 개시<br>·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br>'난 알아요' 데뷔 | ·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br>·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
| 1993 | | | | ·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 |
| 1994 | | | | · 정부부처 공공기관<br>홈페이지 시작<br>· 휴대폰 등장<br>· 나우누리 서비스 개시<b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출시 |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출범 |
| 1995 | 조순 제 30대 서울시장 | | · 서울600년기념관 개관<br>(서울정도600년 기념관 개보수) | · 삐삐 가입자 500만 명 돌파<br>· 케이블TV 시범방송<br>· MP3 대중화 시작<br>· 윈도우 95 출시<br>· 홍대앞 인터넷 카페<br>'넷스케이프' 등장<br>· 대한민국게임대전 개최 | · 문화체육부 지정 '미술의 해'<br>· 제1회 광주비엔날레《경계를 넘어》<br>- 조직위원장: 임영방<br>- 전시기획실장: 이용우<br>- 본전시 92작가/팀<br>- 관객 1,634,825명<br>·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설립<br>· 전수천, 〈방황하는 혹성들<br>속의 토우〉 제46회<br>베니스비엔날레특별상 수상 |
| 1996 | | **제1회 도시와 영상《1988-2002》**<br>· 일시: 1996.10.7–10.20<br>· 공동 큐레이터: 김진하, 이섭,<br>이주헌, 박삼철<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br>(구 서울600년기념관),<br>시티 비전 도심전광판<br>5개 도시 14개 도심전광판,<br>8개 은행 정보TV<br>· 작가: 27명(시티비전 10명)<br>· 작품: 40점(시티비전 10점) | · 문화시설운영사업소(신설)의<br>미술관운영관으로 조직개편 | · 대학정원자율화<br>· 유니텔 2세대 PC통신<br>서비스 개시<br>· PC방 보급화<br>· DVD 플레이어 출시<br>· 국내최초 인터넷쇼핑몰<br>'인터파크' 시작<br>· 본격 이동통신시대 개막 | ·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br>· 대중음악 사전심의 제도 폐지 |
| 1997 | |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br>제정 및 시행규칙 공포<br>· 서울시 문화과<br>미술관운영계(팀)로 조직개편 | · 국제통화기금(IMF)<br>구제금융 요청<br>· PC통신 가입자 300만 명 돌파<br>· 디지털 휴대폰 등장<br>· 온라인 증권거래 시작<br>· 이동통신사 광고시장 인기 | · 제2회 광주비엔날레《지구의 여백》<br>- 조직위원장: 유준상<br>- 전시기획실장: 이영철<br>- 본전시 작가: 117명/팀<br>- 관객: 908,212명<br>· 도큐멘타 10<br>- 예술감독: 카트린 다비드<br>- 작가: 138명/팀<br>- 관객: 628.776명<br>· 강익중 작가 제47회<br>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

| 연도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서울시립미술관 | 일상미디어와 사회·문화·경제 | 타 비엔날레와 문화예술제도 |
|---|---|---|---|---|---|
| 1998 | 고건 제 31대 서울시장 | **제2회 도시와 영상 《의식주》**<br>· 일시: 1998.10.16–11.4<br>· 큐레이터: 이영철<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600년기념관)<br>· 작가: 3개국 55명/팀 (국내 52, 해외 3)<br>· 작품: 101점 | · 원로 화가 천경자 화백 작품 93점 기증 | · 일본대중문화개방<br>· 제7차 교육과정 실시<br>· 두루넷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시<br>· 윈도우 98 출시<br>· 구글 검색서비스 개시<br>· 스타크래프트 출시 | · 문화관광부(전 문화체육부) 지정 '사진 영상의 해'<br>·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개관<br>·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PICAF) 출범<br>– 작가: 188명/팀<br>· 1세대 대안공간 출현 |
| 1999 | | **제3회 도시와 영상 《세기의 빛》**<br>· 일시: 1999.10.15–11.3<br>· 큐레이터: 황성옥<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600년기념관)<br>· 작가: 2개국 33명/팀 (국내 32, 해외 1)<br>· 작품: 39점 | · 유준상 초대 서울시립미술관장 취임(1999.6.1)<br>· 서울특별시립미술관 4급사업소로 기구개편 | · 대한민국 이동전화 가입자 1천만명 돌파<br>· 하나로 통신 ADSL 서비스 개시<br>· 벅스뮤직, 냅스터(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개시<br>· 다음 서비스 개시<br>·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시<br>· 코믹월드 서울 개최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br>· 이불,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아마추어〉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
| 2000 | |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br>· 일시: 2000.9.2–11.15<br>· 예술감독: 송미숙<br>· 장소: 서울시립박물관 (구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42개 도심전광판, 서울 13개 지하철 역사,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고등학교), 서울600년기념관<br>· 작가: 19개국 94명/팀 참여(국내 52, 해외 69)<br>· 작품: 96점<br>· 관객: 221,096명 | | · 교통카드 지하철로 확대 및 개시<br>· 싸이월드, 소리바다 서비스 개시<br>· 사이버대학교 학생모집 시작<br>· USB 메모리 출시 | · 제3회 광주비엔날레 《인+간》<br>– 전시총감독: 오광수<br>– 본전시 작가: 90명/팀<br>– 관객: 614,231명<br>· 2000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波-함께하는 삶》<br>– 작가: 344명/팀<br>– 관객: 607,337명 |
| 2001 | | | · 가나아트 민중미술 컬렉션 200여 점 기증 | · 윈도우 XP 출시<br>· 애플 아이팟 출시<br>· 싸이월드 미니홈피 서비스 개시 | |
| 2002 | 이명박 제 32대 서울시장 |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br>· 일시: 2002.09.26–11.24<br>· 예술감독: 이원일<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br>· 작가: 24개국 79명/팀 (국내 37, 해외 42)<br>· 작품: 110점<br>· 관객: 117,748명 | · 서울시립미술관 3급 독립사무소 기구 개편<br>· 서소문본관 이전 개관 | · FIFA 한일월드컵 개최<br>· 네스팟(KT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br>· 야후코리아 만화서비스 개시<br>· DVD 보급화 | · 제4회 광주비엔날레 《멈춤》<br>– 예술감독: 성완경<br>– 주제전 작가: 326명/팀<br>– 관객: 556,623명<br>· 2002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문화에서 문화로》<br>– 예술감독: 김애령<br>– 작가: 227명/팀<br>– 관객: 1,701,935명<br>· 도큐멘타 11<br>– 예술감독: 오쿠이 엔위저<br>– 작가: 117명/팀<br>– 관객: 650.924명<br>·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첫 개최 |

| 연도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서울시립미술관 | 일상미디어와 사회·문화·경제 | 타 비엔날레와 문화예술제도 |
|---|---|---|---|---|---|
| 2003 | | | · 하종현 제2대 관장 취임(2003.1.1)<br>· 경희궁분관 개관(서울600년기념관 개보수)<br>·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공모제' 실시 | · 일본 NHK 드라마 《겨울연가》 방영<br>· 애플 아이튠즈 뮤직스토어 서비스 개시<br>· 포털 사이트 블로그 서비스 개시<br>· 다음 '만화 속 세상' 웹툰연재 시작 | |
| 2004 | | **미디어_시티 서울 2004**<br>**《디지털 호모 루덴스》**<br>· 일시: 2004.12.15–2005.2.20<br>· 예술감독: 윤진섭<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br>· 작가: 18개국 41명/팀 (국내 7, 해외 34)<br>· 작품: 42점<br>· 관객: 145,772명 |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개관 - 구(舊) 벨기에영사관 개보수 | · 영화 《실미도》 천만 관객 돌파<br>· 페이스북 서비스 개시<br>· 멜론 서비스 개시<br>· 소니 PSP 출시 | · 제5회 광주비엔날레 《먼지한톨 물한방울》<br>- 예술감독: 이용우<br>- 주제전 작가: 104명/팀<br>- 관객: 518,508명<br>· 2004 부산비엔날레《틈》<br>- 예술감독: 최태만<br>- 작가: 203명/팀<br>- 관객: 1,324,085명 |
| 2005 | | | · 원로 화가 남정 박노수 화백 작품 52점 기증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뉴타운 특별법) 제정<br>· 국내 PC 보급수 534만 명대 돌파<br>· 유튜브 서비스 개시<br>· 한국게임산업협회, G-STAR 개최 |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범 |
| 2006 | 오세훈 제 33대 서울시장 | **미디어_시티 서울 2006**<br>**《두 개의 현실》**<br>· 일시: 2006.10.18–12.10<br>· 예술감독: 이원일<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br>· 작가: 19개국 58명/팀<br>· 작품: 86점<br>· 작가: 141,978명 | ·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br>· 원로 화가 권영우 화백 작품 70점 기증<br>· 서울시립미술관 아치형 현관 '등록문화재'로 등록 | · 아프리카TV(1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개시<br>· 트위터 서비스 개시<br>· 닌텐도 체감형 게임기 Wii 출시 | · 제6회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br>- 예술감독: 김홍희<br>- 작가: 127명/팀<br>- 관객: 700,111명<br>· 2006 부산비엔날레《어디서나》<br>- 예술감독: 박만우<br>- 작가: 314명/팀<br>- 관객: 1,249,789명 |
| 2007 | | | · 유희영 제3대 관장 취임(2007.1.12)<br>·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선정패 전달 | · 애플 아이폰 출시<br>· 3G 시대(모바일 시청) 개막 | · 도큐멘타 12<br>- 예술감독: 로저 M. 뷔르겔<br>- 작가: 119명/팀<br>- 관객: 750.584명 |
| 2008 | | **미디어_시티 서울 2008**<br>**《전환과 확장》**<br>· 일시: 2008.9.12–11.5<br>· 예술감독: 박일호<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br>· 작가: 26개국 70명/팀<br>· 작품: 78점<br>· 관객: 147,160명 | · SeMA 신진미술 전시 지원 프로그램 시작<br>· 책임운영기관 지정 | · 세계금융위기<br>·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출시<br>· 유튜브 한글서비스 개시<br>· 글로벌 자동로밍 서비스 개시<br>·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시리즈 첫 개봉 | ·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기능 통합<br>· 제7회 광주비엔날레 《연례보고: 일년동안의 전시》<br>- 예술총감독: 오쿠이 엔위저<br>- 작가: 127명/팀<br>- 관객: 356,325명<br>· 2008 부산비엔날레《낭비》<br>- 예술감독: 김원방<br>- 작가: 189명/팀<br>- 관객: 896,815명 |
| 2009 | | | | · 인터넷 저작권 분쟁<br>· 언리미티드 에디션 첫 개최 | ·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

| 연도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서울시립미술관 | 일상미디어와 사회·문화·경제 | 타 비엔날레와 문화예술제도 |
|---|---|---|---|---|---|
| 2010 | 오세훈 제 34대 서울시장 | **미디어 시티 서울 2010**<br>**《트러스트》**<br>· 일시: 2010.09.07–11.12<br>· 예술감독: 김선정<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구 서울600년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중정,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br>· 작가: 17개국 42명/팀<br>· 작품: 69점<br>· 관객: 152,706명 | | · 인스타그램 서비스 개시<br>· 카카오톡 서비스 개시<br>· APP 개발 열풍 | · 제8회 광주비엔날레 《만인보》<br>– 예술감독: 마시밀리아노 지오니<br>– 작가: 134명/팀<br>– 관객: 356,325명<br>· 2010 부산비엔날레<br>《진화속의 삶》<br>– 예술감독: 아주마야 타카시<br>– 작가: 252명/팀<br>– 관객: 551,238명 |
| 2011 | 박원순 제 35대 서울시장 | | · 미술관 명칭 변경 | · 최고은 감독 생활고 사망<br>· 4G(LTE 서비스) 시대 개막<br>· 구글 아트프로젝트(현 아트 앤드 컬처) 서비스 개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br>· 예술인 복지법 제정 |
| 2012 | | **미디어시티 서울 2012**<br>**《너에게 주문을 건다》**<br>· 일시: 2012.9.11–11.4<br>· 예술감독: 유진상<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상암 DMC 홍보관<br>· 작가: 21개국 49명/팀 (국내 14, 해외 35)<br>· 작품: 57점<br>· 관객: 102,404명 | · 김홍희 제4대 관장 취임(2012.1.12) |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br>·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역대 최대 추천 | · 제9회 광주비엔날레<br>《라운드테이블》<br>– 공동예술감독: 김선정 외 5인<br>– 작가: 118명/팀<br>– 관객: 645,061명<br>· 2012 부산비엔날레<br>《배움의 정원》<br>– 예술감독: 로저 M. 뷔르겔<br>– 작가: 114명/팀<br>– 관객: 332,883명<br>·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제정<br>· 도큐멘타 13<br>– 예술감독: 캐롤린 크리스토브 바카르지예브<br>– 작가: 194명/팀<br>– 관객: 904.992명<b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 2013 | | |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개관 | · 소니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재생기 생산 종료<br>·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급 가속화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
| 2014 | 박원순 제 36대 서울시장 | **SeMA 비엔날레**<br>**미디어시티서울 2014**<br>**《귀신 간첩 할머니》**<br>· 일시: 2014.9.2–11.23<br>· 예술감독: 박찬경<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영상자료원<br>· 작가: 17개국 40명/팀 (국내 16, 해외 26)<br>· 작품: 114점<br>· 관객: 130,994명 | · 서울시립미술관 SeMA-하나 어워드 제정 | · 삼성전자 보급용 VR 기기 출시<br>· 애플워치 출시 | · 제10회 광주비엔날레<br>《터전을 불태우라》<br>– 예술감독: 제시카 모건<br>– 작가: 105명/팀<br>– 관객: 346,449명<br>· 2014 부산비엔날레<br>《세상 속에 거주하기》<br>– 예술감독: 올리비에 케플렝<br>– 작가: 121명/팀<br>– 관객: 240,356명 |
| 2015 | | | | | · 임흥순, 〈위로공단〉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br>· 미술계 신생공간 세대 출현<br>· 국립현대미술관 첫 외국인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취임<b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 연도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서울시립미술관 | 일상미디어와 사회·문화·경제 | 타 비엔날레와 문화예술제도 |
|---|---|---|---|---|---|
| 2016 | | **SeMA 비엔날레**<br>**미디어시티서울 2016**<br>**《네리리 키르르 하라라》**<br>· 일시: 2016.9.1–11.20<br>· 예술감독: 백지숙<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br>· 작가: 24개국 61명/팀<br>· 작품: 122점<br>· 관객: 175,884명 | · SeMA 창고 (서울혁신파크 5동) 개관<br>· 서울시립 경희궁분관 (구 서울600년기념관) 철거 | ·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 개시<br>· 포켓몬 고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출시<br>· AI 인간과의 바둑 게임에서 승리 | ·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br>– 예술감독: 마리아 린드<br>– 작가: 101명/팀<br>– 관객: 262,500명<br>· 2016 부산비엔날레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br>– 예술감독: 윤재갑<br>– 작가: 121명/팀<br>– 관객: 327,968명 |
| 2017 | | | · 최효준 제5대 관장 취임(2017.2.9)<br>· 백남준기념관 개관<br>· SeMA 벙커 개관<br>· 경희궁 미술관 철거 | ·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시작<br>· 틱톡 한국 서비스 개시 | · 도큐멘타 14<br>– 예술감독: 아담 심직<br>– 작가: 163명/팀<br>– 관객: 339.000명(아테네), 891.500명(카셀)<br>·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br>– 총감독: 배형민,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br>– 작품: 98점<br>– 관객: 450,000명 |
| 2018 | 박원순 제 37대 서울시장 | **제10회**<br>**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br>**《좋은 삶》**<br>· 일시: 2018.9.6–11.18<br>· 예술감독: 콜렉티브 김남수, 김장언, 임경용, 홍기빈<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로미디어캔버스<br>· 작가: 16개국 66명(팀)<br>· 작품: 95점<br>· 관객: 66,165명 | |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br>· 가상화폐 열풍<br>·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출시 | ·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br>– 큐레이터: 클라라 킴, 정연심 외 11명<br>– 작가: 165명/팀<br>– 관객: 320,057명<br>· 2018 부산비엔날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br>– 예술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외르그 하이저<br>– 작가: 66명/팀<br>– 관객: 307,662명<br>· 국내 비엔날레 총 15개, 아트페어 49개 집계<br>·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
| 2019 | | | · 백지숙 제6대 관장 취임(2019.3.20) | · COVID-19 첫 확진자 발생<br>· 유튜브 1인 미디어 열풍 | ·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br>– 총감독: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br>– 작품: 168점<br>– 관객: 680,000명 |
| 2020 | | | · 미술관 통합 명칭 변경 | · 세계보건기구(WHO) COVID-19 팬데믹 선언<br>·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가속화<br>· 영화 《기생충》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개 부분 수상<br>· 버추얼 인플루언서 등장<br>· BTS 빌보드차트 1위<br>· 언택트 컨텐츠 대거 등장<br>· n번방(디지털 성범죄) 사건 | · 2020 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br>– 예술감독: 야콥 파브리시우스<br>– 작가: 89명/팀<br>– 관객: 304,555명<br>·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 연도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서울시립미술관 | 일상미디어와 사회·문화·경제 | 타 비엔날레와 문화예술제도 |
|---|---|---|---|---|---|
| 2021 | 오세훈 제 38대 서울시장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br>**《하루하루 탈출한다》**<br>· 일시: 2021.9.8–2021.11.21<br>· 예술감독: 융마<br>·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유통망 97개 거점, 온라인<br>· 작가: 22개국 41명/팀<br>· 작품: 58점<br>· 관객: 852,742명 | · 권진규 컬렉션 141점 기증 | ·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br>· OTT 플랫폼 급부상 | · 제13회 광주비엔날레<br>《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br>– 공동 예술감독: 데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발라<br>– 작가: 69명/팀<br>– 관객: 85,000명<br>·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br>– 총감독: 도미니크 페로<br>– 작가: 190명/팀<br>– 작품: 186점<br>– 관객: 720,000명<br>· 이건희 컬렉션 23,000점 국가기증<br>· 아트 NFT(대체불가토큰) ERC721 표준안 시행 |
| 2022 | | **제12회**<br>**서울미디어시티프리비엔날레**<br>**《정거장》** | · 미술관 신규 통합 MI 도입<br>·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예정) | | · 2022 부산비엔날레<br>《물결 위 우리》<br>– 예술감독: 김해주<br>· 도큐멘타 15<br>– 예술감독: 컬렉티브 루앙 루파<br>·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프리즈 아트페어 공동개최<br>·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
| 2023 | | **제12회**<br>**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br>**개최(예정)** | ·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예정) | | · 제14회 광주비엔날레<br>《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br>– 예술감독: 이숙경 |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TEL 02.2124.8800 WEB WWW.SEMA.GO.KR

ISBN 979-11-88619-68-9 (95600)